

한·일 고대 목기유물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 · Japan Ancient Wooden Artifacts

2013. 5. 30^{Thu}

창원 컨벤션센터 6층 회의실



| 학술대회 일정 |

09:30~10:00	접 수	
10:00~10:20	개 회	
	개 회 사	강 순 형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소장)
제 1부 (10:20~12:10)		
	사 회	박 종 익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0:20~10:50	주 제 발 표	고대 한국의 목기 출토현황과 종류 정 수 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0:50~11:30	주 제 발 표	일본 고대의 목제 농구 · 공구 우오즈 토모가츠 / 魚津知克 (오테마에대학교 / 大手前大學校 史學研究所)
11:30~12:10	주 제 발 표	고대 일본의 목제 생활구 히가시무라 준코 / 東村純子 (후쿠이대학 / 福井大學 教育地域科學部)
12:10~13:10	점 심	
제 2부 (13:10~15:50)		
	사 회	박 종 익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3:10~13:40	사 례 발 표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생활구 목기의 검토 우 병 철 (영남문화재연구원)
13:40~14:10	사 례 발 표	창원 신방리 · 부산 고촌리 저습유적을 통해 본 삼국시대 목기 배 덕 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14:10~14:40	사 례 발 표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 · 공구에 대한 검토 민 경 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14:40~14:50	휴 식	
14:50~15:20	사 례 발 표	부여 쌍북리 현대들 · 북포유적 출토 목기에 대한 검토 이 의 지 (충청문화재연구원)
15:20~15:50	사 례 발 표	아산 갈매리유적 목기의 가공과 활용 오 원 철 (한국고고환경연구소)
15:50~16:00	휴 식	
16:00~17:30	총 합 토 론	좌 장 : 김 권 구
폐 회		

| 목 차 |

주제발표

고대 한국의 목기 출토 현황과 종류 009

정 수 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일본 고대의 목제농기구 · 공구 031

魚津知克 우오즈 토모카츠 (오테마에대학교)

고대 일본의 목제 생활용구 067

東村純子 히가시무라 준코 (후쿠이대학)

사례발표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생활구 목기의 검토 101

우 병 철 (영남문화재연구원)

昌原 新方里 · 釜山 古村里 低濕遺蹟을 통해 본 三國時代의 木器 119

배 덕 환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 · 공구에 대한 검토 135

민 경 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부여 쌍북리 현내들 · 북포유적 출토 목기에 대한 검토 153

이 의 지 (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 갈매리유적 출토 목기의 가공과 활용 173

오 원 철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종합토론

좌 장 : 김 권 구

주제 발표

한·일 고대 목기유물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 · Japan Ancient Wooden Artifacts

고대 한국의 목기 출토 현황과 종류

정수옥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일본 고대의 목제농기구 · 공구

魚津知克 우오즈 토모카츠 (오테마에대학교)

고대 일본의 목제 생활용구

東村純子 히가시무라 준코 (후쿠이대학)

고대 한국의 목기 출토 현황과 종류

정수옥 _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u>목 차</u>	I. 머리말
	II. 목기 출토 유적 조사현황 및 연구현황
	III. 목기의 종류
	IV. 맺음말-향후과제

I. 머리말

고대부터 인간은 나무를 통해서 수많은 자원을 얻고 이를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용하여 왔다. 일상용기부터 건축부재·연료 등과 같은 목기류, 잎과 꽃, 과실류 등은 식자재·약재·관상용, 수액은 음료·약재·접착재·도료(塗料)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따라서 고대 물질문화연구에 있어서 목기는 토기나 철기 등과 마찬가지로 생활이나 사회 복원에 있어서 광범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국내 고고 유적에서는 1975년에 발굴 조사된 안압지에서의 다양한 목기유물이 출토되어 주목받은 바 있지만 사실 목기 유물이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목기 유물의 그 특수성 때문에 잔존율이 낮아 대부분의 유적에서는 출토되지 않고, 주로 저습지 상태의 유적에서 많이 출토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목기는 다른 석기나 철기 등과 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출토되는 목기만으로 용도를 추정하기에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용도별 분류나 그 기능적인 면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보고된 목기자료의 축적을 바탕으로 한 민속자료나 철제, 청동제의 유사 형태 유물과 비교할 수밖에 없다.

이에 본 발표문에서는 그동안 국내에서 조사된 목기의 지역별 출토현황과 어떤 종류의 목기가 출토되었는지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맺음말에서는 향후 목기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논의해 보고자 한다.

Ⅱ. 목기 출토 유적 조사현황 및 연구현황

1. 목기 출토 유적 조사현황

한국에서 목기가 확인된 발굴조사는 1950년대에 조사 보고된 평안북도 고의리유적과 평안남도 태성리 유적이다. 하지만 모두 북한 지역에서 확인된 유적이고 남한에서는 1968년에 조사된 대구 달성토성유적과 1975년 경주 안압지유적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적에서 확인된 목기는 모두 양호한 상태로 남아 있는 유적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거쳐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목기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한편 1988년에 이루어진 창원 다호리 유적 조사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저습지 조사에 대한 준비를 갖추고 조사를 실시하지는 않았지만 보존처리 팀을 구성하고 조사를 진행하면서 배수작업 등을 함께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조현중 2001).

이후 창원 다호리, 광주 신창동, 무안 양장리, 경산 임당, 논산 마전리, 부여 능산리, 함안 성산산성 등에서도 저습지 유적이 발견되어 점점 학계의 주목을 받기에 이르렀다. 특히 광주 신창동에서는 최고(最古)의 현악기, 위타구(베틀 부속품), 수레부속구를 비롯하여 발화구, 문짝, 신발걸, 칼집, 부채자루, 의례용 목기 등의 다양한 목기들이 국내 최초로 발굴되었으며, 이 유적에서 출토된 목기들은 기종 분류와 고고학적 연구, 수중분석 등의 종합적인 보고 및 연구가 이루어져 하나의 기준을 마련하는 획기를 마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목기가 출토된 유적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서울경기권 7개소, 충청권 25개소, 전라권 18개소, 경상권 58개소의 유적에서 목기가 출토되었다. 시기적으로는 신석기시대~통일신라시대까지이며, 목기가 출토되었더라도 애매한 경우나 관재류, 탄화목 등만 출토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지역별 출토현황의 차이는 단순한 발굴건수의 차이로 생각된다. 시기적으로는 삼국시대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청동기시대와 통일신라시대 유적에서 출토된 사례가 많았다. 또한 목기는 저수시설, 수구, 수혈 등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그 외에 분묘유적에서도 많이 출토되었다.

표 1. 고대 목기유물 출토현황 (※ 신석기~통일신라까지의 유적 현황임, 출토사례 중 애매한 유물의 경우 제외함)

지역	유적명	출토유물	시대	출토위치	
서울 경기권	서울 석촌동	철기, 목관, 목제 노(櫓)	백제	분묘	
	서울 몽촌토성	목재편, 철기원형목관(뚜껑추정)	삼국	연못	
	서울 풍납토성	목제우물, 두레박, Y자형 목기, 목부재, 두레박 연결용 목기	백제	우물	
	여주 연양리	토기완 내부 칠	통일신라	5호 유구	
	하남 이성산성	목제품, 목제자루, 목제인물상, 목제조각품, 팽이, 목제방망이, 목제품, 철부(목제자루), 유공부, 쇠스랑	통일신라	저수지	
					철부, 유공부, 철제송곳, 목제빗, 목제팽이, 목창, 목제인면조각품, 목제가래, 목제방망이, 목제문빗장, 목제자루, 목제품
					목제품
					목제자, 목제빗, 목제품, 목제자루
	오산 가수동	말뚝, 부뚜막부재, 목제용기, 목제족, 결합부재, 낫자루(?), 췌기형목제품, 자루, 구유형목기, 비경이, 용기뚜껑, 접시, 국자, 바퀴테, 목주열, 우물부재, 대롱형목제품, 철기완, 바가지, 발화목, 목기박편	신라후기	수혈주거지, 자연수로, 저수시설, 우물	
					용인 영덕지구
강원권	횡성 둔내	숯판자(물레추정-중앙에 원공이 있는 타원형판재)	초기철기	주거지	
	강릉 강문동	목제 방추차	초기철기	주거지	
		췌기, 주걱, 절구공이, 말뚝, 목제검, 활, 목제용기, 목제팽이, 자루공이, 신형목제품, 목제칼, 송곳, 나무막대, 방망이, 목제자루, 락베	초기철기	저습지	
	강릉 교동	구연부 몸통편	청동기	주거지	
	원주 법천리	철검(목질혼), 도자(목질혼), 관정(목질혼), 췌석(목질혼), 고리형철기(목질혼), 킷형철기, 이베	백제	분묘	
춘천 천전리	화살대	청동기	주거지		
충청권	대전 월평동	목책, 목곽고, 판재, 목재편, 췌기, 기둥각재마구리토막, 각재말뚝다발, 목기, 말안장부속구, 사다리, 도구자루, 각재말뚝	백제	목곽고	
	보은 삼년산성	나무망치, 결합부재	삼국	수구지	
	충주 충주산성	나무망치, 절구공이모양목제품, 목제품	삼국~통일신라	저수지	
	부여 관북리	목곽곳간, 목곽수조, 자루형목제품, 목제품, 목간형목제품, 목제인형다리, 대나무자, 목제빗, 목제팽이, 말뚝, 목제뚜껑, 판재부, 배형목제품, 목기	백제	연못	
		목주, 판형목제품, 기둥, 목부재, 말뚝, 받침목			축대시설
	부여 공남지	나무새, 수레바퀴	백제	수로	
		저수조목재, 칠기편, 비경이, 기타목제품			수로
		췌기, 말뚝, 칠기뚜껑, 자루형목제품, 견축부재, 칠기용기, 주걱형목제품, 판재형, 각재형, 가구부재, 방망이형목제품, 방직구부품, 빗, 납근목제품, 가래, 자귀, 가로망치, 침봉형목제품, 용도미상목제품			수로
	자루형목제품, 결합목제품, 목간형목제품, 기타목제품, 도자(목제손잡이), 철검(목질혼)	우물지			
	부여 나성	담가형목제품, 목제삽	백제	수로	
목교시설, 말뚝, 릿형목제, 삼, 목주, 수저, 짓가락형목기, 설주, 목제방추차, 가래, 수레바퀴, 원통형목통, 용기류, 기타목기류		삼국	건물지, 우물		
목제 대부분		백제	지표수습		
부여 구아리	목기류, 목재편	백제	우물지		
부여 능산리	심주, 나무판자, 목제부재, 목책편, 톱모양목제품, 목제품, 목교	백제	목탑지, 공방지, 건물지, 배수로		
	눈금새긴목제품, 수저편, 지계말채, 빗, 목제접시, 짓가락, 새모양목제품, 함지형목제품, 나막신, 수레바퀴				
부여 쌍북리	목척	백제	수로		
	도칠상자, 목간형목기, 도칠반형목기, 도칠배, 이형목기, 배모양목기, 손가락, 목제부재, 칠기완, 칠기용기, 목제용기, 열레, 칠기부속구, 목기, 목제집, 빗, 도칠잔, 고무레, 목제병, 제철축				
말뚝, 칠기, 수레바퀴(추정), 목제품	석렬유구, 동시도로				
부여 쌍북리	목주, 말뚝, 원형칠기목제품, 용도미상목기, 칠기완, 고판, 빗, 칠기편	백제	부석유구, 수로, 문화층		
	목책열, 목제발, 추정목제비너, 목제신발, 칠기잔			문화층	

지역	유적명	출토유물	시대	출토위치
충청권	부여 송국리	석검병부	청동기	집터
	부여 논지	도자(목질혼), 주조쟁이(목질혼), 목제빗	삼국	제사유적
	부여 왕흥사지	수피가공품	삼국	가마회구부
	부여 구봉리	목재편	청동기~삼국	구상유구
	부여 가담리	칠기 목제박	백제	우물
		목주, 목제수저, 칠기완, 빗, 건축부재, 말뚝, 가로망치, 추정신발부속품 판재, 용도불명 목제품, 목제 대부완, 목제 안교, 목제 완, 판상형 목제, 나무망치, 목주	백제, 원삼국	수혈유구, 수로, 배수로, 퇴적층
	부여 동남리	목책, 목제	백제	배수로, 저수지
	공주 무령왕릉	판재, 두침, 족좌, 목제봉형두	삼국	분묘
	공주 공산성	목제술가락, 목재편	백제~조선	문화층
		나막신	백제~조선	집수지
	보령 관창리	말목열구조물	청동기~원삼국	수전
	논산 마전리	목제도끼자루, 고무래미제품, 불명목기, 목제, 조형목제품	청동기	저수장, 저복장, 시설유구, 우물
	오강리 저습지유적	공이, 방망이, 용도불명 목제품, 따비, 용기형 목기	원삼국	자연하천
	금산 백령산성	목곽부재, 철부(자루달린), 목서목판, 목제잔, 미상목기, 팽이형목기, 노형목기, T자형목기, 반원형목기, 방형목기, 목제통	백제	목곽시설
	아산 갈매리	자귀자루, 목기뚜껑, 팽이, 낫자루, 목제품	원삼국~삼국	수로(I 지역)
목제구조물, 말목렬, 목재, 자귀자루, 망치, 절긋공이, 팽이, 방추차, 나막신, 도마, 반, 완, 말뚝, 건축부재, 췌기형목기, 판재		우물상유구, 수로		
청주 미평동	목제 열레빗, 판재, 참빗	원삼국, 조선	분묘	
당진 도성리	탄화된 목재, 목판	백제	주거지, 분묘	
전라권	광주 신창동	목함부도칠검초, 목검, 검형목제품, 반부, 도형목제품, 검파형목제품, 목제검파, 검파두식, 활, 파문원형칠기, 조두형목제품, 목제팽이, 쇠스랑형팽이, 팽이자루, 낫자루, 절구공이, 자귀자루, 도끼자루, 나무망치, 목제용기류, 목제뚜껑, 발화구, 발화막대, 신발굽, 부채자루, 췌기형, 문짝, 목주, 반월형목제품, 결합부재, 선형목제품, 곡병부팽이, 검형목제품, 도구형목제품, 도자형목제품, 송곳, 방망이, 나무갈고리, 국자, 주걱, 현악기, 찰음악기, 각목목제품, 바디, 실감개, 가락바퀴, 수레부속구, 용기류, 칠기류, 검교, 도자병부, 목축, 말뚝, 나무막대, 목제삽, 각배형목제품, 빗, 수피가공품, 판재, 용도불명목제품	초기칠기	저습지
		칠기목제품, 말뚝, 나무막대, 판재편, 나무방망이, 가공목		저습지
		팽팽이, 도끼자루, 낫자루, 자귀자루, 방망이, 통형칠기저판, 통형칠기통체부편, 절판편, 사각용기, 검조편, 받침목, 말뚝, 췌기, 결합부재, 판상목재, 부채살형목기		문화층
	광주 산월유적	조형목제품, 조각품, 찌르개조각, 사각주조각, 나무조각(칠)	구석기~조선	유기질찰흙층 (청동기추정)
	광주 월계동	목제망치, 장승형 분주목기, 이형목기, 목제 메공이	삼국	분묘
	광주 동림동	활, 고무래, 자귀자루, 용도미상목기, 목제, 췌기, 목조구조물, 적층목편, 말뚝	청동기, 삼국	저습지, 목조구조물
	광주 외촌	목열구조물, 우물, 목조구조물, 칠기, 자귀자루, 원형가공목제품, 목추형가공목제품, 빗, 배대평형목기, ㄱ자형목제품, T자형목제품, 결합부재, 판상형목제품, 막대, 췌기, 말뚝	삼국	곡간습지
	광주 노대동	팽이	청동기	구상유구
	광주 선암동	목주, 공이, 가공목기, 말뚝	삼국	구, 수로
	광주 평동	목조 우물	삼국	우물
	익산 미륵사지	칠기, 목제신, 목제머출통, 과류용기, 과류장식, 기타목제품	백제	석축
		목제, 문빋장둔테형목제품, 비녀장형목제, 소로, 횡목편, 살창문, 목제빗, 칠기잔탁, 바가지		연못, 배수로
	익산 왕궁리	목제고관, 방망이, 가공목부재, 목주	백제	대형화장실
	익산 모현동	목조구조물	삼국	집수정
	무안 양장리	목재편, 구유형목기, 말목류, 목도형목기, 낫자루, 목열구조물, 등병시설물, 가래, 절구공이, 미완성목제품, 팽이형목기, 목도형목기, 지계작대기형목기, 박자형목기, 판재목, 고무래, 문짝, 의자, 췌기형목기, 바가지형목기, Y자형목기, 건축부재, 가래날, 양공형목기, 다공형목기		주거지, 수로, 저습지
나주 복암리	관재, 칠기	3~5세기	분묘	
나주 복암리	태극문목제품, 원관형목제품, 목도형목제품, 반원형목제품, 목제뚜껑, 용기, 방망이, 구유형목제용기, 결구부재, 자귀형, 췌기형, 봉형, 톱니형, 말목형, 건축부재, 바가지, 'ㄱ'자형 목기	삼국~조선	수혈	
순천 김단산성	목제구조물, 목제삽, 목제 바가지, 물둥이형목제, 원관형목제, 용도미상 목제품	백제	우물	

지역	유적명	출토유물	시대	출토위치
	광양 마로산성	도수관, 절구통, 원판형목기류, 판재, 빗, 손잡이형목기, 바가지형목기, 방망이	백제~통일신라	석축집수정
	강진 호산	목재, 말목, 건축부재, 용도미상 목재	청동기~삼국	도랑
	구례 봉북리	말목렬, 노나 방향조절용 기(추정)	청동기~삼국	저습지
	보성 조성리	각재, 말목, 구유형용기, 미완성고배, 나무망치, Y자형목기	원삼국	보, 수변제사지
경상권	대구 시지동	목병, 빗, 두레박	삼국	우물
	대구 팔달동	김초	초기철기	분묘
	대구 동천동	말목, 건축부재	청동기	문화층
	대구 서변동	석부병, 원판형유공목기, 목주	청동기	배후습지
	대구 옥수동유적	두레박편	삼국	우물
		목도		
	대구 매천동	고무래, 도끼자루, 목주, 절구공이, 가공목	청동기	하도 내
	경주 금령총	백화수피관모, 빗, 밭(철), 합(철), 고배(철)	삼국	분묘
	경주 식리총	백화수피관모, 양이부배, 밭, 밭(철), 합(철), 고(철)	삼국	분묘
	경주 은령총	철기잔편	삼국	분묘
	경주 호우총	빗, 철기잔편, 백화수피, 목관곽 잔편	삼국	분묘
	경주 천마총	백화수피제관모, 유개표자형용기, 조형배, 압형배, 각배, 고배(철), 뚜껑(철), 잔(철), 찬합(철), 반(철), 원형목기(철), 목각낭형구, 원주형목각구, 시령용원목편, 백화수피제제화판	신라	분묘
	경주 황남대총	철기편, 철기방향찬합, 이배형철기, 원통형잔, 소형잔, 빗 철기소완, 철기합, 철기소합, 은제철기장식, 철기뚜껑은제장식,	5~6세기	분묘
	경주 안압지	철기찬합, 철기원저완, 건축부재류, 목선, 소도자(목병), 주사위, 목상, 납근, 빗, 샷대, 물마개, 방망이, 목각구, 목파, 기타목질편	통일신라	호안주변, 건물지
	경주 조양동	철기	삼국	분묘
	경주 월성해자	철기고배, 빗, 목기류	통일신라	흑색제층
		교각기초, 교대기초	통일신라	목교지
		목재, 목기편, 목제품, 빗, 말목, 납근목, 철기, 철자	통일신라	해자
	경주 월정교지	목조가구 부재, 연합, 건축부재	통일신라	목조유구, 석조 교각지
	경주황남동 376번지	빗, 목제품, 목재고드레, 목제구유, 목침, 원반형굴피기, 목제품, 목주	통일신라	수혈, 우물
	경주 사라리	철초동검, 철초철검, 소도류, 철검(목질), 철부(목질)	원삼국	분묘
	경주 나원리 오층석탑	목조소탑, 목탑편, 목제판(사리공덮개)	통일신라	탑지 사리공
	경주 박물관 미술관부지	두레박, 목제손잡이, 빗, 목제어망추, 목제뒤꽂이, 목제방추자, 용도미상, 목제자루, 목제대부완, 바가지편, 막대기편	통일신라	우물
	경주 북문로 왕경	두레박, 목제품, 손칼자루	통일신라	우물
	경주 서부동	두레박편, 목제품	통일신라	우물
	경주 탑동	철기완, 철기구연부편, 철기개	통일신라	배수로
	경주 황오동	목제두레박	신라~통일신라	
	경주 황룡사 연구센터	방망이, 목제품	통일신라	연못
	김천 송죽리	목제품	청동기	주거지 주거지
		탄화목기(쟁이)		
	문경 고모산성	배모양목기, 측량용목기, 여물통모양목기, 도르레	5세기~고려	목재구조물 지하식목재구조물, 저수시설, 목곽우물
		목곽구조물, 버섯모양목기, A자형목기, 배모양목기, 목제방망이, 손잡이달린원통형목기, 바가지형목기, 뽕모양목기, 미상목기, 결구용목재, 목곽우물		
경산 입당동	국자, 건축부재, 목제품, 자루, 사각용기, 빗, 기둥마감재, 印形목제품, 파배, 목기, 목주, 고배, 뚜껑, 바늘, 대부배, 방추차, 배, 빗, 가래, 대부완, 책상다리, 완, 쟁이, 원통형목기, 망치, 목병도자, 절매, 노, 절구공이, 질매, 안교	삼국	저습지	
성주 백전 예산리	불명철기, 철초동검, 부채자루, 철기두, 철기완, 원통형철기, 철초검, 반부, 축(철), 심부(유기물흔), 활(철)	원삼국	분묘	
밀양 교동	철제품	초기철기	분묘	
부산 노포동	문양철기편	원삼국	분묘	
부산 동래 고읍성지	목제두레박	통일신라	우물	
동래 복천동	환두대도(목질, 칠흔), 철검(목질흔)	삼국	분묘	

지역	유 적 명	출 토 유 물	시 대	출 토 위치	
경상권	부산 기장 고촌	목주, 안부속구, 두레박, 부병, 양, 용기미완성품, 목태흑적칠고배, 다공형목기, 절구, 쌍날따비, 팽이, 용기, 뚜껑, 고무래, 불명목기, 농공구병부, 방망이, 건축부재, 박, 바다, 칠기화살통, 걸이용 갈고리, 빗, 절구공이, 파수부 장방형용기, 목도	삼국, 통일신라	작업지, 공방지, 문화층, 우물	
	부산 기장 가동	목제품, 사각용기, 바가지, 방망이, 신발, A자형목제품, 손잡이달린목제품, ㄱ자형도끼자루(추정), 흑적고배편	삼국	저습지	
	김해 봉황동	Y자상 말뚝렬, 문짚(추정)		삼국	저습지
		불명목기, 판재, 바가지, 두레박, 노, 문비, 타날판, 목제판, 목제문, 썰기, 말뚝, 목봉, 목주, 빗, 자루, 우물부재		삼국	구, 제방, 저습지, 분묘, 노지, 우물
	김해 가야의 숲 유적	원통형칠기, 부채자루, 칠초칠검	초기철기	분묘	
	김해 관동	용기, 사각용기, 고배형용기, 장작받침대, 절구공이, 절구통, 나무망치, 방망이모양목기, 도끼자루, 문짚, 미완성목기, 공구자루, 판재형목기, 판재, 초판, 말뚝, 절구용목기, 각제형목기, 건축부재, ㄱ자형 목기, 교각, 사각형목기, 이형목기, 장방형목기, 목추, 나무비녀, 노	삼국	잔교	
	창원 다호리	칠기개, 칠기부채, 투조칠초, 칠초칠검, 목관, 원통형칠기, 이형칠기, 칠기화살통, 칠기고배, 칠기배, 칠제검과부검, 회문원통형합, 원통형칠산칠초동검, 봉상칠초, 목병부판상철부, 목병부망주상철부, 목병부철제공부, 목병부철제따비	원삼국	고분, 구상유구	
		목병부경형칠기, 칠궁, 궁시, 칠봉, 칠기원형두, 칠기방형두, 유개통형칠기, 원통형칠기저부, 칠기편, 목제함, 칠기뿔, 칠봉편, 흑칠칼갑편, 흑칠목심통형잔, 흑칠두, 흑칠대형완, 흑칠환, 칠기발, 칠기두, 칠기통형배			
		가공목제, 공부편(목제잔존), 철축(목질흔), 도자(목질흔) 목병부철추, 유개원통형칠기, 칠초칠검, 원통형칠기, 칠초동검, 칠기부채자루, 칠기원형두			
	창원 신방리	목주, 목제고배, 건축부재, 불명목기, 절구, 빗장둔데, 떡메, 목주열, 활, 자귀자루, 쌍날따비, 고무래, 팽이, 파수부장방형용기, 합지, 구유형용기, 목도, 격자타날판, 노, 'ㄱ'자형목제품, 이형용구, 작업대, 수라, 문, 각제, 가야금(추정), 팽이, 다면목제품, 봉형목제품, 판형목제품, 방형목제품, 보	삼한~삼국	저습지	
		목주, 'Y'자형목제, 활	삼국~통일기	트렌지, 저습지	
	울산 하대	칠검(목질흔), 작형철부(목질), 철부(자루), 빗, 다수의 칠기흔	원삼국	목곽묘	
	울산 상북	두레박, 목주, 목제	통일신라	우물, V 지구	
	울산 삼정리	두레박, 목제타래박	통일신라	우물	
	울주 교동리	목제팽이(탄화)	청동기	주거지	
	진주 월평유적	방망이	삼국	수혈	
	창녕 비봉리	배, 막대형목기, 말뚝형목기, 검형목기, 목제	신석기	저습지	
	창녕 송현동 고분군	목관(늑나무제), 각제, 흑칠능형문봉상칠기, 국자형칠기, 칠기뚜껑, 방망이형칠기, 검형목제품, 목제절판세트, 장방형판재, 대나무화살대, 부채병부, 도자병부, 소쿠리, 목심칠기안고, 목심안고, 철부(자루잔존), 도자병부, 좌목, 활, 반원형목기, 이형목기	삼국	분묘	
	창녕 화왕산성	목제방망이, 목제품, 절구, 목제인형, 목제사다리	통일신라	연지	
	함안 말이산고분	철제검목갈집편	삼국	분묘	
함안 성산산성	목기개, 부채자루, 짓가락형목기, 실메, 직조구, 감취, 붓, 이형목기, 고씨레, 곱방메, 낫자루, 따비부속구, 자귀, 도자, 송곳, 방망이, 칠기형목기, 사발, 완, 사각용기, 절판, 집시, 이배형목기, 칠기, 바가지, 삼형목기, 손가락형목기, 열레, 목제추, 고드렛돌, 눈금새긴목기, 빗, 제침축, 조두형목기, 농공구류부재, 가구부재, 건축부재, 톱니형목기, T자형목기, 원판형목기	삼국	동문지, 부엽층		
함안 도항리	원통형목제품, 집시형목제품	원삼국	분묘		
함안 소포리	우물결함부재	삼국	우물		
함천 옥전고분군	단봉문원두대도(목질), 소도(갈집), 이형유자이기(목질), 철모(목질), 도자(갈집흔), 철축(목시병흔), 안고(칠), 등자(목류)	삼국	분묘		
순흥 읍내리	칠기도자집	삼국	분묘		
양산 평산리	빗	원삼국	주거지		
거제 폐왕성 집수지	팽이, 방망이, 주형목기, 목도, 명에, 구유	삼국~고려	집수지		
안동 저전리	절구공이, 목제팽이(추정), 목병, 건축부재, 조형목제품, 말뚝편, 목제망치, 우물부재	청동기	저수시설, 우물		
포항 성곡리	두레박, 목제타날판, 목관, 판재편, 칠초동검, 칠기부채자루, 불명칠기, 칠기파수부채, 칠기두, 원통형칠기개, 검형칠기, 원통형칠기개, 원통형칠기, 칠기소호	원삼국~조선	우물, 토기가마, 분묘 1호		
	박바가지, 용도불명 목기, 목제틀	원삼국~조선	우물		

2. 목기연구 현황

초기의 목기유물에 대한 연구는 유적 자체에 대한 조사 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저습지유적을 발굴 조사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양호한 유물만을 소개하는 정도로 그쳤다.

이후 1990년대 들어서면서 창원 다호리유적이나 광주 신창동유적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한 목기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기 시작했다. 특히 고고학에서는 조현종에 의해 목기의 집성 및 분류가 진행되었는데, 그의 분류는 한국 목기연구의 기반을 형성하였다(조현종 1995·1997). 광주 신창동유적의 발굴조사 성과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서 목기 수종을 소개하고, 출토된 목기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기술하였다. 한편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붓에 관한 논고도 있다(이건무 1992). 목기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연구논문들은 아직은 학술적 연구가 적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이후에는 목기자료의 증가와 함께 고고학적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목기의 종류별 연구, 목기 전체에 대한 연구 등이다.

목기의 종류별 연구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 종류별 수량이 많지 않아서 발표된 논고들이 한정적이다. 농기구와 관련하여 검토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조현종 2000, 김도현 2005·2008). 조현종은 지금까지의 목기관련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농기구와 농경기술, 의례 등과 관련하여 검토하였다(조현종 2008). 김도현은 농업형태의 변천에 대해서 논하면서 목제농기구에 대해 분석하였다. 목제 농기구와 철제 농기구를 종합적으로 분류하여 기능과 그 존속시기를 검토하였다. 농기구 이외에도 조형목제품과 농경의례(조현종 2002)에 대한 논문, 목제 방망이에 대한 논고(김도현 2011), 목제 식기류를 시기별로 검토한 논고(정수옥 2010) 등이 있다.

개별 목기에 대한 연구 외에도 대표 유적을 대상으로 한 논고들이 있다. 아산 갈매리유적(김서정 2008), 부여 쌍북리유적(이의지 2010)에서 출토된 목기를 검토하여 발표된 바 있다. 또한 부여 송국리유적에서 출토된 건축부재를 검토한 논고도 발표되었는데(김민구 2002), 주거의 규모에 따라서 건축부재의 수종이 다르지 않았을까? 라는 가정하에 검토한 연구로 결론적으로는 다르지 않았지만 환경과 목재 이용에 관해서 초점을 둔 논고이다. 아산 갈매리유적에서 출토된 목기를 종합 정리한 논고(김서정 2008)의 경우 농경구보다는 건축부재나 결합부재가 많이 출토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일반 집락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 외 유적뿐만 아니라 시대나 지역으로 구분한 논고도 발표되었다.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관한 검토 논고(김권구 2008), 부여지역에서 백제시대 목기에 관한 검토(이의지 2010) 등이 있다. 김권구는 청동기시대 전기부터 후기에 걸쳐서 목기의 발달과정을 검토하였고 목기의 기본적인 체계는 청동기시대에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또한 목기의 형태와 양식에서 보이는 유사성을 통해서 한반도의 농경문화가 일본열도에도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 목기의 집성 및 분류 등에 대한 기초 작업도 이루어졌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2011·2012). 특히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Ⅳ』(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에서는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기를 체계적으로 분류·분석하였고, 수종 및 주변 수목환경을 함께 조사 분석을 하여 유적 전반의 환경까지 유추할 수 있는 종합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그동안의 연구 성과들을 바탕으로 학제간 종합연구가 가능할 수 있다는 향후 목기연구의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사례로 주목된다.

Ⅲ. 목기의 종류

국내에서 출토된 목기의 양상을 살펴보면 시기적으로 큰 형태적 변화 양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목기의 기본적인 체계는 청동기시대에 이미 형성되었으며(김권구 2008), 삼국시대에 들어서 그 종류가 다양화되고 지역적 혹은 유적별 특징에 따라서 고급화된 기종이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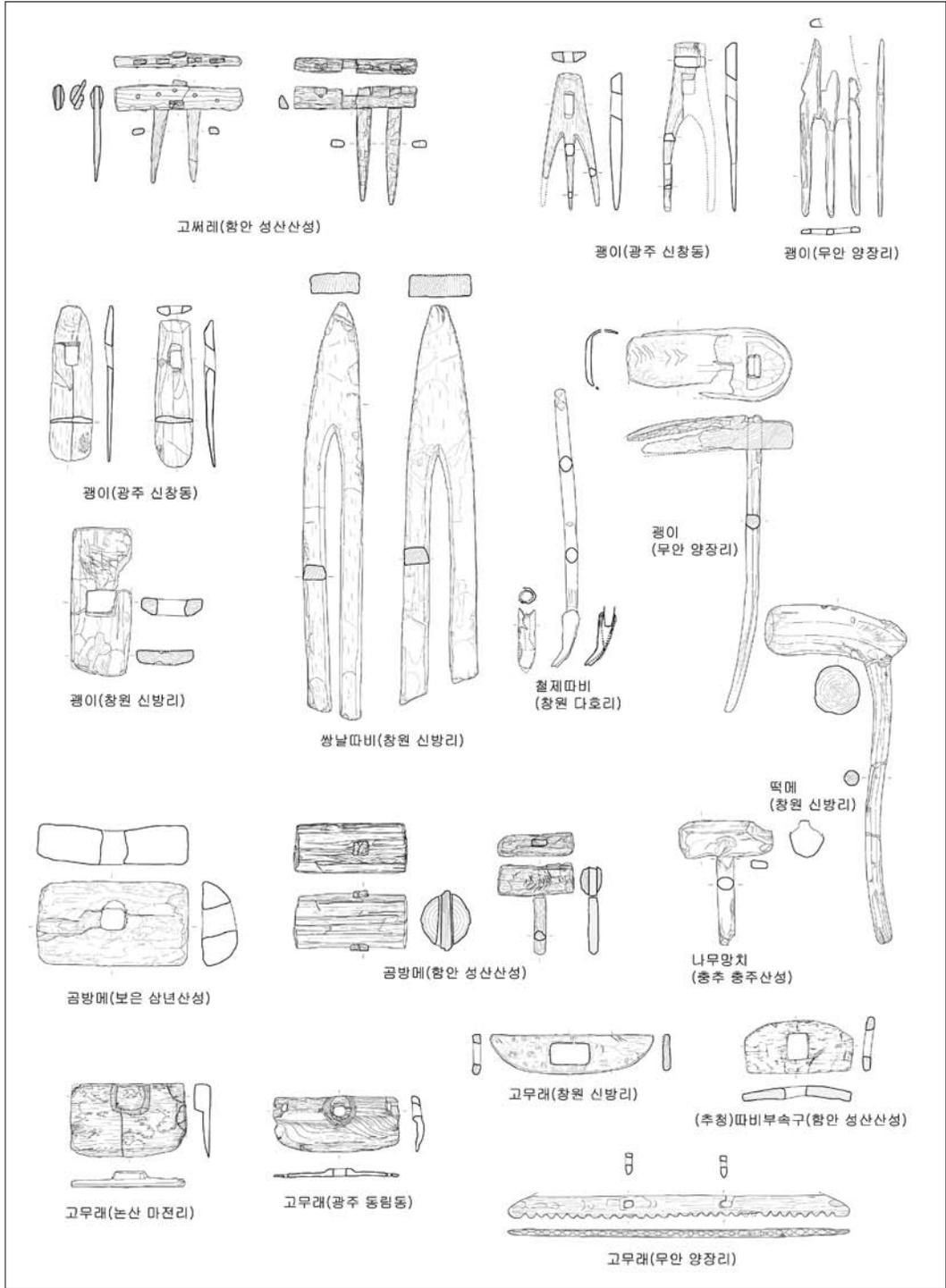
1. 농기구

농경과 관련된 경지확보, 기경, 수확, 곡물가공 등과 관련된 도구로 팽이, 따비, 쟁기, 고무래, 씨레, 낫, 삽날, 곱방베 등이 있다. 그 외에도 곡물가공도구로 절구공이가 있다. 주로 나무만으로 제작되거나 날부분은 석제, 목제, 철제 등을 장착하여 사용한다.

자루부분은 나무의 몸통부, 굽은 가지, 잔가지 등을 대부분 이용하여 많이 제작하였다. 몸통부를 여러 개로 쪼개서 제작하는 것 보다는 용도에 따라 굽기를 달리하여 수피부분만 제거하여 제작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출토현황을 살펴보면 팽이는 아산 갈매리, 광주 신창동, 창원 신방리, 무안 양장리에서, 고무래는 광주 동림동, 논산 마진리, 대구 매천동 등에서 출토되었다. 특히 광주 신창동에서는 다양한 팽이, 고무래 등의 농구류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그리고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고씨레가 4점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산간지역에서 밭농사를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씨레발이 4~5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몸통부만 남아 있고, 자루부분은 결실되었다. 모두 목재로만 제작하였으며, 각각의 부재들을 결구시켜 나무뿔으로 고정된 것이 특징적이다.

농기구는 다른 목기에 비해서 용어가 혼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향후 각각의 용도별 정리 및 분석을 통한 용어 정리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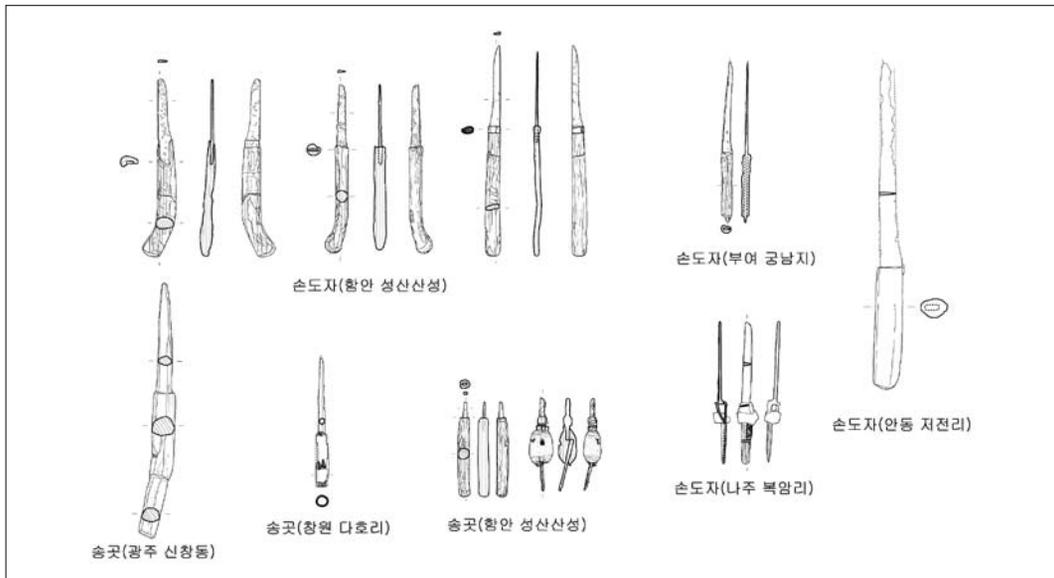
도면 1. 각종 농기구

2. 공구

공구는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부터 목기 등의 제작, 건축, 수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도구이며, 종류나 형태도 그만큼 다양한 편이다. 종류로는 도끼, 낫, 자귀, 삽, 방망이, 손도자, 송곳 등이 있으며, 특히 자귀류의 경우 크고 작은 목기를 제작하는데 많이 사용되는 도구로 크기별로 다양하게 출토되고 있다. 자루나 망치의 크기도 매우 다양한 편이다. 이것으로 보아 크기별로 용도를 달리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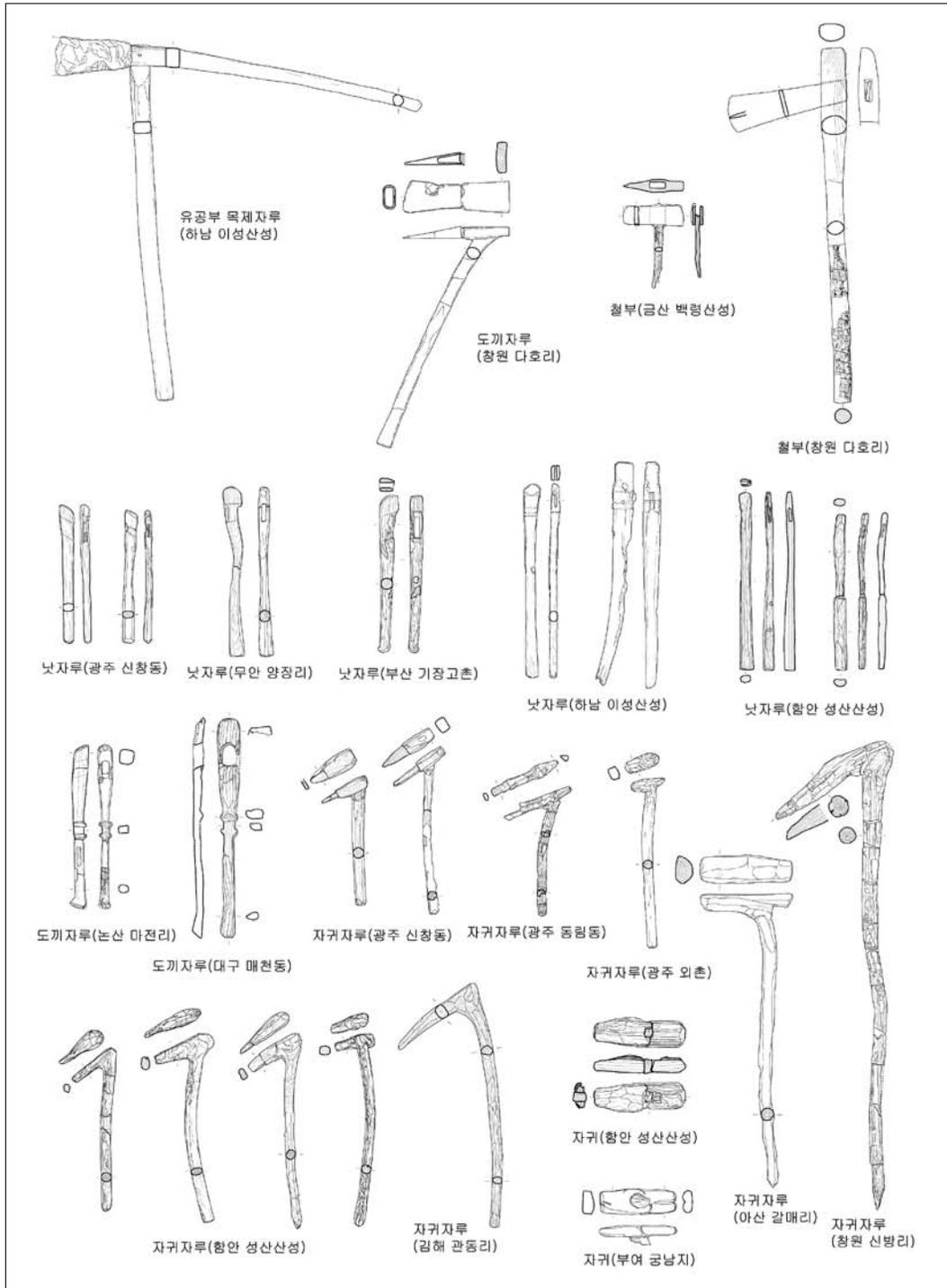
공구는 주로 목재로 된 자루부분에 철제, 석제 등의 날부분이 장착되는 형태이나, 장착된 채로 출토되는 사례는 적고 주로 자루 부분이 출토되고 있다. 도끼나 낫류는 자루부분에 구멍을 내어 장착하고 자귀류는 날을 끼우는 부분이 단을 이루도록 하여 장착하였다. 자귀자루의 경우에는 겹가지 부분¹⁾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도끼류나 자귀류의 장착방식은 공구류의 사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특히 자귀의 경우 목기제작에서 찍기, 깎기, 다듬기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어 사용의 유용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토 현황을 살펴보면 도끼자루는 논산 마전리, 광주 신창동, 대구 매천동, 순천 검단산성²⁾등에서 출토되었고, 자귀자루는 아산 갈매리, 광주 신창동, 무안 양장리, 부여 궁남지, 부여 왕궁리, 함안 성산산성 등에서 출토되었다. 그 밖에 망치류는 광주 신창동, 함안 성산산성, 부여 궁남지, 아산 갈매리, 기장 고촌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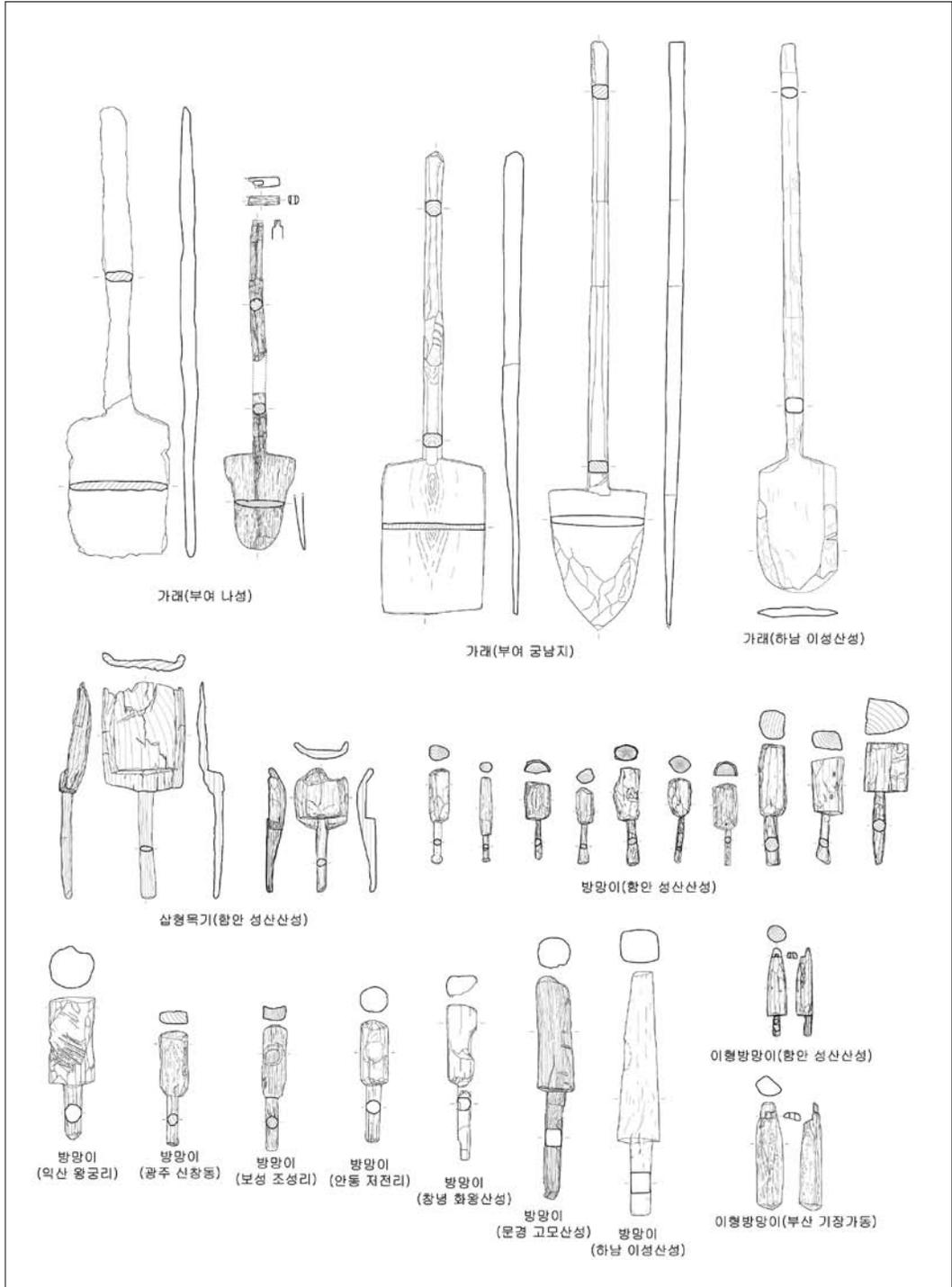


도면 2. 각종 공구

1) 나무의 원가지에서 돌아난 작은 가지 부분
2) 자루와 도끼날 부분이 장착된 채로 출토되었다.



도면 3. 각종 공구



도면 4. 각종 공구

3. 생활구

1) 식사구

식사구는 용기류를 포함한 숟가락, 젓가락, 국자, 주걱, 도마 등 식사나 조리 시 사용되는 도구들이다.

우선 용기류는 그 형태가 다양한 편인데, 고배, 배, 개, 수저, 사각용기, 완류, 편물용기류 등이 있다. 토기류와 병용하여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정수옥 2010). 제작방식은 대부분은 목기를 세웠을 때 목재의 길이 방향(나무가 자라는 방향)과 목기의 방향을 같게 하여 제작하였다.³⁾ 제작 도구는 자귀 등을 이용하여 속을 파낸 후 손도자로 마무리하거나 돌려깎기를 이용하여 마무리하였다. 돌려깎기의 경우에는 회전력을 이용하여 깎는 것으로 매우 숙련도가 높은 제작기법이다. 따라서 이 기법이 관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며, 고급화된 용기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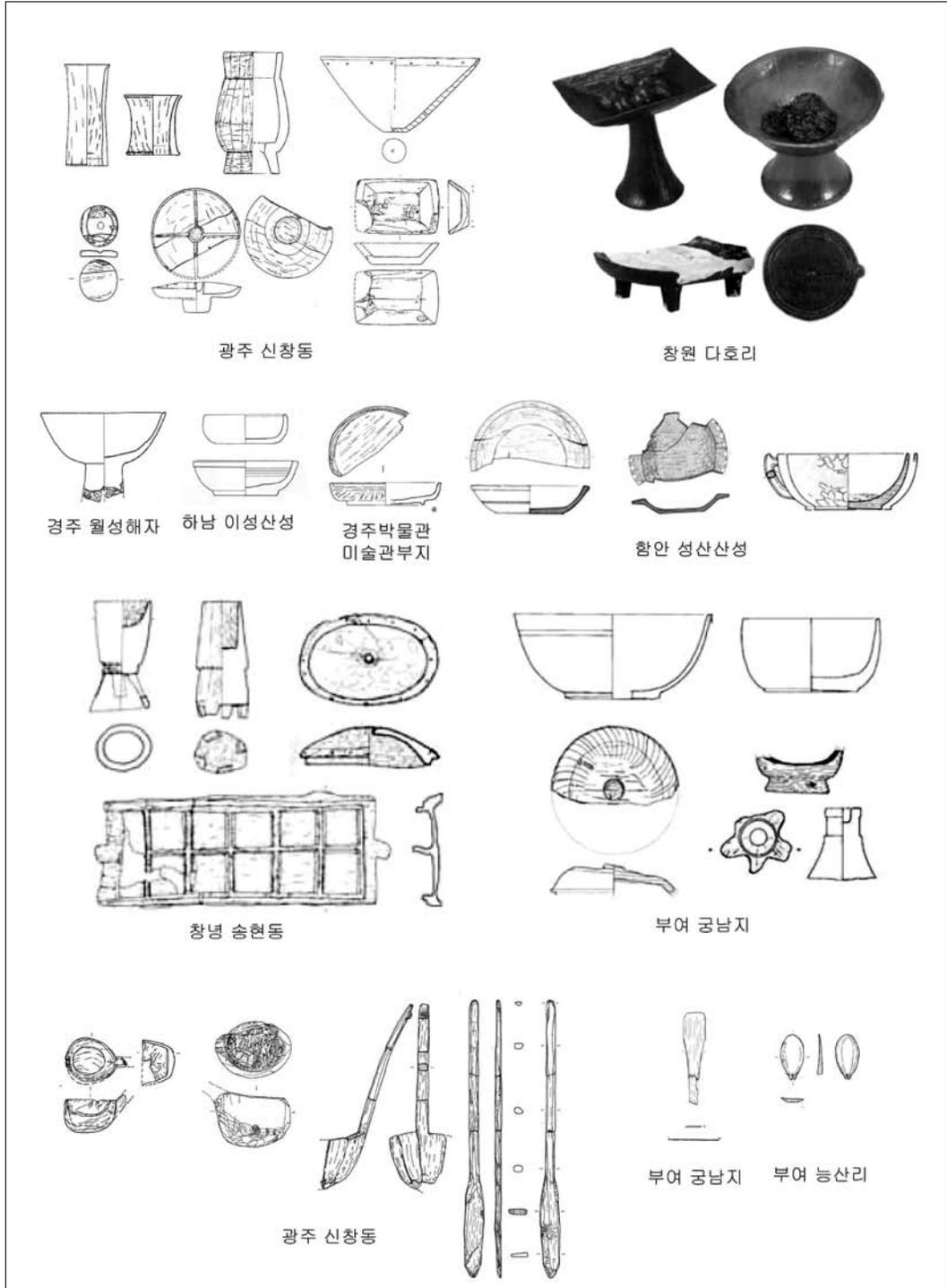
출토유적으로는 광주 신창동, 무안 양장리, 익산 왕궁리, 부여 능산리, 창원 다호리, 창녕 송현동, 경산 임당 등이 있다. 그 외에 국자형목기, 숟가락, 젓가락 등은 광주 신창동, 아산 갈매리, 부여 궁남지, 부여 능산리, 함안 성산산성 등의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그 밖에 편물 용기는 소재를 왕골이나 갈대 등을 이용하여 만든 것도 있다. 두레박은 현대의 것은 밑이 좁은 형태로 제작되었으나 고대 두레박은 밑을 좁지 않게 제작하고 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청동기시대의 것으로 대구 동천동과 논산 마전리에서 출토되었다. 하지만 우물 조사에 비해 목제 두레박이 출토되는 예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은 통일신라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2) 방직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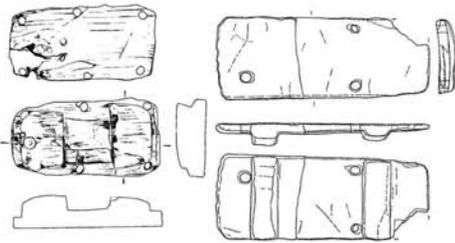
방직구는 방추차, 바디, 얼레, 직기류 등이 있다. 경주박물관 내 미술관부지, 강릉 강문동에서 출토된 목제방추차, 광주 신창동, 부여 궁남지, 함안 성산산성 등에서 출토된 얼레,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된 비경이 등이 있다. 광주 신창동에서는 베를 짤 때 위쪽에서 밑으로 당기는 도구인 위타구가 출토되었는데, 가장 이른 시기의 것이다. 천의 재료인 원사를 꼬아 만드는 방추차·실감개, 그리고 실물자료인 천조각과 함께 세트로 출토되어 직접 천을 생산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

3) 경산 임당유적에서 출토된 용기류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되는 길이 방향과 직교되는 가로방향으로 제작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길이 방향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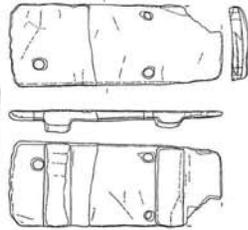


도면 5. 식사구

<복식구>



익산 미륵사지



아산 갈매리



김해 가야의 조성부지 3호분



창원 다호리 함안 성산산성



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경주 월성해자



김해 봉황대



하남 이성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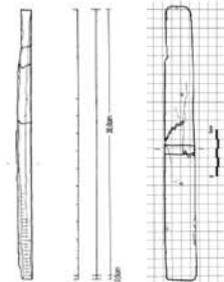


함안 성산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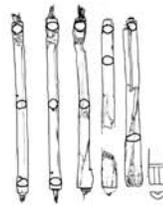
<문방구>



부여 쌍북리



하남 이성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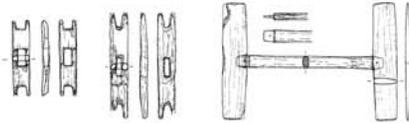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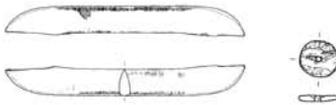


창원 다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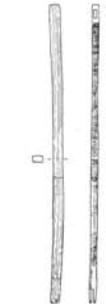


함안 성산산성

<방직구>



광주 신창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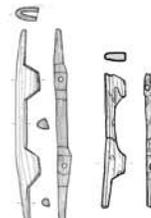
부여 궁남지



부여 궁남지



경주박물관 미술관부지



함안 성산산성

도면 6. 복식구 · 문방구 · 방직구

3) 문방구

눈금자, 붓, 필통, 문진 등이 있다. 눈금자는 하남 이성산성, 부여 쌍북리에서 출토된 바 있고, 붓은 창원 다호리, 함안 성산산성에서 확인되었다. 그 밖에 익산 미륵사지에서는 먹줄통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4) 복식구

신체를 치장하거나 신분적 위치를 나타내는 상징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빗, 신발, 우산, 부채 등이 있다. 김해 가야숲조성부지 3호분, 창녕 송현동, 광주 신창동, 창원 다호리에서 부채 및 부채자루가 출토되었고, 나막신이 아산 갈매리, 부여 능산리, 익산 미륵사지, 광주 신창동, 기장 가동 등에서 출토되었다. 한편 빗은 경주 안압지, 경주 월성해자, 경주박물관 내 미술관부지, 대구 시지동, 함안 성산산성, 익산 미륵사지, 부여 논치, 부여 능산리 등 여러 유적에서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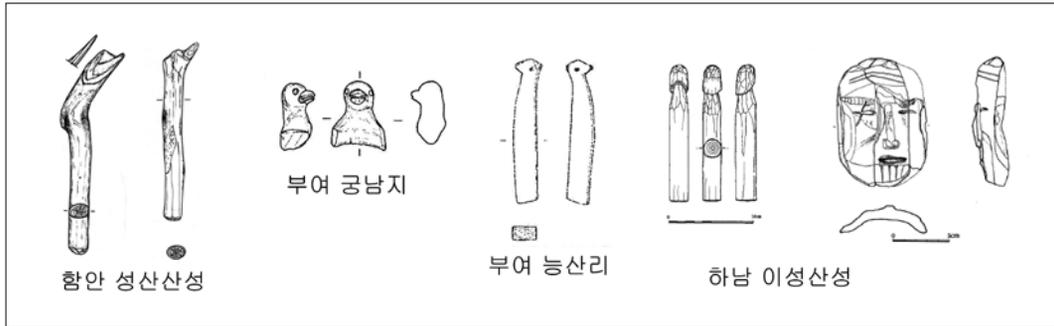
4. 제사구

제사구는 의례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목기로 분구장식, 사람모양, 새, 남근, 무기 등이 있다. 하지만 정확히 이러한 제사용 목제 유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 정확히 명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출토 현황을 통해서 추론할 뿐이다.

조형제품은 머리부분만 조형으로 제작하거나 몸통부까지 조형으로 제작한 사례 등 그 형태가 다양하다. 출토유적으로는 부여 능산리사지, 부여 궁남지, 논산 마전리, 하남 이성산성, 광주 신창동, 함안 성산산성 등에서 확인되었다. 또한 하남 이성산성 출토 인면목제품, 부여 궁남지 출토 남근 등도 출토된 바 있다.

특히 부여 궁남지 출토 새모양목제품은 수로 주변에서 출토되었는데, 수로를 관장하는 수신이나 하늘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천신에게 한 해의 풍성한 수확을 비는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논산 마전리 출토 새모양목제품은 목조우물에서 출토되었는데 항상 깨끗한 물이 솟기를 염원하는 우물의 정화제의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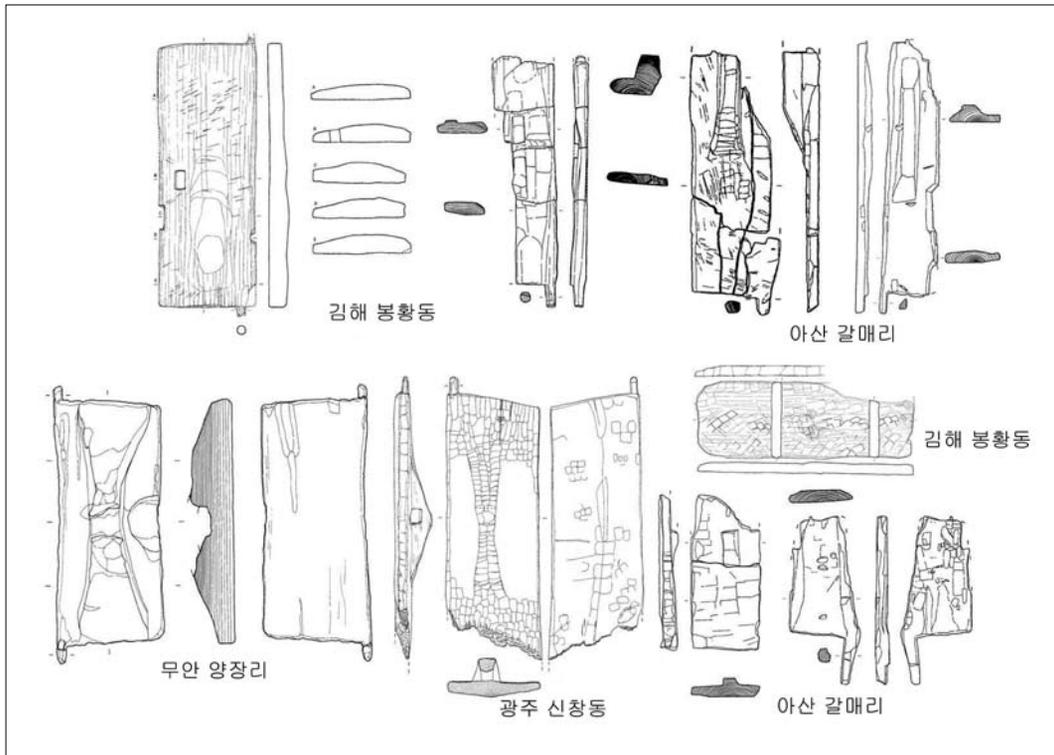
함안 성산산성에서는 새머리모양의 조두형목기가 다량으로 출토되었다. 이는 산성 내 불어나는 물이나 토사의 흐름으로부터 성벽의 붕괴를 보호하기 위해 조성된 부엽층에서 출토되고 있어 성산산성 역시 수변제사와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7. 제사구

5. 건축부재

건축부재 출토 사례는 많지만 완형으로 출토되거나 그 용도에 대한 명확한 연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향후 건축학과 연계된 자료 파악이 필요할 것이다. 종류는 문짝, 문고리, 기둥, 결합부재 등이 있다.



도면 8. 건축부재

6. 기타

운반구에는 담가와 지게, 수레, 배 등이 있다. 출토 유적을 살펴보면 우선 수레의 경우에는 바퀴통과 살, 그리고 말을 제어하기 위한 고삐걸이가 광주 신창동에서 출토되었다. 바퀴는 부여 궁남지, 오산 가수동 등에서도 출토되었다. 배는 창녕 비봉리, 경주 안압지 등에서 출토되었다.

목제로 된 악기류는 광주 신창동 출토 현악기와 찰음악기, 하남 이성산성 출토 요고 등이 있다. 광주 신창동 유적에서 출토된 현악기는 가장 오래된 현악기인 슬(瑟)이다. 이 현악기를 복원한 결과 10현(絃)이고, 각목에 새겨진 거치봉(鋸齒棒)을 마찰해서 소리를 내게 하는 타악기도 확인됐다. 마찰봉의 형태와 마찰의 속도에 따라, 혹은 각목의 깊이와 간격에 따라 다양한 소리를 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발화구, 타날판, 추, 도장, 용도미상의 목제품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는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더불어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도면 9. 운반구 · 악기 · 발화구 · 타날판 · 잡구

IV. 맺음말-향후과제

앞서 고대 한국에서 출토된 목기유물의 출토현황과 그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해보면 앞으로의 목기연구 방향도 제시할 수 있는데, 이점을 되짚어봄으로써 본 발표문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용어의 통일성 문제이다. 동일한 형태 혹은 용도로 추정되는 목기라도 보고서마다 그 용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보고된 경우가 많았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이는 보고자는 물론이고 이를 참조하는 연구자들에게도 매우 혼돈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농기구의 경우에는 용어가 잘못되면 그 유물의 기능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민속, 민족자료, 중국이나 일본자료 등을 참조하여 기능을 추정하고 그에 맞는 용어를 통일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다음은 목기에 대한 기초연구 부분이다. 앞서 목기의 종류를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자료의 증가에 따른 시기차, 지역차, 계통차이를 밝히는 연구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물론 그 출토되는 목기유물의 양이 많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목기를 통해 시기차나 지역차이는 물론이고 목기를 통해서 사회계층차이까지 연구한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다. 한국의 경우 앞으로 더 많은 목기자료가 축적되어야겠지만 자료에 대한 정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기 때문에(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2011·2012) 이를 바탕으로 한 기초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기의 개별연구와 목기생산에 대한 연구이다. 그동안 목기의 개별연구는 일부 유물을 소개하거나 특정 유물에 관한 연구 정도에 그쳤다고 할 수 있다. 각각의 유물에 대한 시기별 전개양상이나 계통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목기생산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미완성품과 완성품으로 분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지만 생산 공정을 복원하는 연구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부 아산 갈매리유적이나 대구 매천동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 절단된 목재류를 임시 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 저장 저수시설을 통해서 하나의 생산 공정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며, 인근 유적과의 관련성을 통한 유통관계, 미완성품을 통한 제작 공정 등을 복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한국에서 출토된 목기자료는 아직 그 출토량이 많지 않고 출토상태가 양호한 자료가 부족하여 앞서 지적한 향후 과제들을 진행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지속적인 자료 축적과, 다양한 분야의 학술적 공동연구 등을 활발하게 진행해 나간다면 목기연구의 학술적 연구 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김권구,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韓國考古學報』 67輯, 韓國考古學會.
- 김도현, 2005, 「고고자료에서 본 고대의 농업-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선사·고대의 생업경제』 제9회 복천박물관 학술발표회.
- 2008, 「선사·고대목제농구에 대한 단상」, 『부산고고학연구회』 부산고고학연구회.
- 김민구, 2002, 「부여송국리유적의 장방형주거지 출토 탄화목재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제55호, 韓國上古史學會.
- 김서정, 2010, 「갈매리유적 출토 목제품의 이용 양상」, 『한국상고학보』 제68집, 韓國上古史學會.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 목기』.
-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Ⅳ』.
- 2011, 『함안 성산산성의 목제유물과 활용』.
- 2012, 『한국 목기자료집Ⅰ-농기구 및 공구편』.
- 박호석·안승모, 2001, 『한국의 농기구』, 語文閣.
- 이건무, 1992, 「다호리출토 붓에 대해서」, 『고고학지』 4,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이지지, 2010, 「부여 쌍북리현내들·북포유적 출토 목기에 대한 검토」, 『백제의 목기』, 국립공주박물관.
- 정수옥, 2010, 「古代 木製 食器의 組成과 特徵에 대한 檢討」, 『한일공동연구논집2』, 국립문화재연구소.
- 조현중, 1995, 「한국 선사시대의 목공문화」, 『계간고고학』 제47호, 웅산각.
- 1997, 「목기연구집성」, 『무안 양장리유적 종합연구』, 목포대학교박물관.
- 2000, 「농공구의 변천과 생산량의 증대」, 『한국고대의 도자문화』, 순천대학교 남도문화연구.
- 2001, 「한국저습지고고학의 전망」, 『남도문화연구』 제7집.
- 2008, 『한국초기 도자문화연구』,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논문.

日本古代の木製農具・工具

魚津知克_大手前大学校

<u>目次</u>	1. 木製農具
	2. 木製工具

本発表では、日本の弥生時代から平安時代にかけての遺跡出土木製農具・工具を概観する。

1. 木製農具

主に農業で駆使される動作のための道具を、農具として定義する。

弥生時代から古代にかけては、人力耕起具である鍬と鋤、鍬での作業を補助する泥除、畜力耕起具である馬鍬と犁、主に水田管理具に使用された田下駄と大足、草刈もしくは収穫具である木鎌や鎌柄、主に収穫具と考えられる木製摘具や手鎌台、そして食糧等の加工作業具である臼と杵が存在する。

(1) 鍬

鍬は、直柄鍬と曲柄鍬に大別できる。ともに、先が扁平な平鍬と、先が分かれた又鍬が存在する。また、直柄鍬のみ木目が横方向に走る横鍬がある。

A. 直柄鍬

日本古代の直柄鍬の柄孔の多くは円形である。一方で、方形の柄孔は、北部九州が主要な分布域であるので「北部九州型直柄鍬」とも呼ばれる。地域的あるいは時期的な特徴をもって展開する一群である。

i 平鍬

円形柄孔をもつ直柄平鍬は、数多くの型式が存在する。『木器集成図録 近畿原始篇』(上原編1993)における区分に従い、身幅15cm未満を狭鍬、15cm以上を広鍬とする。

狭鍬 「諸手鍬」とも呼ばれる型式(図1-5)や身が細長い長方形を呈する型式(図1-8, 図2)、身の平面が縦長のおむすび状となる型式などがある。

円形柄孔直柄狭鍬は、弥生後期には類例がほとんどみられなくなる。方形柄孔直柄狭鍬(図3)が以後も存続するのと対照的である。

広鍬 円形柄孔直柄広鍬には、様々な型式がある。いくつかの地域的・時期的まとまりを抽出できる(図4)。例えば、山陰地方に多い身の平面形が正方形に近くなる一群や、近畿地方に多い両側が内湾する一群は、弥生時代前期から存在する。有肩の型式群(図4右上)は、弥生時代中期の近畿から東海にかけて出現し、一部は後期に匙形や杵形の形態に展開するようである。同じく弥生時代後期には、樋上昇が「北陸型」と呼ぶ上辺に突起を有する独特の形態をしたもの(図6)も北陸地方に出現する。方形柄孔直柄鍬も、富山県江上A遺跡など日本海側に分布域を広げており、古墳時代前期にいたるまで、多様な直柄鍬が相互に影響しあいつつ、農業の場で使われ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また、横鍬(図7)は九州北西部や山陰では前期に出現し、中期には東北にまで広がる。

大きく状況が変わるのが、古墳時代中期である。北部九州では、一般的であった方形柄孔直柄平鍬(図3)へのU字形刃先の装着が一般化していたが(図6右側:直柄風呂鍬)、中期後半から後期にかけて、急速に全国に拡散し定着する。また、古墳時代中期には、東海から関東地方にかけては、「東国諸手鍬」ともいふべき、特異な円形・方形柄孔直柄横鍬の一群(図8)が認められる。

ii 又鍬

様々な形態が存在する。近畿地方(上原編1993)をはじめ、いくつかの型式把握がなされているものの、全国的な変遷の理解は今後の課題である。図1-13~16は弥生時代の九州地方の類例、図9は弥生中期の大阪府鬼虎川遺跡の例、図10は弥生時代後期の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の例である。また、横鍬の中にも、鋸歯状を呈するもの(図11)がある。

B. 曲柄鍬

曲柄平鍬・曲柄又鍬とも、軸と身との接続部付近にある笠状突起の有無と、身の上方から中央付近にかけての肩の有無によって大別できる。樋上昇の研究(図12)によって、全国的な様相の理解が可能になっている。

i 笠状突起の無いもの

弥生時代中期の吉備地方に類例がある、軸にわずかな突起のある一群や、これとは別系統の弥生時代後期以降に展開する伊勢湾型(東海系)曲柄鍬と呼ばれる一群(図13)が代表的なものである。軸にわずかな突起のある一群は、後述する曲柄有笠鍬の祖形とされる(樋上2010)。後者の伊勢湾型曲柄鍬は、もともと身の上方肩を明確に有する曲柄無笠有肩鍬である。古墳時代初頭にはいると、これに加え中央付近の両側になで肩が形成されるもの(図14中央下3点)が、中部高地や関東地方に出現する。

ii 笠状突起の有るもの(ナスビ形曲柄鍬)

弥生時代中期の吉備から出雲にかけての一带で成立し、弥生後期には山陰から北陸の一带、そして北部九州や近畿地方で採用されていった。この時期の類例は、北部九州では身中央が張る無肩のもの(図15)が主流である一方、中国地方以東では身の幅がほぼ一定の無肩もしくは弱い有肩(図16)である。古墳時代に入ると、前者が近畿地方にも波及する。中期には、平鍬にU字形刃先が装着され、より東の地域にも展開する(図12右上2点)。古墳時代後期には、中央付近に肩を持つ形態(図17右下1点以外)にほぼ収束する。そして飛鳥時代において軸にほぞ孔を持つ類例(図18上)が出現した後、終焉を迎える。

(2) 鋤

鋤は、柄と身が一連に作られた一木鋤と、柄と身とを組み合わせる組み合わせ鋤が存在する。ともに、先が扁平な平鋤と、先が分かれた又鋤が存在する。また、横から見た時、柄と身が一直線の直伸鋤と、柄と身が緩く折れる屈折鋤が存在する。又鋤の類例が多くないのははっきりしないが、いずれも弥生時代前期、遅くとも中期前半には成立していたものと考えられる。

A. 一木鋤

一木直伸鋤(図19)は、形態を変えつつ古代まで存続する。一木屈折鋤は、身の3分の1から半分近くまで柄の延長が削りだされるなどして、身との接続部分が非常に頑丈に作られる型式の一群が古墳時代中期前半ごろに出現する。鉄製工具では渡来系統に属する鉄斧などが優勢となる時期であり、あるいはこのような製作工具の導入を示すのかもしれない。

B. 組み合わせ鋤

組み合わせ鋤は、柄と身が離れた場合、直伸鋤と屈折鋤との区別をつけにくい。柄の接続の

ための溝の形態から考えると、明らかに屈折鋤に用いられた一群や櫛の可能性が高いとも指摘されている身中央に双孔を有する一群が弥生中期後半を境にほぼ姿を消した後、柄の形態次第で直伸鋤にも屈折鋤にも利用できる一群(図20上)が少数ながら存続する。

C. 踏み鋤

佐賀県土生遺跡から、大変めずらしい踏み鋤(図21)が出土している。朝鮮半島のタビと類似する。

(3) 泥除(鋤補助板)

直柄鋤の付属具として用いられる。地域や時期によって多様な形態を示す(図22)。

『木器集成図録 近畿原始篇』で示された型式に一部追加し、陣笠形のもの(I式)、横長楕円形や方形を呈し中央上端両脇にも角孔を有するもの(II式)、蟻溝を刻んだ鋤身(図23)と結合する蟻ほぞが突出するもの(III式)、分銅形を呈し柄孔の両脇に小さな角孔を有するもの(IV式)、隅丸方形の薄い板で方形柄孔を中央に穿つもの(V式)、片方の円形柄差込口に三角形突起を有するもの(VI式)に区分する。

I式：弥生時代前期から伊勢湾以東の広い範囲に存在し、後期まで存続する。

II式：横鋤用であり、北部九州や山陰では弥生時代前期後半に出現し、その後東方に波及する(図24左上)。

III式：弥生時代中期後半の近畿で出現し、古墳時代前期に東海まで波及する。

IV式：弥生時代後期の北陸地方に出現し、古墳時代前期には滋賀や宮城にも波及する。

V式：北部九州の方形柄孔直柄鋤に伴う。

VI式：弥生時代中期の関東地方から東北地方にかけて出土例がある。

(4) 馬鋤

牛や馬に牽引させて土を砕く道具である。出土例は少数だが、近年類例が増加している。歯が櫛状で小型のもの、歯が櫛状で大型のもの(図25)、歯が平坦なもの(図26)の3種に大きく分けられそうである。1番目の型式は弥生時代後期から古墳時代前期に属する岡山県津島遺跡の類例がある。畜力ではなく人力の道具であるかもしれない。古墳時代後期には2番目と3番

目の型式がほぼ同時に出現する。関東や東北にも急速に波及しており、牛馬耕の定着を示す重要な資料である。

(5) 犁

牛や馬に牽引させ、田畑を耕起する道具である。馬鋤よりもさらに出土例は少数だが、こちらにも類例が徐々に増加している。犁床長が長いものと短いものとの大きく2型式に区分でき、前者は7世紀、後者は8世紀に出現する(上原2000)。いずれも、中国大陸もしくは朝鮮半島から導入されたものと考えられる。

(6) 田下駄と大足

水田耕作を中心に使用されたと考えられる履物のうち、梯子形の枠がつくものを大足、その他を田下駄とする。民俗例では、大足は代踏みや除草、田下駄は田植えや除草、収穫の時に主に用いられることがわかっているが、考古資料の型式区分をそのまま用途の違いにあてはめるのは危険であり、慎重な検討が必要である。田下駄は弥生時代前期から西日本各地の類例がある。足を固定する緒孔が4つのもの(図27右側)が先行し、草履と同じ緒孔が3つのものは古墳時代に出現する。その後、両者は併存する。大足は、弥生時代の類例も少数存在するが、一般化するの古墳時代である。

(7) 木鎌と鎌柄

全て木でできた木鎌と、鉄の刃を組み合わせる鎌柄の2種類が知られている。

木鎌は、一木式のもの(図20右下)と、細長い枝状の刃を持つもの(図28右)とに区分できる。組合せ式は、細長い木製刃と頭部に突起のある柄とを組み合わせる。一木式・組合せ式とも類例は点在していて、変遷の傾向を示すには資料の増加を待たなければならない。現状では、一木式は弥生時代中期から古墳時代前期、組合せ式は弥生時代後期から古墳時代後期までの類例がある。

鉄鎌柄も類例は比較的少数である。遅くとも弥生時代中期には北部九州から東海まで出現する。これは鉄鎌の出土傾向と矛盾はない。

(8) 木製摘具と手鎌台

石庖丁の素材を木で置き換えたのが木製摘具、鉄の刃を組み合わせるのが手鎌台である。

木製摘具はかまぼこ断面形や長方形を基調とする一群(図29右下2点)と、平行四辺形を基調とする一群(図29右下2点以外)に大別できる。前者は北部九州では弥生時代早期までさかのぼる可能性があり、弥生時代中期には近畿や北陸で類例が存在する。後者は弥生時代中期の山陰から播磨にかけての地域で出現し、弥生時代後期から古墳時代初頭には北陸や東海にかけての広い範囲に波及する。

手鎌台は、弥生時代後期から古代にかけて10例前後の資料が現在知られている。鉄刃の形態差に応じて、いくつかの型式にわけることができる(魚津2009)。

(9) 杵と臼

杵には縦杵と横杵がある。

縦杵は弥生時代前期から各地に存在する。先行研究(上原編1993、村上1996)を基礎とし、下記のように型式区分する。

A類 握部に2つの突起を持つ比較的長いもの

B類 1つのみの算盤玉突起を有するもの

C類 突起がない比較的短いもの(図24上2点、図30)。握部近くよりも上下両端が太くなるものが目立つ。効果的に搗くための工夫であろう。

地域によって移行時期に差があるが、古墳時代にはA類・B類からC類へと移行している。

横杵はあまり類例が多くないが、東海以西では弥生時代後期にほぼ同時に出現するようである。身と柄が一木式のものがほとんどであるが、ごく少数組合せ式のものも存在する。

臼は、縦杵と同様に弥生時代前期から類例が知られる。当初より大小の2種類が存在する。大型臼は西日本では把手付のものや縦長の器台形、東日本では鉢形のものや弥生時代中期まで目立つのに対して、後期以降は容量が増加すると同時に台部も裾広になる傾向が有る。小型臼は古墳時代中期までは鉢形、それ以降は台付のものが主流である。

(10) 唐臼

唐臼の杵と考えられるものが、少数ながら知られている。遅くとも6世紀の後半には、渡来系の技術として伝来し、古代には波及していることが想定される。

2. 木製工具

木製工具として、別の素材でできた刃を取り付ける斧や刀子、ヤリガンナなどの柄と、全て木でできた木槌、楔、墨壺がこの時期の資料として知られている。

(1) 斧柄

曲柄と直柄とに大きく分けられる。

A. 曲柄

一木式のもの、柄と台が別の組合せ式のものが存在する。

i 弥生時代前期から中期前半

柱状片刃石斧を装着した横斧用一木式柄(図31中)と扁平片刃石斧を装着した横斧用の一木式もしくは組合せ式の柄(図31左,図32)が主流である。西日本では、少数ながら柱状片刃石斧を装着した反柄の一木式柄も存在する。

ii 弥生時代中期から後期

有袋鉄斧を装着した縦斧もしくは横斧用の一木式の柄(図33左上)が加わる。また、先に扁平片刃石斧用とした横斧用の一木式もしくは組合せ式の柄(図33右1点および下3点)も、区別は難しいのだが、中期後半以降は板状鉄斧を装着するものも一定の割合含まれている可能性が高い。

iii 古墳時代前期から中期

板状鉄斧(短冊形鉄斧)用の柄は徐々に姿を消し、有袋鉄斧用の一木式柄が盛行する(図34右)。大型の縦斧用のもの、小型の横斧用のものなど、多様な法量や形態の有袋鉄斧に対応した一木式柄が存在する。同時に、組合せ式のもの(図34左)も少数ながら併用されている。

iv 古墳時代後期から飛鳥時代

横斧用の一木式柄の中でも小型のものが確立するようである。この時期の有袋鉄斧にも一定の定形化の傾向を指摘することができるので、大変興味深い現象である。

B. 直柄

頭部が肥厚し太形蛤刃石斧を装着する円形の孔を有するもの(図31右)と、頭部はほとんど肥厚しない板状鉄斧(短冊形鉄斧)用、もしくは有袋鉄斧の雇柄用の方形の孔を有するものにと大別できる。前者は、頭部の形状によっていくつかの型式に区分できる。雇柄を装着したものを除き、縦斧用であるのは確実である。円形孔のものは弥生時代前期から中期に存続する。方形孔のものは、一部の形態は弥生中期に遡るが、多くは弥生時代後期から古墳時代前期に使用されている。

(2) 刀子やヤリガンナの柄

少数であるが、刀子やヤリガンナの柄の類例が知られている。刀子の柄は大阪府溝咋遺跡(古墳時代後期)や福岡県下山門遺跡(古墳時代後期)、ヤリガンナの柄は大阪府下田遺跡(古墳時代前期)や滋賀県鴨田遺跡(未製品:弥生時代中期~飛鳥時代)などで出土している。刀子やヤリガンナの柄は、鉄器に付着する木質の観察から形態を推測することができる。この成果も参考にすれば、類例の少なさを補うことができるだろう。

(3) 横槌・掛矢

横槌や掛矢と呼ばれる棍棒状の叩く道具が存在する。大型で身の断面が方形のもの(図32)の中には、身部に明確な凹みが使用痕として認められるから、くい打ちなどの作業用の掛矢と考えられる。小型で身の断面が円形のもの(図36)は、いくつかの形態がある。藁打ちや豆打ち用、小型杵とおなじ搗く作業用、布の軟化(キヌタ打ち)用など、用途は多様であると思われる。西日本では弥生前期から、東日本では弥生中期から類例が存在する。当初より、法量や形態にバリエーションが存在する。古墳時代の類例をみると、形態の異なるいくつかのグループに収斂していった可能性がある。

(4) 楔

伐採した樹木の丸太材を割り裂くために用いられる。最初に石斧あるいは鉄斧、鉄製の鑿などで丸太に切れ込みを入れ、楔を挿入してこれを横槌・掛矢で叩いて丸太を割り裂く。類例はまだ多くないが、神奈川県池子遺跡(弥生中期)や愛知県下懸遺跡(弥生後期)などが挙げられる。特に後者は、コナラ節の丸木に刺さったままの状態出土しており、注目される。

(5) 墨壺

墨繩と組み合わせて長い直線を木材などに引く道具である。数例が知られている。日本における最古の類例は、現在実物検討ができないものの、古墳時代後期の滋賀県湖西線関連遺跡出土品(図37-6)だと考えられる。これは百済の弥勒寺出土資料に類似する。これらとは別系統と考えられる箱型のものが8世紀に出現する(図37-4・5)。2系統とも、寺院や宮殿、官衙の建築技術と深く関連するものと考えられる(上原2009)。

引用・参考文献

以下、本発表の引用文献と、日本古代の木製農具・工具を研究する上で参考になる文献とを示す。単行本に再録した原論文は省略している。

(1) 総合的研究・研究史

- 伊東隆夫・山田昌久(編), 2012, 『木の考古学 出土木製品データベース』海青社
上原真人(編), 1993, 『木器集成図録 近畿原始篇』
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2000, 『木器研究最前線』
静岡県埋蔵文化財研究所(編), 1994 『古代における農具の変遷』静岡県埋蔵文化財研究所設立10周年記念シンポジウム・第4回東日本埋蔵文化財研究会・第2回東海考古学フォーラム
鈴木三男, 2002, 『日本人と木の文化』
長友朋子, 2008, 「日本考古学における木器研究の現状」『韓国の古代木器』国立伽耶文化財研究所研究資料集第41集 国立伽耶文化財研究所(韓文対訳つき日文)
樋上 昇, 2010, 『木製品から考える地域社会』雄山閣
山田昌久(編), 2003, 『考古資料大観』8 弥生・古墳時代木・繊維製品 小学館

(2) 個別研究

- 飯塚武司, 2009, 「農耕社会成立期の斧」『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
魚津知克, 2003, 「曲刃鎌とU字形鋤鋤先」『帝京大学山梨文化財研究所研究報告』11 帝京大学山梨文化財研究所
魚津知克, 2009, 「弥生・古墳時代の手鎌」『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
合田茂伸, 1988, 「弥生時代の杵と臼」『網干善教先生華甲記念考古学論集』
田井中洋介, 1998, 「収穫具」『ムラの変貌』展示図録 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
仲原知之, 2010, 「和歌山県の手鎌木製台(木庖丁)の検討」『紀伊考古学研究』第13号
禰宜田佳男, 1999, 「伐採石斧の柄」『国家形成期の考古学』大阪大学考古学研究室
村上由美子, 1996, 「杵と臼の変遷について」『滋賀考古』第15号
村上由美子, 2002, 「木製楔の基礎的論考」『史林』85巻4号
山崎頼人, 2000, 「木製穂摘具の研究(上)」『大阪文化財研究』第19号
山崎頼人, 2001, 「木製穂摘具の研究(下)」『大阪文化財研究』第20号

(3) 用途

- 清水真一, 1999, 「城島遺跡出土の木製品が持つ意義」『光陰如矢』光陰如矢刊行会
村上由美子, 2009, 「木製刈払具の検討」『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
山崎頼人, 2003, 「石庖丁と木庖丁」『続文化財学論集』続文化財学論集刊行会

(4) 素材・技術

- 青柳泰介, 2009「木材の『原材』生産と流通に関する一考察」『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
角田徳幸(編), 2013,『木製品から見た古代の暮らし』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中川 寧, 2006,「木から見える弥生時代の山陰」『倭人の生きた環境』第7回弥生文化シンポジウム予稿集 鳥取県教育委員会
中野 宥, 2006,「登呂の木工と加工用具」『駒沢考古』第31号
中原 計, 2003,「木製品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の画期」『待兼山論叢』第37号史学篇
中原 計, 2005,「出土状況からみた弥生時代木製品の製作」『待兼山考古学論集—都出比呂志先生退任記念—』
中原 計, 2006a,「弥生時代中期～後期の木製品の出土動向と高地性集落」『古代文化』第58巻II号
中原 計, 2006b,「弥生時代の泥除けとその利用木材の変化」『青藍』第3号
村上由美子, 2004,「木器の『ライフヒストリー』考」『往還する考古学』近江貝塚研究会

(5) 地域性・地域集成

- 上原真人, 2012,「青谷上寺地遺跡出土の木製農工具の特色」『青谷上寺地遺跡出土品調査研究報告8 木製農工具・漁撈具』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調査報告47 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黒須亜希子, 2008,「近畿」『季刊考古学』第104号
木田 清(ほか編), 1999,『石川県考古資料調査・集成事業報告書 農工具』石川考古学研究会
小林 正, 2004,「群馬県における弥生時代前期から古墳時代前期の木製品」『研究紀要22』財団法人群馬県埋蔵文化財調査事業団
財団法人滋賀県文化財保護協会・滋賀県立安土城考古博物館, 1999,『木製農具から見た赤野井湾遺跡』第10回埋蔵文化財調査研究会シンポジウム
第40回山陰考古学研究会集事事務局, 2012,『山陰の弥生時代木製品』
中川 寧, 2000,「出雲における木製耕起具の変遷について」『島根県考古学誌』第17集
中川 寧・内田律雄・東山信治(編), 2006,『島根県における弥生時代・古墳時代の木製品集成』島根県教育庁古代文化センター・島根県教育庁埋蔵文化財調査センター
中原 計, 2013,「近畿・瀬戸内における木製品研究の現状と課題」『木製品から見た古代の暮らし』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林 大智, 2013,「北陸における木製品研究の現状と課題」『木製品から見た古代の暮らし』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深堀 茜(北陸の木製農耕具集成(1))『富山考古学研究』第2号 財団法人富山県文化振興財団埋蔵文化財調査事務所
宮原晋一・名倉聡・福田さよ子, 2000,『大和木器資料I』橿原考古学研究所研究成果第3冊
山口讓治, 2013,「九州における木製品研究の現状と課題」『木製品から見た古代の暮らし』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6) 農業生産との関連

- 上原真人, 2000,「農具の変革」『古代史の論点』1 小学館
黒崎 直, 1996,『古代の農具』日本の美術357 至文堂
河野通明(ほか), 2008,『犁から見たアジアと日本』第12回常民文化研究講座 神奈川大学常民文化研究所
下條信行, 1995,「農工具と稲作経営の受容」『弥生文化の成立』角川書店
樋上 昇(ほか), 2008『弥生・古墳時代の木製農具 季刊考古学第104号』雄山閣
正岡大実(編), 2012『穂落とし神の足跡』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展示図録47 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
山田昌久, 1998,「風呂鋸類の成立と展開」『人類史集報1998』東京都立大学

(7) 手工業生産との関連

- 飯塚武司, 1994, 「古代多摩丘陵の木工生産」『研究論集』XIII 東京都埋蔵文化財センター
- 飯塚武司, 1999a, 「東日本における古墳出現期の木工集団(上)」『古代文化』51巻5号
- 飯塚武司, 1999b, 「東日本における古墳出現期の木工集団(下)」『古代文化』51巻6号
- 飯塚武司, 2001, 「農耕社会成立期における木工技術の伝播と変容」『古代学研究』155号
- 飯塚武司, 2003, 「弥生時代中期後半の南関東における木工生産」『考古学研究』第49巻第4号
- 飯塚武司, 2006, 「古墳時代中期の木器生産体制変革の予察」『古代学研究』172号
- 飯塚武司, 2007, 「農耕社会移行期の木工における技術継承と革新」『古代文化』第59巻III号
- 飯塚武司, 2009, 「弥生時代中期の木工技術の進歩と交流」『古代学研究』第183号
- 飯塚武司, 2010, 「弥生時代中期の木器工房と工人」『古代学研究』第188号
- 上原真人, 2009, 「階級格差を示す木工技術—墨壺—」『木の文化II 古墳時代の木器』下関市立考古博物館
- 佐原 眞, 1994, 『斧の文化史』東京大学出版会
- 別府洋二, 2003, 「弥生時代の木器の製作」『山口大学考古学論集』近藤喬一先生退官記念事業会
- 穂積裕昌, 2000, 「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の木器生産体制について」『研究紀要』第9号 三重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 村上由美子, 2002, 「木を割ること」『往還する考古学』近江貝塚研究会論集1 近江貝塚研究会
- 若林邦彦, 2001, 「弥生～古墳時代における製作途上木製品の出土傾向」『大阪文化財研究』第20号
- 渡辺 晶, 2004, 『日本建築技術史の研究』中央公論美術出版

挿図出典

- 図1 澤下孝信(編), 2007, 『平成19年度企画展 木の文化』下関市立考古博物館
- 図4,7,11,21,22,25,26 正岡大実(編), 2012, 『穂落とし神の足跡』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図録47
- 図6,12 樋上 昇, 2012, 「弥生～古墳時代における『地域型』鍬の出現と展開」『穂落とし神の足跡』大阪府立弥生文化博物館図録47
- 図37 上原真人, 2009, 「階級格差を示す木工技術」『平成21年企画展 木の文化II』下関市立考古博物館
- その他は各遺跡発掘調査報告書及び関連リーフレットより転載

1. 農具



図1. 北部九州・北陸の各種鍬



図2. 大阪・鬼虎川遺跡出土の直柄狭鍬



図3. 熊本・柳町遺跡出土の直柄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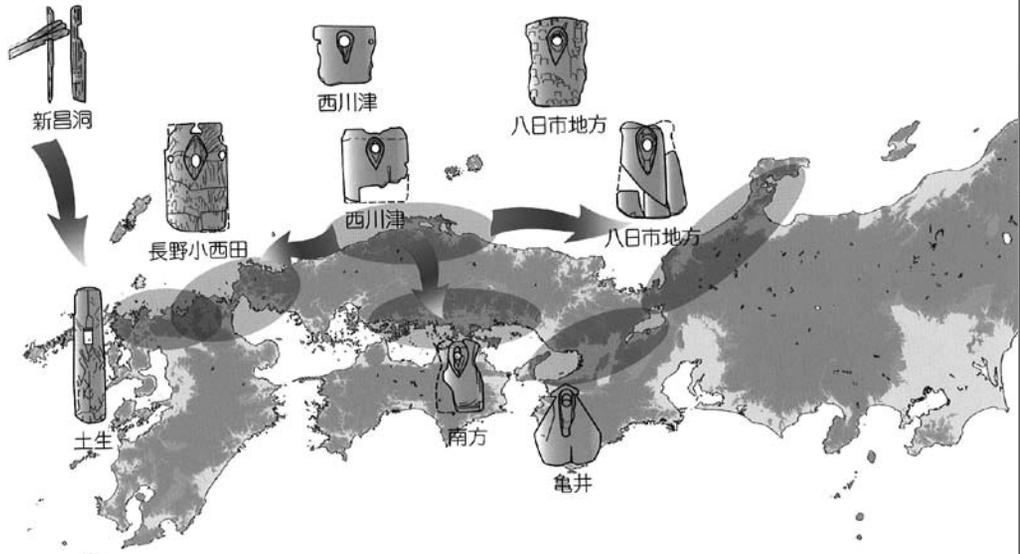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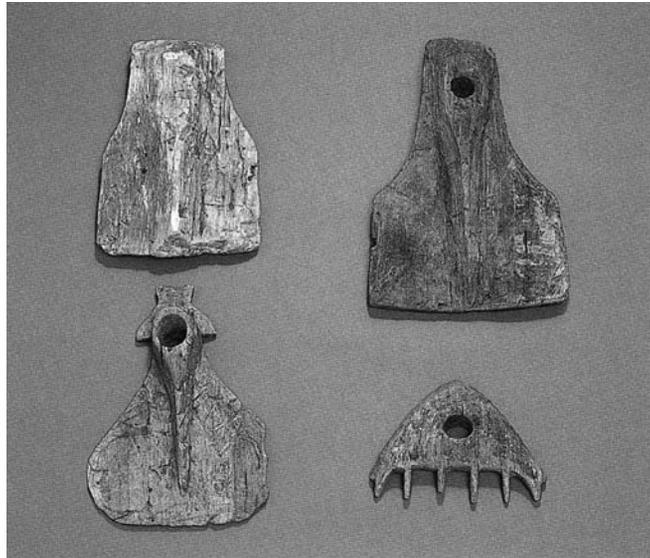


図4. 弥生時代中期西日本の鍬の地域性



木製農具

右上長38.5cm／神奈川県池子遺跡／弥生中期後半
 上右: 広鍬、上左: 広鍬未成品、下右: 又鍬、下左: 広鍬

図5. 神奈川・池子遺跡出土の直柄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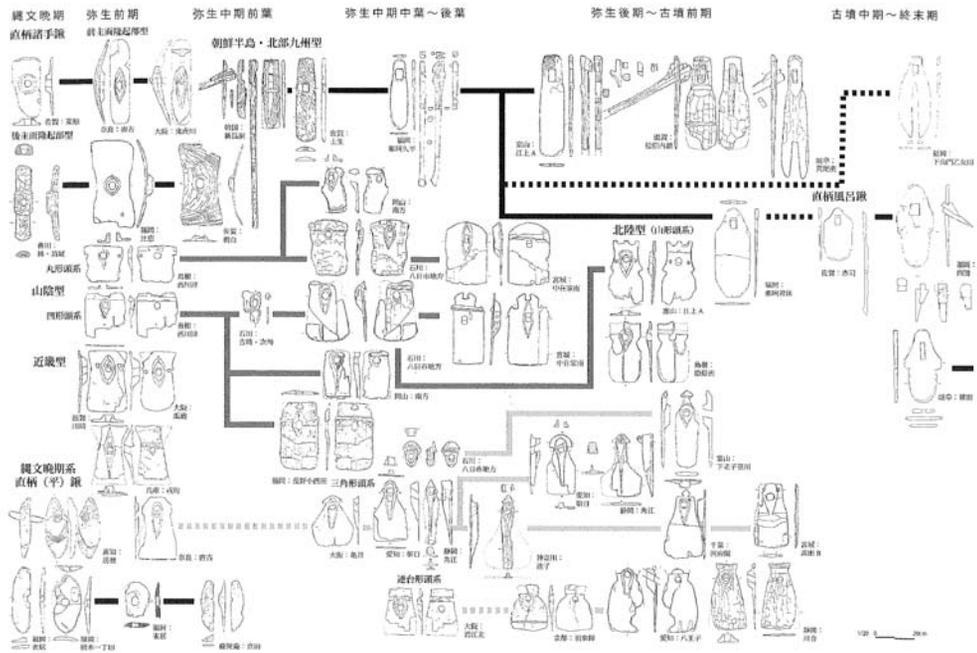


図6. 樋上昇による地域型直柄鍬の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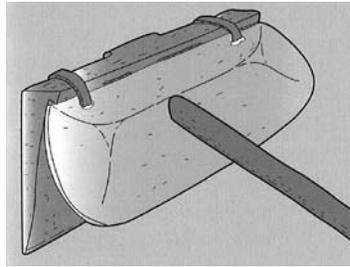


図7. 福岡・雀居遺跡出土の直柄横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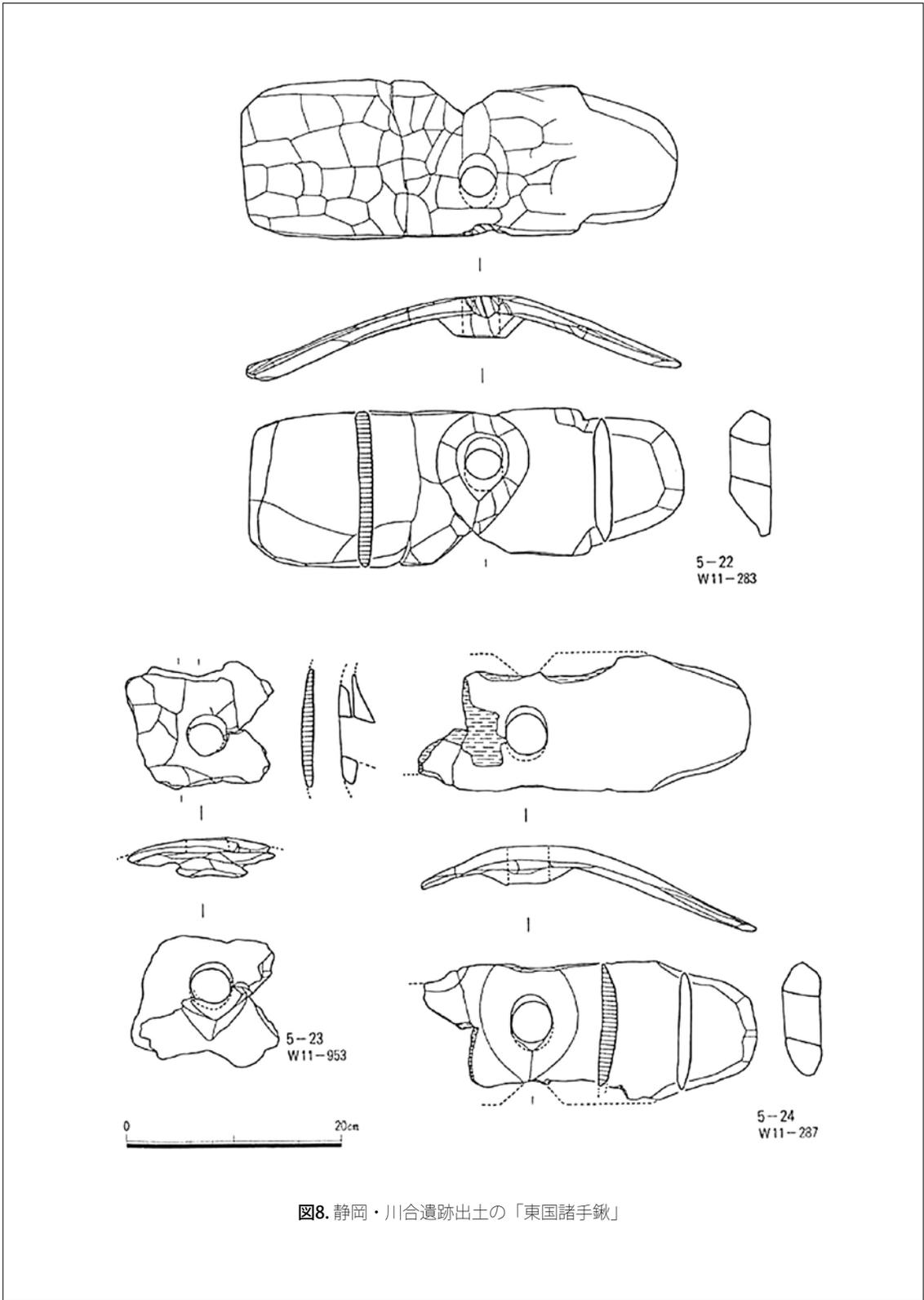


図8. 静岡・川合遺跡出土の「東国諸手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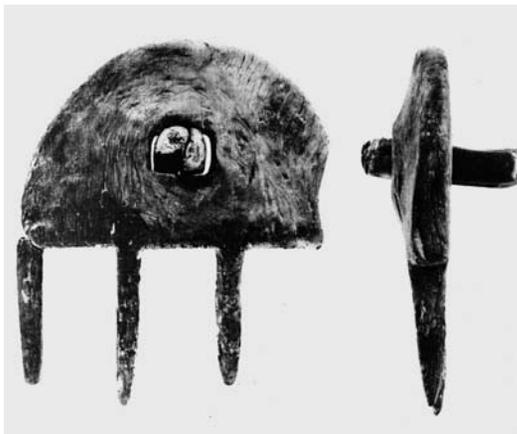


图9. 大阪・鬼虎川遺跡出土の直柄又鍬



图10. 鳥取・青谷上寺地遺跡出土の直柄又鍬



图11. 島根・西川津遺跡出土の横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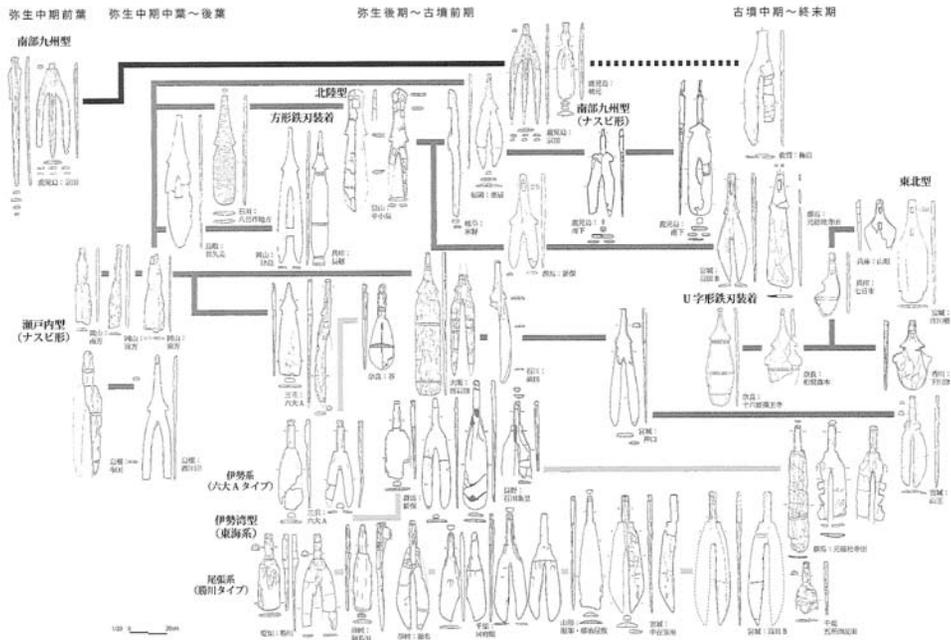


図12. 桶上昇による地域型曲柄鋤の設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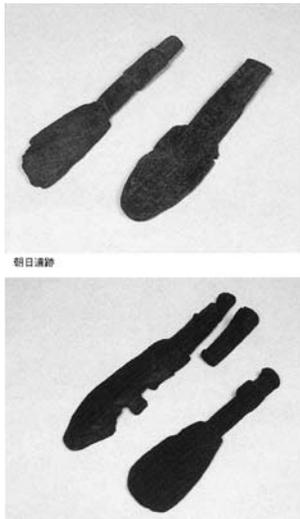


図13. 愛知・朝日遺跡および静岡・角江遺跡出土の曲柄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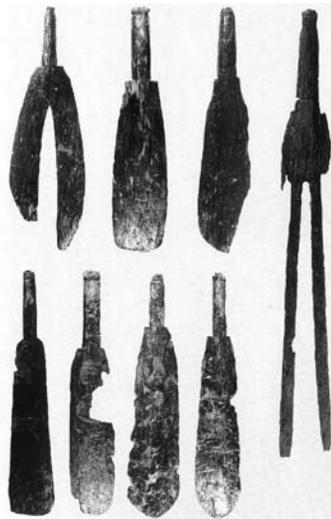


図14. 千葉・国府関遺跡出土の曲柄鋤



図15. 福岡・貫川遺跡出土の曲柄鋤



図16. 岡山・津島遺跡出土の曲柄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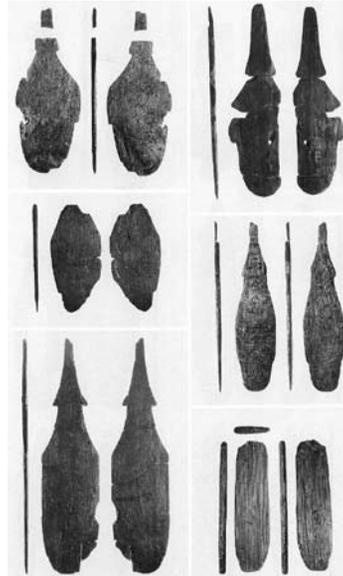


図17. 長野・榎田遺跡出土の曲柄鋤



図18. 滋賀・西河遺跡出土の農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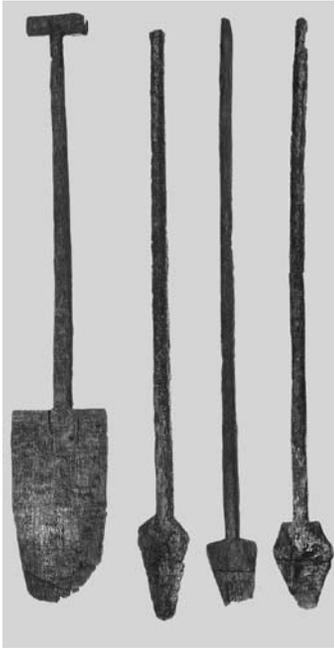


図19. 千葉・国府関遺跡出土の
一木鋤



図20. 鳥取・青谷上寺地遺跡出土の木製農工
具



図21. 佐賀・土生遺跡出土の踏み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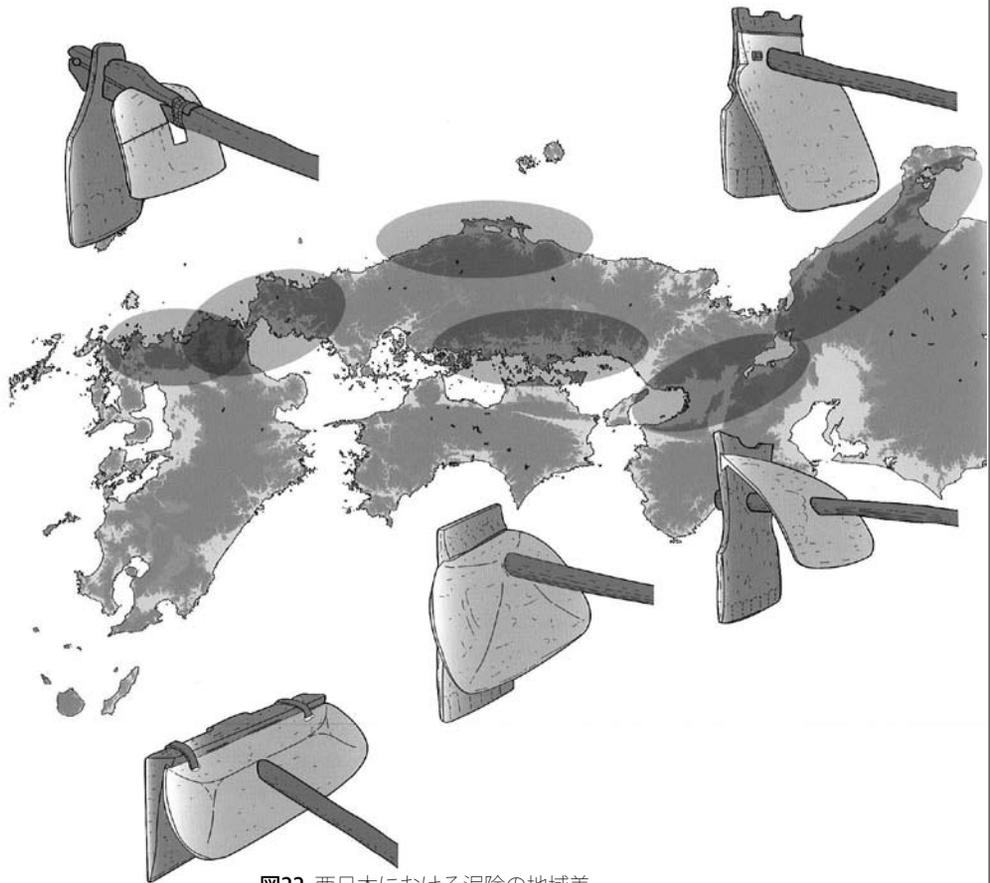


図22. 西日本における泥除の地域差



図23. 三重・六大A遺跡出土の蟻溝を有する直柄鍬



图24. 三重・六大A遺跡出土の農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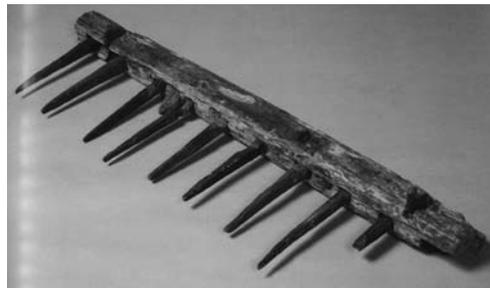


图25. 大阪・木の本遺跡出土の馬鋤



图26. 福岡・カキ遺跡出土の馬鋤



木製の鋤と田下駄
 静岡県瀬名遺跡 / 右下弥生中期、ほか後期
 左から又鋤、狭鋤、田下駄2点 (上幅38.0cm)

図27. 静岡・瀬名遺跡出土の農具



図28. 千葉・国府関遺跡出土の木鎌および鎌柄



图29. 鳥取・青谷上寺地遺跡出土の木製摘具



图30. 三重・六次A遺跡出土の豎杵



图31. 大阪・池上曾根遺跡出土の斧柄



図32. 愛知・朝日遺跡出土の扁平石斧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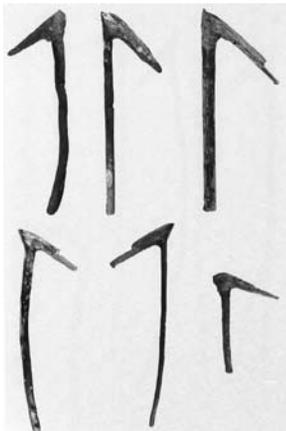


図33. 千葉・国府関遺跡出土の斧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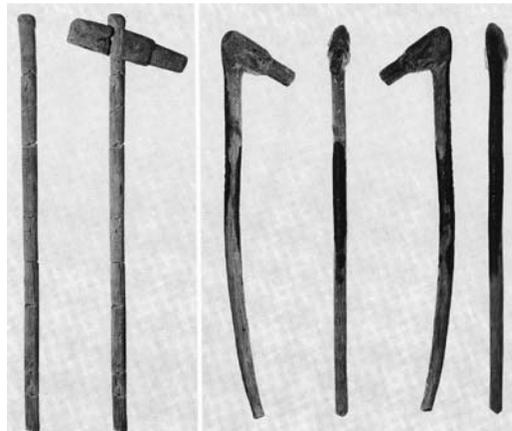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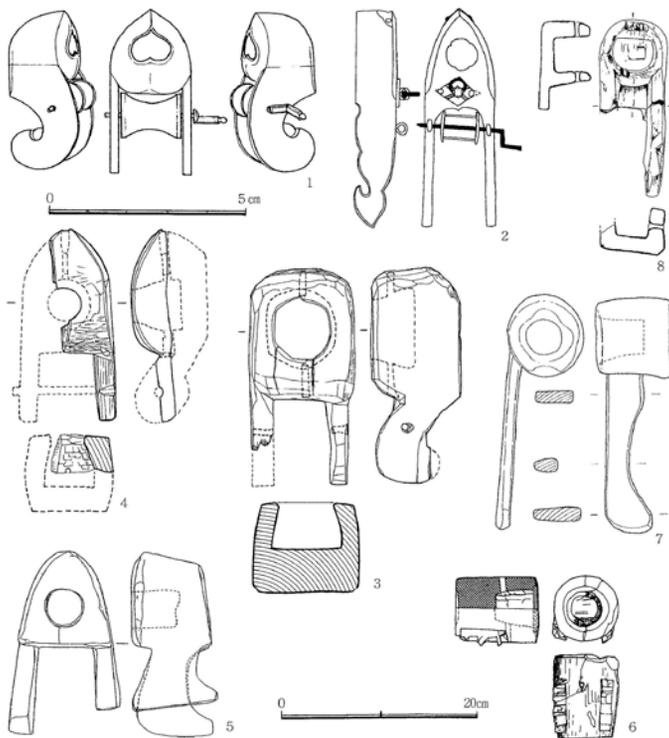
図34. 長野・榎田遺跡出土の斧柄



図35. 長野・榎田遺跡出土の横槌



図36. 三重・六次A遺跡出土の横槌



- 古代・中世の墨壺 (1は実大、その他は縮尺4分の1)
- | | |
|---|------------------------------------|
| 1 正倉院伝授(新羅御船小墨壺) (8世紀) [松島・木村1977] | 2 東大寺南大門の忘れ物 (13-14世紀) [神谷1988] |
| 3 兵庫馬家橋遺跡出土 (8世紀) [松文研1985] | 4 平城宮跡出土 (8世紀後半) [松文研1985] |
| 5 野洲郡獅子ヶ谷遺跡 (北太郎館) 出土 (8世紀) [高松市教委1981] | 6 滋賀県湖西線岡原遺跡出土 (6世紀後半) [滋賀県教委1973] |
| 7 徳島県観音寺遺跡出土 (7世紀中葉) [徳島県歴史センター2006] | 8 石川県勸修寺跡出土 (時期不詳) [文化財研究所1989] |

図37. 墨壺の類例

일본 고대의 목제농기구 · 공구

우오즈 토모카츠 _ 오테마에대학교

<u>목 차</u>	1. 목제농기구
	2. 목제 공구

본 발표에서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부터 헤이안 시대까지의 유적에서 출토된 농기구 · 공구를 개관 하도록 하겠다.

1. 목제농기구

주로 농업을 행하는데 사용된 도구를 농기구라 정의한다.

야요이 시대부터 고대까지의 시기의 농기구에는 인력 경작기구인 쟁이(馱, 곡쟁이 종류)와 삽, 쟁이 작업을 보조하는 흙받이, 축력 경작기구인 씨레와 쟁기, 주로 논 관리기구로 사용되었던 신발인 다게타(田下駄)와 오아시(大足), 풀베기 혹은 수확기구인 낫이나 낫자루, 주로 수확기구로 여겨지는 목제 따기 기구(木製摘具)나 데가마다이(手鎌台), 그리고 식량 등의 가공작업기구인 절구와 절굿공이가 존재한다.

(1) 쟁이

쟁이는 크게 일자형(直柄) 쟁이와 굽은형(曲柄) 쟁이로 나눌 수 있으며, 둘 모두 끝이 편평한 쟁이(平鍬)와 끝이 갈라진 쌍날쟁이(又鍬)가 있다. 또한 일자형 쟁이에는 나뭇결이 옆 방향으로 나 있는 가로쟁이(横鍬)가 있다.

A 일자형 쟁이

일본 고대 일자형 쟁이의 자루구멍은 대부분 원형이다. 방형의 자루구멍은 주로 북부규슈(九州)에 분포하기 때문에 ‘북부규슈 일자형 쟁이(北部九州型直柄鍬)’라고도 불린다. 일자형 쟁이는 지역적 혹은 시기적 특징을 가지며 전개되었다.

i 편평한 괭이

원형의 자루구멍을 가진 일자형 괭이에는 매우 다양한 형식이 있다. 『목기집성도록 긴키원시편(木器集成図録 近畿原始篇)』(우에하라(上原)편 1993)의 구분에 따라, 폭 15cm 미만을 좁은 괭이(狭鍬), 15cm 이상을 넓은 괭이(広鍬)라 한다.

좁은 괭이 ‘양날괭이(諸手鍬)’라고도 불리는 형식(그림1-5), 날이 장방형인 형식(그림1-8, 그림2), 평면이 세로로 긴 형식 등이 있다.

원형 자루구멍의 일자형 좁은 괭이는 야요이 후기에 이르러 거의 출토되지 않게 된다. 방형 자루구멍의 일자형 좁은 괭이(그림3)가 그 이후에도 계속 존속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넓은 괭이 원형 자루구멍의 일자형 넓은 괭이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다. 지역 및 시기에 따라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그림4), 예를 들어 산인(山陰)지방에 많은 정방형에 가까운 평면형 날을 지닌 그룹과 긴키(近畿)지방에 많은 양쪽이 안으로 굽은 그룹은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존재한다. 윗 모서리가 있는 형식의 그룹(그림4 오른쪽 위)은 야요이시대 중기 긴키부터 도카이(東海)에 걸쳐 출현했으며, 일부는 후기에 숲가락형이나 절곳공이형으로 전개되었다. 마찬가지로 호쿠리쿠(北陸)지방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 히가미 노보루(樋上昇)가 ‘호쿠리쿠형’이라 부른 위쪽 변에 돌기가 있는 독특한 형식(그림6)의 괭이가 도쿠리쿠지방에 출현한다. 방형 자루구멍의 일자형 괭이도 도야마현(富山県) 에가미A유적(江上A遺跡) 등 동해 쪽으로 분포를 확장하고 있으며, 고분시대 전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일자형 괭이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농업 현장에서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로괭이(그림7)는 고분시대 전기에 규슈 북서부나 산인에서 출현하였고 중기에는 도호쿠(東北)에까지 확대되었다. 고분시대 중기에는 형세가 크게 바뀌었다. 북부규슈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방형 자루구멍의 일자형 편평한 괭이(그림3)에 U자형 날을 장착시키는 게 일반화되었는데(그림6 오른쪽: 일자형 괭이(후로괭이(風呂鍬))), 고분시대 중기 후반부터 후기에 걸쳐 급속히 전국으로 확산 및 정착되었다. 또한 고분시대 중기에는 도카이에서 간토(關東)지방에 걸쳐 ‘도고쿠 양날괭이(東国諸手鍬)’라고도 할 만한 특이한 원형/방형 자루구멍의 일자형 가로괭이 그룹(그림8)이 나타나게 되었다.

ii 쌍날 괭이

쌍날 괭이에는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 긴키지방(우에하라편 1993)을 비롯하여 몇 가지 형식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전국적인 변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그림1-13~16은 야요이시대 규슈지방 유적의 사례, 그림9는 야요이 중기 오사카부(大阪府) 기토라가와유적(鬼虎川遺跡)의 사례, 그림10은 야요이시대 후기 돗토리현(鳥取県) 아오야카미지치유적(靑谷上寺地遺跡)의 사례이다. 또한 가로괭이 중에는 톱니모양을 한 것(그림11)도 있다.

B 굽은형 팽이

굽은형의 편평한 팽이, 굽은형의 쌍날 팽이는 둘 모두 축과 날 접촉부근의 삿갓 모양의 돌기 유무와 날 위쪽부터 중앙부근에 걸친 모서리의 유무에 따라 크게 나눌 수 있다. 히가미 노보루의 연구(그림 12)를 통해 전국적인 양상을 이해할 수 있다.

i 삿갓 모양의 돌기가 없는 것

야요이시대 중기의 기비(吉備)지방에 유사 사례가 있는 축에 작은 돌기가 있는 그룹과, 이와는 별도의 계통인 야요이시대 후기 이후에 전개되는 이세만(伊勢灣)형(도카이 계통) 굽은형 팽이라 불리는 그룹(그림 13)이 대표적이다. 축에 작은 돌기가 있는 그룹은 뒤에 서술할 굽은형 삿갓 돌기가 있는 팽이의 조상형으로 보인다(히가미 2010). 후자인 이세만형 굽은 팽이는 원래 날 위쪽 모서리가 분명한, 굽은형의 삿갓이 없고 모서리가 있는 팽이이다. 고분시대 초기에 들어서면 이와 더불어 중앙 부근 양쪽에 완만한 모서리가 형성된 것(그림 14 중앙 아래 3점)이 중부 고지대나 간토지방에 출현한다.

ii 삿갓 모양의 돌기가 있는 것(가지모양 굽은형 팽이)

야요이시대 중기 기비지방에서 이즈모(出雲)지방 일대에 걸쳐 성립되었고 야요이 후기에는 산인에서 호쿠리쿠 일대, 그리고 북부규슈나 긴키지방에서 채용되었다. 이 시기의 유사 사례로는 북부규슈에서는 날 중앙이 불룩한 모서리 없는 것(그림 15)이 주류인 반면 추고쿠(中国)지방의 동쪽에서는 날 폭이 거의 일정한 모서리 없는 것 혹은 약간 있는 것(그림 16)이 많다. 고분시대에 들어서면 전자의 경우 긴키지방에도 파급되게 된다. 중기에는 편평한 팽이에 U자형 날끝이 장착되어 보다 동쪽 지역에도 전개된다(그림 12 오른쪽 위 2점). 고분시대 후기에는 중앙부근에 모서리를 가진 형태(그림 17 오른쪽 아래 1점 이외)만 남게 된다. 그리고 아스카시대에 축에도 가는 구멍을 가진 유사 예(그림 18 위)가 출현한 후 끝을 맞이하게 되었다.

(2) 가래

가래는 자루와 날이 이어진 일체형 가래(一木鋤)과 자루와 날을 조합하는 조립형 가래(組み合わせ鋤)이 있다. 둘 다 끝이 편평한 평가래(平鋤)과 끝이 나뉜 쌍날가래(又鋤)이 있다. 또한 옆에서 봤을 때 자루와 날이 일직선인 직선가래(直伸鋤)와 자루와 날이 완만히 꺾인 굴절가래(屈折鋤)가 존재한다. 쌍날가래의 유사 예가 많지 않아 확실하지는 않으나, 모두 야요이시대 전기, 늦어도 중기 전반에는 성립되었으리라 추정된다.

A 일체형 가래

일체형 직선가래(그림19)는 형태를 바꾸며 고대까지 존속되었다. 일체형 굴절가래는 고분시대 중기 전반 경, 날의 1/3에서 반 가까이 자루 부분을 깎는 등 날과의 접속 부분이 매우 튼튼히 만들어진 형식의 그룹이 출현한다. 철제 공구에서는 도래계통에 속하는 철도끼 등이 우세한 시기이며 어쩌면 이러한 제작공구의 도입을 드러내는 사례일지도 모른다.

B 조립형 가래

조립형 가래는 자루와 날이 떨어져 버리면 직선가래와 굴절가래를 구분하기 어렵다. 자루 접속을 위한 홈 형태로 판단해 보면 명확히 굴절가래에 이용된 그룹과, 노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있는 날 중앙에 쌍 구멍을 가진 그룹이 야요이 중기 후반을 경계로 거의 소멸되었다. 이후 자루 형태에 따라 직선가래와 굴절가래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그룹(그림20 위)이 소수 존속되었다.

C 밟는 가래(踏み鋤)

사가현(佐賀県) 하부유적(土生遺跡)에서 매우 드문 형태의 밟는 가래(그림21)가 출토되었다. 조선의 따비와 유사하다.

(3) 흙받이(괭이 보조판)

일자형 괭이의 부속도구로 이용된다. 지역이나 시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있다(그림22).

『목기집성도록 긴키원시편』에 나타난 형식에 일부 추가되어, 전립형(I식), 옆으로 긴 타원형이나 방형이면서 중앙 상단 양쪽에도 네모난 구멍이 있는 것(II식), 흙을 판 괭이 날(그림23)과 결합하는 배꼽 부분이 돌출한 것(III식), 분동형이면서 자루구멍 양 옆에 작은 네모난 구멍이 있는 것(IV식), 모서리가 둥글고 방형인 얇은 판이면서 방형 자루구멍을 중앙에 뚫은 것(V식), 한쪽 원형 자루 꼽는 곳에 삼각형 돌기가 있는 것(VI식)으로 구분된다.

I식

야요이 시대 전기부터 이세만 동쪽의 넓은 범위에 존재하며 후기까지 존속한다.

II식

가로괭이용이며 북부규슈나 산인에서는 야요이시대 전기 후반에 출현하였으며 그 후 동쪽으로 파급되었다(그림24 왼쪽 위).

III식

야요이 시대 중기 후반 긴키에서 출현하여 고분시대 전기에 도카이까지 파급되었다.

IV식

야요이 시대 후기 호쿠리쿠지방에서 출현하여 고분시대 전기에는 시가(滋賀)나 미야기(宮城)에도 파급되었다.

V식

북부규슈의 방형 자루구멍 일자형 괭이와 세트르 사용되었다.

VI식

야요이 시대 중기 간토지방에서 도호쿠지방에 걸쳐 출토되었다.

(4) 씨래

소나 말이 끌면서 땅을 일구는 도구이다. 출토 예가 적기는 하나 최근 유사 예가 증가하고 있다. 크게 날이 빗 모양으로 소형인 것, 날이 빗 모양으로 대형인 것(그림25), 날이 평평한 것(그림26)의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형식은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에 속하는 오카야마현(岡山県) 쓰시마유적(津島遺跡)에 유사 사례가 나타난다. 축력이 아니라 인력 도구였을 가능성도 있다. 고분시대 후기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형식이 거의 동시에 출현한다. 간토나 도호쿠에도 급속도로 파급되었으며 소, 말 경작의 정착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5) 쟁기

소나 말이 끌면서 논밭을 일구는 도구이다. 씨래보다 더 출토 예가 적으나 이 역시 유사 예가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쟁기 바닥이 긴 것과 짧은 것, 이 두 형식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전자는 7세기, 후자는 8세기에 출현한다(우에하라, 2000). 모두 중국대륙 혹은 조선반도에서 도입되었으리라 추정된다.

(6) 다게타와 오아시

논 경작을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여겨지는 신발 중, 사다리 모양 틀이 붙는 것을 오아시, 그 외의 것을 다게타라 한다. 민속 사례에서 오아시는 못자리 밟기나 제초, 다게타는 모내기나 제초, 수확기에 주로 이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이를 고고자료의 형식구분에 그대로 끼어 맞추는 것은 위험하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게타는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서일본 각지에 유사 예가 나타난다. 발을 고정하는 끈 구멍이 4개 있는 것(그림27 오른쪽)이 먼저 나오고, 짚신과 마찬가지로 끈 구멍이 3개인 것은 고분시대에 출현하였다. 그 후 양자가 같이 병존하게 되었다. 오아시는 야요이시대에 유사 예가 소수 존재하나 고분시대에 와서 일반화되었다.

(7) 낫과 낫자루

전부 나무로 된 낫과 철제 낫을 조합한 낫자루의 두 종류가 알려져 있다.

나무 낫은 크게 일체형과 조립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일체형은 세로로 긴 지느러미 모양 낫을 지닌 것(그림20 오른쪽 아래)과 가늘고 긴 가지형 낫을 가진 것(그림28 오른쪽)으로 구분된다. 조립형은 가늘고 긴 목제 낫과 끝에 돌기가 있는 자루를 조립한다. 일체형, 조립형 모두 유사 예가 존재하며 변천 경향을 살펴보려면 좀 더 자료가 많아져야 한다. 현황으로는 일체형은 야요이시대 중기에서 고분시대 전기, 조립형은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후기까지 유사 예가 있다.

철제 낫자루도 유사 예는 비교적 소수이다. 늦어도 야요이시대 중기에는 북부규슈에서 도카이까지 출현했다. 이는 철제 낫의 출토 경향과 모순되지 않는다.

(8) 목제 따기 기구와 데가마다이

돌칼 소재를 나무로 변환한 것이 목제 따기 기구, 철제 낫을 조합한 것이 데가마다이이다.

목제 따기 기구는 크게 반원형 단면이나 장방형을 기조로 하는 그룹(그림29 오른쪽 아래 2점)과, 평행사변형을 기조로 하는 그룹(그림29 오른쪽 아래 2점 이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북부규슈에서 야요이시대 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며, 야요이시대 중기에는 긴키나 호쿠리쿠에서 유사 예가 존재한다. 후자는 야요이시대 중기 산인에서 하리마(播磨)에 걸친 지역에서 출현하고,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초두에는 호쿠리쿠나 도카이에 걸쳐 넓은 범위로 파급된다.

데가마다이는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대에 걸쳐 10례 전후 자료가 현재 알려져 있다. 철제 낫 형태 차이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나눌 수 있다(우오즈(魚津), 2009).

(9) 절굿공이와 절구

절굿공이에는 종형(竝杵)과 횡형(橫杵)이 있다.

종형은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각지에 존재한다. 선행연구(우에하라편 1993, 무라카미(村上) 1996)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형식을 구분한다.

A류 - 잡는 부분에 두 개의 돌기를 지닌 비교적 긴 것

B류 - 하나만 주판알 돌기를 가진 것

C류 - 돌기가 없는 비교적 짧은 것(그림24 위 2점, 그림30). 잡는 부분 근처보다 상하 양끝이 두터워지는 것이 특징적이다. 효과적으로 찧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따라 이행시기에 차이가 있으나 고분시대에는 A류, B류에서 C류로 이행했다.

횡형 절굿공이는 유사 예가 많지 않으나 도카이 서쪽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에 거의 동시에 출현한 듯하다. 대부분 자루와 몸이 일체형이나 극히 드물게 조립형도 존재한다. 절구는 종형 절굿공이와 마찬가지로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유사 예가 알려져 있다. 당초보다 크고 작은 두 종류가 존재한다. 대형 절구는 서일본에서는 손잡이가 있는 것이나 세로로 긴 그릇받침형(器台形), 동일본에서는 대접형(鉢形)이 야요이시대 중기까지 특징적인 데 반해, 후기 이후에는 용량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받침 부분도 밑으로 퍼지는 경향이 있다. 소형 절구는 고분시대 중기까지는 대접형, 그 이후에는 받침이 붙은 것이 주류이다.

(10) 디딜방아

디딜방아의 절굿공이로 추정되는 것으로 소수나마 알려졌다. 늦어도 6세기 후반에는 도래계 기술로 전래되었으며 고대에는 파급되었으리라 상정된다.

2. 목제 공구

이 시기의 자료로 목제 공구로는, 다른 소재로 된 날을 붙이는 도끼나 작은 칼, 자루대패 등의 자루와 전부 나무로 된 망치, 떡통이 알려져 있다.

(1) 도끼자루

크게 굽은형(曲柄)과 일자형(直柄)으로 나눌 수 있다.

A 굽은형

일체형과 자루와 받침이 별도인 조립식이 존재한다.

i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중기 전반

기둥형 한쪽 날 돌도끼(柱狀片刃石斧)를 장착한 횡형 도끼용 일체형 자루(그림31중)와 편평한 한쪽 날을 장착한 횡형 도끼용 일체형 혹은 조립형 자루(그림31 왼쪽, 그림32)가 주류이다. 서일본에는 소수이지만 기둥형 한쪽 날 돌도끼를 장착한 휘어진 일체형 자루도 존재한다.

ii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후기

주머니가 있는 철제 도끼를 장착한 중형 도끼 혹은 횡형 도끼용 일체형 자루(그림33 왼쪽 위)가 나타난다. 또한 끝에 편평한 한쪽 날 돌도끼용인 횡형 도끼용 일체형 혹은 조립형 자루(그림33 오른쪽 1점 및 아래 3점)도 구별은 어려우나 중기 후반 이후에는 판 모양 철제 자루(板狀鉄斧)를 장착한 것도 일정한 비율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iii 고분시대 전기부터 중기

판형 철제 도끼(직사각형 철제 도끼)용 자루는 서서히 모습을 감추고 주머니 있는 철제 도끼(有袋鉄斧)용 일체형 자루가 성행하게 된다(그림34 오른쪽). 대형 중형 도끼용, 소형 횡형 도끼용 등, 다양한 크기나 형태의 주머니 있는 철제 도끼에 대응한 일체형 자루가 존재한다. 동시에 조립식(그림34 왼쪽)도 소수 병용되었다.

iv 고분시대 후기부터 아스카시대

횡형 도끼용 일체형 자루 중에서도 소형이 확립된다. 이 시기 주머니 있는 철제 도끼에도 일정한 정형화 경향을 지적할 수 있으므로 매우 흥미로운 현상이다.

B 일자형

머리 부분이 두껍고 태형 합인 돌도끼(太形蛤刃石斧)를 장착한 원형 구멍을 가진 것(그림31 오른쪽)과 머리 부분은 거의 두껍지 않은 판형 철제 도끼(직사각형 철제 도끼)용, 혹은 주머니 있는 철제로 몸과 자루 사이에 끼우기 위한 방형 구멍을 지닌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머리 부분 형상에 따라 몇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 몸과 자루 사이에 끼우는 것을 장착한 것을 제외하고 중형 도끼용임이 확실하다. 원형 구멍이 있는 것은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중기에 존속한다. 방형 구멍이 있는 것은 일부 형태는 야요이 중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대체로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에 사용되었다.

(2) 도자와 자루대패 자루

소수이기는 하나 도자나 자루대패의 자루가 유사한 사례가 있다. 도자 자루는 오사카부 미조쿠이 유적(溝作遺跡, 고분시대 후기)나 후쿠오카현(福岡県) 시모야마토유적(下山門遺跡, 고분시대 후기), 자루대패 자루는 오사카부 시모다유적(下田遺跡, 고분시대 전기)나 시가현 가모타유적(鴨田遺跡, 미제품: 야요이시대~아스카시대) 등에서 출토되었다. 도자나 자루대패 자루는 철기에 부착된 목질을 관찰하여 형태를 추측할 수 있다. 이러한 성과를 참고한다면 적은 유사 예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3) 횡형 망치(橫槌), 메(掛矢)

횡형 망치나 메라 불리는 곤봉 모양의 치는 도구가 존재한다. 대형으로 몸 단면이 방형인 것(그림 32) 중에는 몸체 부분에 명확히 팬 곳이 사용 흔적으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못 박기 등의 작업에 쓰인 메라 추정된다. 소형으로 몸체 단면이 원형인 것(그림36)은 몇 가지 형태가 있다. 짚이나 콩의 타작 용, 소형 절굿공이와 마찬가지로 찢기 작업용, 천을 부드럽게 하는(다듬이질) 용 등 용도가 다용하리라 여겨진다. 서일본에서는 야요이 전기, 동일본에서는 야요이 중기부터 유사 예가 존재한다. 당초보다 크기나 형태가 다양해졌으며, 고분시대 유사 사례를 보면 형태가 다른 몇 가지 그룹으로 수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4) 썰기

채별한 목재를 쪼개기 위해 이용되었다. 최초로 돌도끼 혹은 철제 도끼, 철제 끌 등으로 홈을 만들고 썰기를 삽입해 이를 횡형 망치나 메로 두드려 통나무를 쪼갬다. 유사 사례는 아직 많지 않으나 가나가와현(神奈川県) 이케고유적(池子遺跡, 야요이 중기)이나 아이치현(愛知県) 시모카케유적(下懸遺跡, 야요이 후기)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후자는 화이트오크의 통나무에 박힌 채 출토되어 주목을 모았다.

(5) 먹통

먹선과 조립해 긴 직선을 목재 등으로 끄는 도구로, 유사 사례가 알려져 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유사 사례는 현재 실물검토가 되어 있지는 않으나 고분시대 후기 시가현 호서선 관련 유적(湖西線関連遺跡) 출토품(그림37-6)이라 추정되며, 백제의 미륵사지 출토자료가 유사 예이다. 이와는 별도 계통으로 여겨지는 상자형 먹통이 8세기에 출현한다(그림37-4/5). 두 계통 모두 사원, 궁전, 관아 건축기 술과 깊은 관련이 있으리라 추정된다(우에하라 2009).

※인용 · 참고문헌은 원문 참조

古代日本における木製の生活用具

東村純子 _ 福井大學

目次	はじめに —日本の「衣食住」—
	1. 紡織具・編具
	2. 漁撈具・狩猟具
	3. 容器
	4. 食事具(匙・杓子)
	おわりに —木器からみた衣・食の生活復原と今後の課題—

はじめに —日本の「衣食住」—

「衣食住」、すなわち衣服と食物、住居が生活の基本的な要件であるという考えは多くの地域で見られる。とりわけ、日本の生活文化は古くから木を多用してきたため、欧州における「石の文化」に対して「木の文化」とも称される。日本の民俗学者である柳田国男は、石器や金属器を中心とする考古学研究に対して、次のように批判している。

「石とか金とかいう永く朽ちないものだけで、いろいろな過去を決められることは心細い。」
「日本は草木の殊に繁茂した島で、したがってその朽ちやすい資料を利用した文化が多い。これは形が残らないのが当たり前だから、それらにも気がつくように、自分らの学問を進めて行かなければならない。」

日本では、1943年に奈良県唐古遺跡で弥生時代前期の農具をはじめとする木製の生活用具がまとまって出土したのを契機に、現在では各地で木器が大量に出土し、器種ごとに機能や用途、形態の時期差や地域差が明らかにされてきた。また、2012年刊行の『木の考古学 出土木製品用材データベース』は、日本の遺跡出土の木器の種類と用材について各地域別に集大成したもので、森林植生と木材利用、木材・製品の流通に関する研究も進展している。

日本の出土木器の分類については、『木器集成図録』(近畿原始篇、及び近畿古代篇)で示された項目が概ね有効である。ただし、1936年にアチックミュージアムが提示した『民具蒐集調査

要目』では、「一、衣食住に関するもの」「二、生業に関するもの」が大項目に挙げられる。これに対して、出土木器はそれを使用する場や使用法などの用途や機能に関する情報を原則として欠いているため、『木器集成図録』では「農具」「工具」「紡織具」といった分類項目が適用される(上原1993)。

ここでは、主として西日本における弥生時代から奈良時代までの生活に関わる出土木器について項目別にみていく。ただし、この中には、儀礼や信仰など生業以外の他の行為に関わるものが含まれる可能性があることを付記しておきたい。

1. 紡織具・編具

紡織具として、糸をつくるための紡錘(つむ)、糸を巻き取るための杵(かせ)、罌(かせ)かけ、糸杵(いとわく)、布を織るための織機などがある。

(1) 紡錘

紡錘は、円盤状の紡輪(紡錘車)とその中心を貫通する紡莖とからなる。紡輪は弥生時代初めに出現し、土製・石製品が多いが木製品も少数存在する。土製・石製紡輪の孔内に木質が残る例があることから(図1-1)、基本的に木製の紡莖と組み合わせて使用したと考えられる。なかでも大阪府鬼虎川遺跡では、石製紡輪に木製紡莖が組み合った状態で出土した(図1-3)。木製紡輪は土製・石製よりも径が大きい傾向にあり、広葉樹を用いることが多い。弥生時代後期の福岡県久保園遺跡では、カシのミカン割り材を用いた5個連結の紡輪の未製品が確認できる(山口2013)。

弥生時代中期までの木製紡輪は断面長方形を呈するが、弥生時代末から古墳時代前期には断面台形状の紡輪が出現する。熊本県柳町I遺跡の出土例(図1-2)等から、紡輪広面を上に向けて使用したことがわかる。古墳時代後期から奈良時代には紡輪・紡莖ともに鉄製のものが普及し、木製や他の素材の紡輪は減少する。

(2) 糸巻具

棹は、1本の支え木と2本の腕木を工字形に組み合わせたもので、糸を巻き取り、総(輪状の糸束)をつくる道具である。弥生時代中期から確認でき、支え木の長さが70～100cmのものが多い。特に、麻などの植物性繊維は強靱で、水で湿らせて撚りをかけるため、棹に巻き取ることによってこれを乾かし、撚りを安定させる役割もあったと考えられる(図2-1)。

総かけは、細長い2本の支え木を十字に組み、回転軸をもつ台(図2-3)に乗せたもので、総を保持し、回転により糸を引き出すための道具である。遅くとも古墳時代前期に出現し、支え木の長さから大型と小型のものに大別できる(図2-2)。民俗例との比較から大型総かけは麻などの植物性繊維、小型総かけは絹繊維と使い分けたと考えられる。

糸棹は、十字に組んだ横木に杵木を組み合わせたもので、古墳時代中期以降に確認できる。主として、回転を利用して総を小分けし、経(たていと)を準備するために用いられた。古墳時代中期から後期(5世紀中頃～6世紀代)は、大阪府讃良郡条里遺跡や奈良県名柄遺跡など渡来系集落や豪族の居住域に集中してみられ、7世紀後半から8世紀にかけて宮都や地方の官衙遺跡からの出土例が大部分を占めるようになる(図5-1)。

(3) 織機

織機は、部材が分解した状態で出土することが多いため、その構造を復原するのは難しい。しかし、出土状況における部材の組み合わせ関係や古墳に副葬された石製模造品、アジア周辺の民族例との比較から、日本には2系統の織機が存在したことが明らかである(東村2012)。すなわち、弥生時代初めから古墳時代後期までは輪状式の腰機(原始機)が存続し、古墳時代中・後期に直状式の腰機(地機)と高機が出現した。

輪状式の腰機(原始機)の構造を特徴づけるのが布送具である。布送具は、兵庫県玉津田中遺跡や滋賀県碓遺跡、石川県八日市地方遺跡例等から2材1組であることが判明した(図3、図7-3)。2材はそれぞれ側面を凹凸状に噛み合うようにつくる。この部分で輪状に揃えた経を挟み、織手の腰に固定する。反対側は、経送具を足で突っ張り、経の弛張を調整しながら布に織り上げた。また、緯(よこいと)を打ち込むための緯打具も確認でき、糸が擦れた痕跡が残るものもある。特に、緯打具はアカガシ亜属など広葉樹でつくられる。

輪状式の腰機(原始機)で織り上がる布の長さは、織手の足の長さに規制されるため、日常衣料である「貫頭衣」の形態を復原することが可能である。すなわち、2枚の布を並べて連ね、折り返すと、膝上までの長さの衣服を1着つくることができる。

輪状式の腰機では織布の長さが規制されるのに対して、古墳時代中・後期に出現する直状式の腰機(地機)や高機は、あらかじめ経を経巻具に巻いておく構造であるため、長大な布を織ることができる。大阪府茄子作遺跡の出土部材(図4-2)は、高機を構成する可能性が指摘されており(黒須2005)、滋賀県斗西遺跡例は地機を経巻具や布巻具と認定できる(図4-1)。後の律令時代の上層階級の衣服につながる衣料製作は、これらの機部材を用いた技術に求められるだろう。7世紀後半から8世紀にかけて、糸枠と地機・高機を用いる直状系の製織技術が全国的に広がる状況が確認でき、税として徴収される織物の生産体制が成立する(東村2012)。

9世紀前半の但馬国府の推定地である兵庫県祢布ヶ森遺跡では、糸枠とともに「綾」の墨書土器が出土し、国衙工房で高級絹織物が生産されていたことを裏付ける(図5-1)。また、8世紀中頃から9世紀初めの神社遺構が検出された島根県青木遺跡でも、糸枠をはじめとする製織具が出土し、付近に織物工房が存在したことが推定される。

(4) 編具

もじり編みを基本とする編布は、縄文時代からつくられていたが、その製作具である木錘や編台の出土例は弥生時代中期から古代を通じて確認できる(図5-2)。編台は、刻みを入れた目盛板とそれを支える脚からなる。刻みの位置に糸、あるいは紐や縄を巻いた木錘を吊り下げ、横方向に糸、あるいは藁や葦などをのせ、木錘を交互に移動させてこれを編み込む。木錘は輪切りにした芯持材を加工したものと割材を加工したものとに大別でき、その形態によりさらに細分される(渡辺1981、上原1993)。

7世紀後半に阿波国名方評衙、後に阿波国府が置かれた徳島県観音寺遺跡では木錘が多量に出土しており、米などの物資運搬に必要な藁製品が集約的に生産され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藤川2010)。また、横槌状の木製品は、観音寺遺跡の出土例においては編具の木錘の一形式とみるのに対して(藤川2010)、福岡県元岡・桑原遺跡等の福岡市内の出土例においては祭祀具の人形とみる説がある(比佐・菅波2009)。いずれの場合も官衙関連遺跡に出土が集中する点で共通しており、遺跡の評価も含めてその用法を検討する必要がある。

2. 漁撈具・狩猟具

食料を手に入れるために必要な農具、収穫具、調整具については、前掲の魚津報告で詳しい解説があるため、その他の漁撈具や狩猟具について補足する。

(1) 櫂・アカ取り

漁撈具として、舟の推進具である櫂、舟底に溜まる水を汲み出す「アカ取り」、魚を捕るための笊(うけ)、浮子(うき)、網杵、箒(やす)などが確認できる。このうち、櫂(かい)については全国的な集成が行われた(吉田2005)。その結果、弥生時代に小型の櫂が増加し、古墳時代に大型の櫂が出現することから、丸木舟から準構造船への変化に対応すると考えられている。アカ取りは、弥生時代に出現し、一木を削り抜いてつくるものが多い(図6-1)。滋賀県の琵琶湖沿岸部に位置する入江内湖遺跡では古墳時代前期に属するアカ取りがまとまって出土し、スギやヒノキなど針葉樹からつくられていた。なお、アカ取りに似た形状で側面の立ち上がりが低いものは、笏掬いなど別の機能をもつ可能性がある(上原1993)。

(2) 網杵・箒(やす)

網杵は、枝分かれした木の幹を柄とし、枝をたわめて杵に仕上げる一木Y字形のもの(図6-2、図7-1)や、杵木のみの一木U字形などがある。杵木には網を留めるための穿孔をもつものもある。網杵は、弥生・古墳時代を通じて普遍的に存在し、生業としての漁撈具と位置づけられる。また、四ツ手網の杵木を固定するための十字杵なども奈良時代の静岡県伊場遺跡などで確認できる。

箒(やす)については、九州地方では弥生早期～前期の佐賀県菜畑遺跡や福岡県拾六町ツイジ遺跡等でイスノキ製の刺突具がみられる。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では、弥生時代の湖の堆積層に箒が突き刺さった状態で出土した。4本の中柄を1本の柄にくくりつける結合法がわかる(図6-3)。近畿地方では、弥生時代前期～中期の大阪府鬼虎川遺跡や兵庫県玉津田中遺跡等でモミ属を材とする刺突具がまとまって出土しているが、魚類の捕獲のための箒とは断定し難い。箒は、一般的に骨角製のものが多く、古墳時代には副葬品として鉄製のものが存在する。

(3) 弓矢

狩猟具として日本では縄文時代に弓矢の利用が発達したが、弥生時代は武器としても用いられるようになるため、ここでは詳述しない。弓は一般的にカヤ、イヌガヤを用材とする。縄文時代には漆を塗布した飾り弓が確認できるが、弥生時代以降は素木弓が多い(図7-2)。弓幹(ゆがら)の両端部は、弦(つる)の掛けるための弭(はず)づくり出す。その形状は多様で弦の掛け方などが検討されている。また、大阪府鬼虎川遺跡では弥生時代中期の石鏃のついた矢が出土した。矢柄の先端に石鏃を挟み、その周りを樺で巻いて固定している。

3. 容器

木製容器はその製作技法により、刳物・挽物・指物・曲物に大別できる。縄文時代の木製容器はすべて刳物で、高台が付くものや把手付きの水差し形など精巧につくられたものもあるが、基本的に皿や鉢類が多い。弥生時代になると、木製容器に多様な器種が確認できるようになる。

(1) 高杯

弥生時代に新たに出現する器種が高杯である。西日本では弥生時代前期に木製の高杯が土器のそれに先行してつくられる。杯部と脚部を一木でつくる一木式と、別々に作り結合する組み合わせ式があり、その製作技術や形態、装飾は地域により多様である。弥生時代前期の大阪府池島・福万寺遺跡出土の高杯は、ヤマグワ製で杯部と脚部に突帯が削り出され、赤と黒で彩文を描く(図8-1)。弥生中期までは水平口縁をもつ木製高杯が全国的に確認でき、ほぼ同じ形態の土器と併用されたが、後期になると近畿地方では土製高杯が盛行する。

一方、日本海沿岸部の山陰・北陸地方では、弥生時代後期以降、脚部に花卉状の飾りをもつ「花卉高杯」がつくられる。弥生時代後期の石川県西念・南新保遺跡から出土した花卉高杯(図8-2)は、ケヤキ製で6弁の花弁が浮き彫りされ、口縁部に把手状の耳が取り付けく。この資料はX線CTスキャンによる調査で轆轤(ろくろ)にかけて回転成形した挽物であることが指摘された(工楽1989)。近年では青谷上寺地遺跡出土例(図9)をもとに、木工轆轤を使用した花卉高杯などの復元製作が行われている(島根県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2013、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2013)。ただし、弥生時代の木製容器の大部分は刳物で、木工轆轤の使用は限定的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2) 椀・鉢・皿

椀・鉢・皿類は、弥生時代前期から中期まで確認できるが、古墳時代に属するものは少なく、高杯と同様に弥生時代後期以降は土器が主体となったと推定できる。後述するように、弥生時代後期から古墳時代前期には木製容器の系譜(上原1993)や食事様式(長友2005)に大きな画期があったと考えられている。

8世紀以降は、新たに挽物の椀・杯・皿が宮都や官衙遺跡を中心に確認できる。東日本では挽物の生産遺跡の検討から官営の木器工房の存在が明らかにされている(飯塚2000)。同様の状況が但馬国出石郡衙の推定地である兵庫県狭袴遺跡や丹波国氷上郡衙の推定地である兵庫県市辺遺跡においても指摘できる(図10、兵庫県立考古博物館2011)。

(3) その他の容器

その他の木製容器として弥生時代前期から中期には蓋の付く「合子(ごうす)」がつくられる。ケヤキやクワ属などを材とし、蓋に浮彫りをほどこすなど精製品が多い。また、弥生時代後期から古墳時代前期には北陸から山陰地方、近畿地方、九州北部では刳物桶(図9)が確認できる。その多くはスギなどの針葉樹を縦木取りにしてつくる。

曲物は、一般的には古墳時代以降に増加し、底板と側板を樺皮で結合する。奈良時代以降の曲物は樺皮で結合するものと木釘で固定するものとがみられる。

槽と盤は、平面方形もしくは楕円形の浅い容器で、削り痕を残す粗製品が大半である。椀・鉢・皿・高杯・合子などの精製品が弥生時代に隆盛し、古墳時代の製品がほとんどないのに対し、槽と盤は弥生・古墳時代を通じて一般的である(上原1993)。槽は日用の雑器として用いられたと考えられるが、大きさが多様で用途を特定するのは難しい。

4. 食事具(匙・杓子)

匙と杓子は、柄と身からなり、身の一方の面を削り込んだものである(図11-1、2)。身が浅く、楕円形、もしくは紡錘形を呈しているものを匙と呼ぶ。匙は、杓子と比較して出土例が少なく、漆を塗布したものもみられる。身が深く平面形が正円に近い杓子は、柄の取り付け角度から横杓子(横柄杓子)、縦杓子(縦柄杓子)などと呼ばれる。近畿地方では弥生時代前期から中期に盛行し、後期に減少する。

奈良時代の高級官僚以上は箸と匙で食事をしたが、弥生時代初めの匙・杓子は縄文時代の伝統を引き、赤く彩色されたものが多いことなどから日常の食事よりもむしろハレの食膳に供されたとみられる。また、杓子をその法量から料理を取り分ける調理具として位置づけ、山形に湾曲した柄が付く杓子は大型鉢と組み合わせて料理の盛り付けに、縦杓子は壺形土器に保管された水の掬い上げに使用したとみる考えもある(黒須2009)。

おわりに 一木器からみた衣・食の生活復原と今後の課題一

以上、概観した日本の出土木器から衣・食の生活復原にかかわる今後の課題について言及する。衣生活に関わる紡織具は紡錘を除く大半が木器である。したがって、出土資料の絶対数は少ないとはいえ、各紡織具の形態や組成をもとに紡織技術の復原や衣服形態の考察を行うことができる。一方、食生活に関わる出土資料は、土器をはじめ動植物遺体など木器以外の遺物が占める割合が高いため、本稿で扱う木器のみでは包括的な考察を行うことが難しい。木製容器、食事具等はその形態や製作技術の研究が進んできたが、食生活の復原といった視点での研究は少ないのが現状である。

弥生時代については近畿地方を対象に土器と木製容器とを合わせた食器組成の検討が行われている(長友2009)。すなわち、弥生時代前期には貯蔵具、盛り付け具、煮沸具、食事具などの基本器種が揃い、中期には多様化する。特に、盛り付け具である盤や椀、高杯は土器よりも木器の比重が高いことに注目できる。一方、後期になると、土製の盛り付け具(高杯と小型鉢)が増加するなど素材による器種分化が明瞭となる。さらに、天板と脚とを組み合わせる机(図11-3)や一木でつくる盤が出現し、地面に食器を置く食事から台に食器をのせる食事へ変化したことが指摘されている(長友2005)。

前述したように、木製容器のなかでも椀・鉢・皿・高杯など盛り付け具の精製品は、弥生時代に隆盛するが古墳時代にはほとんどなくなる。古墳時代中期以降は須恵器が土師器に加えて盛り付け具等の主体となり、奈良時代にはこれに挽物の皿などが加わる。今後、食事様式の変

化について、土製・木製の盛り付け具、木製の調度具等を包括的にみる必要があるだろう。

また、弥生時代の木製容器のうち、精製品を首長の所有物とし、日常生活の道具とは区別する考えがある(樋上2010)。ただし、遺物を使用した場やその所有者を特定するには、出土遺構や共伴遺物を考慮する必要がある(上原2009)。樋上論文で日常生活の道具に区分される紡織具についてみると、弥生前期～中期の輪状式の腰機を構成する布送具は、側面の凹凸状の噛み合わせや把手が精巧につくられ、細かな彫刻を施したものもあり、加工精度の差が使用の場の違いを示すというわけではない。民俗・民族資料を散見すると、精緻な木工技術が日常生活における精神文化の豊かさの範疇でとらえられるものも少なからずある。

弥生時代後期における北陸・山陰地方の装飾高杯等の高度な精製品については、その製作加工技術も含め、社会変動下での地域的特色の一要素として注目できるものの、弥生時代中期までは日常生活における木製容器の比重は相対的に高かったと考えておきた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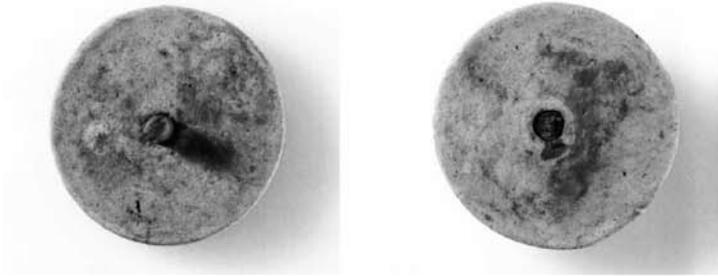
参考文献

- 青谷町教育委員会, 2002, 『青谷上寺地遺跡』
- 飯塚武司, 2000, 「古代手工業生産における木工」『考古学研究』 47-3
- 伊藤隆夫・山田昌久編, 2012, 『木の考古学 出土木製品用材データベース』海青社
- 上原真人編, 1985, 『木器集成図録 近畿古代篇』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 上原真人編, 1993, 『木器集成図録 近畿原始篇』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 上原真人, 2009, 「レブリカの威力」『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論集』出土木器研究会
- 黒須亜希子, 2005, 「茄子作遺跡出土の木製品について」『大阪文化財研究』 27, 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 黒須亜希子, 2009, 「弥生時代の木製調理具」『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論集』出土木器研究会
- 工楽善通, 1989, 「木製高杯の復元」『古代史復元5 弥生人の造形』
- 小松市教育委員会, 2006, 『県文化財指定記念特別展 八日市地方遺跡―地中から今、弥生時代が甦る―』
- 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05, 『青谷上寺地遺跡出土品調査研究報告1 木製容器・かご』
- 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08, 『弥生の至宝～花卉高杯とその背景～』
- 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2013, 『木製品から見た古代の暮らし』
- 島根県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 2013, 『島根県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企画展 匠の技―弥生木製品から出雲大社まで―』
- 仙台市富沢遺跡保存館, 2001, 『平成13年度特別企画展 編む・組む―技の考古学―』
- 但馬国府・国分寺館, 2012, 『祢布ヶ森遺跡第40・41次発掘調査報告書―第2次但馬国府跡の調査I―』
- 長友朋子, 2005, 「弥生時代から古墳時代への食事様式の変化とその歴史的意義」『待兼山考古学論集―都出比呂志先生退任記念―』大阪大学考古学研究室
- 長友朋子, 2009, 「弥生時代の食器組成の変化と食器生産」『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論集』出土木器研究会
- 東村純子, 2012, 『考古学からみた古代日本の紡織』(新装改訂版)六一書房
- 樋上昇, 2010, 『木製品から考える地域社会―弥生から古墳へ―』雄山閣出版
- 比佐陽一郎・菅波直人, 2009, 「古代の遺跡から出土する横槌状木製品について」『木・ひと・文化～出土木器研究会論集』出土木器研究会
- 兵庫県立考古博物館, 2011, 『兵庫県立考古博物館特別展図録 木のうつわ 六千年の技』
- 藤川智之, 2010, 「大量出土の「ツチノコ」が示すもの―阿波国府評価の一視点―」『考古学は何を語るか』同志社大学考古学シリーズX
- 山口譲治, 2013, 「九州における木製品研究の現状と課題」『木製品から見た古代の暮らし』島根県古代文化センター
- 山田昌久, 2004, 『考古資料大観8 弥生・古墳時代 木・繊維製品』小学館
- 吉田知史, 2005, 「日本原始・古代の櫛の研究」『待兼山論叢』 39 (史学篇)
- 渡辺誠, 1981, 「もじり編み用木製錘の考古資料について」『考古学雑誌』 6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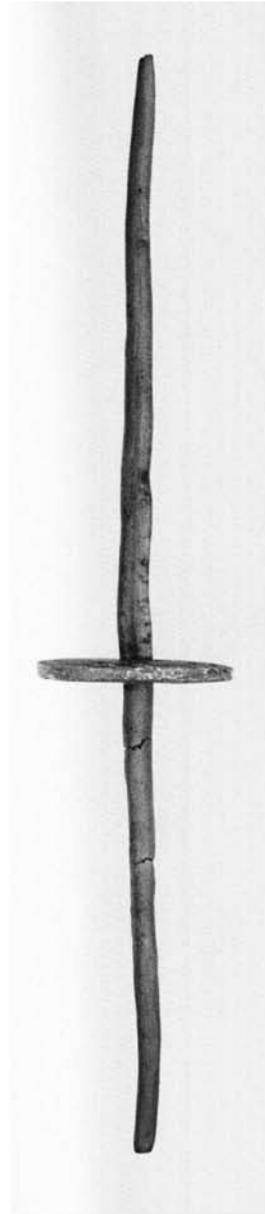
図出典

- 図1-1(仙台市富沢遺跡保存館2001)
- 図2-1(山田2004)
- 図3-2(東村2012)
- 図5-1(但馬国府・国分寺館2012)
- 図6(青谷町教育委員会2002)
- 図7(小松市教育委員会2006)
- 図8(兵庫県立考古博物館2011)
- 図9(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08)
- 図10(兵庫県立考古博物館2011)
- 図11-1(兵庫県立考古博物館2011)、
 - 2(鳥取県埋蔵文化財センター 2008)、
 - 3(島根県立古代出雲歴史博物館2013)

※特に明記のないものは、各遺跡の発掘調査報告書より転載した。



1. 福岡県雀居遺跡 弥生早期



3. 大阪府鬼虎川遺跡
弥生中期



2. 熊本県柳町 I 遺跡 弥生末期~古墳前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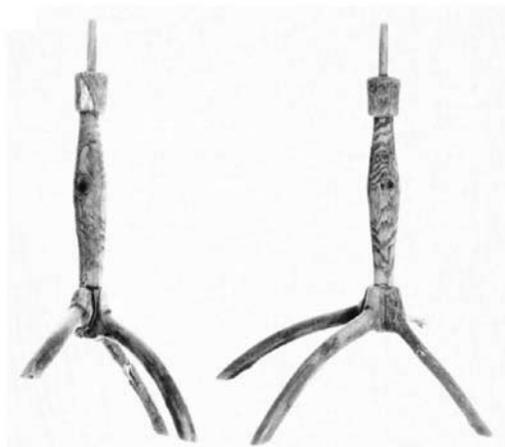
图1. 紡錘



1. 「杵」三重県六大 A遺跡
弥生後期～古墳前期



2. 「総かけ」左：静岡県山ノ花遺跡 古墳中期
右：奈良県平城京跡 奈良時代



3. 「総かけの台」長野県榎田遺跡 古墳中期

図2. 糸巻具



布送具の出土状況



緯打具



布送具

1. 兵庫県玉津田中遺跡 弥生中期後半



2. 滋賀県碓遺跡 弥生前期

図3. 織機 (原始機部材)



經卷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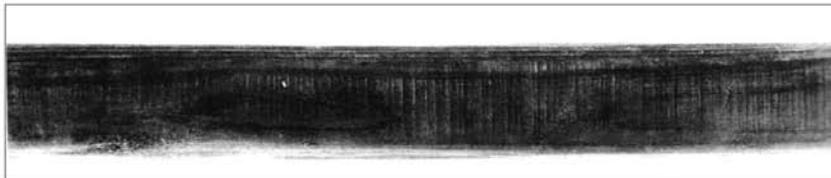


布卷具

1. 滋賀県斗西遺跡 古墳後期



經返具



(糸擦れ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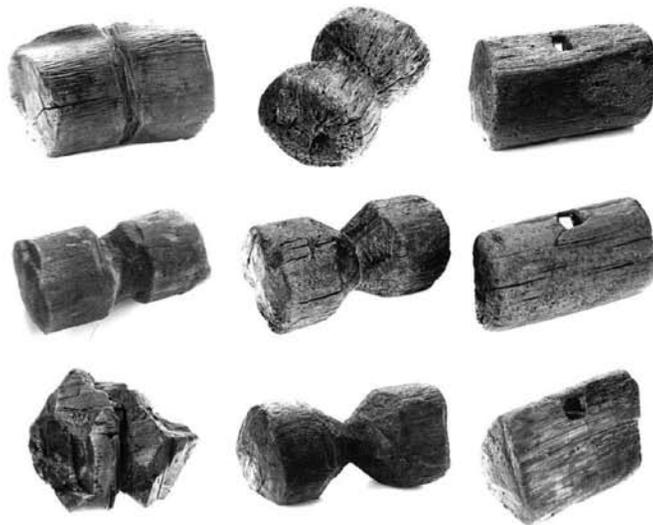
2. 大阪府茄子作遺跡 古墳中期

図4. 織機 (地機・高機部材)



「糸粹」

1. 兵庫県祢布ヶ森遺跡 平安時代（9世紀前半）



「木錘」

2. 岐阜県柿田遺跡 弥生中期～古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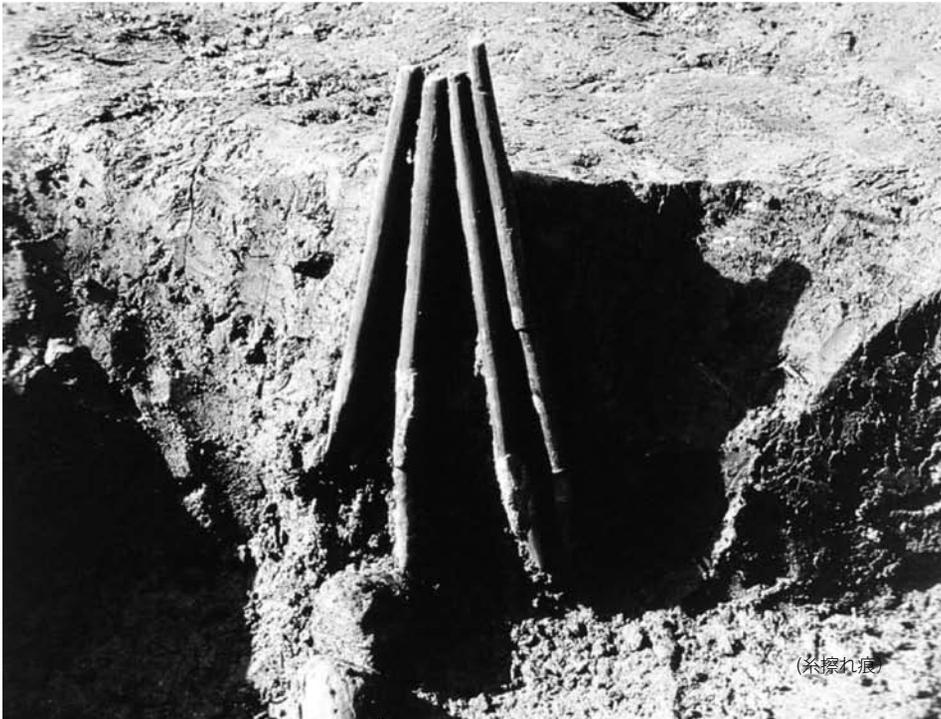
図5. 糸巻具・編具



1. 櫂・アカ取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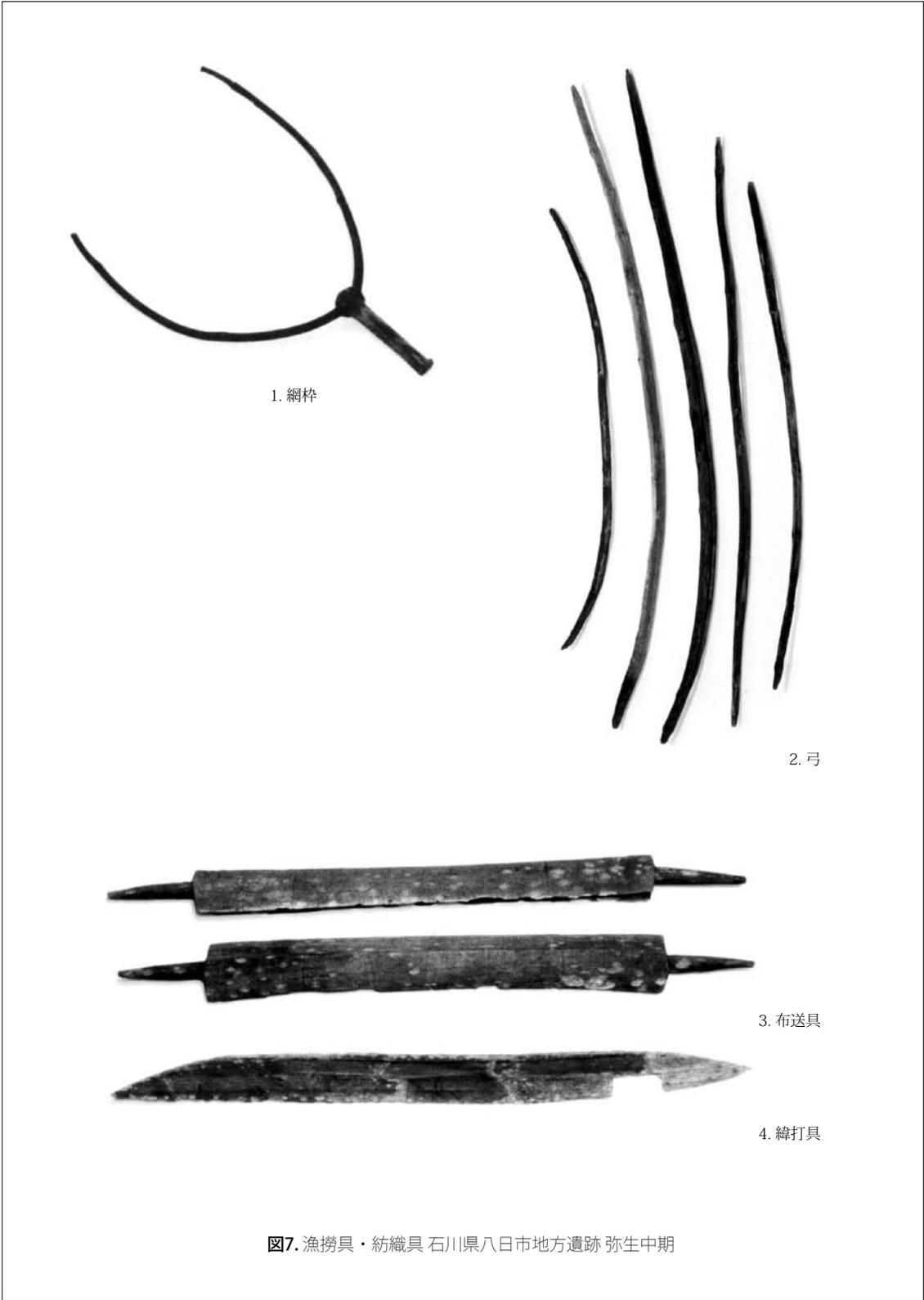


2. 網枠



3. 箱の出土状況

図6. 漁撈具 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弥生中期～後期



1. 網杵

2. 弓

3. 布送具

4. 織打具

图7. 漁撈具・紡織具 石川県八日市地方遺跡 弥生中期



1. 大阪府池島・福万寺遺跡 弥生前期



2. 石川県西念・南新保遺跡 弥生後期

图8. 木製高杯



図9. 木製容器 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弥生中期～後期



1. 兵庫県市辺遺跡 奈良時代



2. 兵庫県袴狭遺跡 奈良～平安時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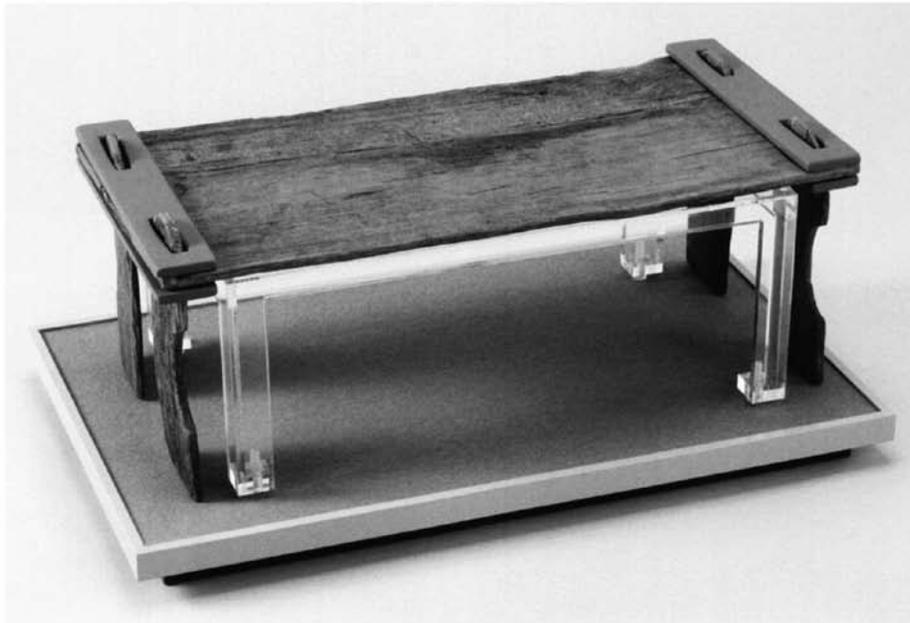
图10. 木製容器 (挽物)



1. 「杓子」兵庫県下加茂遺跡 弥生中期



2. 「匙」鳥取県青谷上寺地遺跡 弥生中期～後期



3. 「机」福岡県雀居遺跡 弥生後期

图11. 食事具・調度具

고대 일본의 목제 생활용구

히가시무라 준코 _ 후쿠이대학

<u>目次</u>	서론
	1. 방직구, 편물구
	2. 어로구, 수렵구
	3. 용기
	4. 식사구(숟가락, 국자)
	결론

서론 - 일본의 ‘의식주’ -

‘의식주’, 즉 의복, 음식, 주거가 생활의 기본적인 요건이라는 인식은 많은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의 생활문화는 오래 전부터 나무를 많이 사용해 왔기에 유럽의 ‘돌 문화’와 대조하여 ‘나무 문화’라고도 칭한다. 일본의 민속학자인 야나기타 쿠니오(柳田国男)는 석기나 금속기를 중심으로 하는 고고학 연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나무나 쇠처럼 오래도록 썩지 않는 것만으로 다양한 과거를 결정지어버린다면 좀 허전하다.”

“일본은 초목이 특히 무성한 섬이고 따라서 그 썩기 쉬운 자료를 이용한 문화가 많다. 이는 형태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당연하므로 그러한 것들에도 신경을 써 가며 자신의 학문에 정진해 나가야 한다.”

일본에서는 1943년에 나라현(奈良県) 가라코유적(唐古遺跡)에서 야요이시대 전기 농기구를 비롯한 목제 생활용구가 다량 출토된 것을 계기로, 현재에는 각지에서 목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어 목기 종류마다 기능이나 용도, 형태 시대나 지역차가 분명해졌다. 또한 2012년 간행된 『나무의 고고학 출토 목제품용 재료 데이터베이스(木の考古学出土木製品用材データベース)』는 일본의 유적에서 출토된 목기 종류와 그 재료에 대해 각 지역별로 집대성한 것으로, 삼림식생과 목재이용, 목재, 제품 유통에 관한 연구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출토목기 분류에 대해서는 『목기집성도록(木器集成図録)』(긴키원시편(近畿原始篇) 및 긴키고대편(近畿古代篇))에서 나타난 항목이 대체적으로 유효하다. 다만 1936년에 애틱 뮤지움(Attic

Museum)이 제시한 『민구수집조사요목(民具蒐集調査要目)』에서는 ‘의식주에 관한 것’, ‘생업에 관한 것’이 큰 항목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대해 출토목기는 이를 사용하는 장소나 사용법 등의 용도나 기능에 관한 정보가 원칙적으로 모자라기 때문에 『목기집성도록』에서는 ‘농구’, ‘공구’, ‘방직기구’와 같은 분류항목이 적용된다(우에하라(上原)1993).

여기에서는 주로 서일본의 야요이시대에서 나라시대에까지 생활에 관한 출토목기에 대해 항목 별로 살펴보겠다. 다만 이 중에는 의례나 신앙 등 생업 이외의 행위에 관한 것이 포함되었을 가능성 역시 있다는 사실을 덧붙여 두고 싶다.

1. 방직구, 편물구

방직구로서 실을 만들기 위한 방추, 실을 감기 위한 실패, 타래걸이, 열레, 천을 짜기 위한 베틀 등이 있다.

(1) 방추

방추는 원반형 가락바퀴(紡輪, 방추차)와 그 중심을 관통하는 가락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락바퀴는 야요이시대 초기에 출현했고 토제, 석제품이 많으나 목제품도 소수 존재한다. 토제, 석제 가락바퀴 구멍 안에 목질이 남아 있는 사례를 살펴봤을 때(그림1-1), 기본적으로 목제 가락과 조합해 사용하였다고 추정된다. 그 중에서도 오사카부(大阪府) 기토라가와유적(鬼虎川遺跡)에서는 석제 가락바퀴에 목제 가락이 조합된 상태로 출토되었다(그림1-3). 목제 가락은 토제, 석제보다 직경이 큰 경향을 띠고 활엽수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야요이시대 후기 후쿠오카현(福岡県) 구보조노 유적(久保園遺跡)에서는 떡갈나무를 등글게 썬 단면을 다시 4등분한 방식으로 재료를 이용하여 5개 연결한 가락바퀴 미제품이 확인되었다(야마구치 2013).

야요이시대 중기까지의 목제 가락바퀴는 단면 장방형을 나타내지만 야요이시대 말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에는 단면 부등변 사각형의 가락바퀴가 출현했다. 구마모토현(熊本県) 야나기마치I유적(柳町I遺跡) 출토 사례(그림1-2) 등에서 가락바퀴 넓은 면을 위로 향해 사용했음을 알 수 있었다. 고분시대 후기부터 나라시대에는 가락바퀴, 가락 둘 다 철제가 보급되었고 목제나 다른 소재 가락바퀴는 감소한다.

(2) 실패

실패는 하나의 지탱하는 나무와 두 개의 가로대를 공(工)자형으로 조합한 것으로 실을 감고, 실이나 타래(원형 실 뭉치)를 만드는 도구이다.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확인되며 지탱하는 나무의 길이가 70~100cm인 것이 많다. 특히 삼 등 식물성 섬유는 강인해서 물로 적셔 꼬기 때문에 실패에 감으면서 이를 건조시키고 꼬임을 안정시키는 역할까지 했을 것으로 보인다(그림2-1).

타래걸이는 가늘고 긴 두 개의 지탱하는 나무를 십자로 짜서 회전축을 가진 대(그림2-3)에 놓은 것으로 타래를 고정시키고 회전으로 실을 뽑기 위한 도구이다. 늦어도 고분시대 전기에는 출현했고 지탱하는 나무 길이로 대형과 소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그림2-2). 민속 사례와 비교해 보면 대형타래걸이는 삼 등의 식물성 섬유, 소형 타래걸이는 견섬유로 구분해 사용했다고 추정된다.

얼레는 십자로 댄 가로대에 틀 나무를 조합한 것으로 고분시대 중기 이후에 확인된다. 주로 회전을 이용해 타래를 작게 나누어 날실을 준비하기 위해 이용되었다. 고분시대 중기부터 후기(5세기 중엽~6세기)는 오사카부 사라군조리유적(讚良郡条里遺跡)이나 나라현(奈良縣) 나가라우적(名柄遺跡) 등 도래계 촌락이나 호족 주거지역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걸쳐 도성이나 지방 관아유적에서 대부분 출토되었다.그림5-1).

(3) 베틀

베틀은 부재가 분해된 상태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아 그 구조를 복원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출토 상황에 있어서 부재의 조합관계나 고분에 부장된 석제모조품, 아시아 주변 민족 사례와 비교를 함으로써 일본에는 두 계통의 베틀이 존재했음이 분명해졌다(히가시무라 2012). 즉, 야요이시대 초기부터 고분시대 후기까지는 고리모양 부티(원시베틀)가 존속했고 고분시대 중후기에 곧은 형태의 부티(얇은 뱅이베틀)와 얇은 베틀이 출현했다.

고리모양 부티(원시베틀)의 구조를 특징짓는 것이 잉앗대(布送具, 천을 뒤로 보내는 도구)이다. 잉앗대는 효고현(兵庫縣) 다마츠타나카유적(玉津田中遺跡)이나 시가현(滋賀縣) 이카리유적(碓遺跡), 이시카와현(石川縣) 요카이치치카타유적(八日市地方遺跡) 사례 등에서 두 장이 한 쌍임이 판명되었다(그림3, 그림7-3). 두 장은 각기 측면을 오목하고 볼록하게 끼워 넣어 만든다. 이 부분에서 고리모양으로 똑같이 만든 날실을 끼우고 천을 짜는 사람의 허리에 고정시킨다. 반대쪽은 날실을 보내는 도구를 다리로 쭉 뻗어 눌러 날실의 긴장과 이완을 조정하면서 천으로 짜 올렸다. 또한 씨실을 쳐서 넣기 위한 바디도 확인되었고 실이 마찰로 닳은 흔적이 남은 것도 있었다. 특히 바디는 북가시나무아속(匪屬) 등 활엽수로 만들어졌다.

고리모양 부티(원시베틀)로 짠 천의 길이는 천을 짜는 사람의 다리길이의 제약을 받으므로 일상적인 의류인 ‘판초 모양의 옷’ 형태를 복원할 수 있다. 즉 두 장의 천을 겹쳐 접어 뒤집으면 무릎 위까지 오는 옷을 한 벌 만들 수 있다.

고리모양 부티로는 천의 길이에 제약이 있는 반면 고분시대 중후기에 출현하는 얇은뱅이베틀이나 얇을개 베틀은 미리 날실을 감는 도구에 감아 두는 구조이므로 길고 큰 천을 짤 수 있다. 오사카부 나스즈쿠리유적(茄子作遺跡) 출토부재(그림4-2)는 얇을개를 구성했을 가능성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으며(구로스(黒須) 2005), 시가현 도노니시유적(斗西遺跡) 사례는 얇은뱅이베틀의 날실 감는 도구나 천 감는 도구라고 볼 수 있다(그림4-1). 후에 율령시대 상층계급 의복으로 발전하는 의류 제작을 위해 이러한 베틀 부재를 이용한 기술이 필요했을 것이다. 7세기 후반에서 8세기에 걸쳐 얼레와 얇은뱅이 베틀, 얇을개 베틀을 이용한 끈은 형태 부티를 통한 제직기술이 전국적으로 파급된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세금으로 징수하는 직물 생산체계가 성립되었다(히가시무라 2012).

9세기 전반 다지마코쿠후(但馬国府) 추정지인 효고현(兵庫縣) 노가모리유적(兵庫縣祢布ヶ森遺跡)에서는 얼레와 함께 ‘농직’ 목서토기가 출토되어 관아 공방에서 고급견직물이 생산되었음을 방증하고 있다(그림5-1). 또한 8세기 중엽부터 9세기 초엽의 신사유구가 검출된 시마네현(島根縣) 아오키유적(青木遺跡)에서도 얼레를 비롯한 제직기구가 출토되어 부근에 직물공방이 존재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4) 편물구

비틀어 짜기를 기본으로 하는 편물은 조몬시대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나 제작도구인 나무추나 편대(編臺) 출토 사례는 야요이시대 중기부터 고대에 걸쳐 확인할 수 있다(그림5-2). 편대는 깎은 눈금 판과 이를 지탱하는 다리로 구성되어 있다. 눈금 위치에 실 또는 끈이나 새끼줄을 감은 나무추를 달고 옆 방향에 실 또는 짚이나 갈대 등을 놓아 나무추를 교대로 이동시켜 짠다. 나무추는 고리모양으로 자른 심 있는 목재를 가공한 것과 쪼갠 목재를 가공한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으며 그 형태에 따라 더욱 세분화할 수 있다(와타나베(渡辺) 1981, 우에하라 1993).

7세기 후반에 아와노쿠니나카타군아(阿波国名方評衙), 후에 아와노쿠니코쿠후(阿波国府)가 설치된 도쿠시마현(徳島縣) 간논지유적(観音寺遺跡)에서는 나무추가 다수 출토되었고 쌀 등 물자운반에 필요한 짚 제품이 집약적으로 생산되었을 것이라는 논고도 있다(후지카와(藤川) 2010). 또한 황형 망치 모양의 나무제품은 간논지유적 출토 사례에서는 편물 도구 나무추의 한 형식이라고 보는 입장에 대해(후지카와 2010), 후쿠오카현 모토오카(元岡)/구와바라유적(桑原遺跡) 등 후쿠오카시내 출토 사례에서는 제사도구 인형으로 보는 설이 있다(히사(比佐), 스가나미(菅波) 2009). 양쪽 모두 관아관련 유적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는 점이 공통적이며 유적 평가와 더불어 그 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어로구, 수렵구

식량을 얻기 위해 필요한 농기구, 수확기구, 조정기구에 대해서는 앞서 우오즈(魚津)씨가 상세히 보고했으므로 여기서는 그 외 어로구와 수렵구에 대해 덧붙이겠다.

(1) 노, 아카토리(ア力取り)

어로구로서 배의 추진구인 노, 배 바닥에 찬 물을 퍼내는 ‘아카토리’,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망 틀, 작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노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파악한 집성이 출간되었다(요시다(吉田) 2005). 그 결과 야요이시대에 소형 노가 증가하고 고분시대에 대형 노가 출현했음을 고찰해 봤을 때 통나무배에서 준구조선으로 변화에 대응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카토리는 야요이시대에 출현하였고 나무 하나를 파내어 만든 것이 많았으리라 추정된다. 시가현 비와호수(琵琶湖) 연안부에 위치하는 이리에나이호수유적(入江内湖遺跡)에서는 고분시대 전기에 속하는 아카토리가 다수 출토되었고 삼나무나 편백나무 같은 침엽수로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아카토리와 닮은 형상으로 측면이 깊지 않은 것은 쌀겨를 푸기 위한 것 등 다른 기능을 가졌을 가능성이 있다(우에하라 1993).

(2) 어망 틀, 작살

어망 틀은 두 갈래로 갈라진 나뭇가지를 자루로 삼고 가지를 휘게 해 틀로 만든 Y자 일체형(그림 6-2, 그림 7-1)이나 틀만 있는 U자 일체형 등이 있다. 틀에는 어망을 끼우기 위한 구멍을 가진 것도 있다. 어망 틀은 야요이, 고분시대를 통틀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생업으로서의 어로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또한 사방 어망 틀을 고정시키기 위한 십자 틀 역시 나라시대의 시즈오카현(静岡縣) 이바유적(伊場遺跡) 등에서 확인된다.

작살은 규슈지방에서는 야요이시대 초기~전기의 사가현(佐賀縣) 나바타케유적(菜畑遺跡)이나 후쿠오카현 주로쿠초츠이지유적(拾六町ツイジ遺跡) 등에서 조록나무로 만든 자돌구가 발견되었다. 돗토리현(鳥取縣) 아오야가미지치유적(靑谷上寺地遺跡)에서는 야요이시대의 호수 퇴적층에 작살이 꽃힌 상태로 출토되었다. 4개의 중간 자루를 하나의 자루에 묶은 결합법을 알 수 있다(그림 6-3). 긴키(近畿)지방에서는 야요이시대 전기~중기 오사카부 기토라가와유적이나 효고현(兵庫縣) 다마츠타나카유적(玉津田中遺跡) 등에서 전나무속으로 만든 자돌구가 다수 출토되었으나 어류 포획을 위한 작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작살은 일반적으로 골각제가 많고 고분시대에는 부장품으로 철제가 출토된다.

(3) 활과 화살

수렵구로 일본에서는 조몬시대에 활과 화살 이용이 발달했으나 야요이시대에는 무기로도 이용되어 여기서는 상술하지 않겠다. 활은 일반적으로 비자나무나 개비자나무로 만든다. 조몬시대에는 옷칠을 한 장식용 활이 확인되었으나 야요이시대 이후에는 칠하지 않은 활이 많다(그림7-2). 활의 양끝에는 시위를 걸기 위한 활고자를 만든다. 형상이 다양하며 시위를 거는 방법 등에 대한 연구가 있다. 또한 오사카부 기토라카와유적에서는 야요이시대 중기 돌살촉이 달린 화살이 출토되었다. 화살 끝에 돌살촉을 끼우고 그 주위를 자작나무로 묶어 고정시켰다.

3. 용기

목제용기는 그 제작방법에 따라 나무를 판 것, 깎아 만든 것, 널빤지를 짜 맞춘 것, 구부려 만든 것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몬시대 목제용기는 모두 나무를 판 것으로 다리가 붙은 것이나 손잡이가 달린 귀뚜라기 등 정교하게 만들어진 것도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접시나 사발 종류가 많다. 야요이시대에 들어서면 목제용기에 다양한 종류가 나타나게 된다.

(1) 고배(高杯)

야요이시대에 새로 출현한 용기 종류가 고배이다. 서일본에서는 야요이시대 전기에 목제 고배가 토기보다 먼저 만들어졌다. 잔부분과 다리부분을 하나의 나무로 만든 일체형과 따로 만들어 결합시키는 조립식이 있으며 제작 기술이나 형태, 장식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야요이시대 전기 오사카부 이케시마(池島)/후쿠만지유적(福万寺遺跡)에서 출토된 고배는 뽕나무로 만든 잔 부분과 다리부분에는 덧띠가 튀어나와 있고 붉고 검은 색으로 채색되어 있다(그림8-1). 야요이중기까지는 수평 구연을 지닌 목제 고배가 전국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거의 같은 형태의 토기도 병용되었으나 후기에 접어들수록 긴키지방에서는 토제 고배가 성행하게 된다.

한편 동쪽 연안부 산인(山陰)/호쿠리쿠(北陸)지방에서는 야요이시대 후기 이후, 다리부분에 꽃잎모양의 장식을 가진 ‘꽃잎고배’가 제작되었다. 야요이시대 후기 이시카와현(石川県) 사이넨(西念)/미나미신보유적(南新保遺跡)에서 출토된 꽃잎고배(그림8-2)는 느티나무로 만들어졌고 6장의 꽃잎이 부조로 장식되어 있으며 구연부에 손잡이 모양 귀뚜가 붙어 있다. 이 자료를 X선 CT검사로 조사해 본 결과, 돌립판(녹로)으로 돌려 깎아 성형한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구라쿠(工楽) 1989). 최근에는 아오야카미지치유적 출토 사례(그림9)를 바탕으로 목공 돌립판을 사용한 꽃잎고배 등의 복원제작이 이

루어지고 있다(시마네현립 고대이즈모역사박물관 2013, 시마네현고대문화센터 2013). 단, 야요이시대 목제용기의 대부분은 나무를 파낸 것으로 목공 돌림판은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으리라 추정된다.

(2) 공기, 사발, 접시

공기, 사발, 접시 종류는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중기까지 확인되나 고분시대에 속하는 것은 드물고 고배와 마찬가지로 야요이시대 후기 이후에는 토기가 주류를 이루었으리라 추정된다. 후술하겠지만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에는 목제용기 계보(우에하라 1993)나 식사양식(나가토모(長友) 2005)에 커다란 획기(画期)가 있었으리라 보인다.

8세기 이후에는 나무를 깎아 만든 공기, 사발, 접시가 도성이나 관아유적을 중심으로 확인되었다. 동일본에서는 나무를 깎아 만든 용기의 생산유적을 검토함으로써 관영 목기공방이 존재했음이 밝혀졌다(이즈카(飯塚) 2000). 마찬가지로 상황을 다지마노쿠니이즈시군아(郡衙) 추정지인 효고현 하카자유적(狹袴遺跡)이나 단바노쿠니히카미군아(丹波国氷上郡衙) 추정지인 효고현 이치베유적(市辺遺跡)에서도 지적할 수 있다(그림10, 효고현립고고박물관 2011).

(3) 그 외 용기

그 외 목제용기로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중기에는 ‘뚜껑 있는 그릇’이 제작되었다. 느티나무나 뽕나무속 등을 재료로 하며 뚜껑에 부조로 장식하는 등 정교한 용기가 많다. 또한 야요이시대 후기부터 고분시대 전기에는 호쿠리쿠에서 산인지방, 긴키지방, 규슈 북부에서는 속을 파낸 통(그림9)이 확인되었다. 그 대부분은 삼나무 등 침엽수를 세로로 파내어 만든다.

구부러 만든 용기는 일반적으로는 고분시대 이후에 증가하고 바닥 판과 측면 판을 자작나무껍질로 결합시킨다. 나라시대 이후, 구부러 만든 용기는 자작나무 껍질로 결합시킨 것과 나무못으로 고정시킨 것 등이 발굴되었다.

소우(槽)와 반(盤)은 평면이 방형 혹은 타원형인 깊이 얇은 용기로 깎은 흔적을 남기는 조약한 제품이 대부분이다. 공기, 사발, 접시, 고배, 뚜껑 있는 용기 등의 정교한 제품이 야요이시대에 융성하고 고분시대 제품은 거의 없는데 반해 소우와 반은 야요이, 고분시대를 통틀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우에하라1993). 소우는 일상 잡기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보이거나 크기가 다양하여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다.

4. 식사구(손가락, 국자)

손가락과 국자는 자루와 몸으로 되어 있으며 몸의 한 면을 파낸 것이다(그림11-1, 2). 몸이 깊지 않고 타원형, 혹은 방추형인 것을 손가락이라 한다. 손가락은 국자에 비해 출토 사례가 적고 옷칠을 한 것도 출토되었다. 몸이 깊고 평면형이 둥근 원에 가까운 국자는 자루를 붙이는 각도에 따라 횡형 국자, 종형 국자 등으로 불린다. 긴키지방에서는 야요이시대 전기부터 중기에 성행했고 후기에는 감소했다.

나라시대 상급관료 이상에서는 손가락과 젓가락으로 식사를 했으나 야요이시대 초기의 손가락과 국자는 죠몬시대의 전통을 이어받아 붉게 채색된 것이 많은 것으로 보아 일상적인 식사보다는 명절이나 잔치 식사 때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자의 크기에 따라 요리를 나누기 위한 조리기구로 자리매김하고, 산 모양으로 완곡한 형태의 자루가 달린 국자는 대형 접시와 짝으로 요리를 뜨기 위해, 종형 국자는 항아리형 토기에 보관된 물을 뜨기 위해 사용되었으리라 추정하는 연구도 있다(구로스 2009).

결론 -목기를 통해 본 의식 생활의 복원과 앞으로의 과제-

이상으로 개관한 일본의 출토목기를 통해 의식 생활 복원과 관련된 금후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의생활에 관한 방직구는 방추를 제외한 대부분이 목기이다. 따라서 출토자료의 절대적인 숫자는 모자라지만 각 방직구 형태나 조성을 바탕으로 방직기술 복원이나 의복형태를 고찰할 수 있다. 한편 식생활에 관한 출토자료는 토기를 비롯해 동식물 유체 등 목기 이외의 유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므로 본고에서 다루는 목기만으로는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어렵다. 목제용기, 식사도구 등은 그 형태나 제작기술 연구가 진척되어 왔으나 식생활 복원이라는 시점에서 연구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야요이시대에 대해서는 긴키지방을 대상으로 토기와 목제 용기를 합한 식기 조성 검토가 이루어졌다(나가토모 2009). 즉 야요이시대 전기에는 저장 도구, 담은 용기, 끓이는 도구, 식사 도구 등 기본기종이 갖춰졌으며 중기에는 더욱 다양해졌다. 특히 담은 용기인 반이나 공기, 고배는 토기보다 목기 비중이 높았다는 사실이 주목할 만하다. 한편 후기에 이르면 토제 담은 그릇(고배와 소형 사발)이 증가하는 등 소재에 의한 기종의 분화가 명료해진다. 더욱이 판과 다리모 이루어진 용기(그림11-3)이나 나무 하나로 만드는 반이 출현해 땅바닥에 식기를 놓는 식사에서 상에 식기를 놓는 식사로 변화했음을 지적하는 연구도 있다(나가토모 2005).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목제용기 중에서도 공기, 사발, 접시, 고배 등 담은 용기인 정교한 제품은 야요이시대에 융성했으나 고분시대에는 거의 사라진다. 고분시대 중기 이후에는 토기인 스에키(須恵器)가 하지키(土師器)와 더불어 담은 그릇 등의 주체가 되었으며 나라시대에는 이에 나무를 깎아 만든 접시 등이 더 만들어졌다. 앞으로 식사양식의 변화에 대해 토제, 목제 담은 그릇, 목제 생활용품 등을

포괄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야요이시대 목제용기 중 정교한 제품을 수장의 소유물로 보고 일상생활 도구와는 구별하는 연구가 있다(히가미 2010). 다만 유물을 사용한 장소나 그 소유자를 밝히기 위해서는 출토유구나 함께 출토된 유물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우에하라 2009). 히가미 논문에서 일상생활 도구와 구분되는 방직구에 대해 살펴보면 야요이 전기~중기의 고리모양 부티를 구성하는 잉앗대는 측면의 울퉁불퉁한 맞물림이나 손잡이가 정교히 만들어져 있고 세심히 조각된 것도 있어 가공의 정밀도가 사용 장소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민속, 민족자료를 살펴보면 정교하고 치밀한 목공기술이 일상생활에서 풍요로운 정신문화를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되는 사례들도 많다.

야요이시대 후기의 호쿠리쿠, 산인지방 장식 고배 등 고도의 정교한 제품은 그 제작가공기술까지 포함해 사회변동 하에서 지역적 특색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으나, 야요이시대 중기까지 일상생활에서 목제용기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었다고 판단된다.

※인용 · 참고문헌은 원문 참고

사례 발표

한·일 고대 목기유물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International Symposium of Korea · Japan Ancient Wooden Artifacts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생활구 목기의 검토

우 병 철 (영남문화재연구원)

昌原 新方里 · 釜山 古村里 低濕遺蹟을 통해 본 三國時代의 木器

배 덕 환 (동아시아문화재연구원)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 · 공구에 대한 검토

민 경 선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부여 쌍북리 현내들 · 북포유적 출토 목기에 대한 검토

이 의 지 (충청문화재연구원)

아산 갈매리유적 출토 목기의 가공과 활용

오 원 철 (한국고고환경연구소)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생활구 목기의 검토

우 병 철 _ 영남문화재연구원

<u>目次</u>	I. 머리말
	II.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개요 및 성격
	III.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주요 생활구 목기류
	IV.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기류의 검토
	V. 맺음말

I. 머리말

한반도에서 목기의 사용은 구석기시대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과거부터 인간의 생업 등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된 목기의 중요성은 누구나 인지할 수 있지만 목기는 석기, 청동기, 철기, 토기 등의 재질과 달리 짧게는 수십 년에서 길게는 수천년간 잔존하기 어려운 한반도의 토양 환경으로 인해 그 동안 자료의 한계가 많았다. 이 때문에 목기에 대한 연구현황¹⁾ 역시 타 분야에 비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선사 및 고대 목기의 연구는 광주 신창동 저습지유적 등을 대표로 하는 저습지유적 출토 목기류 즉 저습지고고학과 연동하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김천 송죽리 유적, 대구 서변동유적, 매천동유적 등 한반도 남부지역 전반에 걸쳐 청동기시대 목기자료가 다수 출토되어 이에 대한 연구가 다소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 글은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 1996년부터 1997년에 걸쳐 발굴조사한 경산(慶山) 임당동(林堂洞) I지구 저습지유적 출토 생활구 목기류에 대한 검토이다. 임당동 저습지유적에서는 발굴조사 당시 우리나라 최초로 고대 목제 갑옷틀이 출토되어 주목이 되었다. 이 뿐만 아니라 생활구 목기류, 건축부재, 용도미상의 다양한 목제 유물이 출토되었지만 정식 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자료

1) 한국 목기의 연구 성과는 최근 이를 잘 정리한 김권구의 글을 참고한다.
김권구,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남한지역의 목기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 67輯, 韓國考古學會

검토의 한계가 있었다. 곧 정식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며, 이 글에서는 건축부재, 용도미상의 다양한 목재유물에 대해서는 차후의 기회를 통해 진행하도록 하고 자료가 양호한 생활구 목기류를 선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II.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개요 및 성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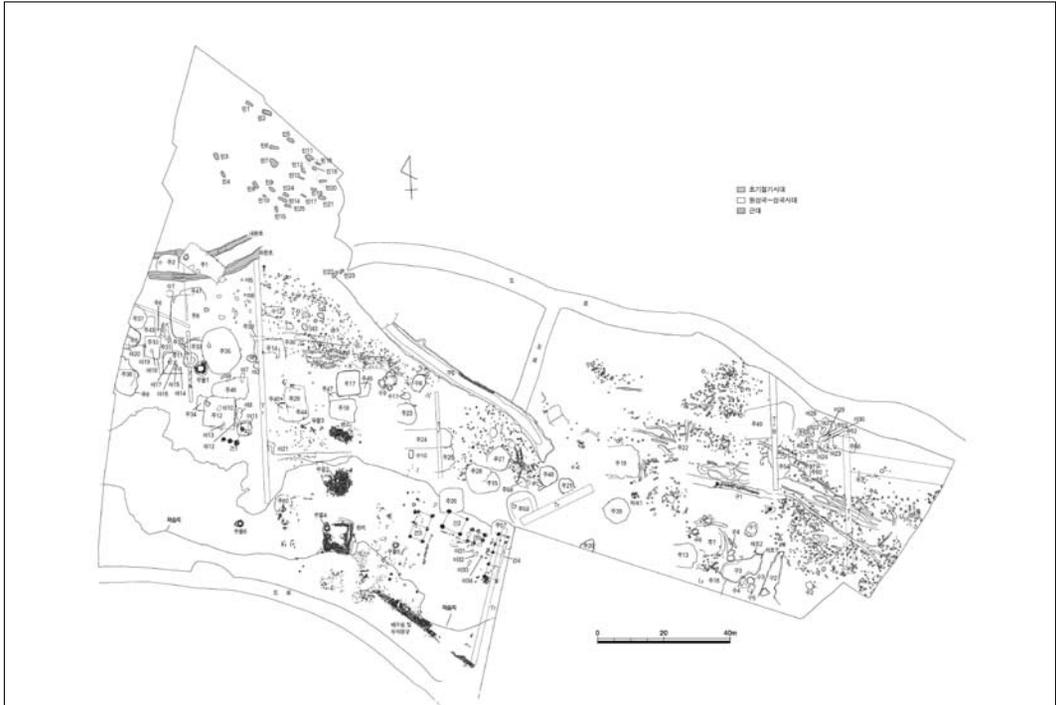
경산 임당동유적은 고층을 비롯한 분묘군, 주거지, 토성, 환호, 건물지, 저습지유적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의 복합유적이다. 경산 임당동 I지구유적은 경산 임당택지개발사업지구 3차례의 발굴조사 1996년 1월 22일부터 1997년 10월 31일까지 진행된 2차 발굴조사이며, 임당동 저습지유적은 당시 발굴된 자료의 일부이다. 이미 보고서는 발간되었지만 여기에는 저습지의 피트별 조사내용과 출토유물 중 토기류, 철기류, 골각기류를 중심으로 간행되었다. 목기류의 경우 보존처리 기간이 장시간 소요됨에 따라 발간이 연기되었다.

임당동 저습지유적은 사적 331호인 조영동고분군의 서쪽, 동고서저(東高西低), 북고남저(北高南低) 지형의 얇은 구릉상에 위치한다. 조사가 이루어진 범위는 동-서 110m, 남-북 12~40m 정도이며, 최대깊이는 170cm 이다. 저습지 조사는 10×10m의 그리드, 41개 피트(Pit)를 자북을 기준으로 구획하여 조사하였다. 저습지유적의 층위는 모두 9개층이며, 크게 3개 층으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 구분한 I층(1~4층), II층(5~7층), III층(8·9층)이 그리드에 부분적으로 형성되어 있다.

저습지의 형성시기는 내부에서 출토된 철제검파두식, 오수전, 흑도장경호, 와질파수부옹을 통해 볼 때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환호의 설치시기인 초기철기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저습지 내부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밀집도로 볼 때 4세기대 고식도질토기가 다수 확인되어 이 시기에 가장 활발히 이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저습지 상부에 형성된 주거지유적과 건물지유적으로 보아 3세기대부터 일부 폐기되기 시작하여 6세 중엽대에는 거의 폐기된 것으로 보인다.

저습지유적은 제의유물로 추정되는 명기형토제품, 원판형토제품, 복골, 토구(인면상 토구), 동물뼈(복골) 등이 다수 출토되어 제의 관련 시설로 주로 논의되고 있지만 저습지 내부에서는 실생활에 사용되었던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고 있어 폐기물매립장과 같은 기능도 상당부분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²⁾

2) 張容碩, 2008, 『VI. 맺음말』, 『慶山 林堂洞 低濕池遺蹟 III』, 嶺南文化財研究院.



도면 1. 경산 임당동 I 지구유적 유구배치도



사진 1.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전경

Ⅲ.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주요 생활구 목기류

임당동 저습지유적에서는 이백여 점 이상의 목제품이 출토되었으며, 생활구 용기류, 농구류, 공구류, 건축부재 등 다양한 목기류가 확인되었다. 목제 갑옷틀을 비롯한 15점은 박물관으로 이관·보존처리 후 전시되고 있다. 현재 영남문화재연구원에서는 경산 임당 목제유물 이백여 점이 처리되어 보관되고 있다. 이번 글은 아직 연구 성과가 부진한 건축부재와 용도미상의 목기류는 제외하고 잔존상태가 양호한 생활구 목기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1.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제 용기류

1) 컵형목기

다양한 규모의 컵형목기류가 출토되었으며, 특히 주칠과 흑칠을 한 경우가 많다. 파편까지 포함하면 출토량은 더 많지만 그 중 일부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① pit16 3-4층 출토 컵형목기(도면2-1)

器高 7.3cm, 口徑 7.6cm, 底徑 8.3cm의 컵형목기이다. 신부의 1/2 이상이 결실되었지만 도면 복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원목을 끝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가공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한 후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으며 그 위에 띠모양의 주칠을 돌렸다. 내면에도 구연부 상단에 1.5cm 폭의 주칠 띠가 돌려져 있다. 바닥면은 편평하게 가공되어 있으며 칠은 하지 않았다.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느릅나무과 느릅나무로 확인되었다.

pit16 3-4층의 아래층인 9-2층에서 3세기~4세기대 전반대 토기류가 다수 확인되었고 3-4층에서도 4세기대 토기류 2점, 무경식철축 1점이 같은 층에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컵형목기는 4세기대로 추정할 수 있다.

② pit21 3-5층 출토 컵형목기(도면2-2)

器高 7.8cm, 口徑 10.0cm, 底徑 8.0cm 규모의 컵형목기이며, 결실이 심한 상태이다. 원목을 끝을 이용하여 가공하고, 가공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한 후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으며 그 위에 띠모양의 주칠을 돌렸다. 내면에도 흑칠 후 상위에 주칠을 하였다. 손잡이 부분은 결실되어 일부분만 잔존하고 있다. 구연부는 외경하며, 구연단은 편평하다. 영남지방 4세기대 컵형토기류와 유사한 형태이며, pit21 3-5층에서 공반되는 3~4세기대 노형토기, 승석문단경호 등으로 보아 4세기대 유물로 추정할 수 있겠다.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가래나무과 굴피나무로 확인되었다.

③ pit24 4-1 · 2층 출토 컵형목기(도면2-5)

器高 8.4cm, 口徑 8.8cm 규모의 컵형목기이며, 파수와 대각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원목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가공한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하였으며,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구연부는 외반하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되어 있다. 대각은八字형으로 짧게 벌어진 형태이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느릅나무과 느티나무로 확인되었다.

④ pit2 3-2층 출토 컵형목기

器高 10.7cm, 口徑 7.5cm, 底徑 9.6cm 규모의 컵형목기이며, 1/2 정도 결실되었다. 본체와 파수는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 형태이다. 본체는 원목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가공한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하였으며,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구연부는 내경하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되어 있다. 파수는 단면이 말각방향에 가까우며 두꺼운 형태이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가래나무과 굴피나무로 확인되었다.

⑤ 채집유물 컵형목기(도면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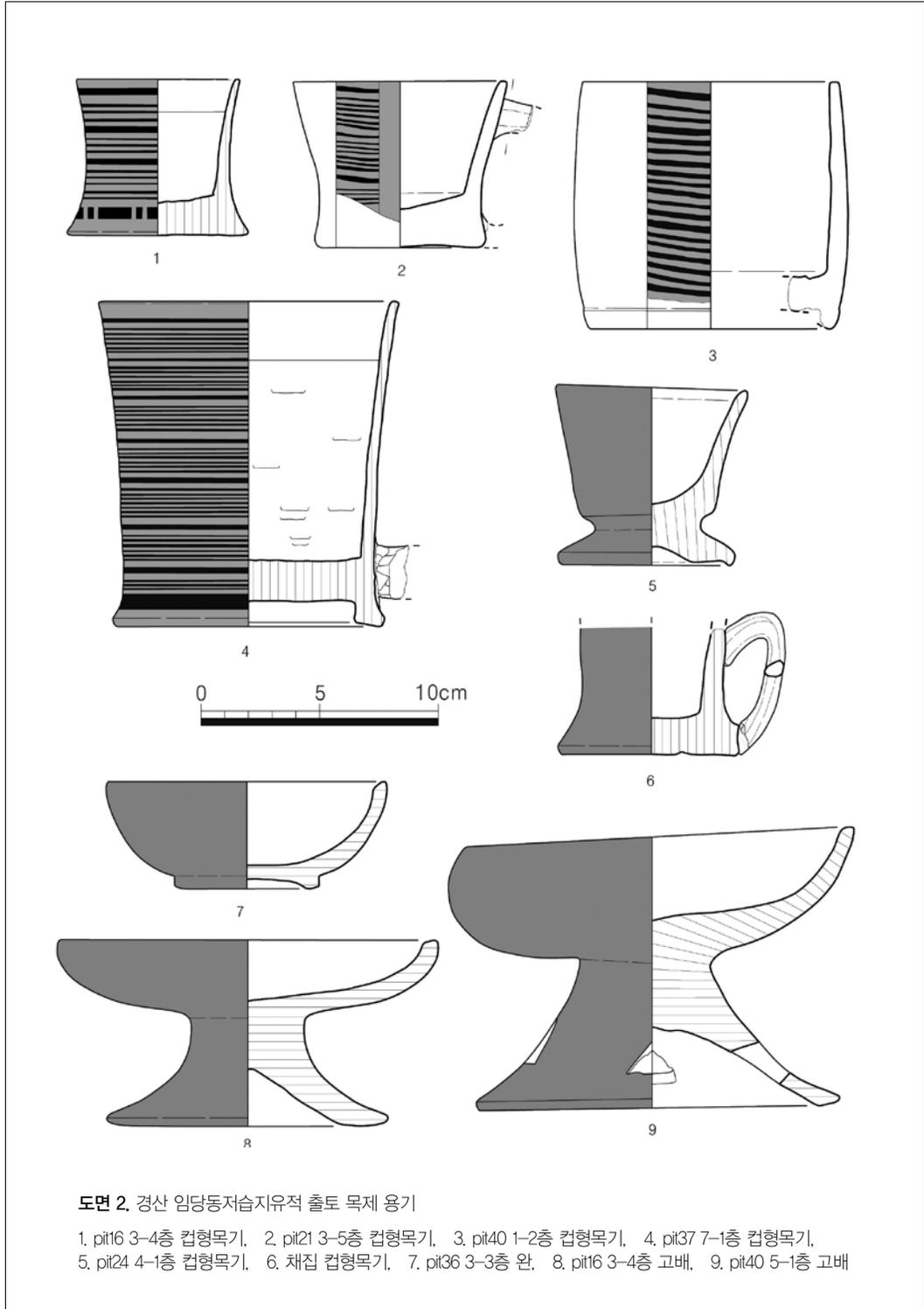
現高 6.6cm, 底徑 4.5cm 규모의 컵형목기이며, 구연부 전체와 신부의 1/2 이상이 결실되었다. 신부와 파수는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 형태이며, 신부는 원목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가공한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하였으며,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파수의 단면은 말각방향에 가깝다. 바닥면은 편평하고 흑칠이 되어 있지 않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갈매나무과 헛개나무로 확인되었다.

⑥ pit37 7-1층 출토 컵형목기(도면2-4)

器高 15.2cm, 口徑 14.0cm, 底徑 12.3cm 규모의 대형 컵형목기이며, 신부와 파수의 결실이 심하다. 원목을 끝을 이용하여 가공하였으며, 가공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한 후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으며 그 위에 띠모양의 주칠을 돌렸다. 주칠의 띠모양은 7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부와 파수는 별도로 제작하여 부착한 형태이며, 신부는 원목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다. 파수는 결실되어 일부분만 잔존하고 있다. 바닥은 홈을 파서 짧은 대각을 이룬 형태이다. 신부 내면에 끝 흔적이 다수 확인된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자작나무과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⑦ pit40 1-2층 출토 컵형목기(도면2-3)

器高 11.5cm, 口徑 12.0cm, 底徑 11.5cm 규모의 대형 컵형목기이며, 결실이 심하다. 원목을 끝을 이용하여 가공하였으며, 가공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한 후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으며 그 위에 띠모양의 주칠을 돌렸다. 내면에도 흑칠한 후 구연부 상위에 주칠을 하였다. 바닥은 홈을 파서 짧은 대각을 이룬 형태이다. 구연부는 약하게 내경한 형태이며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가래나무과 굴피나무로 확인되었다.



2) 목제 고배

① pit16 3-4층 출토 고배(도면2-8)

器高 8.6cm, 口徑 17.8cm, 底徑 13.2cm 규모의 고배이다. 배신과 대각의 일부만 결신되어 완형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외절구연고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원목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가공하였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배신 깊이는 얇다. 대각은 나팔상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원목을 가공 후 치밀하게 연마하여 흑칠을 하였다. 대각 내면은 흑칠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끝 가공 후 거칠게 연마하였다. ① pit16 3-4층 출토 컵형목기와 마찬가지로 4세기대로 추정된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느릅나무과 느릅나무로 확인되었다.

② pit40 5-1층 출토 고배(도면2-9)

器高 12.9cm, 口徑 18.1cm 규모의 고배이다. 대각의 일부가 결실되었다. 전반적으로 외절구연고배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대각에는 4개의 삼각형 투창이 뚫려져 있다. 원목을 이용하여 일체형으로 가공하였다. 구연단은 편평하게 처리하였으며, 배신 깊이는 얇다. 대각은 나팔상으로 벌어진 형태이다. 원목을 가공 후 치밀하게 연마하여 흑칠을 하였다. 대각 내면은 흑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3) 목제 완

① pit36 3-3층 출토 완(도면2-7)

器高 12.9cm, 口徑 18.1cm 규모의 완이며, 1/2 정도 결실되었다. 원목을 끝을 이용하여 가공하였으며, 가공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한 후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굽은 해무리굽의 형태이다.

② pit12 3-1층 출토 완

器高 7.1cm, 口徑 18.5cm 규모의 완이며, 부분 결실이 심하다. 전체적으로 좌우 대칭이 맞지 않은 형태이다. 끝을 이용하여 가공하였으며, 가공 후 표면을 치밀하게 연마한 후 내외면에 흑칠을 하였다. 굽은 짧게 형성되어 있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갈매나무과 헛개나무로 확인되었다.

2.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제 취사도구류

1) 목제 국자

① pit37 5층 출토 국자(도면3-1)

現高 9.2cm 규모의 국자이며, 결실이 심한 상태이다. 신부와 파부는 일체형으로 제작되었다. 파부는 구연단부에서부터 벌어지는 형태로 이어지며, 단면은 타원형에 가깝다. 국자 내면의 바닥부분은 오목하게 파내기 되어 있으며, 끝 가공 후 구연 쪽에 비해 바닥 쪽은 약하게 연마되어 끝 흔적이 잘 남아 있다. 수중분석 결과 활엽수인 자작나무과 오리나무로 확인되었다.

2) 도마

① pit24 5-1·2층 출토 도마(도면5-1)

現長 25.7cm, 身部長 19.8cm, 身部幅 14.2cm, 身部厚 1.4cm, 柄部厚 2.8cm×1.6cm의 목제 도마이며, 柄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 상면에 사용흔이 일부 확인된다.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참나무과 상수리나무로 확인되었다.

3.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기타 목제 생활용구(나막신, 빗, 방추차, 바늘)

① pit40 1-2층 출토 나막신(도면3-2)

全長 22.8cm, 幅 10.3cm, 高 6.3cm의 나막신이다. 바닥면 가장자리에 각 2조의 장방향으로 추정되는 구멍이 뚫려져 있으며, 앞쪽의 중앙부분에 왼쪽으로 약간 치우쳐 1개의 장방향 구멍이 뚫려져 있다. 바닥면 5개의 구멍은 끈을 매어 발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바닥면 상면은 치밀하게 마연한 흔적이 확인되며 하면은 거칠다.

② pit12 3-2층 출토 빗(도면3-3)

現長 6.6cm, 現幅 6.5cm의 목제 빗이다. 1/2정도 결실되었으며, 빗 날부분도 결실이 심하다. 상위는 곡선의 형태를 띠며 단면은 종타원형에 가깝다. 빗 날부분은 상위에서 하위로 오면서 뾰족해지는 형태이다.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자작나무과 박달나무로 확인되었다.

③ pit6 9-2층 출토 방추차(도면3-4)

直徑 4.3cm×.4cm, 厚 1.7cm의 목제 방추차이다. 중앙에 직경 0.8cm의 구멍이 뚫려져 있다. 구멍에서 상면 한쪽 방향으로 얇은 홈이 파여져 있으며 끈이 연결된 흔적으로 보인다.

④ pit16 3층 출토 바늘(도면3-5)

全長 4.8cm, 厚 0.3cm의 목제 바늘이다. 상위의 연결 부분은 갈라져 있으며, 신부는 상위에서 하위로 내려오면서 뾰족해진다.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4.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제 농공구류

1) 목제 방망이

① pit36 3-3층 출토 방망이(도면4-2)

全長 37.9cm, 身部厚 5.4cm, 柄部厚 2.7cm의 목제 방망이이다. 신부는 단면 원형의 세장방형에 가깝다. 신부와 병부의 연결부는 전면에 턱이 없게 가공하였다. 柄部の 끝단은 뾰족하게 마무리하였다. 수종분석 결과 침엽수인 소나무과 소나무로 확인되었다.

② pit37 3-3층 출토 방망이(도면4-3)

現長 31.2cm, 柄部厚 3.2cm의 목제 방망이이며, 柄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단면 부정형의 장방형에 가깝다. 신부와 병부의 연결부는 전면에 턱이 없게 가공하였다.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참나무과 상수리나무로 확인되었다.

③ pit37 9-2층 출토 방망이(도면4-1)

現長 39.1cm, 身部幅 11.4cm, 柄部厚 3.7cm의 목제 방망이이며, 柄部 일부가 결실되었다. 신부는 단면 부정형의 장방형이다. 신부와 병부의 연결부는 관부가 형성되어 구분이 뚜렷하다. 수종분석 결과 활엽수인 참나무과 상수리나무로 확인되었다.

2) 자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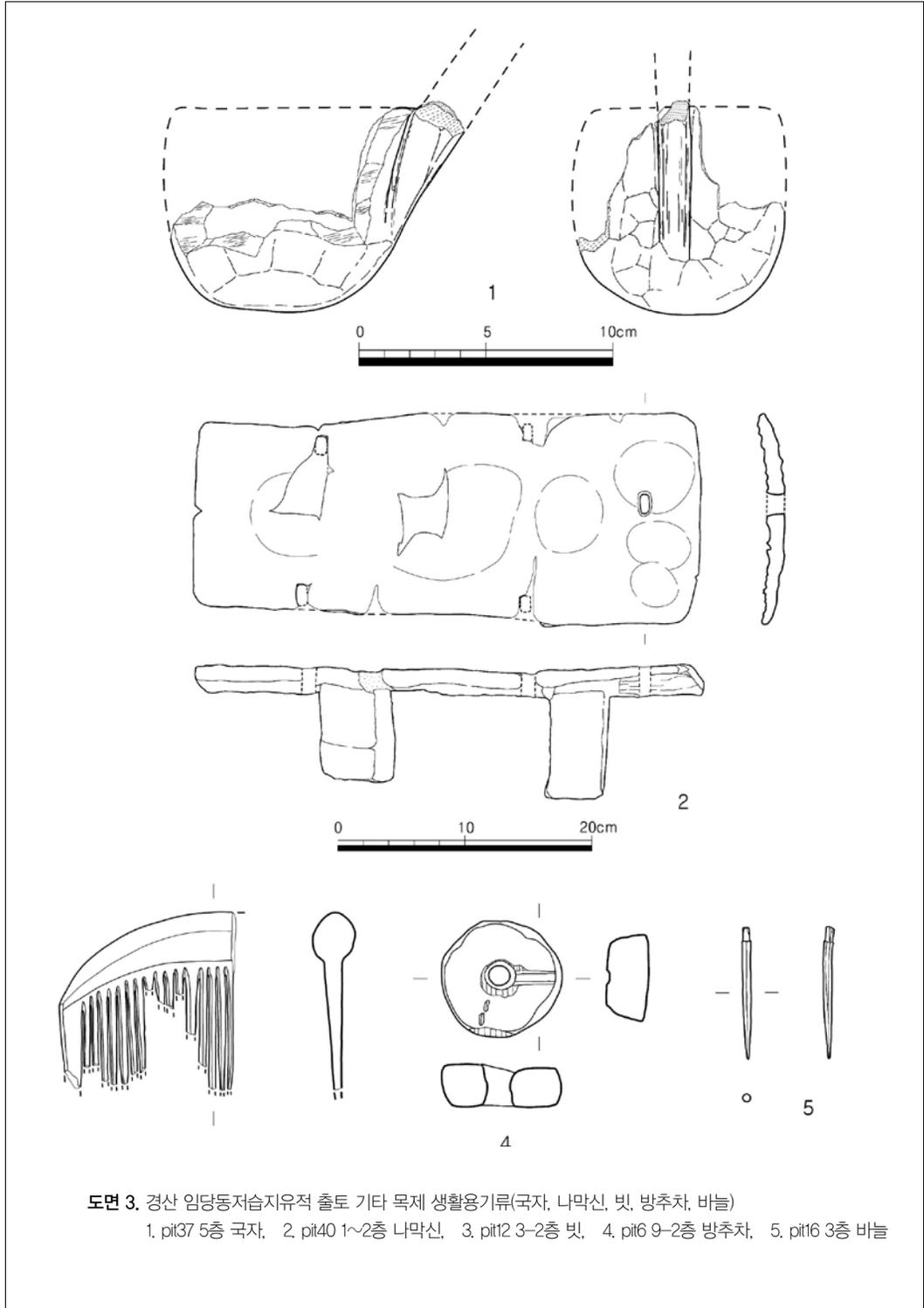
① pit35 1-2층 출토 목제 자귀(도면4-4)

現長 72.0cm, 절입부 現長 25.4cm의 자귀이다. ㄱ자형으로 휘어진 가지부분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柄部가 일부 결실되었다. 柄部の 단면은 원형에 가깝다. 수종분석 결과 침엽수인 소나무과 소나무로 확인되었다.

3) 고무래

① pit40 5-1층 출토 고무래(도면5-2)

全長 27.2cm, 幅 10.3cm의 목제 고무래이다. 중위에 길이와 너비 5.7cm의 방형 구멍이 뚫려 있다. 수종분석 결과 침엽수인 뽕나무과 뽕나무로 확인되었다.



Ⅳ.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기류의 검토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에서는 용기류, 농기구와 공구류, 나막신, 빗, 방추자, 고드렛돌 등의 생활 용구, 의기용 목기류, 건축부재 등이 출토되어 다양한 목기의 제작양상을 엿볼 수 있다. 앞서 검토한 글은 이러한 다양한 목기류 가운데 용기류, 농기구와 공구류, 생활용구 등 주요 유물을 대상으로 서술하였다. 용기류의 경우 컵형목기, 고배, 완류, 사각용기, 배모양용기, 蓋 등 다양한 형태가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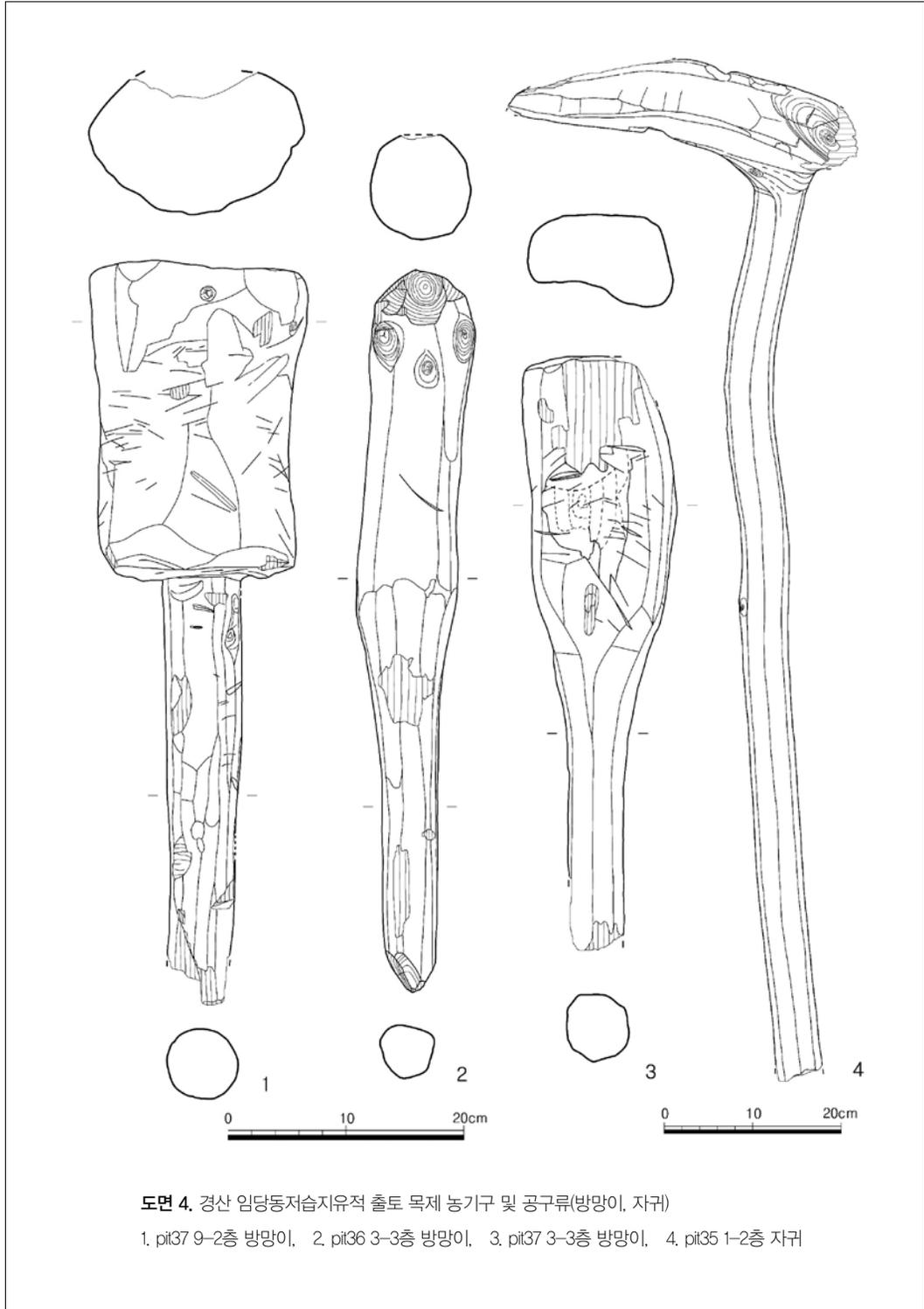
또한 용기류뿐만 아니라 취사 도구인 국자 등도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취사와 관련된 도구들은 대부분 흑칠, 흑칠+주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흑칠 바탕에 띠모양의 주칠로 제작한 컵형목기류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용기류 중 칠기류의 비율은 다른 유적 출토에 비해 상당히 높다. 고대 경산 임당동유적 집단이 칠기를 폭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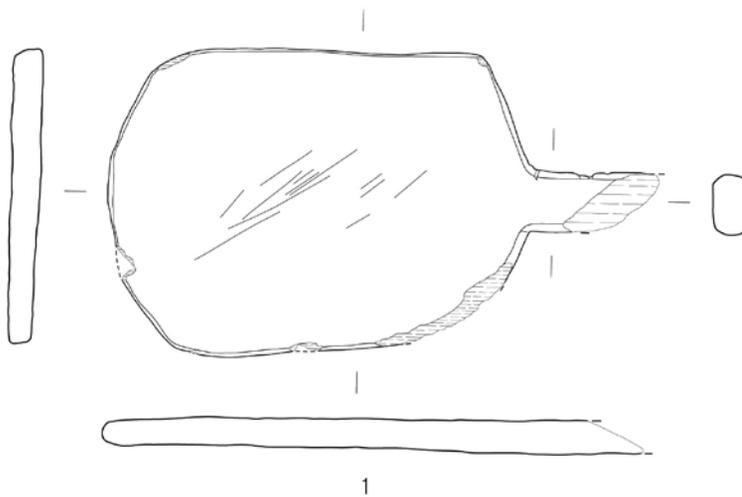
그리고 紡織具와 관련된 방추차, 고드렛돌, 일상 생활용 미용구인 빗, 수선구인 바늘 등 다양한 생활용구도 다수 출토되고 있다. 또한 농기구, 공구류인 목제 방망이, 자귀, 고무래, 삽형목기 등도 다수 확인되며, 형태적으로는 한반도 남부지역 주요 유적에서 출토되는 목제 농기구 및 공구류의 형태와 유사한 경우가 많다. 한반도 남부지역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볼 때, 쉽게 제작하고 사용되는 목기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제작 기술을 필요로 하는 토기류, 금속류에 비해 형태적인 유사성이 강하다. 특히 이러한 유사성은 용기류 보다는 농기구, 공구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시적 관점으로 비교해 보면, 한반도 남부지역의 목기 출토유적으로 초기철기시대유적인 광주 신창동유적과 삼국시대유적인 함안 성산산성이 대표적이다.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은 3~4세기가 중심연대이므로 시간적으로 이 두 유적의 중간적 위치에 자리잡고 있다. 또한 최근 보고서가 발간된 청동기시대 대구 매천동유적 출토의 목기가 다수 확인되므로 지역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지만 한반도 남부지역의 전반적인 목기 변화상을 관찰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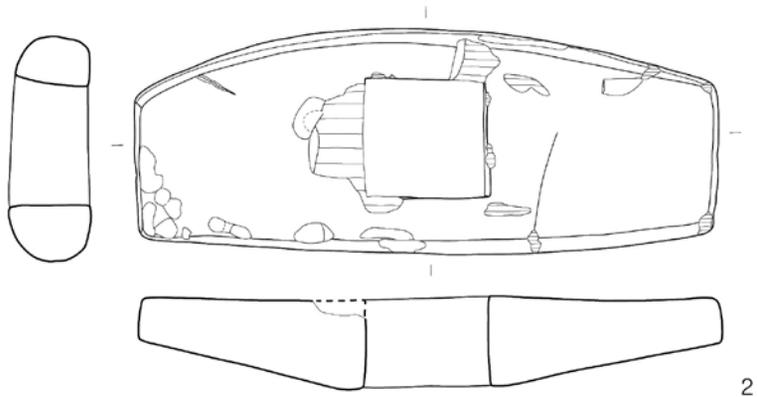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생활 용기류의 경우 시간적,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면서 그 시대, 그 지역에서 유행하는 토기류와 유사성이 있어 시공간적으로 차이성이 있다. 그런데 농기구 및 공구류의 경우 초기철기시대에서 삼국시대에 이르기까지 수백년이 지나면서도 형태적으로 유사한 형태가 많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농기구 및 공구류가 다양해지면서 전문화된 농기구 및 공구류가 출현하기도 하고 소멸되는 형태도 일부 있다. 방망이, 자귀, 삽형목기, 낫자루, 도끼자루 등과 같은 일부 농기구 및 공구류가 수백년간 유사한 형태로 전개되는 것은 농경생활이 정착화되면서 경작에 필요한 농기구 및 공구류가 초기부터 경작 도구로써 기능이 극대화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재유물의 수종분석 결과 침엽수 1종(소나무류)과 활엽수 18종(상수리나무류, 굴피나무, 오리나무류, 헛개나무, 뽕나무류, 밤나무류, 느티나무, 버드나무류, 단풍나무류, 나무류, 층층나무속, 박달나무류, 느릅나무속, 이팝나무, 피나무속, 물푸레나무류, 문배나무속, 사





0 10 20cm



도면 5. 경산 임당동저습지유적 출토 목제 취사도구(도마) 및 농기구(고무래)

1. pit24 5-1 · 2층 도마, 2. pit40 5-1층 고무래

시나무류) 등 총 19종이 분석되었다. 갑옷틀, 방망이의 소나무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활엽수를 사용하고 있다. 목재유물 179점에서 총 19수종이 분석되었으며 그 중 참나무과 상수리나무류가 43점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굴피나무, 소나무류, 오리나무류, 헛개나무 등의 순서로 사용되고 있다.³⁾

출토된 목기의 수종분석 결과로 볼 때 침엽수인 소나무과를 제외한 활엽수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온대 낙엽활엽수가 대부분으로 현재 경산 임당동유적의 주변환경과 유사하다.

표 1.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목재유물의 수종식별(이광희 · 이현혜 2010 인용)

수 종	점 수	비 율 (%)
참나무과 참나무속 상수리나무아속 - 상수리나무류	43	24.0
가래나무과 굴피나무속 - 굴피나무	33	18.4
소나무과 소나무속 - 소나무류	31	17.3
자작나무과 오리나무속 - 오리나무류	22	12.3
갈매나무과 헛개나무속 - 헛개나무	14	7.8
팽나무과 팽나무속 - 팽나무류	7	3.9
참나무과 밤나무속 - 밤나무류	5	2.8
느릅나무과 느티나무속 - 느티나무	4	2.2
버드나무과 버드나무속 - 버드나무류	3	1.7
단풍나무과 단풍나무속 - 단풍나무류	3	1.7
장미과 벚나무속 - 벚나무류	3	1.7
층층나무과 - 층층나무속	3	1.7
자작나무과 자작나무속 - 박달나무류	2	1.1
느릅나무과 - 느릅나무속	1	0.6
물푸레나무과 이팝나무속 - 이팝나무	1	0.6
피나무과 - 피나무속	1	0.6
물푸레나무과 물푸레나무속 - 물푸레나무류	1	0.6
장미과 - 문배나무속	1	0.6
버드나무과 사시나무속 - 사시나무류	1	0.6
합 계	179	100

3) 이광희 · 이현혜, 2010, 「경산 임당동유적 출토 목재유물의 보존처리 및 분석」, 『보존과학의 연구 동향과 새로운 시각』,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보존연구동 준공 기념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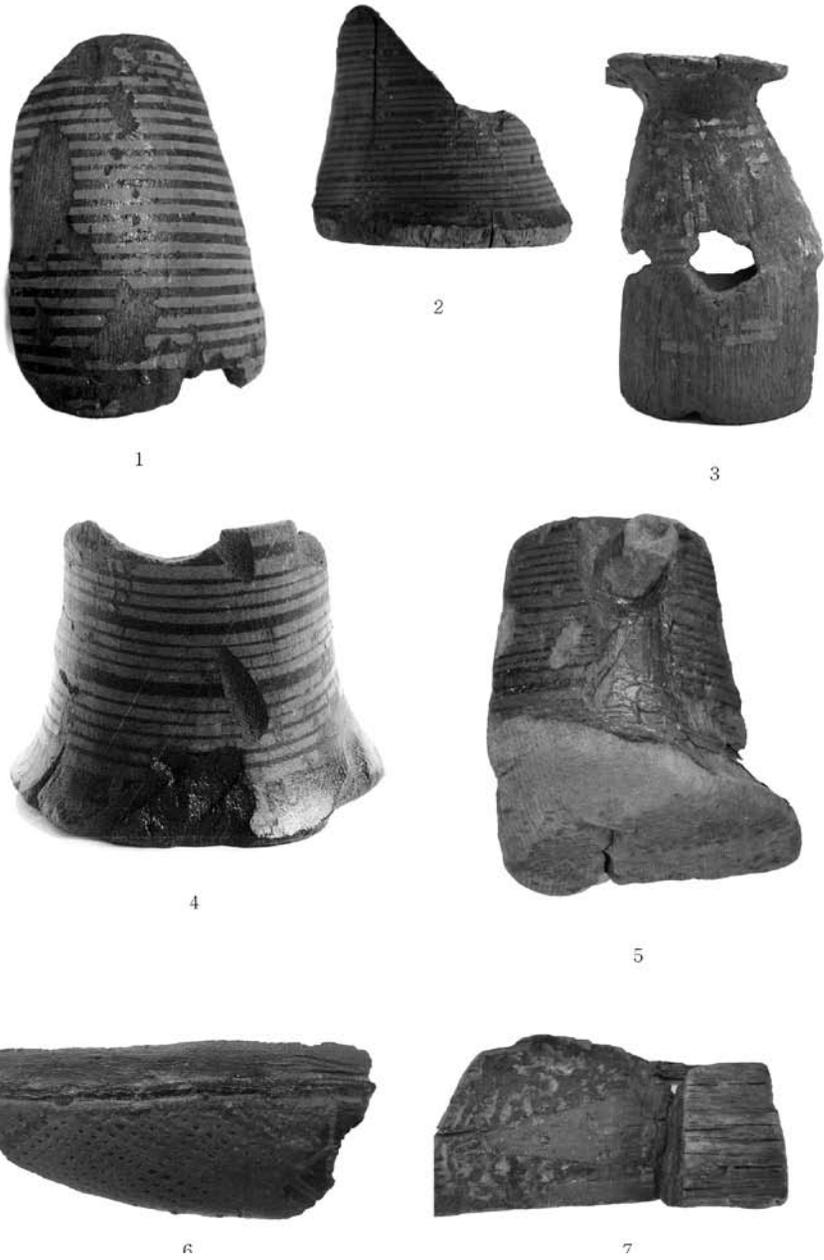


사진 2.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주철 용기류

1·4, pit6 9-2층 고배, 2, pit37 5층 불명용기, 3, pit32 1-4층 불명용기, 5, pit21 3-5층 컵형목기,
6, 수습유물 완, 7, pit16 3-2층 불명용기



사진 3. 경산 임당동 저습지유적 출토 흑칠 용기류

1. pit24 고배, 2. pit7 4-2층 고배, 3. pit36 3-3층 고배, 4. pit27 9-2층 컵형목기, 5. pit24 5-1,2층 컵형목기, 6. pit12 3-1층 컵형목기, 7. pit2 3-2층 컵형목기, 8. pit40 1-3층 완, 9. pit36 3-3층 완, 10. pit2 7-1층 국자

V. 맺음말

이 글은 경산 임당동저습지유적 출토 목기 가운데 그 동안 소개되지 않은 생활구 목기를 소개하는데 주 목적을 두었다. 아직 정식보고서가 발간되지 않아 다양한 자료를 소개하는데 한계가 있고, 같은 종류의 목기를 세분하여 검토하는 것도 무리가 있었다. 하지만 경산 임당동저습지유적에서 출토된 목제 유물이 초기철기시대를 대표하는 광주 신창동유적,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기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시간적으로 중간에 위치할 뿐만 아니라 수백여 점의 다양한 목제 유물이 출토되어 3세기~4세기(원삼국~삼국시대 전기)의 목제 유물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경산 임당동저습지유적에서 출토된 목기류는 기종별로 구분하면 무기류, 농기구 및 공구류, 용기류, 제기류, 방직구, 건축부재 및 기타 생활용구로 구분이 가능하며, 수종분석 결과 낙엽활엽수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킵형목기, 고배 등의 목제 용기류는 저습지유적에서 다수 출토된 영남지방 4세기대 토기류와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 특히 주칠+흑칠을 한 고급 용기류가 다수 확인되는 것이 특징적이며, 목기 가운데도 일부 위세적 성격의 물품이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김권구,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 남한지역의 목기를 중심으로-」, 『韓國考古學報』第67輯, 韓國考古學會.
- 金洙喆·李容禧·李孝先, 2006, 「경산 임당유적 목제품 보존-감옷틀 및 칠기」, 『박물관 보존과학』 제7집, 국립중앙박물관.
- 金龍星, 2000, 「임당유적 분묘와 축조집단」, 『압록사람들의 삶과 죽음』, 국립대구박물관.
- 박승규, 2008, 「고고학으로 본 압록 정치체의 성립과 변천」, 『한국고대사속의 경산』, 경산시·대구사학회.
- 이광희·이현혜, 2010, 「경산 임당유적 출토 목제품물의 보존처리 및 분석」, 『보존과학의 연구 동향과 새로운 시각』, (재)영남문화재연구원 보존연구동 준공 기념 심포지엄.
- 張容碩, 2007, 「임당유적을 통해 본 경산지역 고대 정치체의 형성과 변천」, 『야외고고학』 3.
- 張容碩, 2008, 「Ⅶ. 맺음말」, 『慶山 林堂洞 低濕池遺蹟Ⅲ』, 嶺南文化財研究院.
- 조현중, 2012, 「신창동 유적의 木器와 漆器」, 『2000년 전의 타임캡슐』, 광주 신창동 유적 사적 지정 20주년 기념 특별전 도록.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 고대목기-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한국 목기자료집 I-농기구 및 공구편』
- 朴升圭·張容碩·禹炳喆 外, 2008, 『慶山 林堂洞 低濕池遺蹟』 I, 嶺南文化財研究院.
- 朴升圭·張容碩·禹炳喆 外, 2008, 『慶山 林堂洞 低濕池遺蹟』 II, 嶺南文化財研究院.
- 朴升圭·張容碩·禹炳喆 外, 2008, 『慶山 林堂洞 低濕池遺蹟』 III, 嶺南文化財研究院.
- 禹炳喆·金玟澈 外, 2010, 『慶山 林堂洞 環壕遺蹟』, 嶺南文化財研究院.

昌原 新方里 · 釜山 古村里 低濕遺蹟을 통해 본 三國時代의 木器

배 덕 환 _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

<u>目次</u>	I. 머리말
	II. 유적개요
	III. 목기의 용도별 분류
	IV. 목기의 수종
	V. 맺음말

I. 머리말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는 2005~2007년 4~5세기대 금관가야의 생활유적인 창원 신방리유적과 2008년 3~4세기대 居漆山國의 생활유적인 부산 고촌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다종다양한 목기와 골각기, 각종 동물유체 등이 다량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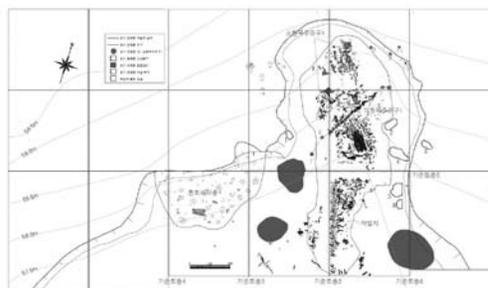
이 중 목기는 재료의 취득과 가공이 용이하여 선사시대 이래로 인류 생활에 필수적인 도구로 사용되어 왔으나 재료의 특성상 부식이 빠르게 진행되어 토기나 철기 등과 비교할 때, 잔존률이 매우 낮고 석기나 철기, 골각기 등 다른 재질의 도구와 결합하여 사용되거나 다용도로 활용되는 것이 많아 세부 용도 판별이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두 유적은 저습유적의 특성상 목기가 상당히 양호한 상태로 출토되었으며 이를 통해 당시 생활상 파악에 유용한 자료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발굴조사 성과를 기초로 본 발표에서는 두 유적에서 출토된 목기의 용도 및 수종분석 결과를 간략하게나마 소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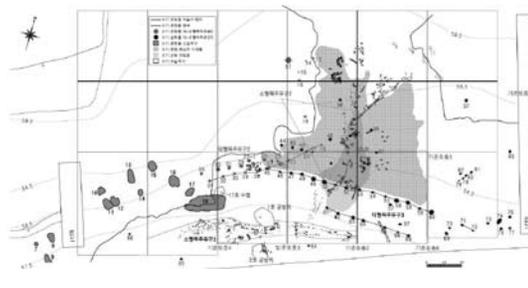
동, 대형목주열 1기, 소형목주열 1기, 주혈군 5개소, 자연유로 1개소, 혼토파각층 1개소 등 총 55기가 조사되었다. 한편 저장공 내부에서 다량의 식물유체가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저습지에서 다양한 동물유체와 어패류가 출토되어 당시의 식생활을 복원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확보되었다. 그리고 저습지라는 환경적 특수성에 따라 수레 등의 운반구, 문 등의 건축부재, 농·공구류 등의 목기가 양호한 상태로 유존하고 있어 실생활 도구의 연구에도 중요한 자료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부산 고촌리유적²⁾

부산 고촌리유적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고촌리 155-2번지 일원에 대한주택공사(현 LH공사) 부산지역본부에서 추진하는 택지개발부지에 해당한다. 유적은 북에서 남으로 진행되는 해발 99.8m의 구릉 남사면 말단부의 경사변환점에 입지하며 동쪽에 연결하는 Ⅲ 지구는 2005~2007년 경남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 구 1기, 삼국시대 누자식건물 43동, 지상식건물 9동 등이 조사된 부산 고촌리유적이 위치한다.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에서 2008년 발굴조사를 실시한 Ⅱ 지구 중 구릉사면부의 가지구에는 Ⅲ 지구와 동시기의 삼국시대 누자식건물 6동, 지상식건물 3동, 수혈 13기, 주혈군 등이 조사되었으며 저습지에 해당하는 나지구에서는 삼국~통일신라시대와 조선시대의 생활유구가 집중 분포한다. 특히 유적의 중심시기인 삼국시대에는 대·소형 목주열 6기, 공방지 2기, 수혈 1기, 소성유구 18기, 혼토파각층 등이 중층으로 조사되어 당시의 생활상 복원에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되었다.



I기 문화층 유구배치도



II기 문화층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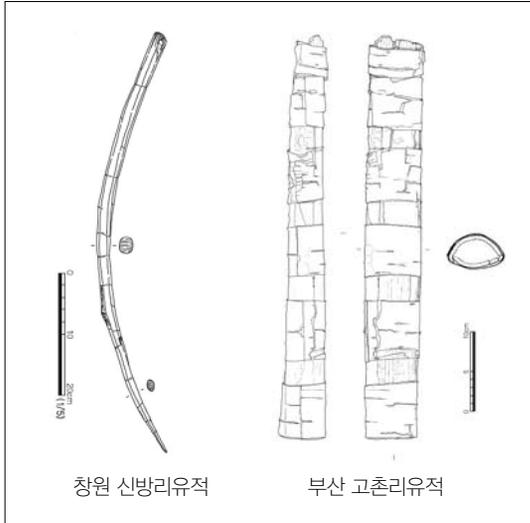
도면 2. 부산 고촌리유적 유구배치도

2)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10,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Ⅲ. 목기의 용도별 분류

1. 武具

무구는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활 1점, 부산 고촌리유적에서 칠기 화살통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창원 신방리유적의 활은 한쪽 단부가 결실되었으나 반대쪽 단부에 현 고정부가 잔존한다. 잔존 길이 69.6cm, 너비 2.2~2.7cm, 두께 1~2.9cm이며 주변에서 소량이지만 골촉이 함께 출토되고 있어 의례용보다는 실용품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활은 인접한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³⁾과 광주 신창동⁴⁾·동림동유적⁵⁾에서 출토되었다. 부산 고촌리유적의 칠기 화살통은 가죽을 무두질하여 일정한 간격으로 감아 그 위에 흑칠을 하였다. 길이 50.4cm, 너비 5.7~6.1cm로서 입구부에서 중간부까지는 찌그러진 상태이며 입구부는 가죽을 한 벌 덧대어 마무리하였다. 보존처리시 방사선 투과촬영을 하였지만, 내부에 흙과 이물질이 들어 있을 뿐, 철촉의 흔적은 없었다. 또 칠단면 관찰 결과, 목탄을 갈아 눈메움제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목탄층, 육안으로 확인되는 한지층, 가죽층, 옷칠층 등이 남아 있다. 이러한 화살통은 창원 다호리유적 32호분⁶⁾에서 출토된 칠기 화살통을 들 수 있는데, 본 유적 출토품에 비해 길이가 90cm로 길지만, 전체적인 형태는 거의 흡사하다.



도면 3. 활과 화살통



도면 4. 자귀柄과 도끼柄

3) 東西文化財研究院, 2006,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집」.

4) 國立光州博物館, 1997, 「光州 新昌洞 低濕地遺蹟 I」.

5) 湖南文化財研究院, 2007, 「光州 東林洞遺蹟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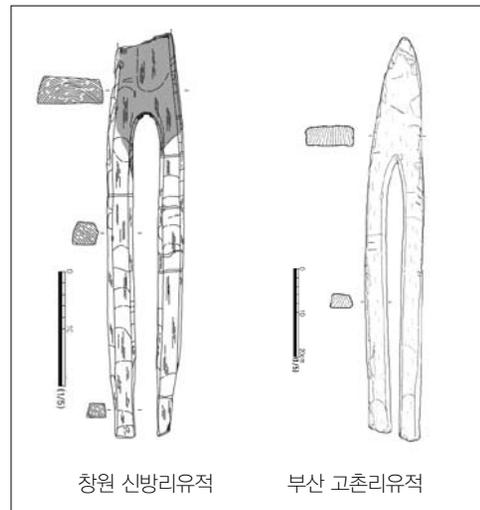
6) 국립중앙박물관, 2007, 「갈대밭의 나라 茶戶里-그 발굴과 기록-」.

2. 工具

공구는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목재 가공구인 자귀柄이 출토되었다. 자귀는 도끼로 찍어낸 나무를 다듬는 일을 하기 때문에 큰 힘을 받기보다는 형태를 정확하게 깎는데 사용되며 도끼와 형태가 유사하나 자루와 날이 직각을 이루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⁷⁾ 창원 신방리유적의 자귀柄은 길이 105cm로 대자귀에 속하는데, 목주열 등 대형목재를 용도에 맞게 모양을 다듬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길이 35~45cm의 소형으로서 두부가 얇고, 방형의 착장공이 있으며 착장 각도 70~75° 정도의 잔 가지를 쳐내는 伐採斧 또는 加工斧로 추정되는 縱斧柄이 출토되었다⁸⁾. 이와 유사한 역부병은 논산 마전리유적⁹⁾, 광주 신창동유적, 무안 양장리유적¹⁰⁾ 등 한국뿐만 아니라 日本 大阪府 山賀遺蹟에서도 출토되었다.

3. 農具

창원 신방리·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농구로서 쌍날따비, 고무래, 팽이가 출토되었는데, 대부분 원목을 판형으로 1차 가공한 후, 용도에 맞게 2차 성형하였다. 따비는 삽과 비슷하지만 흙 속에 날을 박고 자루를 뒤로 당겨 흙을 일군 다음 가로손잡이를 돌려 일군 흙덩이를 뒤집는 원시적인 형태의 농기구로 뒤에 성애를 달아 쟁기·극쟁이 등으로 발달하였다. 쟁기가 출현한 이후에도 비탈이 심하거나 나무뿌리가 많아 쟁기를 쓸 수 없는 곳에서 땅을 일구는데 사용되었다.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출토된 쌍날따비 3점은 모두 파손품으로서 술부와 병부가 각각 출토되었으며 부산 고촌리유적은 완형 2점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쌍날따비는 농경문명동기에서 표현된 것과 제주도에서 재래로 사용되던 것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도면 5. 쌍날따비

7) 정동찬·홍현선·윤용현 외, 1997, 『전통과학기술조사연구(V) - 목공도구·가죽다루기-』, 국립중앙과학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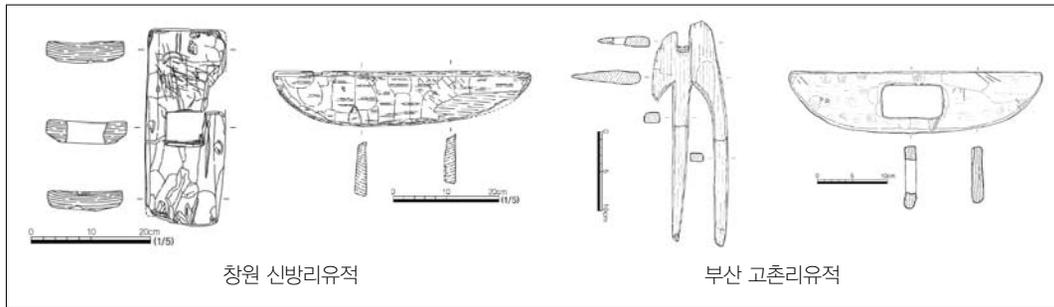
8)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84, 『木器集成圖錄-近畿古代編(解説)-』.

9)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4, 『麻田里遺蹟-C地區-』.

10) 木浦大學校博物館, 1997, 『務安 良將里遺蹟』.

괭이는 따비와 마찬가지로 땅을 파거나 고르는데 사용하는 같이연장으로 농경 초기의 뒤지개에서 발달한 원시적인 형태이지만, 지금까지 그 형태가 변화되지 않고 남아 있다. 괭이는 사용시 상↔하로 힘을 받는데 비해 따비나 쟁기는 전↔후로 힘을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창원 신방리유적에서는 평·단면 장방형의 괭이 3점이 출토되었는데, 판목, 정목, 추정목의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이 중 1점은 미완성품, 2점은 중앙부에 병공이 있다. 이에 비해 부산 고촌리유적에서 출토된 괭이는 날이 세 개인 쇠스랑형 괭이로 추정목의 형태로 가공되었으며 광주 신창동유적과 무안 양장리유적에서도 그 출토 예가 보인다.

고무래는 논이나 밭의 흙을 고르고 씨를 뿌린 뒤 흙을 덮는데 사용하는 삶이¹¹⁾ 연장으로 보통 길이가 30~40cm, 너비가 10~20cm 정도 되는 나무판자에 1.5m 길이의 자루를 끼워 썼다. 형태는 (말각)방형, (말각)장방형, 舟形 등이 있는데, 창원 신방리유적은 (말각)방형 1점, 주형 1점이며 부산 고촌리유적은 주형 1점이 출토되었다. 각종 형태의 고무래는 광주 신창동·동림동유적, 함안 성산산성¹²⁾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¹³⁾



도면 6. 괭이 및 고무래

4. 容器

창원 신방리유적에서는 고배, 파수부 장방형 용기, 구유형 용기,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木胎黑赤漆高杯, 칠기배, 칠기완, 파수부 장방형 용기, 용기 미완성품이 출토되었다.

이 중 창원 신방리유적의 고배는 토기와 유사한 형태로 제작되었으며 배신부와 대각부가 일체

11) 논밭을 갈고 난 후, 뿌린 씨앗이나 움긴 모종이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의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이 일을 '삶이'라고 한다. 박호석·안승모, 2001, 『알의 책』.

12)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 목기-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13) 김도현은 인부의 형태에 따라 곡선적인 것을 괭이, 직선적인 것을 고무래로 분류한 후 현재까지 보고된 고무래의 상당 수를 괭이로 재분류하였다. 그러나 그의 논문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인부의 형태적 특징만으로 괭이와 고무래를 구분하는 것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광주 동림동유적 출토품은 인부의 너비가 길이보다 2배 이상 넓고, 병부 착장부가 상위에 형성되어 많은 양의 흙을 끌어 올릴 수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고무래는 병부 착장부가 인부 중위에 위치하지만 너비가 길이보다 5배 이상 넓다.

김도현, 2008, 「先史·古代 木製農具에 대한 斷想」, 『考古廣場』 2, 釜山考古學研究會.

형을 이루고, 외면에 그을린 흔적이 관찰된다. 고배가 출토된 1호 공방지에서는 화재의 흔적은 보이지 않으며 상면에 부분적이지만 노지로 추정되는 목탄이 노출되어 이곳에서 고배 외면을 그을린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작기법이 어떻게 이용되었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뒤틀림 방지와 방충효과를 노렸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木胎黑赤漆高杯 6점이 출토되었는데, 각부가 나팔상으로 벌어지고, 배신부는 좁고 긴 형태를 가지며 내외면은 흑칠바탕에 외면은 주칠로 중·횡선이나 방형 등을 연속적으로 시문하여 기하학적인 문양을 표현하였다. 특히 각부의 경우, 바닥 중앙부를 홈을 파듯이 깎거나 파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日本 大阪府 池上遺蹟과 鬼虎川遺蹟에서 출토된 목제 고배들 역시 이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이들 유물은 弥生時代 I~II기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목제고배가 弥生~古墳時代に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는 점이 주목된다¹⁴⁾. 특히 日本 福岡市 元岡遺蹟에서 출토된 목제 고배는 그 형태와 외면의 칠 문양까지 거의 흡사하다. 한편 주칠로 표현된 외면 문양은 김해 가야의 숲유적 3호 목관묘¹⁵⁾에서 출토된 漆鞘鐵劍 외면의 기하학 문양과 日本 福岡市 今宿五江遺蹟 12차 조사에서 출토된 유물의 문양과도 유사하다. 그리고 칠기완은 내외면이 모두 흑칠이 되었는데, 日本 鳥取縣 青谷上寺地遺蹟에서도 동일 유물이 다량 출토되어 주목된다.¹⁶⁾ 칠기완의 외면은 칠이 되지 않았으나 내면에 칠이 가득 붙은 채로 출토되어 다른 유물에 칠을 하기 위해 칠을 담았던 용기로 추정된다.

파수부 장방형 용기는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1점, 부산 고촌리유적에서 1점이 출토되었다. 이 중 부산 고촌리유적 출토품은 길이 16cm, 너비 12cm, 깊이 3.5cm가량이며 한쪽에 파수부가 있었으나 결실되었다. 파수부가 없는 용기는 함안 성산산성, 광주 신창동유적에서도 출토되었다. 일본에서도 많은 수량이 출토되었는데, 大阪府 龜井遺蹟 출토품은 弥生時代 III기, 大阪府 豊中遺蹟 출토품은 5세기대로 보고되었다.¹⁷⁾

구유형 용기는 창원 신방리유적에서 1점 출토되었다. 구유는 원래 소나 말 따위의 가축에게 먹이를 담아 주는 그릇으로서 동물유체를 통해 볼 때, 가축화의 증거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 용기를 통해 가축이 사육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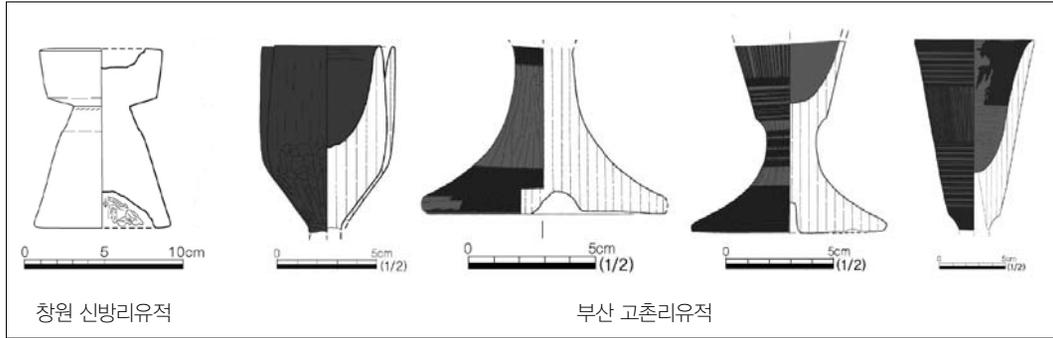
용기 미완성품은 부산 고촌리유적에서 1점 출토되었는데, 원통형 목기의 중간부분을 'V'자형으로 다듬은 후, 상·하를 오목하게 깎았다. 길이 24cm, 너비 14~18cm가량인 이 유물은 고배 등의 목제 용기를 만들던 과정으로 보인다.

14)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84,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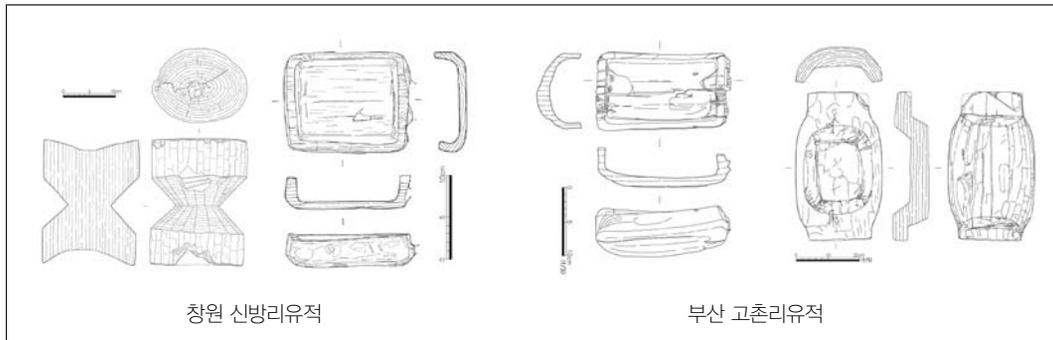
15)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2006, 『金海 伽耶의 숲 造成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16)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5, 『木製容器・かご』, 青谷上寺地遺蹟出土品調査研究報告1.

17)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 1993, 『木器集成圖錄-近畿原始編(圖版)-』.



도면 7. 고배



도면 8. 각종 용기

5. 生活具

생활구는 대부분 사용에 따른 마모도가 높은 것이 육안으로 쉽게 관찰된다. 식료가공, 토기제작 등 용도가 알려진 때, 절구, 목도, 타날판 외에 이형목기와 같이 용도가 불분명한 것도 다수 있다.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절구와 절구공이가 원형으로 출토되었다. 절구는 원통형으로 가운데를 움푹하게 파서 가공하고, 외면의 좌우에는 ‘><’자형 홈을 파서 손잡이로 사용하였다. 움푹한 내면에는 절구공이로 짚은 사용흔이 관찰된다. 절구공이는 기다란 봉상의 목재 중앙부를 가늘게 가공하고, 양끝을 둥글게 다듬은 형태로서 일반적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창원 신방리유적의 절구는 신부의 측면이 마모되어 망치와 용도구분에 어려움이 있으나 ‘V’자형으로 가공된 말단부는 찌거나 빵은 식료를 모으거나 긁어 내는 용도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창원 신방리유적의 방패모양의 異形목기는 아직까지 유사한 형태의 출토 예가 없다. 이형목기의 한쪽은 방형으로 마무리하여 ‘ㄷ’자형의 손잡이를 일체형으로 만들고, 손잡이 가까운 쪽의 상부를 대상으로 처리하여 소형작업대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 반대편은 용기와 같이 내부를 오목하게 파내었는데, 선단부의 평면형태는 삼각형으로 뾰족하게 처리하여 내용물을 따라내기 쉽게 하였다.

하부에는 4개의 굽을 만들어 안정감이 있으며 작업대의 상부는 도자흔에 의한 마모도가 높고 작업대 주위를 ‘凹’자형으로 파내어 용기 쪽으로 액체가 흘러내릴 수 있도록 가공하였다. 형태와 사용흔을 통해 볼 때, 식료를 으깨거나 찢어서 나오는 육즙을 손쉽게 모을 수 있는 도구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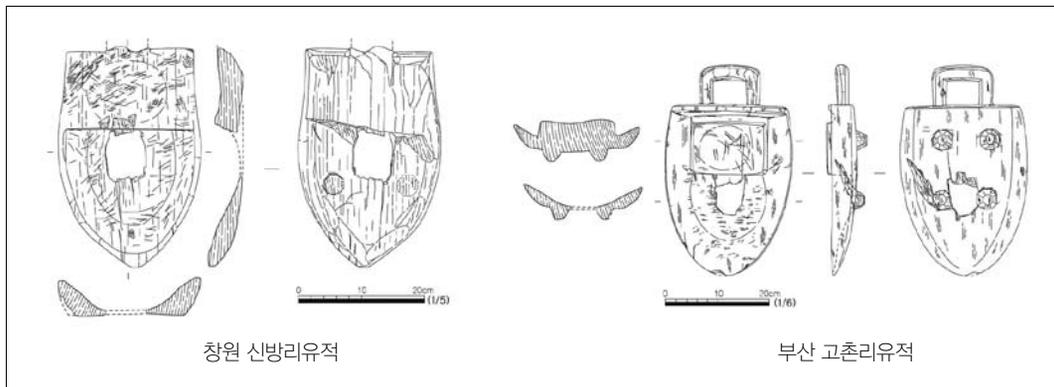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길이 40cm, 너비 25cm의 파수가 달린 두레박이 출토되었다. 현재까지 출토된 두레박은 대부분 파수가 양쪽에 부착되고, 깊이가 깊은 것이어서 부산 고촌리유적 출토품과는 차이가 있다. 두레박은 보통 붕을 착장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日本 大阪府 東奈良遺蹟에서는 두레박이 우물에서 출토되어 용도가 확실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걸이용 갈고리는 창원 신방리유적과 부산 고촌리유적에서 각 1점씩 출토되었는데, 이 중 부산 고촌리유적 출토품은 ‘ㄱ’자형으로 만든 후 한쪽 끝을 둥글게 깎아 줄을 달 수 있게 하였다.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바 있으며 일본에서는 弥生時代 I 기~古墳時代 초기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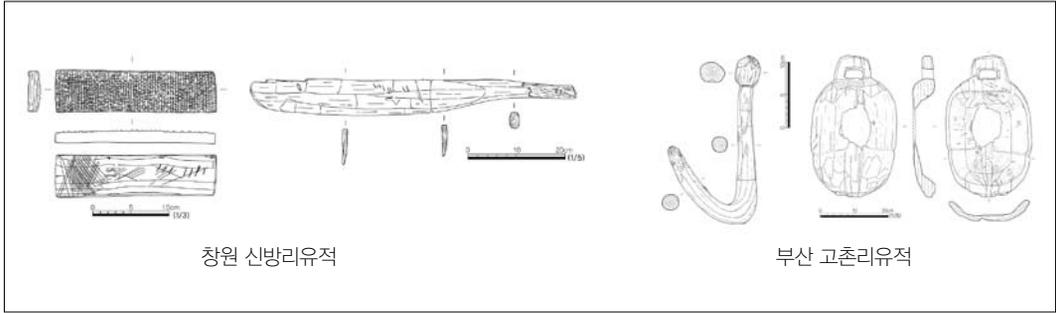
그 외 창원 신방리유적에서는 토기제작과 관련된 타날판과 목도 등이 출토되었다.



도면 9. 절구공이 및 절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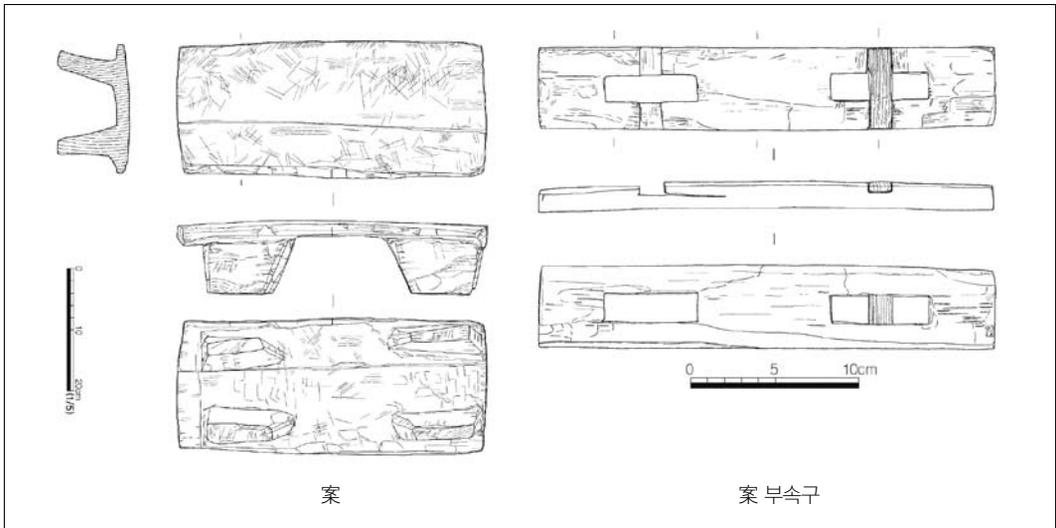
도면 10. 異形목기



도면 11. 각종 생활구

6. 食事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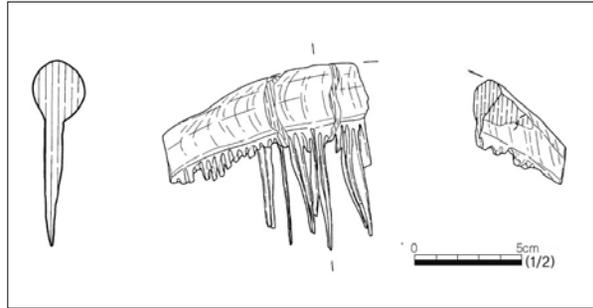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案 및 案 부속구가 출토되었다. 案은 일체형으로 제작하였는데, 길이 51.2cm, 너비 22.6cm로 하부에는 4개의 받침을 만들어 안정감을 높였다. 案 부속구는 주상의 상단부에 결구되는 부분만 판형으로 제작하고 장방형의 투공을 뚫었다. 이와 유사한 형태의 조립식 案 부속구는 日本 福岡市 元岡遺蹟과 今宿五江遺蹟에서도 보인다.



도면 12. 案 및 案 부속구

7. 服飾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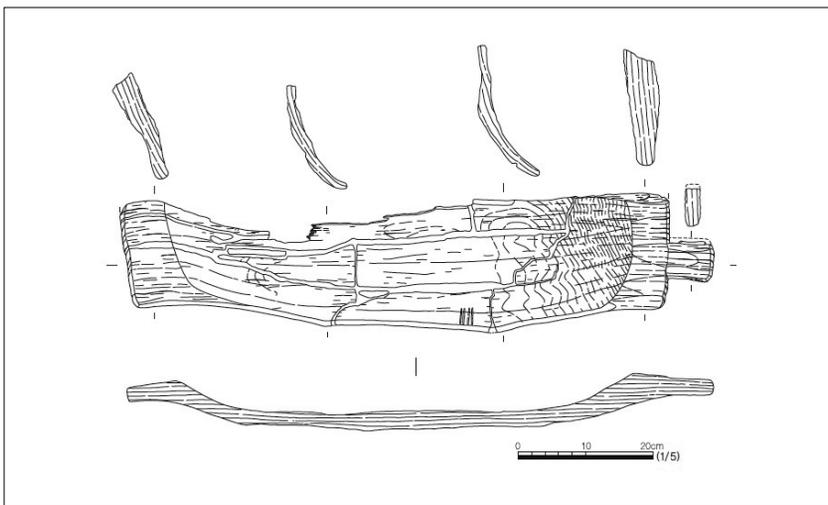
부산 고촌리유적에서는 호신을 그리
는 칠기 빗이 출토되었다. 손잡이 부분
의 단면은 원형이며 그 아래로 빗살이
채워져 있다. 빗살의 두께는 0.1~0.2cm
내외로 얇은 편이며 빗살의 최대길이
는 3.7cm이다. 단부로 갈수록 뾰족해지
며 나무결은 빗살방향과 일치한다. 형
태상 광주 신창동유적 출토품과 유사
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면 13. 빗

8. 樂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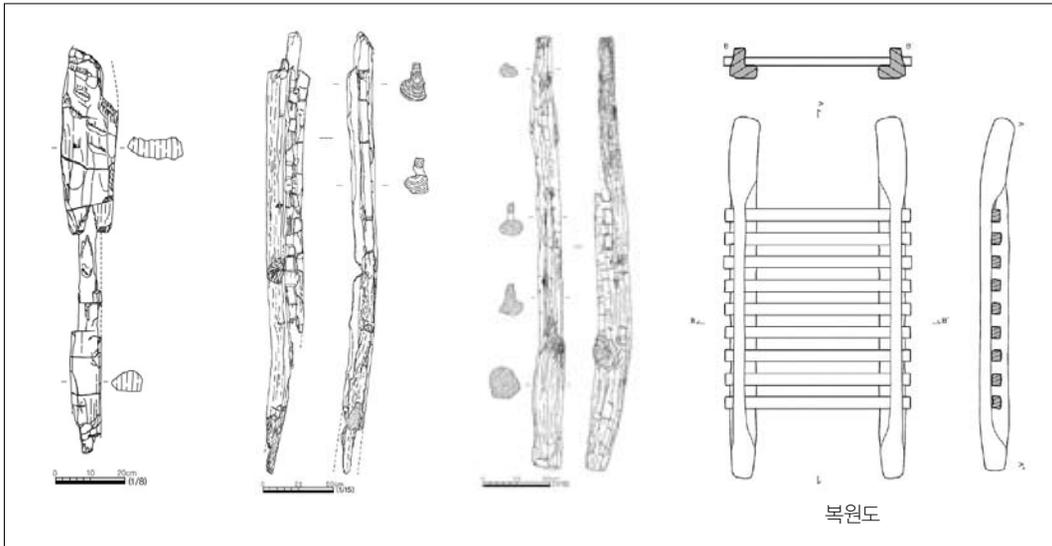
창원 신방리유적에서는 가야금으로 추정되는 미완성 목기 1점이 출토되었다. 잔존길이는 88.4cm,
너비 5.5~19.3cm, 두께 1.2~4.3cm로 전체의 2/3가량 잔존하며 평면은 장방형이 완만한 환상으로 돌출되
었으나 장방형에 가깝다. 한쪽 선단부에는 현조정부를 만들기 위한 두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일부 결
실되었으나 평면형태는 방형, 단면형태는 장방형을 띤다. 彈音部에 해당하는 신부는 반할재의 내부를
파내어 단면이 'U'자형을 띤다. 현조정부와 결합을 위한 축 구멍이 관찰되지 않아 미완성품으로 추정
된다.



도면 14. 가야금 추정

9. 運搬具

창원 신방리유적에서는 운반구로서 노와 수레가 출토되었다. 이 중 노는 유적이 기수역에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즐겨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레는 파손품 1개와 미완성품 2개 등 총 3점이 출토되었는데, 2개가 1조를 이루는 것을 감안하면 2대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수레는 직경 30cm 정도의 통나무를 1/4 정도 깎아내어 단면을 ‘ㄴ’자 형태로 만든 다음, 수직면에 일정 간격으로 홈을 내고 횡목을 끼운 것으로 추정된다. 홈의 기울기를 고려할 때, 횡목은 직교되게 결합되기 때문에 수레는 ‘目’자형으로 결구되어 장방형에 가까운 평면형태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레의 용도는 대형목주열 및 건물축조를 위한 목재운반구로서 수직면이 횡목의 상부로 돌출된 것은 원형목재가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로 생각된다.



도면 15. 노와 수레

IV. 목기의 수종

이상으로 창원 신방리·부산 고촌리 저습유적의 목기를 용도별로 살펴보았는데, 상기의 목기 외에 용도불명의 목기와 건축부재 등도 다수 출토되었다. 목기는 1차 가공품, 완성품, 파손품 등의 상태로 노출되었으며 수종은 다음의 <표 1>과 같이 참나무과, 버드나무과, 느릅나무과, 소나무과, 단풍나무과, 가래나무과, 주목과 등이 사용되었다. 출토된 모든 목기에 대해 수종분석을 실시하지 못했지만, 분석결과를 참고할 때, 무구는 소나무과, 공구는 참나무과, 농구는 참나무과와 버드나무과, 느릅나무과, 소나무과가 사용되는데 비해 용기는 참나무과 보다는 단풍나무과, 느릅나무과, 자작나무과, 가래나무과, 녹나무과, 소나무과 등이 선호되었다. 그리고 생활구는 참나무과, 소나무과, 자작나무과, 느릅나무과, 식사구는 소나무과, 약기는 참나무과, 운반구는 참나무과, 느릅나무과, 건축부재는 참나무과, 버드나무과, 두릅나무과, 느릅나무과 등으로 제작하였다. 각 수종의 특징을 고려하면 건축부재는 내구성과 강도가 높은 목재가 선호되었으며 용기와 도구의 제작에는 기본적으로 가공이 용이한 수종을 선호하였지만, 용도에 따라 목재의 강도를 선별하여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표 1. 목기의 수종과 가공방향

구분	유적			부산 고촌리유적		
	유물명	수종	가공방향	유물명	수종	가공방향
용도	유물명	수종	가공방향	유물명	수종	가공방향
武具	활	-	반할재	화살통	소나무과	정목
工具	자귀柄	참나무과	심지재	斧柄	참나무과	정목
農具	쌍날따비	참나무과	추정목, 반할재	쌍날따비	참나무과	정목
	괭이	버드나무과	판목, 추정목	괭이	참나무과	추정목
	고무래	느릅나무과, 소나무과	판목, 추정목	고무래	참나무과	판목
容器	고배	단풍나무과	정목	목태흑적칠고배	주목과, 느릅나무과	환목
				칠기완	녹나무과	환목
	파수부 장방형 용기	느릅나무과	선형	파수부 장방형 용기	녹나무과	반할재
	구유형용기	자작나무과	추정목	용기미완성품	소나무과	환목
	함지	가래나무과	반할재			
生活具	절구공이	소나무과	추정목	절구공이	참나무과	추정목
	메	참나무과	심지재	절구	소나무과	환목
	이형목기	자작나무과	추정목	두레박	느릅나무과	반할재
	걸이용 갈고리	-	할재	걸이용 갈고리	소나무과	환목
	타날판	-	판목			
	목도	참나무과	판목			
	괭이	소나무과	환목			
食事具				案	-	정목
				案 부속구	소나무과	판목
服飾具				빗	-	-
樂器	가야금(?)	참나무과	반할재			
運搬具	수레	참나무과, 느릅나무과	환목			
	노	느릅나무과	정목			
建築部材	문	참나무과	판목	다공형 목기	두릅나무과	판목
	빗장돈테	참나무과, 버드나무과	정목	소형목주	-	환목, 반할재
	대형목주	참나무과	환목, 할재, 반할재	대형목주	참나무과, 느릅나무과	환목, 반할재
	보	참나무과	환목			
	장부		정목			

V. 맺음말

이상으로 창원 신방리·부산 고촌리유적에서 출토된 목기를 용도별로 분류하고, 수종에 대해 살펴 보았다. 두 유적은 저습지라는 입지적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반을 육화시키고, 범람을 방지하기 위해 대·소형 목주열의 설치와 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실시하였다.

목기는 저습유적과 같은 습윤한 환경적 요인을 갖춘 곳에서 출토되나 관련 연구 성과는 극히 부족한 실정이며 보존처리 및 분석이 가능한 기관과 전공자는 소수에 불과하여 유물의 처리와 연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최근 들어 저습유적의 발굴조사가 증가하면서 목기의 출토 역시 증가하고 있으나 막대한 보존처리비용, 보관시설의 미비로 유물의 처리에 상당한 고민을 요하게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목기를 통한 고대인들의 생활상 복원에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2004, 『麻田里遺蹟-C地區-』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 목기-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
..... 2012, 『나무, 사람 그리고 문화』 .
..... 2012, 『한국 목기자료집-농기구 및 공구편-』 .
- 國立光州博物館, 1997, 『光州 新昌洞 低濕地遺蹟 I』 .
- 국립중앙박물관, 2008, 『갈대밭의 나라 茶戶里-그 밭글과 기록-』 .
- 김도현, 2008, 「先史·古代 木製農具에 대한 斷想」, 『考古廣場』 2, 釜山考古學硏究會.
- 奈良國立文化財硏究所, 1984, 『木器集成圖錄-近畿古代編(解説)-』 .
..... 1993, 『木器集成圖錄-近畿原始編(圖版)-』 .
- 大阪府立 近つ飛鳥博物館, 1999, 『修羅! その大いなる遺産 古墳・飛鳥を運ぶ』 平成11年度 春季特別展.
- 東西文化財硏究院, 2006, 「창원 신방 도시개발사업지구내 유적 발굴조사 지도 위원회 자료집」 .
- 東亞細亞文化財硏究院, 2006, 『金海 伽耶의 鎿 造成敷地內 遺蹟 發掘調査 報告書』 .
..... 2009, 『昌原 新方里 低濕遺蹟』 .
..... 2010, 『釜山 古村里 生産遺蹟』 .
- 木浦大學校博物館, 1997, 『務安 良將里遺蹟』 .
- 박호석·안승모, 2001, 『傳統 農耕의 歷史 한국의 농기구』, 語文閣.
- 長友朋子, 2008, 「食事樣式으로 본 漢文化 受容」, 『嶺南考古學』 45, 嶺南考古學會.
- 鳥取縣埋藏文化財センター, 2005, 『木製容器·かご』, 靑谷上寺地遺跡出土品調査硏究報告1.
- 정동찬·홍현선·윤용현 외, 1997, 『전통과학기술조사연구(V)-목공도구·가죽 다루기』, 국립중앙과학관.
- 湖南文化財硏究院, 2007, 『光州 東林洞遺蹟 I』 .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공구에 대한 검토

민경선 _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u>目次</u>	I. 머리말
	II. 함안 성산산성의 목제유물 출토 양상
	III.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공구의 특징
	IV. 맺음말

I. 머리말

함안 성산산성(城山山城)은 사적 제67호로 지정되어 있는 삼국시대 석축산성이다.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조남산(해발 139m) 정상부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성산산성은 조사 전 유적의 위치나 주변 유적의 시기 등으로 보아 가야산성일 가능성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에 산성과 아라가야의 역사적 관계에 주목하여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는 가야문화권 학술조사 연구사업의 일환으로 1991년부터 2012년까지 16차례에 걸쳐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 경에 조성된 것으로 신라산성임이 밝혀졌으며, 내벽의 축조 분기점과 외벽 보강구조물, 동·서·남 문지의 위치 및 형태, 동문지 부근의 배수체계 및 부엽공법 구간 등 산성의 구조와 다양한 시설이 확인되었다.(표1, 도면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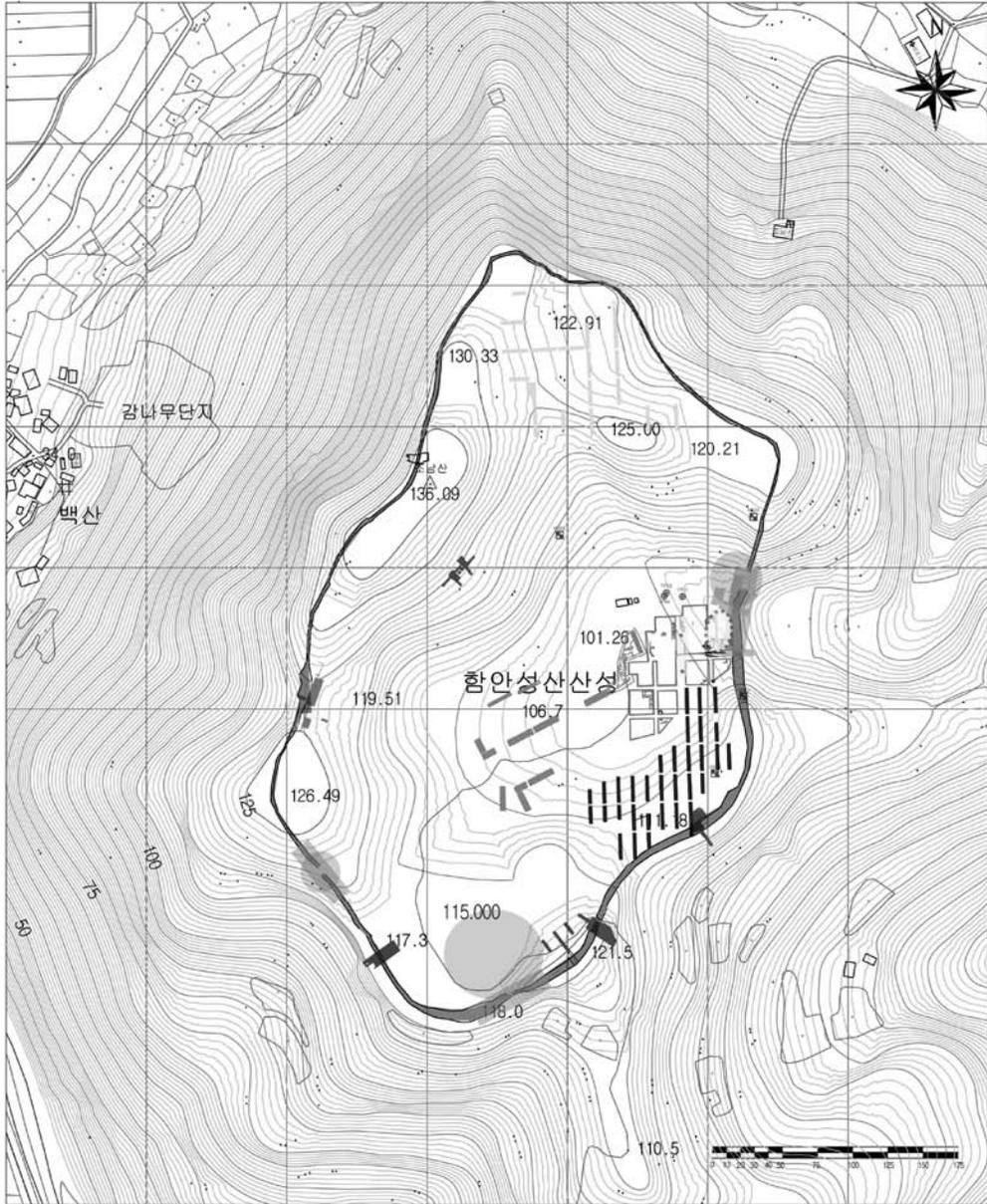
특히 1992년 4점의 명문목간이 출토된 이후 현재까지 281점의 명문목간이 출토되어 국내 최대의 목간 출토지로 주목 받아왔다. 또한 2006년부터 목간 집중 출토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목간이 출토된 유기물층(부엽층)은 저습지나 저수지가 아닌 성벽 축조를 위해 인위적으로 조성된 기반시설로 고대 동아시아의 축성기법 중 하나인 부엽공법(敷葉工法)이 이루어진 곳이다. 이는 계곡부인 동성벽 구간의 지형조건상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수량(水量)이 많으므로 이러한 지형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해된다. 이 구간에서는 목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기유물 또한 다량 출토되었다.

목기는 인간의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도구로 선사시대 이래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쉽게

부식되는 특징이 있어 유물이 잘 남아 있지 않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목제유물이 많이 확인되고 있어 목기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발표에서는 함안 성산산성의 목기유물 출토맥락과 함께 목기유물의 종류 및 특성 특히 농기구·공구류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현황표

연차	조사기간	조사구역(면적)	조 사 성 과
1차	1991.11.05. ~1991.12.29.	산성 동남부	○ 남성벽(협축식석성) 및 추정 남문지 확인 ○ 귀면와, 당초문암막새 등 출토
2차	1992.04.13. ~1992.07.21.	산성 동부	○ 추정동문지, 기단보축, 수구시설 등 시설물 확인 ○ 목간, 목제품 등 출토
3차	1993.10.11. ~1993.12.08.	산성 북부	○ 성곽 북벽, 성산서원 등의 건물지 확인 ○ 고려시대 암막새 및 평기와 출토
4차	1994.10.31. ~1994.12.24.	산성 동부	○ Y자 도수로 전체 확인 및 부엽층 조사 ○ 목간, 목제빗, 골편 등 출토
5차	2000.04.14. ~2000.07.01.	산성 동부 및 남서부	○ 남성벽 내·외벽 확인 및 동문지 부근 저습지 조사 ○ 목제유물 출토 및 울타리 노출
6차	2001.10.08. ~2001.12.29.	산성 서부	○ 배수구 및 서성벽 내·외벽 기저부 확인 ○ 통일신라시대 대호편, 조선시대 기와편 등 출토
7차	2002.07.11. ~2002.12.18.	산성 동부 (1,190㎡)	○ 동문지 주변 저습지 호안석축 및 목제울타리시설 확인 ○ 목제결구부재 등 출토
8차	2003.01.02. ~2003.10.25.	산성 동문지주변 (4,200㎡)	○ 동문지 주변 최종저수지 확인 ○ 목제방망이 등 출토
9차	2004.03.22. ~2004.08.27.	산성 동편 중앙 (5,000㎡)	○ 최종저수지 호안석축 구조 및 축조수법 확인 ○ 목제유물 출토
10차	2005.03.29. ~2005.09.23.	산성 동편중앙부 (8,300㎡)	○ 최종저수지 중복양상 및 2차 저수지 호안석축 및 생산유구 확인 ○ 대야형 목기 등 목제품 출토
11차	2006.03.29. ~2006.12.22.	최종저수지 (4,200㎡)	○ 동성벽 확인 ○ 목제유물 다량 출토
12차	2007.09.04. ~2007.12.18.	동부 부엽층 (510㎡)	○ 부엽공법구간의 형성과정 확인 ○ 목간, 동·식물유기체 등 출토
13차	2008.06.09. ~2008.11.28.	동부 체성 및 부엽층 (1,539㎡)	○ 부엽층의 평면적 형태, 목제울타리 구조, 동성벽 축조방법 및 구조 확인 ○ 다양한 형태의 목제품 출토
14차	2009.04.08. ~2009.11.20.	산성 동부 체성 및 부 엽층 (560㎡)	○ 부엽공법구간 내 목제울타리 시설 및 동성벽 외벽 보강구조물 세부구조 확인 ○ 다량의 목간, 동·식물유기체 등 출토
15차	2010.04.29. ~2010.12.08.	산성 서부 (15,600㎡)	○ 서문지 확인 ○ 편병 및 평기와류 출토
16차	2011.10.04. ~2012.11.22.	산성 동·서부 (9,100㎡)	○ 부엽공법구간 범위, 동성벽 내 배수구조 및 서문지 출입시설 양상 확인



【범례】

1차 1991년	4차 1994년	7차 2002년	10차 2005년	15차 2010년
2차 1992년	5차 2000년	8차 2003년	11~13차 2006~8년	16차 2011~12년
3차 1993년	6차 2001년	9차 2004년	14차 2009년	

도면 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현황도



사진 1. 함안 성산산성 전경

Ⅱ. 함안 성산산성의 목제유물 출토 양상

함안 성산산성에서 다종다량의 목제유물이 출토된 구간인 부엽공법구간(사진2)을 포함한 동성벽 전체구간의 축조 공정을 살펴보면, 모두 6단계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1단계는 바닥의 습지층을 정지하고 동·서 두 울타리의 시설과 울타리 사이의 공간을 부엽토로 성토한 단계로 부엽층의 상단은 회갈색 점질토를 두껍게 시공하여 밀봉하였다. 2단계는 1단계에 축조된 1차 부엽층에 덧붙여서 부엽토를 더 높고 넓게 성토한 단계로 체성벽이 축조될 곳에서 약 1m가량 떨어진 지점까지 부엽토가 성토된다. 3단계는 부엽토가 성토된 후 바닥의 암반층까지 'L'자형으로 굴착하고 체성벽의 하부가 축조되는 단계로, 이때 높이는 부엽토의 최상단보다 약간 낮게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며, 점판암계의 판석이 아닌 막돌을 쌓아 축조하였다. 외벽보강구조물도 이 단계에 함께 설치되어 체성벽 하부를 지탱하는 역할을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4단계는 부엽층과 체성벽 사이에 막돌을 성기게 채워 넣어 보축성벽의 하부를 축조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2차 부엽층의 밀봉이 함께 이루어졌다. 5단계는 보축성벽과 체성벽이 높게 쌓아지는 단계로 성벽 축조와 동시에 부엽층 상부에 점질의 풍화암반토를 성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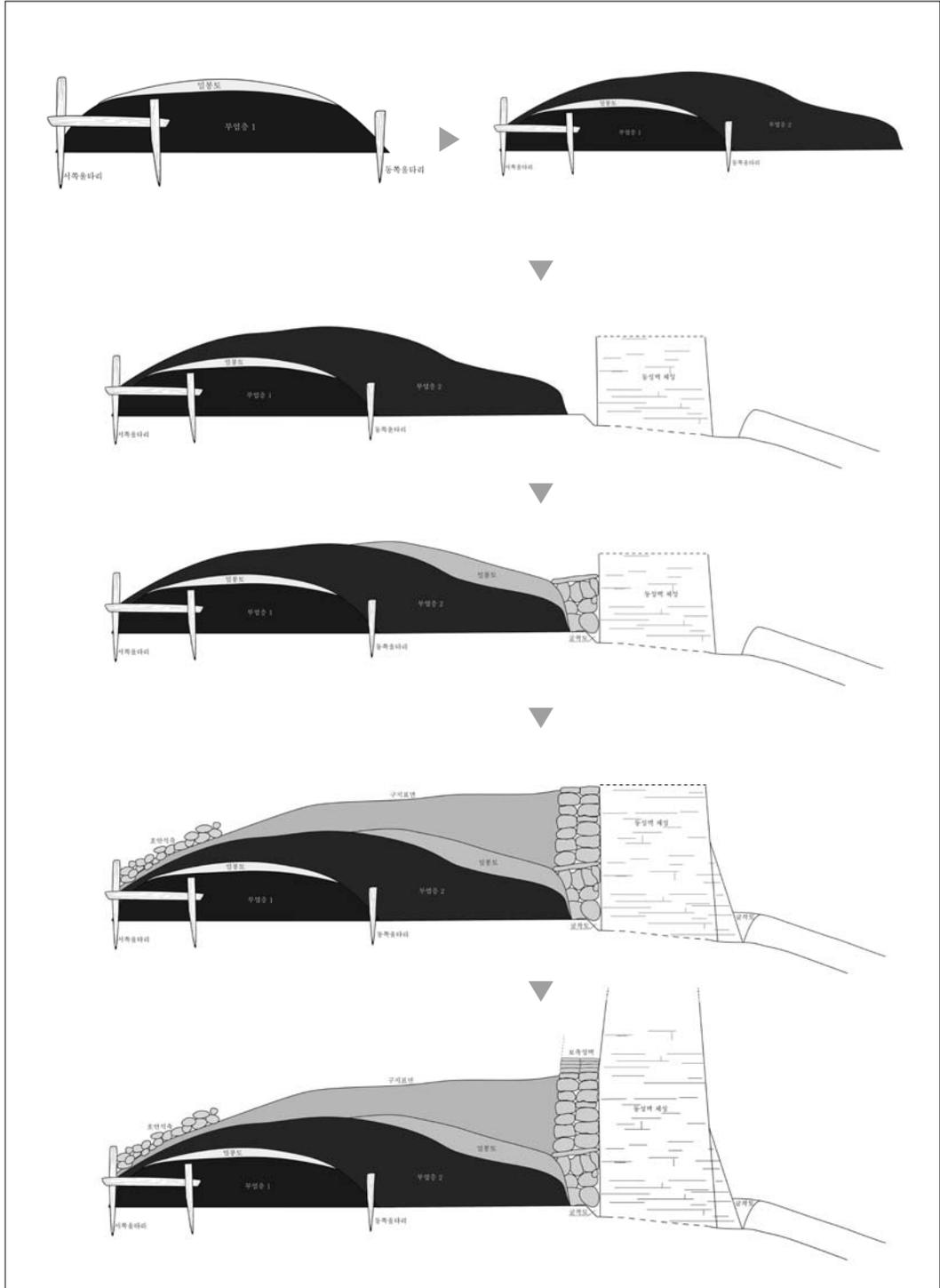


사진 2. 동성벽 내 부엽층 및 나무울타리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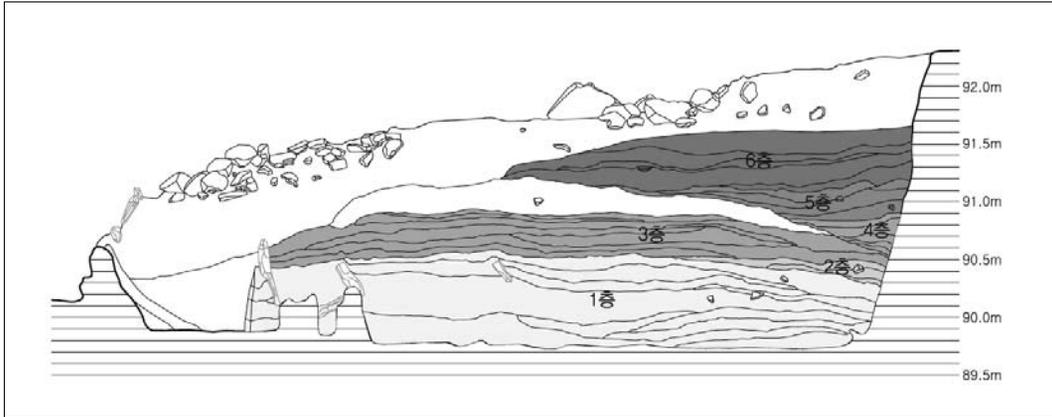
하여 구지표면 상부를 마련하고 부엽층의 서쪽 끝단에 성토된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할석을 경사로를 따라 매립하였다. 이 할석매립시설은 호안석축의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동성벽 북쪽구역 배수시설도 함께 축조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6단계는 지표상에 노출되는 체성벽과 보축성벽이 축조되는 단계로 이전 단계에는 직선상으로 축조되던 성벽이 이 단계에서 동쪽방향으로 기울어져 축조되며, 점판암계의 판석을 정연하게 쌓아올려 마감처리하고 있다.(도면2)¹⁾

동성벽 구간의 지형적 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성된 부엽층에서는 다종다량의 목재유물이 출토되었다. 이는 부엽층이 자연적으로 습지가 형성되어 목재가 썩지 않고 잔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부엽층에서의 목재유물의 출토현황은 대략 다음 도면3과 표2를 통해 일부나마 살펴볼 수 있다.

1)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함안 성산산성 1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도면 2. 동성벽 축조 공정 모식도



도면 3. 부업층(남벽) 토층도

표 2. 부업층의 층위별 유물 출토현황(2006~2007년)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2,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보고서Ⅳ -제Ⅱ 권 목간 및 목제품편』, p.19 표1)

층위 출토유물	층위별 출토 수량																																합계
	1	2	3	4	5	7	8	9	10	11	12	13	15	16	17	18	19	20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목간				1	4	7	4	2		2	1	3	1					2	2		1	7		2		15	29	5	14	102			
재심속				1	1		1												1										1	6			
목기류	11	24	17	126	100	95	125	22	5	13	3	5	72	3	8	42	13	20	19	15	1	6	1	3	16	36	12	10	37	770			
동원유기체	3	10	4	11	15	14	10			1	1		4		2				1											62			
식물유기체		3		7	6	8	11	3	2			1	1	5		1	2		3	1	2					1	3		1	1	57		
모범		1																									1				2		
금속						2	2				1																				5		

Ⅲ.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 농기구 · 공구의 특징²⁾

함안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제유물은 다양한 종류로 다량 출토되었으나 대부분 결실되고 미완성 품이 많아 정확한 용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하지만 유물의 형태나 출토맥락을 고려하여 용도를 추정해보고, 이를 기존의 연구성과 및 민속자료를 참조하여 유물의 형태나 제작기법에 따라 다음 표3과 같이 분류할 수 있었다.

2) ①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목기 - 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
 ②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11,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Ⅳ -제Ⅱ 권 목간 및 목제품편』, .

표 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기유물 분류표

구분	유물명
농기구	곰방메, 메, 고씨레, 고무래, 낫자루, 추정 따비부속구 등
공구	자귀, 도자, 송곳, 방망이, 이형방망이, 첩기형목기 등
용기	사발, 완, 사각용기, 절판, 접시, 이배형목기, 칠기 등
생활구	바가지, 삼형목기, 손가락형목기, 얼레, 짚추리개, 고드렛돌, 목제추, 눈금새긴목기, 빗, 제침축, 편물가공품 등
제사구	조두형목기
결구부재	농공구부재, 가구부재, 건축부재 등
용도불명목기	툼니형목기, T자형목기, 원판형목기, 수피가공품 등
목간	하찰목간

이렇듯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목제품은 농기구·공구류(사진3·4), 각종 생활구·용기류(사진5)와 주로 물품에 대한 정보가 쓰인 하찰목간(사진6)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이러한 목제유물을 제작하기 위한 도구도 다양하게 출토되었는데, 그 종류는 자귀, 손도자, 끌, 방망이, 목제추, 눈금새긴목기 등이 있다. 이들이 출토된 부엌층에서는 미완성품, 목재 편 등도 다량 출토되어 성산산성 내에서 목제품 제작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목제유물 중 성산산성 생활인의 농경생활을 짐작할 수 있는 농기구 및 공구류가 다양하게 출토되었다.



사진 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농기구류



사진 4. 함안 성산산성 출토 공구류



사진 5. 함안 성산산성 출토 용기류



사진 6.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간류

1) 농기구류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농기구류는 밭농사에 사용되는 고씨레, 곰방메, 농구 부속구, 낫자루 등이 출토되었다.

고씨레는 주로 산간지역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옥수수나 콩 따위를 파종할 때 씨를 넣을 골을 타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다. 성산산성 출토 고씨레는 4점으로, 자루부분이 결실되었지만 남아 있는 몸통과 씨레발을 통해 그 용도를 짐작할 수 있었다. 고씨레의 목재는 모두 활엽수(느릅나무, 밤나무, 상수리나무, 버드나무, 때죽나무 등)의 큰 가지와 주줄기 부분을 이용하였고, 몸통과 씨레발 부분은 다른 수종을 이용하였다. 가공은 모두 자귀류로 다듬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씨레발은 납작한 몸통부의 얇은 면에 첩기 형태로 3~4개가 결구되었고, 중앙부에는 사선방향으로 다른 부속구가 결구되었다. 결구방식은 모두 나무못을 이용하여 고정하였다.(사진7, 도면4)

곰방메는 쟁기로 간 논이나 밭의 흙덩이를 두들겨 부수는 데 사용하거나 이랑을 다듬고 씨를 뿌린 다음 흙을 덮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떡메보다 약간 작다. 성산산성 출토 곰방메는 5점으로 목재는 모두 활엽수(밤나무·단풍나무·느릅나무·느티나무·상수리나무류)를 사용하여 큰 가지 또는 주줄기를 가공하여 제작하였다. 자루부분은 모두 결실되었고 몸통부만 남아 있다. 크기는 지름 5~10cm, 길이 30cm 정도의 통나무에 100~200cm 남짓한 자루를 'T'자형으로 결구하였다. 몸통부의 길이는 17~25cm 정도이다.(사진8, 도면5)

농구 부속구로 추정되는 목기 2점이 확인되는데, 민속자료나 농경문청동기의 사례로 보아 따비의 부속구로 추정된다. 따비는 비탈이 심하거나 돌과 나무뿌리가 많아 쟁기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 땅을 일구는 데 사용하는 원시적인 형태의 농기구이다. 성산산성에서 출토된 2점은 버드나무류의 주줄기를 목재로 사용하였고, 장방형의 가공목기에 너비 4.5~5.7cm 정도의 방형 구멍이 있는 형태로 따비의 발판 부분인 것으로 추정된다.(도면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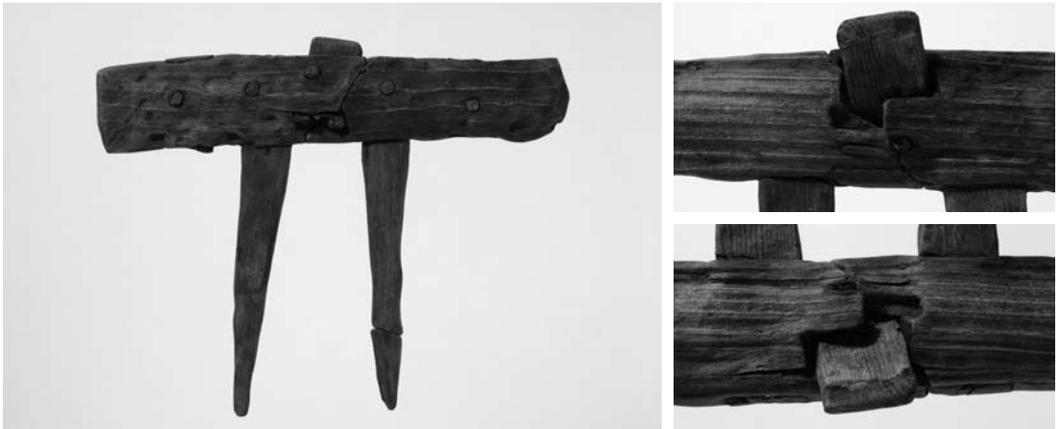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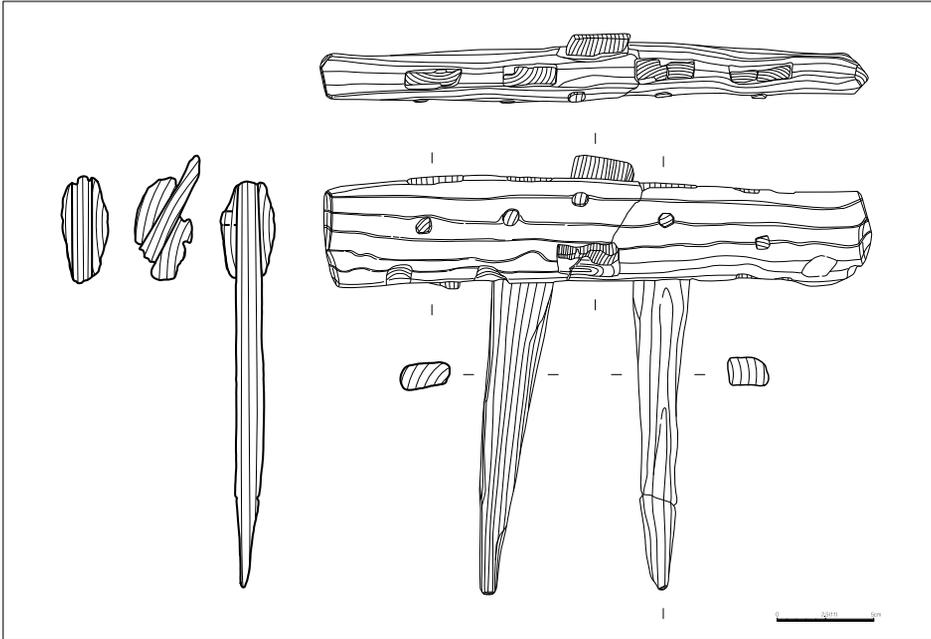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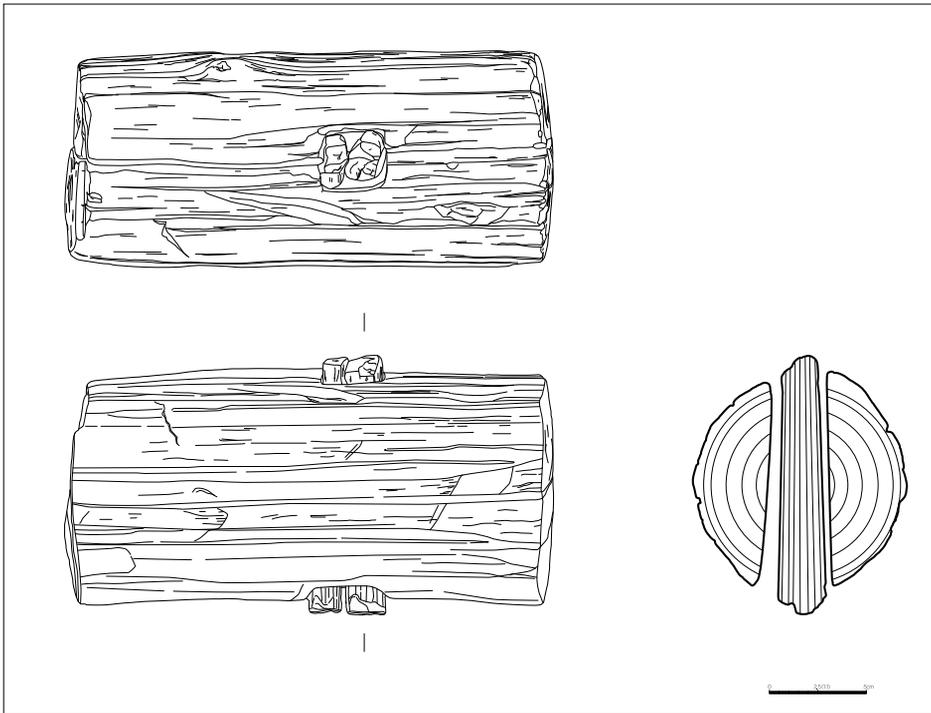


사진 7. 함안 성산산성 출토 고씨레



도면 4. 함안 성산산성 출토 고씨레



도면 5. 함안 성산산성 출토 곰방메

낫자루는 날이 없고 자루부분만 남은 채 2점이 출토되었다. 상수리나무류의 큰 가지 또는 주줄기를 사용하였다. 낫날이 결구되는 부분에는 단면을 세장방향으로 가공하였고 손잡이 부분은 단면 원형으로 가공하였다.(도면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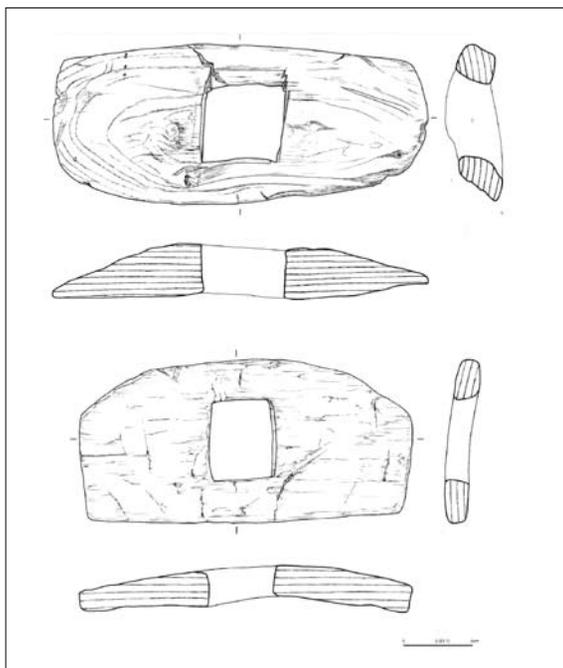


사진8. 함안 성산산성 출토 곰방매류

2) 공구류

공구는 물건을 만들거나 고칠 때 사용하는 도구이다. 성산산성 출토 공구류는 자귀, 도자류, 송곳, 방망이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 대부분 자루부분만 출토되었으나 자루와 날이 결구되어 함께 출토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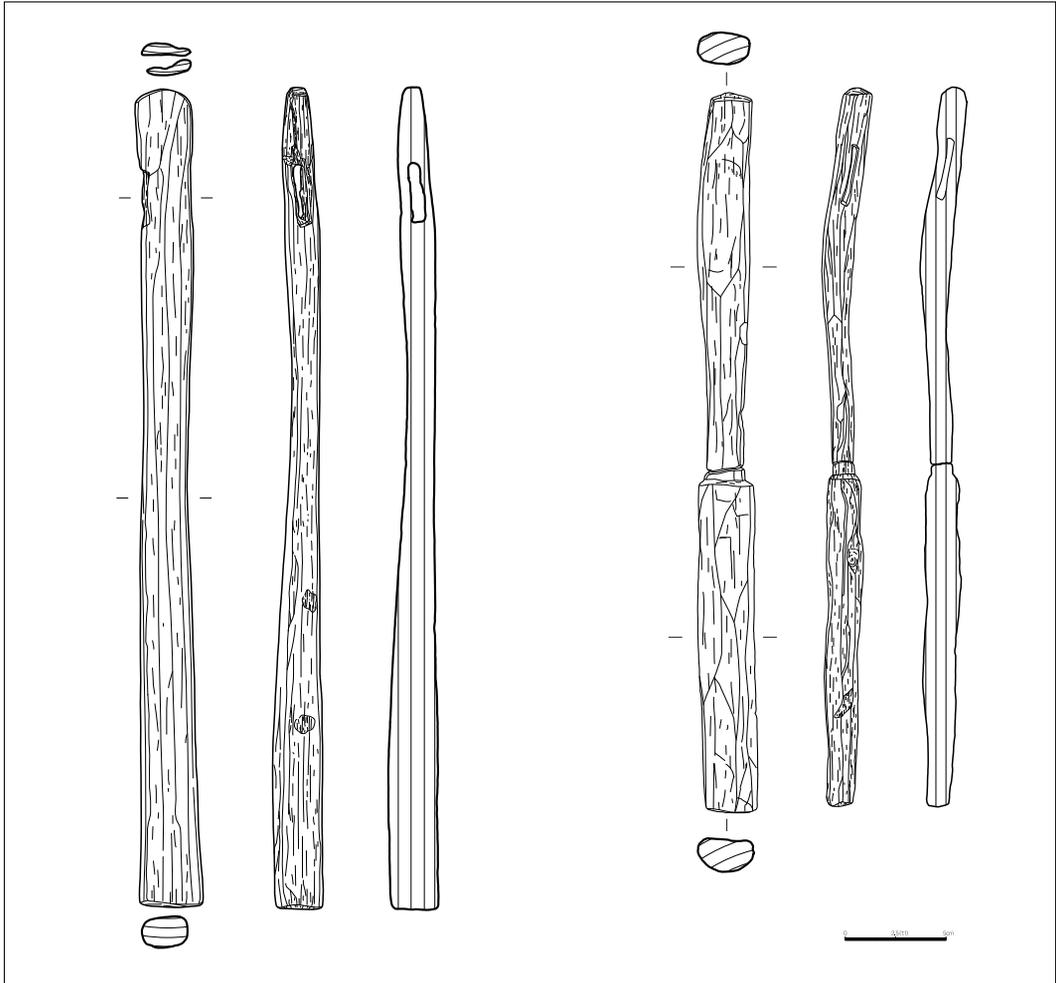
자귀는 목재를 찍거나 깎아 가공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13점이 출토되었다. 자귀의 자루는 2가지 장착방식으로 구분되는데, ‘ㄱ’자형으로 꺾인 가지를 이용하여 가공한 후 날을 끼우는 방식과 자루와 날부분을 별도로 제작하여 끼우는 방식이 있다. 목재는 주로 상수리나무류를 사용했고 산뽕나무·서어나무·굴피나무류 등도 사용하였으며, 크기에 따라 큰 가지와 작은 가지 모두 사용하였다.(도면8)



도면 6. 함안 성산산성 출토 추정 따비부속구

손도자는 소형 칼로 주로 목재를 다듬는 데 사용되는 도구이다. 성산산성에서는 13점이 출토되었는데, 그중 6점이 완형으로 복원되었다. 손도자는 칼날과 자루부분을 별도로 제작하여 결구하였고, 결구부분에는 철제나 식물유체로 감아 고정시키도록 하였다. 대부분 자루부분의 아래쪽이 휘어지도록 다듬어 사용할 때 편리하도록 제작한 것이 특징이다. 자루에 음각선이 확인된 유물도 있다.(도면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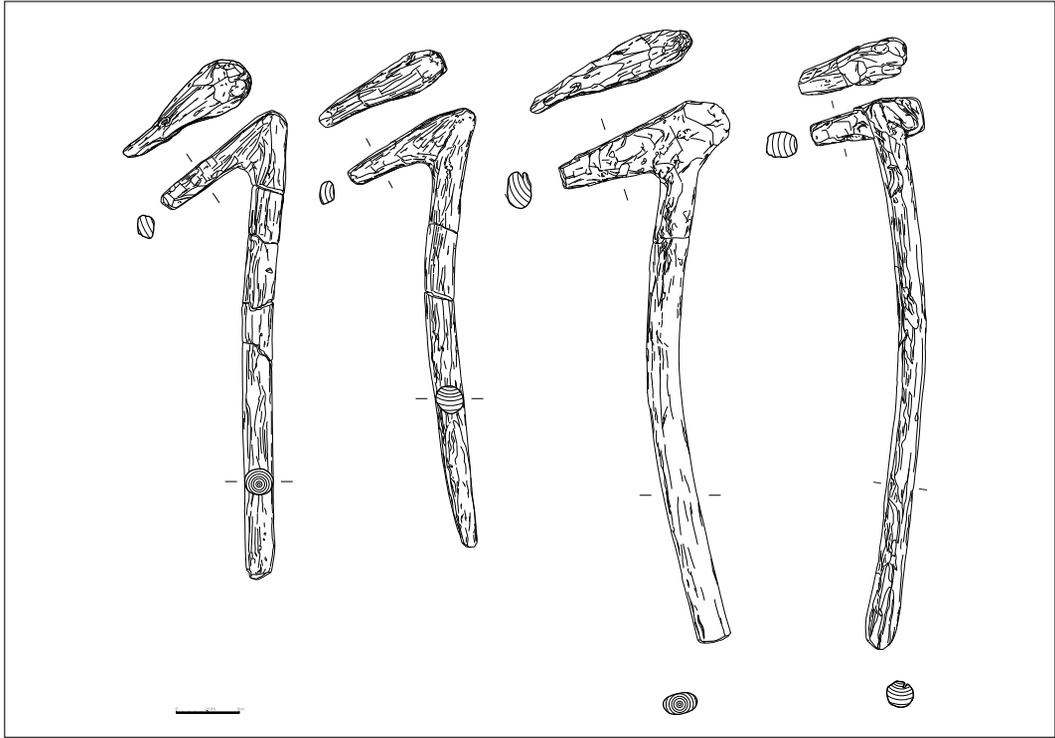
송곳은 작은 구멍을 뚫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성산산성에서는 2점이 출토되었다. 한 점은 뾰족한 날이 자루와 결합되어 있는 전형적인 송곳 형태이고, 다른 한 점은 돌대송곳과 유사한 형태인 가공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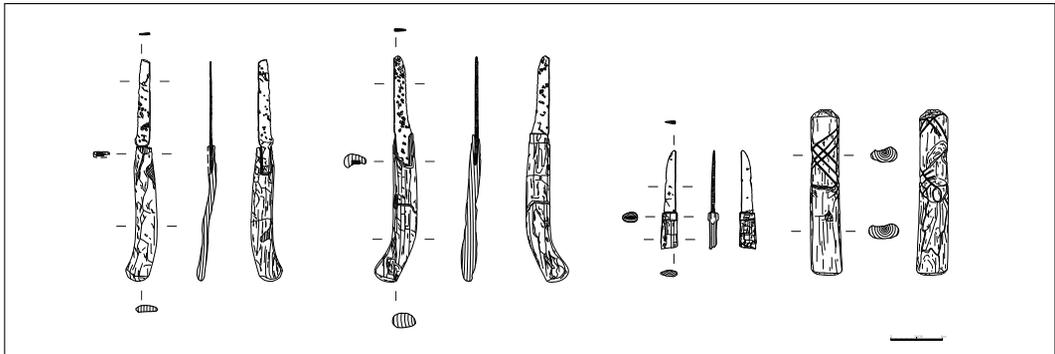
도면 7. 함안 성산산성 출토 낫자루

기이다. 후자는 속이 빈 원통에 위아래로 돌출된 날이 장착된 방식이며, 몸통에 방형 구멍이 일정한 간격으로 3개가 나 있다. 이는 일반적인 돌대송곳과 회전 방식이 조금 달랐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는 처음 확인된 유물이다.(도면10)

방망이는 물건을 치거나 두드리거나 혹은 다듬는 데 사용하는 도구로 몸통은 원통형으로 길게 깎고 자루부분은 몸통보다 가늘게 깎아 만들었다. 성산산성에서는 방망이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으며, 그 형식도 다양하다. 몸통과 자루 경계부분이 부드럽게 이어지는 형식과 절구한 듯 단이 지는 형식으로 크게 나뉜다. 또한 자루의 단면 크기 및 위치, 자루 단부의 형태에 따라 형식이 분류된다. 목재는 다양한 활엽수류가 사용되었다.(도면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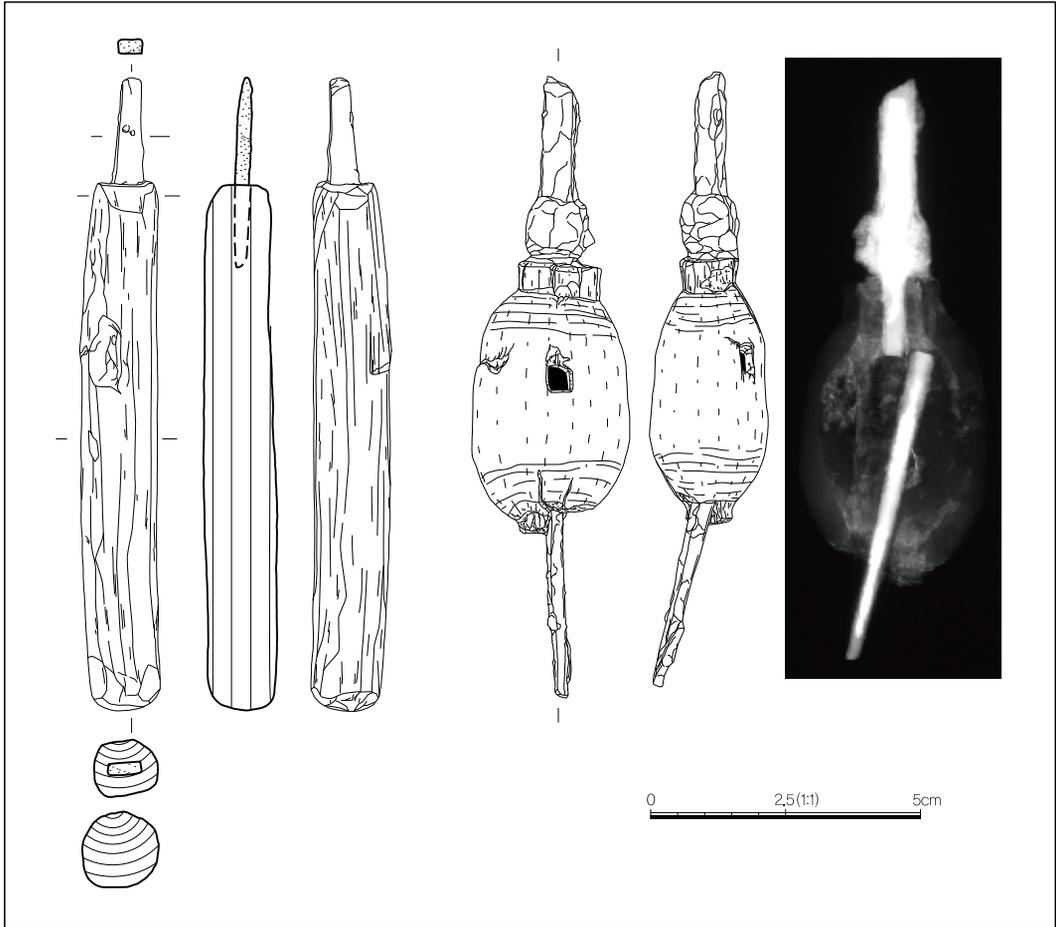
도면 8. 함안 성산산성 출토 자귀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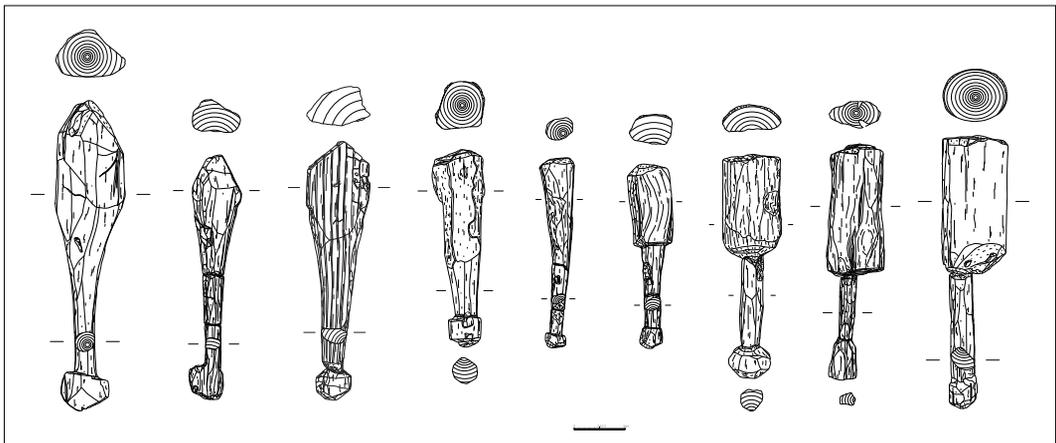
도면 9. 함안 성산산성 출토 도자류

성산산성 출토 방망이 중에는 용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특이한 형태의 방망이(이형방망이)도 출토되었다. 그중 12점은 몸통 상단은 삼각형을 이루며 방형 구멍이 나 있고 자루가 있다. 또 몸통이 타원형이거나 부정형으로 다듬어진 방망이도 2점 확인되었다.(도면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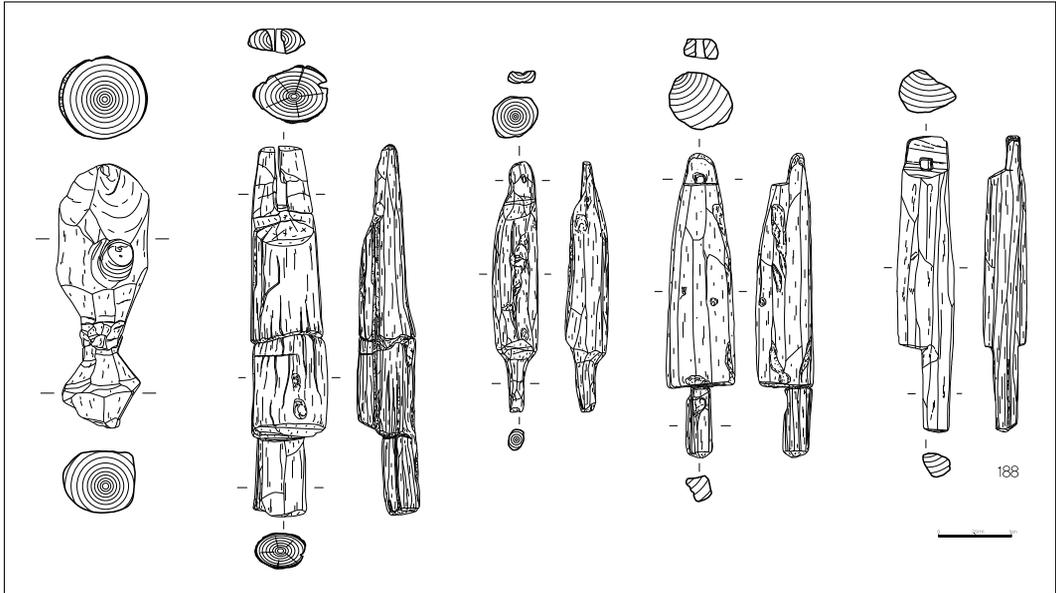
이 외에도 용도를 알 수 없는 다양한 크기의 침기형목기도 다수 확인되었다. 또한 목제추 3점, 눈금 새긴목기(목척) 5점 등도 출토되었다.(도면13) 눈금새긴목기는 소나무류나 활엽수종을 사용하였고, 일정한 눈금이 새겨져 있어 목제품 제작 시 하나의 기준척으로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도면 10. 함안 성산산성 출토 송곳류



도면 11. 함안 성산산성 출토 방망이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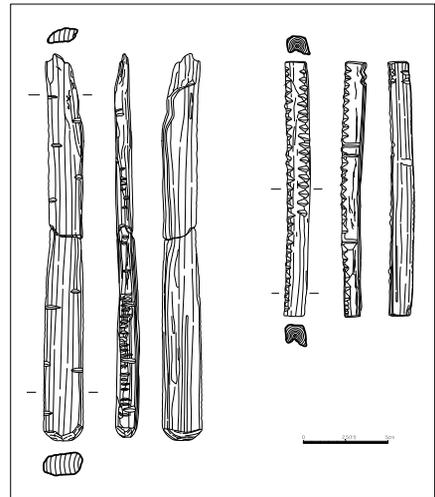


도면 12. 함안 성산산성 출토 이형방망이류

3) 목재의 수종

목재는 수종에 따라 다양한 특성을 가지므로 목기 제작 시 그 용도에 따라 적절한 수종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목재의 이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재질지표가 비중인데, 무거운 목재와 가벼운 목재의 차이는 목재 내 공극률의 다소(多少)를 의미하고 이는 목재의 강도 혹은 수축률의 대소(大小)에 직결된다³⁾. 따라서 목재의 비중은 강도와 비례한다 볼 수 있다.

함안 성산산성 출토 목제유물에 사용된 목재의 수종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분석한 결과, 소나무·상수리나 무·밤나무류가 전체 50.7%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그중 농기구·공구류에 가장 많이 사용된 수종은 상수리나나무류이다. 농기구·공구는 단단한 강도와 탄력이 필



도면 13. 함안 성산산성 출토 눈금새긴목기

3) 이화형 등, 2008, 『목재물리 및 역학』.

요하므로 비중이 큰 목재를 주로 사용한다. 상수리나무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활엽수종으로 재질이 단단하고 질기며, 쉽게 썩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탄성이 풍부하며, 강성이 커 농기구·공구의 재료로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농기구는 느릅나무류, 버드나무류, 밤나무류, 단풍나무류 등의 순으로 점유율을 보이고, 공구는 단풍나무류, 밤나무류, 산벚나무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IV. 맺음말

목기는 인간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도구로 비교적 재료 확보나 가공이 용이하여 생활 소모품으로 많이 쓰인다. 목기가 내구성에 있어서는 돌이나 철에 비해 떨어지지만 다른 재료들(강한 소재)을 적절히 보완하면서 꾸준히 제작, 사용되어 왔는데, 각종 도구를 만드는 데 쓰인 공구나 생활활동에도 크게 사용되었다. 함안 성산산성에서도 생활도구나 농기구·공구류가 주로 확인되었다.

성산산성 출토 농기구류는 산지에서의 생활에 맞게 밭농사에 사용되는 고씨레, 곱방메, 따비부속구 등이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산성 내에서 농사를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산산성 출토 목기유물 중 가장 많은 수량을 보이고 있는 공구류는 목제품 제작에 사용된 다양한 도구들이 확인되었다. 그 형태가 완전하지 못한 것이 많아 기능과 용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목기유물이 다른 유물에 비해 형태 변화가 적어 각종 민속자료를 통해 유사한 형태를 파악하고 용도를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함안 성산산성 내부에서 주거구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러한 목기유물은 산성 내 생활공간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도구의 제작기술이나 농사 기술에 대한 정보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임에 틀림없다.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는 목제유물에 대한 비교 분석이 가능한 자료가 앞으로 더 많이 확보되어 그 형태와 용도가 명쾌하게 해석되기를 기대해본다.

참고문헌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 목기 -함안 성산산성을 중심으로-』 .
....., 2011, 『함안 성산산성이 목제유물과 활용』 .
....., 2012, 『함안 성산산성 발굴조사 보고서Ⅳ -제Ⅱ권 목간 및 목제품편』 .
....., 2012, 『함안 성산산성 16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국립김해박물관, 2012, 특별전 도록 『나무, 사람 그리고 문화』 .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 출토 목기에 대한 검토

이 의 지 _ 충청문화재연구원

<u>目次</u>	1. 조사개요
	2. 조사내용
	3. 출토목기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은 백제큰길 연결도로 건설공사로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6월 6일까지의 일정으로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이다. 조사에 관한 보고서는 2009년도에 발간되었으며, 유적은 현재 복토되어 그 위에 도로가 건설된 상태이다.

유적은 사비나성 내부에 위치하여, 백제 사비기에 해당되는 건물지 3동, 도로유구 8기, 수혈유구 2기, 제방시설 1기, 수로 4기, 지엽시설 3기, 제사유구 7기, 경작유구 2기가 조사되었다. 토기는 뚜껑·완·대부완·벼루·전달린토기·호·옹·자배기·시루·연통형토기 등이 출토되었으며, 대부분 사비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기타 토제유물은 와당·암키와·수키와·도가니 등이 출토되었다. 목기는 총 71점이 출토되었다. 고무래 1점, 바늘 1점, 올레 외주목 2점, 빗 2점, 순가락 1점, 도칠상자 1점, 도칠용기 15점, 배모양목기 1점, 목재용기 1점, 목간 12점, 제점축 6점, 톱니형목기 1점, 이형목기 2점 등 총 71점이 출토되었다.

여기서는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의 조사의 개요를 소개하여, 출토목기에 관한 약간의 사건을 언급하고자 한다.

1. 조사개요

부여 쌍북리 현내들·북포 유적은 충청남도 부여군의 쌍북리 일원으로서 서쪽으로 흐르면서 부소산의 북쪽 지역에서 금강으로 흘러들어가는 가증천 및 그 지류에 위치하였다. 유적이 위치한 가증천(佳增川) 일대는 1970년대까지도 범람원 주변 습지로 남아 있다가 경지정리가 이루어져 현재는 정동들 및 가증들, 소재미들, 현내들로 정리되어 경작지와 시설원예작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이다.

특히, 현내들유적이 위치한 가증천 지류 주변의 저지대에는 현재까지도 경작이 이루어지지 않는 습지지역이 다수 분포해 있는 상황이며, 저지대 주변의 완만한 구릉을 따라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다. 현내들유적은 가증천의 1차 지류의 상류지역으로서 대체로 남서에서 북동방향으로 가면서 해발고도가 낮아지고, 지류 주변으로 퇴적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유수에 의해 교란과 이에 따른 보수작업이 반복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물에 의한 범람이 자주 일어났던 지역임을 알 수 있었다. 북포유적은 부소산 및 그 가지능선으로 연결된 청산에 의해 둘러싸인 형태로서 얇은 육상부에서 가증천변의 수상부로 연결되는 중간지역에 해당한다.

조사는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 백제큰길 연결도로 건설공사 구간 중 쌍북리 동문삼거리부터 부소산성 뒤편의 쌍북양수장에 이르는 도로변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위치한 쌍북리 일원의 I-1·3구간에 대한 문화유적 발굴조사로 2001년 충남대학교박물관에 의해 지표조사가 실시되어 백제시대 이래의 생활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알려졌으며, 2005년 충청문화재연구원에서 시굴조사를 진행하여 백제시대 문화층이 확인되었다.

이에 발굴조사는 백제시대 문화층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총 면적 11,004㎡(약 3,329坪)에 대해서 2006년 12월 19일부터 2007년 6월 6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I-1구간인 현내들유적에서 백제시대 문화층 2개면이 확인되었다. 조사 중 조사지역을 둘러싼 절토부의 퇴적양상에서 물을 많이 머금은 점질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절토부의 토양졸림이나 붕괴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백제시대 I 단계면에 대해서는 비교적 토양이 견고한 지점을 선택하여 부분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I-3구간인 북포유적에서도 백제시대 문화층 2개면이 확인되었는데, 도로를 기준으로 하여 남쪽구역은 일부 조사범위에 걸쳐 하수관로의 중앙부에 위치해 있었고, 절토부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절토면을 법면 처리하면서 하강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조사지역의 폭이 협소하여 부분적으로 II 단계면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도로 북쪽은 비교적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I 단계 및 II 단계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

이처럼 발굴조사지역 대부분이 저습지라는 불리한 지형조건으로 인해 아주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부분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백제시대 문화층에서 당시의 건물지를 비롯한 수로, 도로유구가 확인되었으며, 북포유적에서는 지염부설 시설 등이 조사되어 당시 백제인들이 가증천의 인접지형을 따라 활용이 가능하도록 확장시켜 나가는 현상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

다 본 유적이 중요한 이유는 유적이 위치한 곳이 백제시대 사비 도성 내부, 즉 나성 내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당시의 도로유구 등이 확인되어 부여지역에서 도로유구가 조사된 유적들¹⁾과 함께 백제시대 나성 내부에 대한 도시계획과 사비도성의 평면구조, 그리고 그 수정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토기를 비롯한 목기와 기와 등 출토된 유물을 통해 당시 생활상을 일부나마 복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북포유적에서는 가중천이 금강으로 들어가는 지역으로 백제 사비시대 포구와의 관련성을 예상할 수 있는 유구가 조사되어 당시 도시계획의 구체성이 도성 북쪽의 금강연안까지 면밀히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 현내들 · 북포유적 지점별 현황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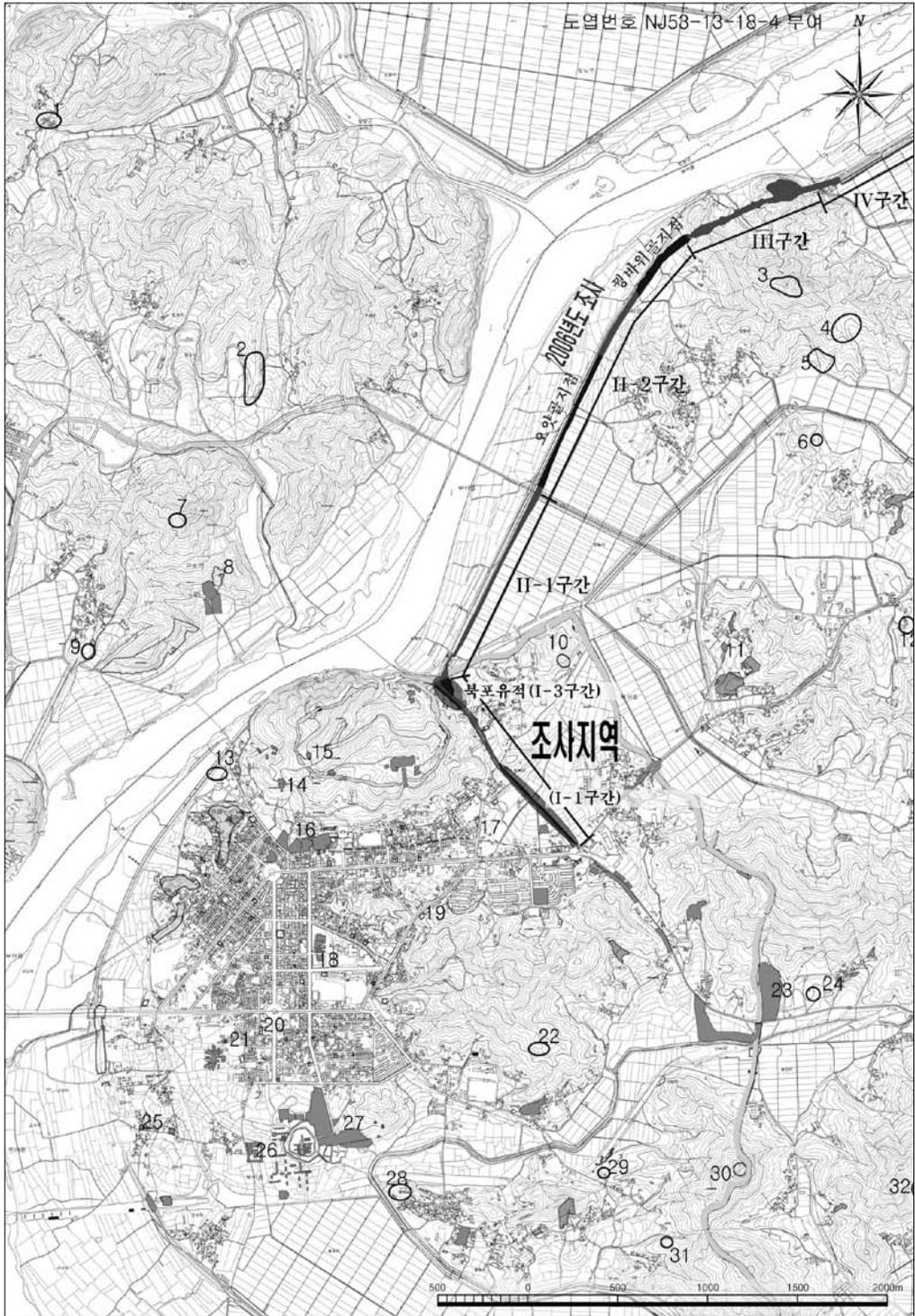
地 點	구 분	시 대	유 구 현 황
현내들유적	1구역	백제시대	수로 2기
	2구역	백제시대	추정 제방시설 1기, 수로 1기
	3구역	백제시대	건물지 2기, 수혈 1기
	4구역	백제시대	도로유구 4기, 수혈 1기
	5구역	백제시대	도로유구 2기
	6구역	유구없음	-
	7구역	유구없음	-
	8구역	유구없음	-
북포유적	S-1구역	유구없음	-
	S-2구역	백제시대	경작지 2식
	N구역	백제시대	도로유구 1기, 건물지 1기, 제사유구 7기, 지엽부설 3기, 수로 1기

1) ①忠南大學校博物館·忠清南道, 1999, 『扶餘官北里 百濟遺蹟 發掘調査(II)』.

②忠南大學校百濟研究所, 2003, 『泗沘都城』.

③(財)忠清文化財研究院, 2004, 『扶餘-論山間 道路擴·鋪裝工事 區間內 文化遺蹟 發掘調査 現場說明會』資料.

2) 유적별 구역의 설정은 공사 시점인 동문삼거리부터 시작하여 임의로 구역명을 부여하여 현내들 1~8구역, 북포 N, S-1·2구역으로 나누어 발굴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면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유적분포(S=1 : 25,000)



사진 1. 조사지역 위치 및 주변 유적분포(위성사진)

2. 조사내용

1) 현내들 유적

현내들유적은 가증천 지류의 상류지점에 해당되며, 부소산, 금성산 및 청마산 등에 의해 둘러싸인 지형적 원인으로 인해 우천 시 사방의 빗물이 집중되는 지점에 해당한다. 이러한 양상은 층위상에서 현저하게 보여지고 있는데, 현대들유적의 퇴적양상은 지표로부터 크게 ① 현 경작면 구성층군 - ② 사질토 퇴적층 - ③ 회흑색 점질토층 - ④ 사질토 및 점질토의 반복퇴적층군 - ⑤ 백제시대 문화층으로 구분되어지며, 각 구역의 지형적 조건에 따라 세부적인 퇴적양상에 차이를 보인다. 특히 조사지역의 해발고도와 금강변과 가증천 주변의 해발도고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아 금강의 범람시 조사지역 일대까지 침수가 빈번히 이루어졌음을 퇴적양상에서도 확인되며, 5구역부터 2구역까지는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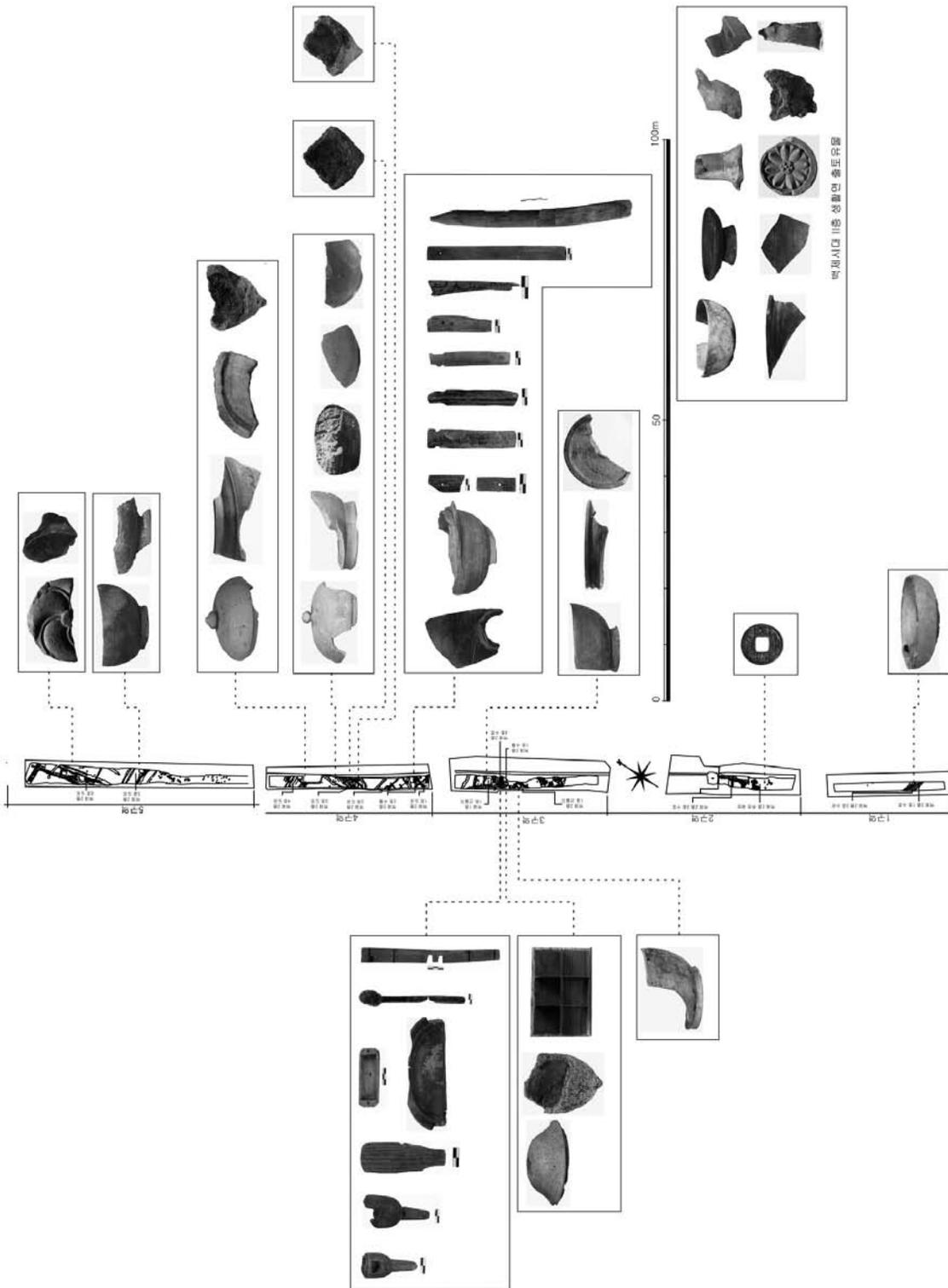
사진 2. 현내들유적 3구역 퇴적양상



사진 3. 현내들유적 4구역 퇴적양상



사진 4. 현내들유적 전경(남에서)



도면 2. 현내읍유적 유구 및 유물 출토상황

2) 북포유적

북포유적 일대의 퇴적양상을 살펴보면, 부소산 기슭에 가까운 S-2구역의 층위양상에서 기반은 점성이 있고 사립이 섞인 풍화토로서 황갈색 내지 명갈색을 띠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 위로 산경사면을 따라 마모되지 않은 소형 석재들과 모래가 섞여 퇴적되거나 사점질토가 퇴적되고 있는데, 층위 표면들은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후 점질토와 함께 모래가 섞여 단단한 회흑색 사점질층을 기반으로 하여 백제시대 1단계 면이 조성되어 있다.

이러한 북포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결과와 N구역에서 확인된 도로의 보수를 기점으로 2개 문화층으로 구분이 되고 있다. 제 I 문화층에서는 동서방향의 1차 도로유구, 제 II 문화층에서는 2차 도로유구, 대벽건물지 1동, 수로 1기, 제사유구 7기 및 지엽부설시설 등이 N구역에서 확인되었고, S-2구역에서는 경작지 2식이 확인되었다. 제 II 문화층에서는 도로 조성 후 1차 도로유구가 조성된 지점에서 보다 북쪽으로 생활 가능지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북서쪽인 쌍북양수장의 측면 저지대를 제외하고는 조사지역 북동지역에서 구덩이나 구 형태에 지엽이 깔려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이후 건물지나 제사유구, 수로 등이 조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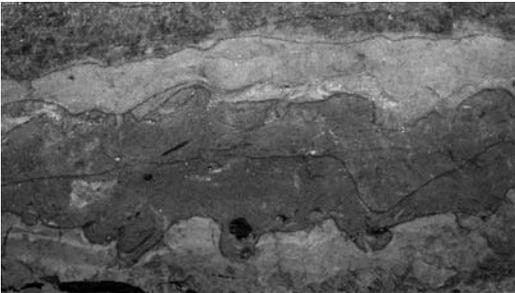


사진 5. 북포유적 N구역①(동서기준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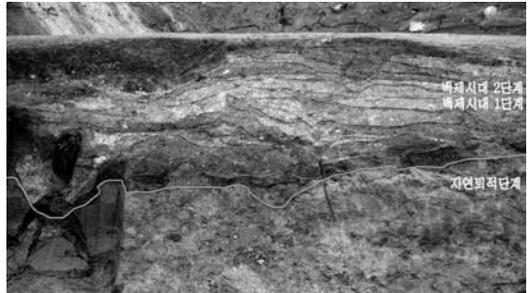


사진 6. 북포유적 3구역②(남층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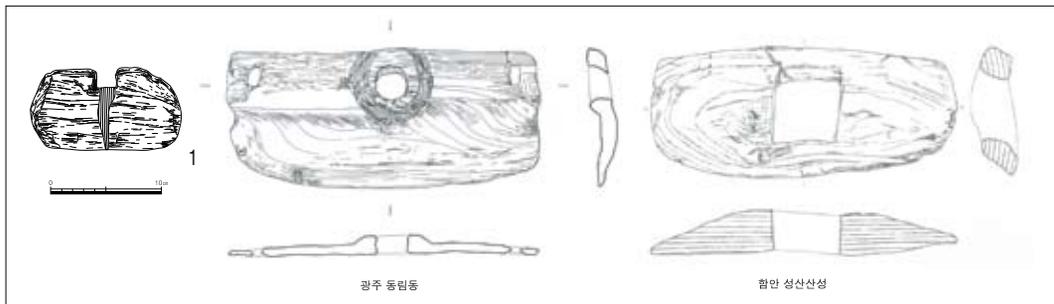
사진 7. 북포유적 전경(북서에서)

3. 출토목기

1) 농구(農具)

농구로 추정되는 목기는 고무래 1점이다. 북포유적 2문화층 1호지엄부설시설에서 출토되었다. 고무래는 광주 동림동 I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논산 마전리유적-C지구(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함안 성산산성(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등에서 출토된 바 있으나, 북포유적 출토품에 비교하여 크기와, 병부를 결합하는 방식에 차이가 많다.

1은 상연과 날부분이 직선형태를 띠고 있으며, 側緣은 모두 타원형으로 다듬었다. 上緣 중간에는 길이 1.7cm, 폭 1.8cm 정도 凹字 형태로 홈을 만들었다. 날부분으로 가면서 점차 두께가 얇아지며,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길이 7.2cm, 폭 13.6cm, 상연 두께 1.2cm이다. 다른 유적 출토품과 비교하여, 크기에 큰 차이점을 보여, 고무래로 사용하기에는 약한 인상을 준다. 다른 용도로 사용한 도구일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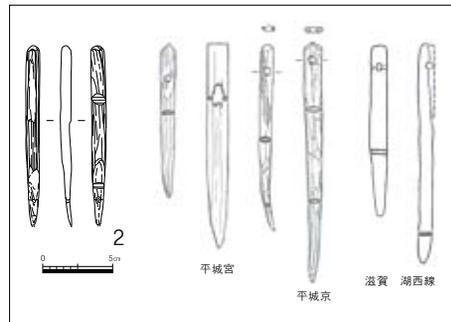


도면 4. 쌍북리 북포유적 출토 고무래 및 사례 (S=1/6)

2) 공구(工具)

공구로 추정되는 목기는 목제 바늘 1점이다. 북포 1 문화층 1호 1차도로에서 출토되었다. 2는 단면 타원형의 세장한 형태로 다듬은 후, 한쪽을 상하면에서 편평하게 깎아 뾰족하게 첨부를 만들었다. 면 중앙에는 직경 1.5mm 크기의 구멍이 뚫려 있다. 길이 12.7cm, 폭 1cm, 두께 0.1~0.7cm이다.

바늘은 일본 평성궁(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 1985) 등에서 출토된 예가 있으나, 북포 출토품은 첨부쪽에 구멍이 뚫려 있으며, 평성궁 출토품과 구멍위치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



도면 5. 쌍북리 북포유적 출토 침 및 사례 (S=1/4)

3) 방직구 (紡織具)

방직구는 열레의 외주목이 2점이 출토되었다. 모두 북포유적 1호 1차도로유구에서 출토되었다. 열레는 중심목, 외주목, 횡목으로 구성되는데, 부여 궁남지(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01), 함안 성산산성(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일본 평성궁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3은 열레의 外柱木으로서 원형보존이 양호하다. 연결되는 橫木이 삽입되는 지점은 높이 1cm 정도 빗변이 완만한 곡선을 이루는 사다리꼴 형태로 돌출시켰으며, 상부에는 횡목을 끼울 수 있는 삽입공이 파여 있다. 나무 못을 박는 홈은 상부는 후면에, 하부는 전면에 뚫려 있다. 잔존 길이 19.9cm, 외주목 장직경 1.4cm, 단직경 1.2cm, 횡목결합부 간격 12.3cm, 橫木孔 직경 0.7cm, 횡목 직경 0.6cm, 나무못 직경 0.2cm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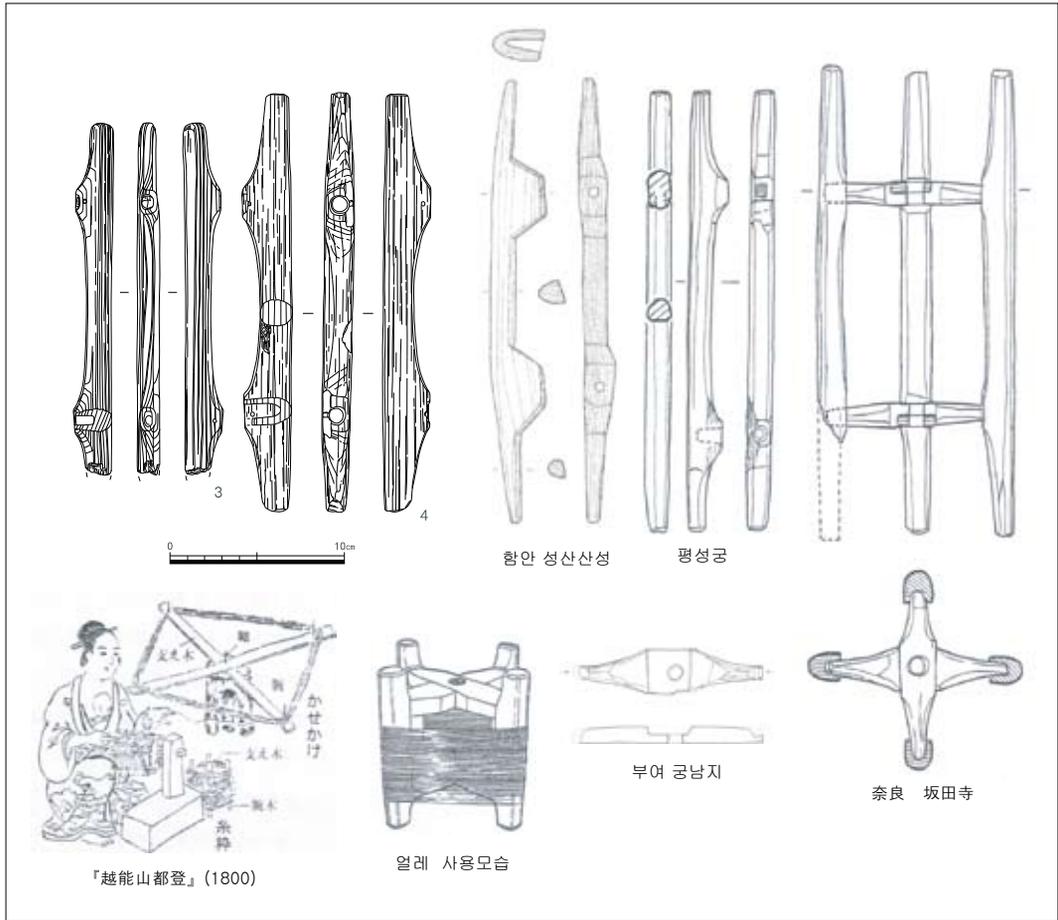
표 2. 쌍북리 현내들 · 북포 유적 출토 생산 · 생활구 속성표

일련 번호 ³⁾	목 기	출 토 유 구	사 려	보고서 도면/사진 ⁴⁾
1	고무래	북포 2문화 1호지엽 부설시설	광주 동림동유적 · 함안 성산산성 논산 마전리유적 등	125-6/1081
2	바늘	북포 1문화 1호1차도로	평성궁 · 평성경 · 시가현 호서선 등	122-2/1065
3	열레 외주목	북포 1문화 1호1차도로	함안 성산산성 · 평성궁 나라현 사카타대라 등	121-5/1057
4	열레 외주목	북포 1문화 1호1차도로	상동	122-3/1064
5	빗	북포 1문화 1호1차도로	하남 이성산성 · 경주 월성해자 광주 신창동유적 · 함안 성산산성 나라 우에노미야 · 시가 고세이센 등	123-1/1072
6	빗	북포 2문화 1호지엽부설 시설	상동	125-3/1080
7	순가락	현내들 2문화층 4호수로	함안 성산산성 · 후지와라큐 오오사카 고마등	118-3/1042

4는 중심목에 연결되는 橫木이 삽입되는 지점은 높이 0.7cm 정도 사다리꼴 형태로 돌출시켰으며, 한쪽에는 삽입된 채로 횡목 일부가 잔존해 있다. 단면 원형의 횡목을 삽입한 후에는 외주목 돌출부 측면에 나무로 된 못을 박아 고정시켰다. 길이 23.8cm, 외주목 장직경 1.8cm, 단직경 1.5cm, 횡목결합부 간격 12cm, 橫木孔 직경 1.1cm, 나무못 삽입부 직경 0.2cm 이다.

3) 주2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하는 목기의 일련번호임.

4) (재)충청문화재연구원, 2009, 『夫餘 雙北里 현내들 · 北浦遺跡』의 보고서 도면/사진번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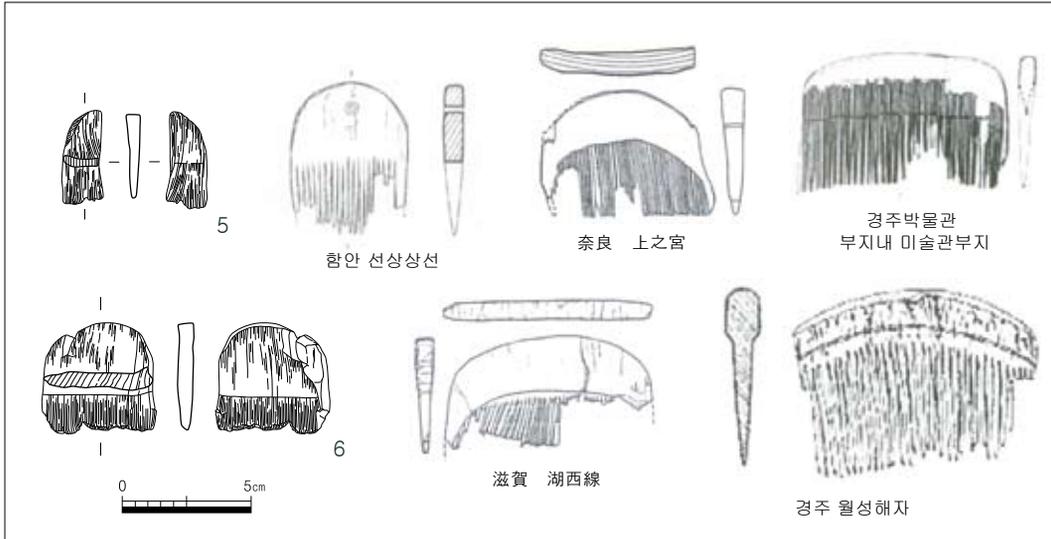
도면 6. 쌍북리 북포유적 출토 일레 및 사례 (S=1/ 4)

4) 복식구(服飾具)

복식구는 빗이 2점 출토되었다. 각각 북포 2문화층 1호지엽부설시설, 1문화층 1호 1차도로에서 출토되었다. 빗은 하남 이성산성(한양대학교박물관, 1992), 경주 월성해자(문화재연구소 경주고적발굴조사단, 1990), 광주 신창동유적(국립광주박물관, 2002) 함안 성산산성, 나라현 우에노미야(上之宮) 시가현 고세이센(湖西線)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5는 목제 빗으로 빗살이 가늘고 고운 면빗의 把部 일부가 잔존해 있다. 파부는 평면상 완만한 곡선을 이루고 있다. 빗살부분은 파부에 이어지는 동일 목의 폭 방향으로 가늘고 길게 홈을 넣어 만들었는데, 기부 일부가 잔존해 있다. 잔존 길이 3.6cm, 잔존 폭 1.4cm, 두께 0.2~0.6cm이다.

6은 목제 빗으로 빗살이 가늘고 고운 면빗에 해당한다. 파부는 반월형에 가깝다. 넓은 면 양쪽의 대응되는 지점에 횡방향으로 먹선을 그은 후, 굽기는 1mm가 안될 정도로 아주 가늘게 빗살을 만들었다. 잔존 길이 3.3cm, 폭 4.4cm, 두께 0.55~0.8cm이다.



도면 7. 쌍북리 북포유적 출토 즐 및 사례 (S=1/ 4)

5) 식사구(食事具)

식사구로 추정되는 목기는 도칠 순가락 1점이다. 현대들 2문화층 4호수로에서 출토되었다. 순가락은 함안 성산산성·후지와라큐(藤原宮)·오오사카현 고마(巨摩)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7은 표면에 옷칠을 입힌 칠기 순가락으로 형태적으로 잔존상태가 양호한 편이지만, 옷칠은 대부분 박리된 상태이다. 나이테 간격이 촘촘하고 나이테 방향과 수직으로 초벌목을 마련하여 목기를 제작하였다. 시부는 장축방향으로 오목하게 되어 있으며, 타원형을 하고 있다. 把部는 匙部쪽에서 단면 장방형으로 가장 두껍고 단부로 가면서 단면 세장방형으로 점차 얇아진다. 단부는 평면상 약간 등글게 처리하였다. 전체 길이 19.5cm, 시부 장직경 4.1cm, 단직경 3cm, 두께 0.6cm, 파부 두께 0.6cm이다.



도면 8. 쌍북리 현대들유적 출토 시 및 사례 (S=1/6)

6) 용기(容器)

용기로 추정되는 목기는 상자, 반형목기, 배, 배형 목기, 완, 잔 등 18점이다. 그 중 15점 83%가 도질 제품이다. 기종은 완류가 9점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반형목기가 4점으로 많은 편이다.

한편 용기를 중심으로 목기의 수종분석을 한 결과, 느릅나무과 느티나무속, 느릅나무과 느릅나무속, 낙우송과 삼나무속, 장미과 벗나무속, 자작나무과 오리나무속 등이 확인되었다. 그 중 도질 상자의 수종이 일본열도 특산의 낙우송과인 삼나무로 동정되었으며, 일본열도와의 교류를 통하여 들어온 수종이거나 유물자체가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8은 표면에 옷칠을 입힌 상자로서 내부를 6구획으로 분할하였다. 나이테 간격이 촘촘하고 모두 나이테 방향과 수직으로 초벌목을 마련하여 목기의 부속목판을 만들었다. 바닥판의 외면은 각 변을 경사지게 정도로 깎아내었다. 바닥판을 마련한 후 세장한 목판 두 장을 합쳐 네 벽을 구성하였는데, 외부 목판은 중심 벽체를 구성하면서 동시에 뚜껑받침의 역할을 하고, 내부 목판은 드림부 역할을 하고 있다. 외부 목판이 내부에 비해 두껍다. 네 벽을 조립 시 안쪽으로 경사진 각도로 경사지게 처리하여 각각 양쪽의 벽체가 빗변으로 결합되게 하였다. 이후 내부에 3개의 세장한 목판을 이용한 격벽을 두어 구획하였다. 격벽은 우선 단축방향의 격벽 중앙부를 1.9cm 깊이 까지 홈을 마련하여 장축방향의 격벽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축방향의 격벽은 아래쪽을 1.6cm까지 홈을 마련하였다. 네 외벽을 조립한 후 전체적으로 옷칠을 하였으며, 이후 내부에 격벽을 조립하였다. 특히 격벽 하부에 옷칠이 남아 있어, 따로 옷칠을 한 후 조립한 것으로 판단된다. 격벽 설치는 장축 8.2cm, 단축 11.8c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바닥판 : 가로 26.5cm, 세로 17.3cm, 두께 0.8cm.

외벽 중 외판 : 가로 26.3cm, 높이 3cm, 두께 0.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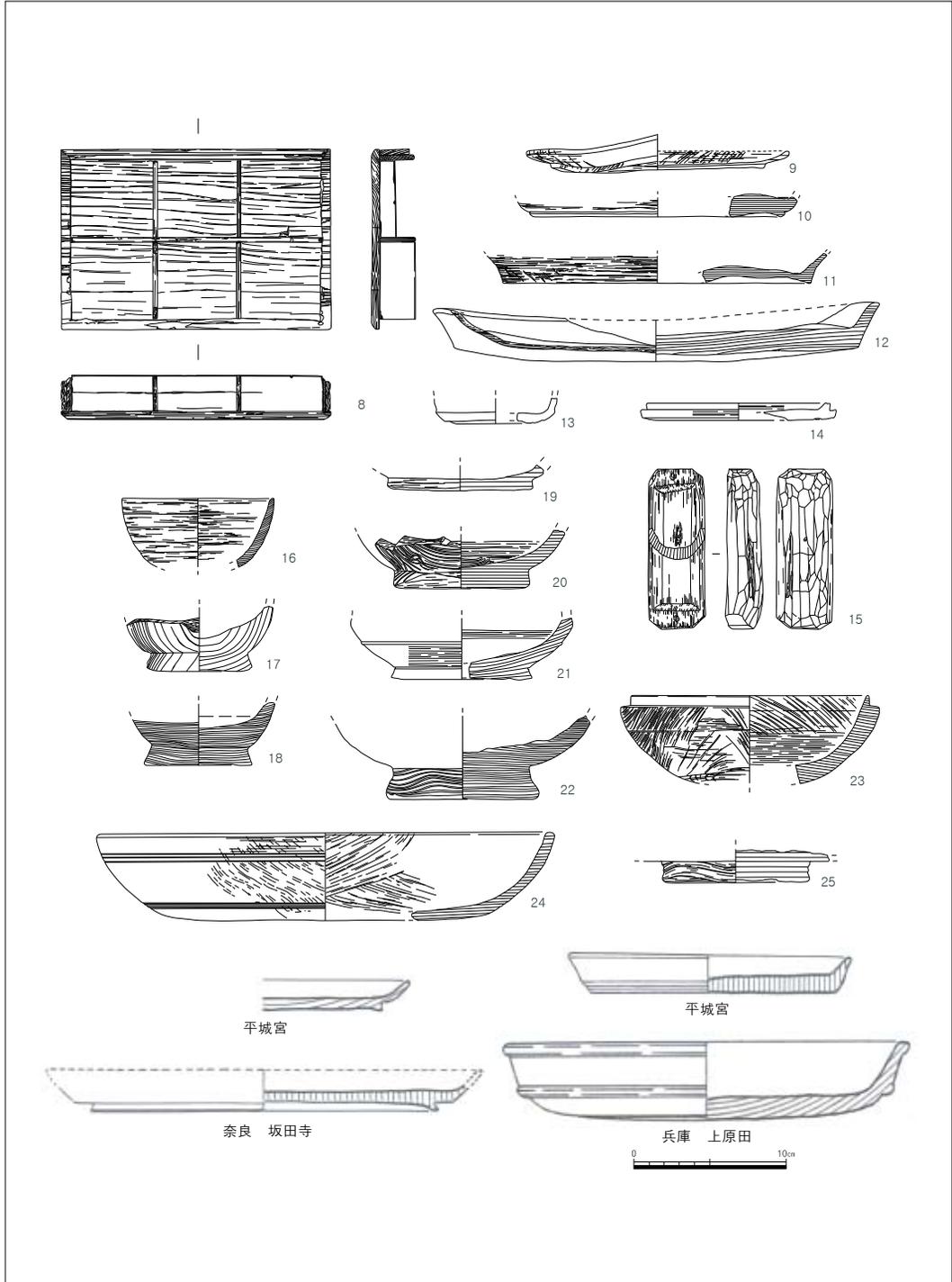
내판 : 가로 25.3cm, 높이 3.3cm, 두께 0.3cm.

격벽 중 장축판 : 가로 24.5cm, 높이 3.3cm, 두께 0.4cm, 홈 높이 1.8cm, 폭 0.45cm.

단축판 : 가로 15.3cm, 높이 3.3cm, 두께 0.3cm, 홈 깊이 1.9cm, 폭 0.5cm이다.

표 3. 쌍북리 현내들 · 북포유적 출토 용기 속성표

번호	목기	출토유구	수 종	보고서 도면/사진 ⁴⁾
8	도칠 상자	현내들 2문화 1호수혈	낙우송과 - 삼나무속 Taxodiaceae - Cryptomeria	114-1/1030
9	도칠 반형 목기	북포 2문화 1호 지엽	느릅나무과 - 느티나무속 Ulmaceae - Zelkova	125-2/1076
10	도칠 반형 목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장미과 - 벚나무속 Rosaceae - Prunus	117-4/1033
11	도칠 반형 목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느릅나무과 - 느티나무속 Ulmaceae - Zelkova	115-1/1031
12	도칠 반형 목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느릅나무과 - 느티나무속 Ulmaceae - Zelkova	116-1/1032
13	도칠 잔	북포 2문화 1호 지엽	.	124-3/1075
14	도칠 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	115-2/1035
15	배모양 목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	117-1/1037
16	도칠 완	북포 1문화 1호 1차도로	.	118-4/1043
17	도칠 대부완	북포 2문화 1호 지엽	.	125-5/1077
18	목재 대부완	북포 1문화 1호 1차도로	.	120-1/1048
19	도칠 대부완	북포 1문화 1호 1차도로	느릅나무과 - 느릅나무속 Ulmaceae - Ulmus	119-2/1046
20	도칠 대부완	북포 1문화 1호 1차도로	느릅나무과 - 느릅나무속 Ulmaceae - Ulmus	119-1/1044
21	도칠 대부완	북포 1문화 1호 1차도로	자작나무과 - 오리나무속 Betulaceae - Alnus	119-3/1045
22	도칠 대부완	북포 2문화 1호 지엽	느릅나무과 - 느릅나무속 Ulmaceae - Ulmus	124-5/1073
23	도칠 완	북포 2문화 1호 지엽	.	125-4/1078
24	도칠 완	북포 2문화 1호 지엽	느릅나무과 - 느릅나무속 Ulmaceae - Ulmus	125-1/1074
25	목재 용기	북포 1문화 1호 1차도로	낙우송과 - 삼나무속 Taxodiaceae - Cryptomeria	119-4/10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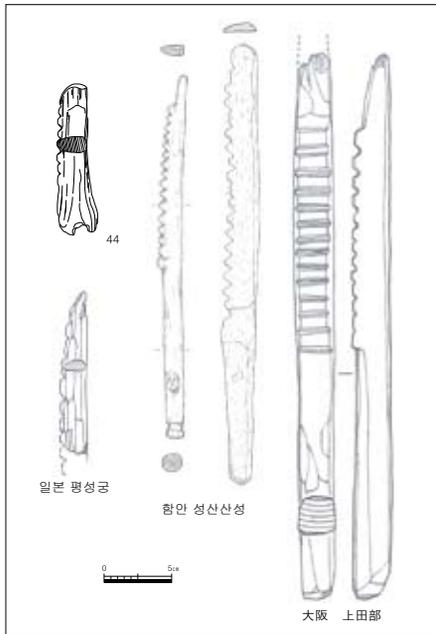
도면 9. 쌍북리 현내들 · 북포유적 출토 용기 및 사례 (S=1/4)

7) 용도불명품 (用途不明品)

용도불명품은 1. 복잡한 가공을 한 목기이며, 각지에서 같은 형태를 이룬 것이 출토되는데 무엇에 대하여 사용했던 것인지 모르는 것과, 2. 형태·가공이 간단하며, 여러 도구의 부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용도를 특정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러한 용도불명품은 쌍북리 북포·현내들 유적에서 28점 출토되었는데 여기서는 1의 각지에서 확인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표 4. 쌍북리 현내들·북포유적 출토 용도불명품 속성표

번호		출 토 유 구	유 레	보고서 도면/사진
44	툽니형 목기	북포 2문화 1호지엄부설시설	함안 성산산성 출토 예와 유사	125-7/1083
45	이형 목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부여 궁남지 출토 예와 유사	117-2/1038
46	이형 목기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부여 궁남지 출토 예와 유사	117-3/1039
49	결합구	현내들 2문화 4호수로	.	118-2/1041
48	결합구	북포 1문화 1호1차도로	.	123-3/1067
47	결합구	북포 1문화 1호1차도로	.	123-2/1068



도면 10. 쌍북리 북포유적 출토
툽니형목기 (S=1/6)(S=1/4)

툽니형 목기

툽니형목기는 1점이 출토되었다. 하남 이성산성·함안 성산산성·평성궁·오오사카 가미타베(上田部) 등에서 출토된 바 있다.

44는 나이테 간격이 촘촘하고 나이테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초벌목을 마련하여 목기를 제작하였다. 장축방향 한쪽 면은 결실되었고 부분적으로 불에 탄 흔적이 관찰된다. 한편, 장축 한쪽으로는 0.7~1cm 간격을 띄워 거치형태로 조각하였다. 전체 길이 11.2cm, 폭 3cm, 두께 0.3~11cm이다.

툽니형목기의 용도는 불분명하지만 성산산성에서는 강한 강도가 요구되는 곳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중국 '오로천죽'이 같은 형태의 목기를 가죽의 고기나, 지방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도구 즉 가죽을 무두질하기 위한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을 소개하였다.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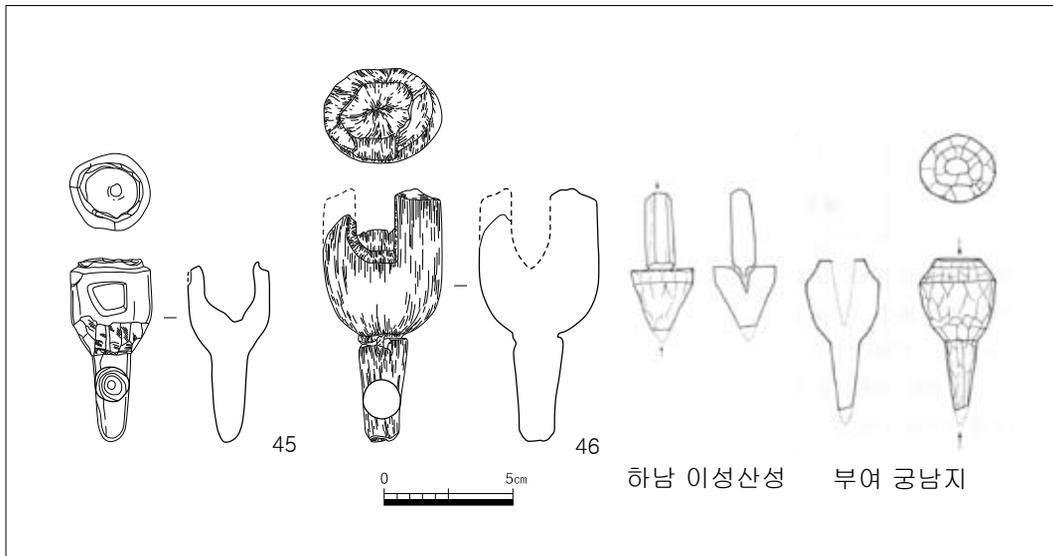
5)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1985, 『木器編集 木器集成図録 近畿古代篇』 p109의 주.

이형목기

이형목기는 유사한 형태의 목기가 하남 이성산성, 부여 궁남지에서 출토되었다.

45 상부는 소형 컵형태로 만들었는데, 한쪽 측면에는 폭 1.5cm, 높이 1.2cm의 방형 구멍을 뚫었다. 투공 기부 한쪽은 수직으로 다른 한쪽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한편, 구연부는 내연 단부에 두께 2mm 정도로 톱을 만들었다. 배신 하부에는 세장한 원기둥 형태의 병부를 만들었는데, 다른 목기에 끼웠던 용도로 추정된다. 전체 길이 7.1cm, 배신 직경 2.3, 두께 1.3cm이다.

46은 나이테 간격이 촘촘한 편이고, 나이테 방향에 대해 수직으로 초벌목을 마연하여 목기를 제작하였다. 상부는 소형 컵형태로 만들었는데, 한쪽 측면에는 폭 1.5cm, 깊이 2.6cm의 홈을 뚫었다. 기부 한쪽은 수직으로 다른 한쪽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한편, 구연부는 내연 단부가 경사져 올라가도록 처리하였다. 배신 하부에는 원기둥 형태의 경부가 달려 있는데, 다른 목기에 끼웠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길이 9.7cm, 배신 직경 1.5cm이다.



도면 11. 쌍북리 현내들유적 출토 이형목기 및 사례 (S=1/4)

참고문헌

- 고려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2004, 『논산 마전리유적-C지구』.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7, 『함안 성산산성 출토목간』.
-, 2008, 『한국의 고대목기』.
- 國立慶州博物館, 2002, 『국립경주박물관부지 내 미술관부지』.
- 國立光州博物館, 2002, 『光州新昌洞低濕地遺跡 IV』.
- 國立夫餘文化財研究所, 2001, 『宮南池 II-現宮南池西北便一帶』.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8, 『咸安 城山山城』.
-, 2004, 『咸安城山山城 II』.
-, 2006, 『韓國의 古代木簡』.
- 奈良国立文化財研究所, 1985, 『木器集成図録 近畿古代編』.
-, 1993, 『木器集成図録 近畿原始編』.
- 박태우·정해준·윤지희, 2008, 「夫餘 雙北里 280-5番地 出土 木簡 報告」『木簡과 文字 第2號』한국목간학회.
- 文化財研究所·慶州古蹟發掘調査團, 1990, 『月城垓字 發掘調査報告書 I』.
- 李鎔賢, 2008, 『백제목간-신출자료를 중심으로』東京大学 東アジア古典学としての上代文学の構築 심포지엄 발표자료.
- 이판삼·윤선태, 2008, 「夫餘 雙北里 현내들·北浦遺蹟의 調査 成果-현내들遺蹟 出土 百濟木簡의 紹介-」 『木簡과 文字 創刊號』한국목간학회.
- 이호형·이판삼, 2009, 『夫餘 雙北里 현내들·北浦遺蹟』, (재)충청문화재연구원.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光州東林洞遺蹟 I』.
- 漢陽大學校博物館, 1992, 『二聖山城-4차』.

아산 갈매리유적 출토 목기의 가공과 활용

오 원 철 _ 한국고고환경연구소

<u>目次</u>	I. 머리말
	II. 목기의 가공 및 분류
	III. 목기의 수종과 선택적 이용
	IV. 맺음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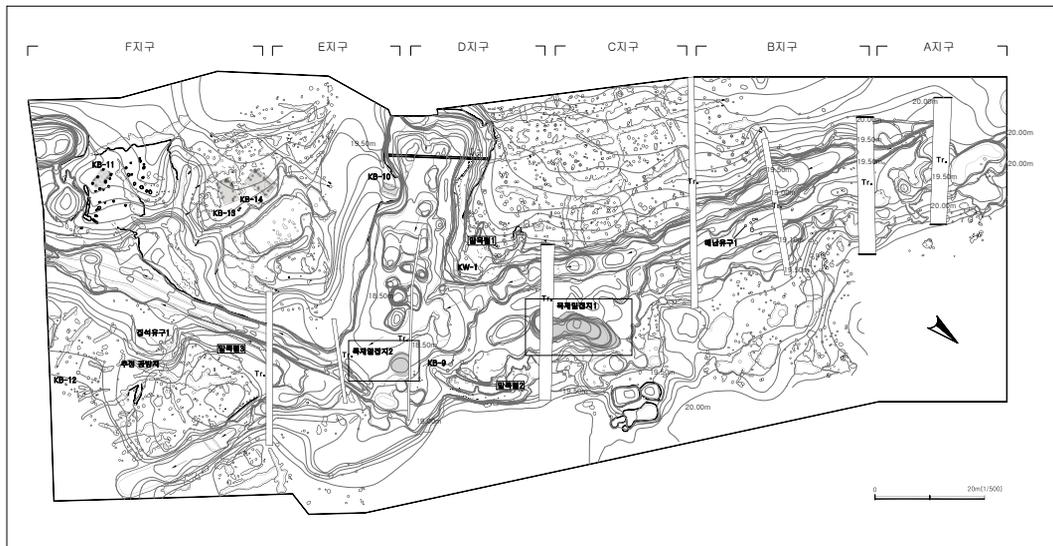
I. 머리말

木器¹⁾는 고대로부터 생활, 건축에 있어서 다양하게 이용되어 만들어져 왔다. 나무는 인간이 거주하는 주변 환경에서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이며, 비교적 가공하기가 용이하여 실생활에 다방면으로 이용되어졌다. 하지만 토기나 석기와 같은 유물들에 비해 수침환경에서 출토되는 목기의 특성상 다른 고고학 자료에 비해 연구사례가 많지 않다. 1980년대 창원 다호리유적을 시작으로 발견되어, 이후 광주 신창동·무안 양장리·논산 마전리와 같은 저습지유적에서 다수의 목기가 출토된 바 있다. 저습지는 함수상태로 인해 유기물질을 분해하는 미생물의 활동이 순화되어 유기물질로 구성된 유구나 유물, 식물유체 등이 일반적인 건지에 비해 잘 보존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趙現鐘 2001). 따라서 저습지에서는 목기와 같이 건지에서 쉽게 썩는 유물이 상대적으로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

갈매리유적은 곡교천의 범람원에 위치한 원삼국~백제시대 생산유적이다. 동일시기에 해당하는 수혈유구, 굴립주 건물지, 옹관묘, 매납유구, (추정)공방지 등이 함께 확인되어 생산 활동의 일면과 생활상 복원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총 3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목기는 Ⅲ지역의 수로 전 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특히 수로 내부에서 확인

1) 목기의 사전적 의미는 '나무로 만든 그릇'을 뜻하나 韓國考古學辭典(國立文化財研究所 2001)에서는 '나무를 소재로 하여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만든 것'으로 지칭하였다. 김권구(2008)는 목기를 나무로 만든 도구, 용기, 도구의 자루 등을 목기로 지칭하였다. 하지만 목기와 목제품의 명칭구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구분된 바 없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반적으로 '목기'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원제품으로 제작된 목기에 한해서는 '목제품'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된 목재밀집지 1과 2에서는 짚신 및 공구, 농기구, 생활구, 제사구, 부재 등의 다양한 목기가 확인되었다. 목재밀집지는 수로 C~E구간의 남쪽에 위치하며, 주변에는 깊고 넓은 웅덩이군이 인접하여 형성되어 있다. 목재밀집지 1은 이 웅덩이들 중 하나인데 수로 변에 위치하며 상대적으로 깊은 편이다. 출토상황을 살펴보면 각 목재들의 방향이 일정하지 않고 산재되어 있어 폐기된 상태로 추정된다. 한편 목재밀집지 2가 확인된 수로 D~E구간은 다른 구간과 달리 토기 및 동·식물유체를 포함하여 비교적 많은 양의 목제품이 출토되었다. 또한 수로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말목렬이 2개소에서 확인되었다. 목재밀집지 2에서 출토된 목기는 대부분 素材와 部材에 해당하며, 일정한 방향으로 출토된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貯木場으로의 이용을 상정할 수 있다(庄田慎矢 2007). 하지만 목재밀집지 주변에 웅덩이 군이 형성되어 있고 목기가 전 수로구간에서 출토된 점으로 보면 수로 자체가 목재를 임시로 보관하는 저목장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있다.²⁾ 갈매리유적에서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이 확인되었는데, 그 중 목기는 현장에서 가공된 흔적이 있는 것들로 선택·수습되어 졌으며 총 359점이 보고되었다. 종류는 工具, 農器具, 生活具, 祭祀具, 部材, 素材, 用途不明의 7종류로 분류하였지만, 部材, 素材, 用途不明의 경우 정확한 용도를 규명하기 어려워 향후 연구를 통하여 세분될 여지가 있다.



도면 1. 갈매리(Ⅲ 지역)유적 수로구역 유구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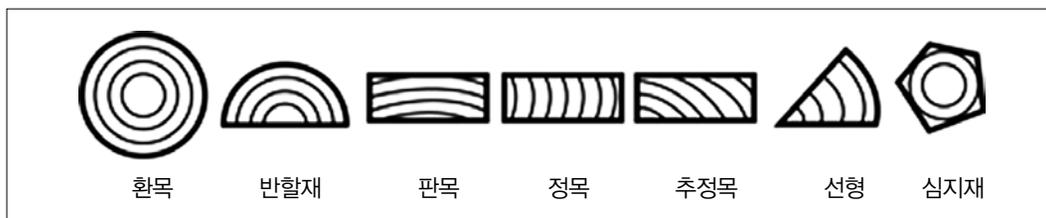
2) 보다 객관적인 논증을 위해서는 수로에서 목기가 출토된 정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목기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목기 표면에서 확인되는 가공흔을 통하여 제작과정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또한 분류된 목기의 종류에 대해 검토하고 타 유적이거나 일본에서 확인된 목기의 연구사례를 통하여 그 용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나아가 수종과 화분분석에 의해 복원된 주변 식생과의 비교를 통해 갈매리 목기의 특징 및 유적의 성격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Ⅱ. 목기의 가공 및 분류

1. 목재의 가공

목기는 우선 나무를 선택하고 가공하는 일련의 제작과정을 거친다. 갈매리 목기의 수종과 마름질 방식(도면 2), 그리고 분할방식은 [표 1]과 같다.³⁾ 목재는 쓰임새에 따라 나무를 획득하고 분할하여 가공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에서 목기의 표면에 도구에 의한 가공흔적이 남게 된다. 한상효·박원규(2005: 109)는 부여 궁남지, 익산 왕궁리유적에서 출토된 228점의 목기를 중심으로 백제시대의 목재 가공도구를 크게 鑿(자귀), 鐵斧(도끼), 鋸(톱), 耨(鑿), 刀子(손칼), 鉋(대패)로 구분하고, 이들의 가공흔적을 조선후기 전통목공구로 시연하여 가공도구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가장 간단한 가공단계에서 출현한 자귀의 가공흔적이 목제품의 완성단계에 이르기까지 가장 높은 비율로 확인되었으며, 손칼 또한 빈번히 사용되었다. 김서정(2010)은 갈매리유적 목제품의 가공흔 분석에서 위의 5개 도구 이외에 주로 크기가 작은 원형의 구멍을 만들 때 사용된 송곳을 추가하여 총 6개의 도구로 구분한 바 있다.



도면 2. 마름질 분류 명칭

3) 수종 : 1=소나무屬 複維管束亞屬, 2=굴피나무, 3=버드나무屬, 4=오리나무屬 오리나무節, 5=밤나무, 6=줄참나무屬 줄참나무亞屬 상수리나무節, 7=줄참나무屬 줄참나무亞屬 줄참나무節, 8=팽나무屬, 9=시무나무, 10=느릅나무屬, 11=닥나무屬, 12=꾸지뽕나무, 13=팽나무屬, 14=다래屬, 15=복숭아나무, 16=매실나무, 17=벗나무屬, 18=장미屬, 19=화살나무屬, 20=층층나무, 21=곰의말채나무類, 22=물푸레나무屬, 23=괴불나무屬.

상기 연구성과(한상효·박원규 2005: 110~116)에 따라 목공도구의 특성에 따른 흔적을 살펴보면 우선 자귀는 자귀날의 회전운동에 따라 오목한 흔적이 나타난다. 찍기에서 다듬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목제품 전반에 걸쳐 확인된다. 도끼는 목재의 벌채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도구이며, 표면에 횡방향으로 도끼 날의 넓고 긴 흔적을 남긴다. 톱은 미세한 직선상의 줄무늬가 여러 층으로 나타나거나 부챗살 모양으로 출현한다. 끌은 자귀와 유사하지만 절삭면적이 비교적 좁으며, 동일선상의 일정한 간격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손칼은 자귀 다음으로 많이 확인되며 주로 작은 목제품을 세밀하게 가공할 때 나타난다. 가공흔의 폭이 좁고 짧은 것이 특징이며 자귀에 이어 두 번째로 확인되는 빈도가 높다. 대패는 가공흔적이 비교적 평활하고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관찰하기 어렵다.

표 1. 갈매리유적 목기일람표

도면번호	대분류	출토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도면번호	대분류	출토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도면번호	대분류	출토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163-1	공구	D구간	9	丸木	全面加工	170-4	부재	목재밀집재	5	板目	全面加工	181-2	부재	목재밀집재	1	扇形	單面加工
163-2	공구	목재밀집지	6	丸木	全面加工	170-5	부재	D구간	6	追槌目	全面加工	181-3	부재	KW-1	5	心持材	單面加工
163-3	공구	E구간	9	丸木	全面加工	170-6	부재	C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81-4	부재	목재밀집지	7	丸木	部分加工
163-4	공구	E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71-1	부재	불명	6	槌目	全面加工	181-5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63-5	공구	목재밀집지	5	槌目	全面加工	171-2	부재	불명	6	槌目	全面加工	181-6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63-6	공구	목재밀집지	1	丸木	片端加工	171-3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81-7	부재	불명	6	槌目	全面加工
163-7	공구	E구간	6	追槌目	全面加工	171-4	부재	D구간	6	板目	部分加工	181-8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64-1	공구	C구간	1	丸木	全面加工	171-5	부재	불명	6	追槌目	全面加工	182-1	부재	E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64-2	공구	C구간	4	丸木	全面加工	171-6	부재	B구간	6	불명	全面加工	182-2	부재	E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64-3	공구	B구간	4	丸木	全面加工	172-1	부재	C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82-3	부재	C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64-4	농기구	E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72-2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單面加工	182-4	부재	목재밀집지	6	板目	全面加工
164-5	공구	C구간	4	丸木	全面加工	172-3	부재	D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82-5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64-6	농기구	목재밀집지	1	丸木	部分加工	172-4	부재	D구간	6	板目	部分加工	182-6	부재	불명	6	槌目	全面加工
164-7	농기구	C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72-5	부재	C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83-1	부재	목재밀집지	6	板目	全面加工
164-8	방직구	C구간	4	槌目	全面加工	172-6	부재	D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83-2	부재	D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65-1	복식구	E구간	11	板目	全面加工	172-7	부재	C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83-3	부재	B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65-2	식사구	E구간	5	槌目	全面加工	172-8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83-4	부재	목재밀집지	6	板目	全面加工
165-3	용기	C구간	4	槌目	全面加工	173-1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84-1	용도불명	B구간	13	板目	全面加工
165-4	용기	B구간	4	槌目	全面加工	173-2	부재	KW-1	5	半割材	全面加工	184-2	용도불명	C구간	2	板目	全面加工
165-5	용기	목재밀집지	4	불명	全面加工	173-3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84-3	용도불명	B구간	19	板目	全面加工
165-6	용기	E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73-4	부재	목재밀집지	7	板目	單面加工	184-4	용도불명	B구간	4	板目	全面加工
165-7	용기	C구간	4	板目	全面加工	173-5	부재	F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84-5	용도불명	B구간	4	板目	全面加工
165-8	용기	C구간	4	板目	片端加工	173-6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85-1	용도불명	D구간	14	불명	全面加工
165-9	계사구	목재밀집지	6	追槌目	部分加工	173-7	부재	목재밀집지	6	槌目	全面加工	185-2	용도불명	D구간	4	丸木	全面加工
165-10	계사구	D구간	1	丸木	兩端加工	173-8	부재	C구간	7	槌目	片端加工	186-1	용도불명	불명	6	丸木	全面加工
166-1	부재	E구간	9	丸木	片端加工	174-1	부재	A구간	21	板目	部分加工	186-2	용도불명	B구간	7	板目	片端加工
166-2	부재	E구간 Tr	1	丸木	片端加工	174-2	부재	D구간	6	槌目	全面加工	186-3	용도불명	E구간	1	丸木	全面加工
166-3	부재	불명	1	丸木	片端單面加工	174-3	부재	D구간	13	板目	全面加工	186-4	용도불명	F구간	5	扇形	全面加工
166-4	부재	F구간	4	丸木	片端單面加工	174-4	부재	F구간		불명	全面加工	186-5	용도불명	불명	6	丸木	全面加工
166-5	부재	불명	13	板目	片端加工	174-5	부재	목재밀집지	7	槌目	全面加工	186-6	용도불명	목재밀집지	6	半割材	全面加工

도면번호	대분류	출도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도면번호	대분류	출도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도면번호	대분류	출도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166-6	부재	C구간	1	丸木	片端加工	174-6	부재	목재밀집재	5	梃目	全面加工	186-7	용도불명	불명	20	板目	全面加工
166-7	부재	불명	2	丸木	片端加工	175-1	부재	E구간	2	板目	全面加工	186-8	용도불명	D구간	22	丸木	片端加工
166-8	부재	불명	6	丸木	全面加工	175-2	부재	목재밀집재	1	板目	全面加工	186-1	용도불명	목재밀집재	7	丸木	兩端加工
166-9	부재	D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75-3	부재	B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87-2	용도불명	D구간	6	心持材	全面加工
166-10	부재	불명	2	丸木	全面加工	175-4	부재	E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87-3	용도불명	목재밀집재	7	丸木	片端加工
166-11	부재	D구간	7	丸木	單面片端加工	175-5	부재	E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87-4	용도불명	불명	6	丸木	片端加工
166-12	부재	B구간	5	丸木	片端加工	175-6	부재	B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87-5	용도불명	불명	1	丸木	片端加工
166-13	부재	D구간	2	丸木	片端加工	175-7	부재	목재밀집재	7	丸木	部分片端加工	187-6	용도불명	E구간	1	半割材	單面片端加工
166-14	부재	불명	5	扇形	片端加工	176-1	부재	B구간	7	板目	全面加工	187-7	용도불명	B구간	7	板目	全面加工
166-15	부재	F구간	1	丸木	片端單面加工	176-2	부재	E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87-8	용도불명	B구간	13	追梃目	全面加工
167-1	부재	불명	1	丸木	片端加工	176-3	부재	C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87-9	용도불명	B구간	7	板目	全面加工
167-2	부재	F구간	6	丸木	片端加工	177-1	부재	목재밀집재	7	追梃目	部分加工	188-1	용도불명	D구간	6	心持材	單面片端加工
167-3	부재	F구간	6	丸木	片端加工	177-2	부재	불명	7	丸木	兩端加工	188-2	용도불명	B구간	1	丸木	兩端加工
167-4	부재	D구간	5	梃目	全面加工	177-3	부재	목재밀집재	6	梃目	全面加工	188-3	용도불명	C구간	7	丸木	兩端加工
167-5	부재	D구간	7	梃目	單面片端加工	177-4	부재	목재밀집재	7	丸木	部分加工	188-4	용도불명	D구간	1	丸木	單面片端加工
167-6	부재	E구간	5	丸木	單面片端加工	177-5	부재	D구간	5	丸木	單面片端加工	188-5	용도불명	B구간	23	丸木	全面加工
168-1	부재	D구간	10	丸木	全面加工	178-1	부재	불명	7	丸木	部分加工	188-6	용도불명	B구간	7	梃目	全面加工
168-2	부재	D구간	5	丸木	全面加工	178-2	부재	목재밀집재	5	板目	單面加工	188-7	용도불명	B구간	1	丸木	片端加工
168-3	부재	D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78-3	소재	E구간	6	丸木	單面加工	188-8	용도불명	불명	6	丸木	片端加工
169-1	부재	목재밀집재	5	板目	全面加工	179-1	부재	불명	4	扇形	全面加工	188-9	용도불명	B구간	7	梃目	全面加工
169-2	부재	D구간	5	追梃目	全面加工	179-2	부재	불명	6	丸木	全面加工	188-10	용도불명	C구간	1	丸木	單面加工
169-3	부재	C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79-3	부재	KW-1	17	半割材	部分加工	188-11	용도불명	E구간	5	丸木	片端加工
169-4	부재	B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79-4	부재	KW-1	5	板目	全面加工	188-12	용도불명	D구간	5	梃目	全面加工
169-5	부재	D구간	5	板目	單面片端加工	180-1	부재	D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88-13	용도불명	D구간	5	扇形	全面加工
169-6	부재	목재밀집재	6	追梃目	全面加工	180-2	부재	KW-1	5	半割材	全面加工	188-14	용도불명	D구간	9	板目	全面加工
170-1	부재	목재밀집재	5	板目	全面加工	180-3	부재	불명	6	丸木	部分加工	188-15	용도불명	C구간	9	心持材	全面加工
170-2	부재	목재밀집재	5	扇形	單面加工	180-4	부재	불명	5	板目	全面加工	189-1	용도불명	F구간	5	丸木	片端單面加工
170-3	부재	E구간	5	梃目	全面加工	181-1	부재	목재밀집재	5	板目	單面加工	189-2	용도불명	불명	1	板目	全面加工
189-3	용도불명	D구간	1	丸木	兩端加工	193-4	소재	E구간	1	追梃目	單面加工	199-6	소재	불명	6	追梃目	全面加工
189-4	용도불명	B구간	5	丸木	部分加工	193-5	소재	C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99-7	소재	C구간	11	梃目	全面加工
189-5	용도불명	D구간	5	追梃目	全面加工	193-6	소재	E구간	5	半割材	單面加工	199-8	소재	B구간	5	板目	片端部分加工
189-6	용도불명	D구간	2	板目	單面加工	193-7	소재	목재밀집재	6	心持材	全面加工	199-9	소재	B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89-7	용도불명	C구간	5	追梃目	全面加工	193-8	소재	D구간	5	追梃目	全面加工	199-10	소재	불명	6	扇形	全面加工
189-8	용도불명	F구간	5	扇形	單面片端加工	194-1	소재	E구간	2	梃目	全面加工	199-11	소재	불명	1	板目	全面加工
189-9	용도불명	C구간	2	板目	全面加工	194-2	소재	E구간	5	梃目	全面加工	199-12	소재	불명	7	梃目	全面加工
189-10	용도불명	D구간	6	板目	單面片端加工	194-3	소재	E구간	6	梃目	片端加工	199-13	소재	불명	6	梃目	單面加工
189-11	용도불명	불명	6	梃目	全面加工	194-4	소재	E구간	5	梃目	全面加工	199-14	소재	목재밀집재	6	梃目	全面加工
189-12	용도불명	C구간	6	梃目	片端加工	194-5	소재	B구간		梃目	片端加工	199-15	소재	B구간	9	板目	單面加工
189-13	용도불명	불명	2	追梃目	全面加工	194-6	소재	E구간	6	梃目	全面加工	199-16	소재	B구간	7	불명	全面加工
189-14	용도불명	C구간	2	梃目	片端加工	194-7	소재	C구간	8	梃目	全面加工	199-17	소재	B구간	6	불명	全面加工
189-15	용도불명	C구간	2	梃目	單面加工	195-1	소재	E구간		불명	單面加工	199-18	소재	불명	5	梃目	全面加工
189-16	용도불명	C구간	4	追梃目	片端加工	195-2	소재	불명	5	불명	全面加工	200-1	소재	F구간	5	梃目	全面加工
189-17	용도불명	C구간	7	板目	單面加工	195-3	소재	E구간	2	板目	全面加工	200-2	소재	목재밀집재	6	丸木	部分加工

도면번호	대분류	출도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도면번호	대분류	출도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도면번호	대분류	출도위치	수종	마름질	가 공
190-1	용도불명	C구간	5	板目	片端單面加工	195-4	소재	목재밀집지	6	板目	全面加工	200-3	소재	D구간	5	追柁目	單面/片端加工
190-2	용도불명	목재밀집지	6	柁目	全面加工	195-5	소재	D구간	5	板目	單面片端加工	200-4	소재	불명	5	丸木	가공없음
190-3	용도불명	불명	2	扇形	全面加工	195-6	소재	E구간	2	板目	單面加工	200-5	소재	불명	1	丸木	片端加工
190-4	용도불명	C구간	5	丸木	片端加工	195-7	소재	B구간	5	板目	片端加工	200-6	소재	불명	5	불명	片端加工
190-5	용도불명	목재밀집지	4	柁目	全面加工	195-8	소재	C구간	5	板目	部分加工	200-7	소재	목재밀집지	1	丸木	全面加工
190-6	용도불명	B구간	10	柁目	全面加工	196-1	소재	목재밀집지	6	柁目	全面加工	200-8	소재	불명	5	丸木	片端加工
190-7	용도불명	목재밀집지	6	板目	全面加工	196-2	소재	목재밀집지	1	扇形	全面加工	201-1	소재	목재밀집지	1	扇形	兩端/單面加工
190-8	용도불명	B구간	8	板目	片端加工	196-3	소재	D구간	5	板目	全面加工	201-2	소재	불명	7	丸木	片端加工
190-9	용도불명	D구간	4	板目	全面加工	196-4	소재	E구간	6	柁目	全面加工	201-3	소재	불명	7	丸木	全面加工
190-10	용도불명	B구간	2	柁目	全面加工	196-5	소재	불명	5	柁目	全面加工	201-4	소재	F구간	12	丸木	片端/單面加工
190-11	용도불명	불명	6	板目	全面加工	196-6	소재	E구간	5	板目	全面加工	201-5	소재	E구간	1	丸木	片端加工
190-12	용도불명	D구간		柁目	全面加工	196-7	소재	목재밀집지	6	半割材	全面加工	201-6	소재	E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91-1	용도불명	B구간	7	板目	全面加工	196-8	소재	불명	6	柁目	全面加工	201-7	소재	D구간	2	丸木	單面加工
191-2	용도불명	B구간	7	柁目	片端單面加工	196-9	소재	E구간	5	板目	單面加工	201-8	소재	목재밀집지	1	丸木	部分加工
191-3	용도불명	E구간	6	扇形	全面加工	196-10	소재	목재밀집지	6	柁目	單面加工	201-9	소재	E구간	5	丸木	兩端加工
191-4	용도불명	불명	5	板目	全面加工	196-11	소재	C구간	4	板目	全面加工	201-10	소재	B구간	7	扇形	全面加工
191-5	용도불명	B구간	6	柁目	全面加工	196-12	소재	E구간	5	扇形	全面加工	201-11	소재	목재밀집지	6	扇形	部分加工
191-6	용도불명	B구간	7	불명	全面加工	196-13	소재	E구간	5	丸木	單面加工	202-1	소재	C구간	7	丸木	部分加工
191-7	용도불명	C구간	6	板目	部分加工	196-14	소재	불명	5	불명	單面片端加工	202-2	소재	불명	7	丸木	部分加工
191-8	용도불명	C구간	7	柁目	兩端加工	197-1	소재	E구간	5	追柁目	全面加工	202-3	소재	E구간	6	丸木	部分加工
191-9	용도불명	B구간	5	불명	全面加工	197-2	소재	불명	6	柁目	部分加工	202-4	소재	목재밀집지	6	板目	全面加工
191-10	용도불명	C구간	6	柁目	全面加工	197-3	소재	불명	6	柁目	全面加工	202-5	소재	C구간	1	丸木	兩端/單面加工
191-11	용도불명	D구간	7	柁目	全面加工	197-6	소재	B구간	5	追柁目	全面加工	202-6	소재	C구간	15	丸木	部分加工
191-12	용도불명	불명	1	板目	全面加工	197-7	소재	C구간	6	追柁目	全面加工	202-7	소재	C구간	3	丸木	全面加工
191-13	용도불명	D구간	1	扇形	單面/片端加工	197-8	소재	불명	6	扇形	全面加工	203-1	소재	E구간	6	丸木	部分片端加工
191-14	용도불명	C구간	6	板目	單面/片端加工	197-4	소재	E구간	6	柁目	片端/全面加工	203-2	소재	D구간	5	半割材	兩端加工
191-15	용도불명	D구간	7	板目	全面加工	197-5	소재	C구간	6	柁目	全面加工	204-1	소재	B구간	5	불명	全面加工
191-16	용도불명	D구간	5	板目	單面加工	197-9	소재	불명	6	板目	全面加工	204-2	소재	B구간	20	板目	全面加工
191-17	용도불명	C구간	6	扇形	全面加工	198-1	소재	D구간	5	柁目	全面加工	204-3	소재	불명	6	柁目	全面加工
192-1	용도불명	F구간	4	柁目	全面加工	198-2	소재	E구간	6	半割材	片端加工	204-4	소재	E구간	7	板目	單面加工
192-2	용도불명	D구간	6	柁目	單面加工	198-3	소재	E구간	6	扇形	片端加工	204-5	소재	E구간	5	板目	單面加工
192-3	용도불명	C구간	6	柁目	全面加工	198-4	소재	불명	5	板目	全面加工	204-6	소재	E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92-4	용도불명	불명	6	柁目	全面加工	198-5	소재	C구간	5	追柁目	部分加工	204-7	소재	D구간	5	追柁目	全面加工
192-5	용도불명	D구간	5	扇形	全面加工	198-6	소재	C구간	6	追柁目	部分加工	204-8	소재	B구간	7	불명	全面加工
192-6	용도불명	C구간	9	柁目	全面加工	198-7	소재	E구간	6	扇形	單面/片端加工	204-9	소재	D구간	2	板目	全面加工
192-7	용도불명	C구간	6	柁目	全面加工	198-8	소재	불명	7	柁目	全面加工	204-10	소재	E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92-8	용도불명	C구간	1	丸木	全面加工	198-9	소재	B구간	7	扇形	單面加工	204-11	소재	C구간	7	追柁目	部分加工
192-9	용도불명	B구간	19	半割材	全面加工	198-10	소재	B구간	5	追柁目	全面加工	204-12	소재	E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92-10	용도불명	D구간	1	心持材	單面加工	198-11	소재	D구간	1	불명	全面加工	204-13	소재	불명	6	불명	全面加工
192-11	용도불명	C구간	5	追柁目	全面加工	199-1	소재	불명	5	板目	片端加工	204-14	소재	C구간	6	追柁目	單面加工
192-12	용도불명	C구간	2	柁目	全面加工	199-2	소재	불명	7	扇形	全面加工	205-1	소재	D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93-1	소재	B구간	16	불명	全面加工	199-3	소재	B구간	18	柁目	片端加工	205-2	소재	B구간	2	追柁目	全面加工
193-2	소재	D구간	5	板目	全面加工	199-4	소재	불명	7	半割材	片端加工	205-3	소재	D구간	1	扇形	部分加工
193-3	소재	D구간	6	板目	全面加工	199-5	소재	B구간	5	柁目	全面加工	205-4	소재	D구간	1	心持材	部分加工

표 2. 갈매리유적 출토 목기의 가공흔적(필자 재촬영)



표 3. 갈매리유적 출토 목기의 사용흔 분석

	도끼	자귀	끌	손칼	송곳	톱
수량 (%)	29 (7.2%)	293 (72.5%)	21 (5.2%)	56 (13.9%)	4 (1%)	1 (0.2%)

이상의 결과를 중심으로 갈매리 출토 목제품의 가공흔을 분석한 김서정(2010)의 연구를 요약하면 [표 3]과 같다.

이를 보면 자귀와 도자가 총 86%로 갈매리 목기의 가공에 높은 사용 빈도를 보인다. 특히 자귀의 사용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술하였듯이 목기의 가공단계에서 사용빈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전체 공정에서도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던 도구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목공구에서도 나무를 깎거나 다듬는 데 크기 제한 없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된다. 두 번째로는 도자가 13.9%로 확인되었는데, 크기가 작고 날이 예리하여 정교한 가공이 요구되는 완성단계에 주로 확인되는 흔적이다. 상대적으로 도끼 및 끌, 송곳, 톱의 경우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인다.

도끼·톱은 원목을 벌목하고 분할하는 1차 가공단계에서 사용되는 도구이며, 송곳과 도자의 경우 목기의 완성단계에 이용된다. 위의 분류에 포함된 목기는 2차 가공된 것들로 대부분 형태를 알 수 있거나 가공흔이 남아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반 원목을 포함한다면 일차 가공도구의 사용은 증가할 것이며, 이것은 유적에서 1차가공이 빈번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 원목재가 수로 전 구간을 걸쳐 다량으로 출토된 정황을 고려한다면, 목재의 임시보관이라는 기능을 위해 별도의 저목장이 필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2. 목기의 분류

갈매리유적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목기는 정확한 용도를 추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고서에 보고된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 연구성과를 검토하여 工具, 農器具, 生活具, 祭祀具, (建築)部材, 用途不明(部材 및 素材)의 6개로 분류하였다.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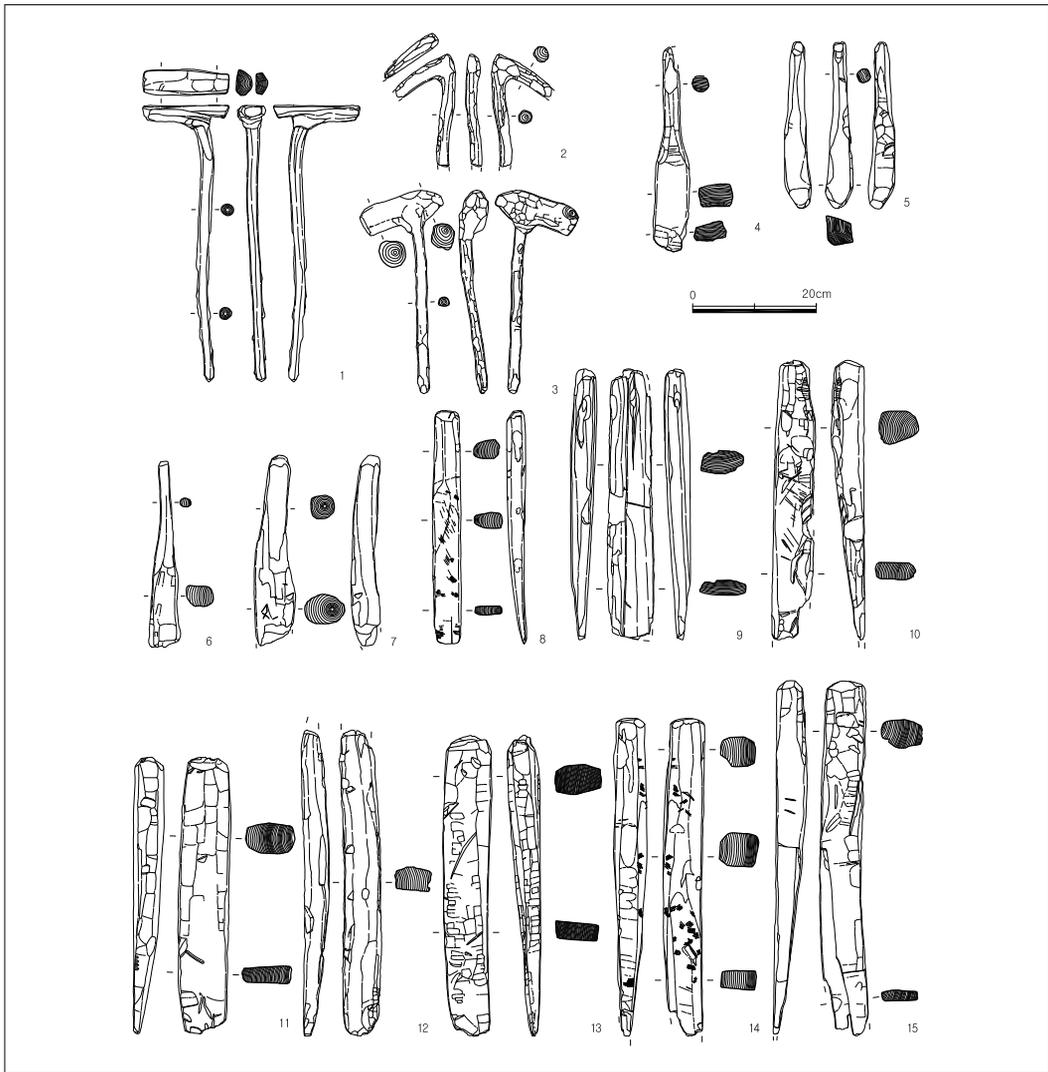
1) 工具

공구는 자루와 망치로 추정되는 유물이 5점 확인되었다. 자루는 봉부는 나무로 제작하고 날 부분은 석제, 목제, 철제 등을 장착하여 사용한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도면3-1>은 자루로 추정되며, 나무의 몸통부분과 연결된 잔가지 부분을 이용하였다. 특히 자귀와 같이 ‘ㄱ’자로 꺾이는 목기의 경우 주된 가지와 연결된 곁가지 부분을 그대로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며, 이것이 가지를 인위적으로 결합하는 방식보다 유용했던 것으로 보인다(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77). 갈매리 출토 자루(도면3-1)는 광주 신창동-함안 성산산성 출토품과 다르게 날을 장착하기 위한 단이 형성되어 있지 않다. 장착각도가 직각에 가까우며 인부를 끼우는 부분에 사용흔이 형성되어야 하지만 이러한 특징이 확인되지 않는다(김서정 2010: 55~56). <도면3-2>는 자귀의 자루로 판단되며 장착각도는 약 55°이다. 상단부 장착부위가 가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미제품으로 추정된다. 망치(도면4-3~7)는 자귀의 제작방식과 같이 나무 몸통과 연결된 잔가지 부분을 이용하였으며 ‘ㄱ’자 형태와 일자 형태의 두 종류로 구분된다. 우선 ‘ㄱ’자형태의 망치는 신방동 떡메와 매우 유사하다. 보고자는 나무망치와 달리 공이 선단부가 마모되어 방아작업에도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보았다(권귀향 2009: 499~500). 김도현(2011)은 떡메가 저장공에서 출토되었다는 점과 함께 민속자료와 형태적으로 유사하고 삼국시대 떡이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절굿공이의 일종으로 추정하였다. 갈매리 출토 팽이의 경우 선단부에 마모흔이 확인되지 않고 모서리를 사선으로 가공하였기 때문에 떡메로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망치, 또는 미제품으로 추정되지만 마모되지 않은 선단부를 고려하였을 때 망치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일자형 망치(도면3-4~7)는 주 사용면인 측면을 편평하게 가공하였다. 망치와 공이의 형태가 유사하지만 공이가 끝부분을 사용한다는 점과 달리 망치는 측면을 중심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췌기로 추정되는 목기(도면3-8~15)는 총 8점이 출토되었다. 단면은 물방울 모양처럼 한 쪽이 두껍고 반대편으로 갈수록 점차 얇아지며 크기는 66~85cm 정도이다. 특히, 모서리 부분을 사선으로 가공하였는데, 이는 원목에 가해지는 힘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볼 수 있다.

4) 庄田慎矢(2008)는 갈매리유적의 목기를 정리하면서 工具, 農器具, 服飾具, 食事具, 容器, 祭祀具, 部材, 用途不明, 素材의 9종류로 분류하였다. 이 후 김서정(2010)은 제사구를 제외한 服飾具, 食事具, 容器를 생활구로 분류하고 건축부재와 결합부재를 따로 분류하여 5개로 구분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선행연구에 최근 성과를 추가하여 재검토하였다.

일본에서는 철기가 등장하기까지 나무를 쪼개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으며, 靜岡縣 山木遺蹟에서 목재 분할작업의 예가 확인되었다. 繩文時代나 弥生時代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할작업이 이 시기부터 행해졌으며 톱이 등장하기 전까지 목재 썰기를 이용하여 분할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山田昌久 1998: 186). 타격면에 힘이 가해지면 도구의 종류에 따라 목기에 움푹 들어간 마모흔이 남게 되는데 갈매리 목기의 경우 마모흔이 남아 있지 않고 전면이 매끄럽다. 썰기는 원목을 분할할 때 나무의 지름과 비례하여 사용하는데, 갈매리에서 출토된 목기의 지름은 대부분 1m를 넘지 않기 때문에 목기의 길이가 평균 75cm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썰기로 추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도면 3. 갈매리 출토 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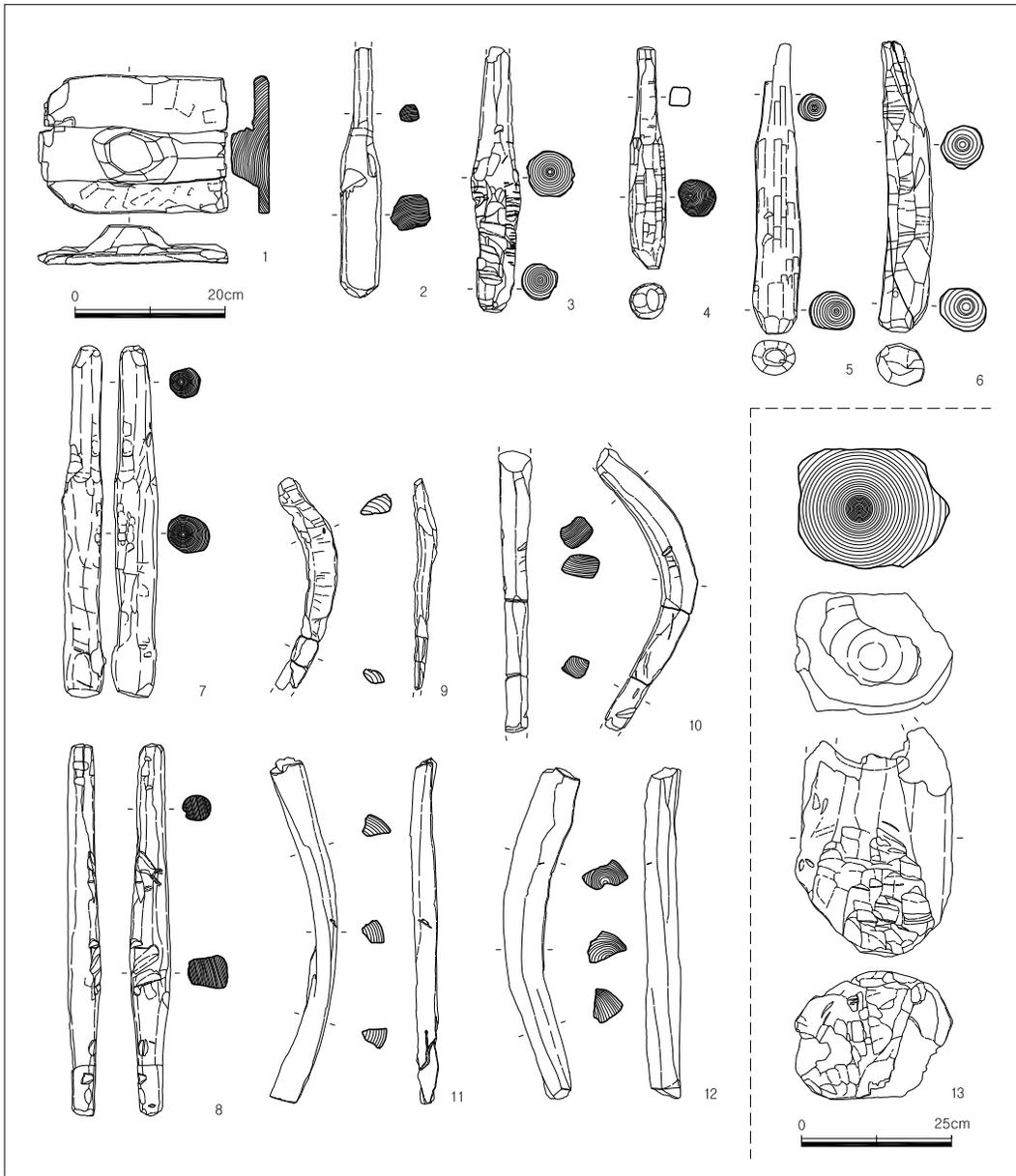
2) 農器具

농기구는 총 13점으로 팽이, 공이, 절구, 멩으로 구분하였다. 팽이는 기경도구로서 땅을 파고 고르는데 사용하는 연장으로 농경 초기의 뒤지개에서 발달한 원시적인 형태지만 지금까지 그 형태를 변화하지 않고 남아 있다(박호석 2001: 85, 98). 팽이와 기능이 유사한 것으로 생각되는 고무래는 논이나 밭의 흙을 고르고 씨를 부린 뒤 흙을 덮는데 사용되는 연장으로서 팽이가 땅을 일구는데 사용하는 도구라면 고무래는 주로 흙을 고르는데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팽이(도면4-1)는 단변에 일부 모서리를 가공한 것으로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형태는 직사각형에 가깝다. 목기의 손잡이가 달릴 돌출부에는 구멍이 뚫려 있지 않고, 날을 세운 흔적도 확인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미제품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 출토된 목제 팽이를 살펴보면 대부분 장방형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팽이 날이 폭이 넓은 것보다는 좁은 것이 땅을 일구는데 있어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고무래는 주로 흙을 고르는데 사용되어 상대적으로 날의 폭이 넓고 돌출부는 장변에 붙어있다. 대구 서변동 출토 팽이를 살펴보면 장방형의 형태에 구멍은 수평으로 파여 있다. 단면의 한 면은 편평하고 반대 면은 곡선을 이루며 약간 튀어 나와 있다(김권구 2008: 45). 논산 마전리 고무래 미완성품의 경우 장방형의 형태를 띠며, 목기의 아랫부분은 날을 세웠고 돌출부에는 구멍을 뚫지 않았다. 대구 서변동-김천 송죽리 출토 팽이 날의 두께는 2~3mm 정도로 아주 얇지만 반대편 장변은 3.5cm 정도로 두꺼운 양상은 팽이와 고무래를 구분하는데 있어 주목해야 할 점 중의 하나이다(김권구 2008: 47~48). 갈매리 출토 팽이의 돌출부는 목재의 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팽이와는 차이가 있으며, 가공된 한쪽 단변이 나뭇결의 방향과 수평으로 만나고 있어 실제 내구성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고무래로 추정하기에는 목재의 장변이 가공되어 있지 않아 목기의 정확한 용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양자의 가능성을 모두 가진 미제품으로 생각된다.

공이(도면4-2~8)는 미제품을 포함하여 7점이 출토되었다. 공이는 모두 心材를 이용하여 가공하였으며, 선단부를 반원형으로 만들어 찡는 면의 표면적을 증가시켜 효율성을 높였다. 결실된 손잡이가 많고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선단부의 가공흔적이 부족하여 대부분 미제품으로 추정된다. 공이는 내려치면서 찡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가볍고 내구성이 강한 심재의 사용을 선호한다. 힘의 강도를 가장 잘 버텨내고 수축과 변형에도 강하기 때문에 목재 가공에도 주로 이용되며 출토된 목제품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김서정 2010).

공이와 함께 절구로 추정되는 목기(도면4-13)도 1점 출토되었다. 목재 안쪽의 움푹 들어간 부분을 이용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고정하여 사용하는 현재 절구의 모습과 달리 하단부는 다소 뾰족한 모습이다. 상단부의 찡는 공간이 비교적 협소하여 절구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하단부에서 확인되는 다수의 자귀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1차 가공 후 유적에서 폐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명어로 추정되는 목기는 총 4점 출토되었다. 명에는 마소가 달구지나 쟁기를 목에 거는 막대로서 활같이 휘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소에 명어를 건 다음 이것이 벗겨지지 않도록 홈을 내거나 투공을 하여 끈이나 줄로 고정한다. <도면4·9~10>의 양 끝부분의 패인 곳은 끈이나 줄로 고정했을 때 생긴 마모흔으로 추정된다.



도면 4. 갈매리 출토 농기구

3) 生活具

생활구는 총 11점이 출토되었다. 복식구는 나막신 1점(도면5-1)으로 판목으로 마름질하였다. 일본에서는 구멍의 위치와 굽의 형태와 위치, 그리고 평면형태에 따라 분류하였다(國立奈良文化財研究所 1993: 35). 한국에서는 목제 나막신의 출토 예가 적어 분류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다만 위의 기준을 중심으로 형태를 살펴보면 장방형에 구멍은 앞면은 왼쪽, 뒷쪽은 뒷굽의 안쪽에 위치한다. 굽은 받침대의 폭을 벗어나지 않고 바닥에 직선으로 뻗어 있다. 굽에서 마모흔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실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용기는 6점이 출토되었으며, 형태는 원형과 장방형으로 구분된다. <도면5-4>는 원형의 용기로 세웠을 때 목재의 길이방향과 같게 하여 내부의 칸막이와 함께 제작하였다. <도면5-8>은 고배형 목제품으로 양 끝단부가 파손되어 위아래 중 어느 방향이 본래 모습인지는 알 수 없다. 도마로 추정된 목제품 <도면5-6>도 1점 확인되었다. 상단부에는 칼이나 도자로 생긴 흔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이외 방추차와 내박자로 추정되는 목기도 확인되었다. <도면5-9>는 방추차로 추정되는 목기로 평면형태는 원형이다. 겉면은 손칼로 형태를 다듬었으며, 가운데 투공하였다. 단면형태는 한쪽 면이 배부른 형태를 띠며 신창동 목제방추차와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도면5-10>은 토제 내박자와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특히 손잡이 부분이 사선으로 향해 있는 것이 특징인데 대형의 토기를 소성할 때 손이 닿지 않는 내면을 효과적으로 성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어 원래 길이는 알 수 없지만 기능상 상당부분 길었을 것으로 추정된다.⁵⁾ <도면5-11>도 위와 같이 내박자로 추정된다. 사용흔을 통하여 국자 손잡이로 분류하였지만(김서정 2010: 58), 결실된 부위의 두께가 점차 얇아지는 가지부분에 해당하므로 손잡이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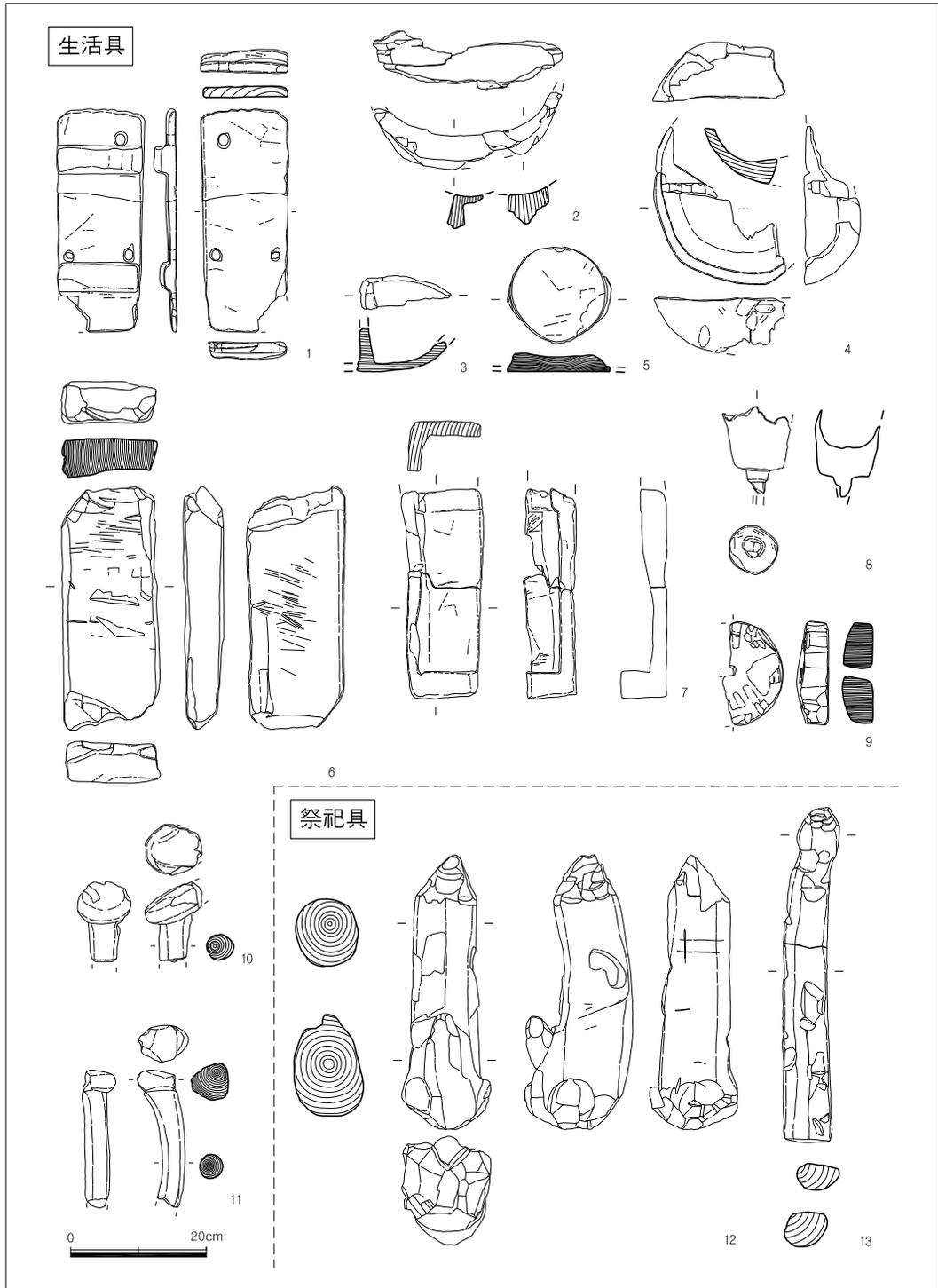
4) 祭祀具

陽物形으로 보이는 유물 2점(도면5-12~13)이 확인되었다. 마름질은 추정목, 환목이며 양끝만 자귀로 가공하였다. 多産이나 豊作을 기원하는 제사와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제사구로 분류하였다.

5) (建築)部在

건축부재는 문짝, 기둥, (결합)부재로 총 28점이 출토되었다. 문짝은 광주 신창동-무안 양장리유적에서 각각 2점씩 출토된 예가 확인된다. 모두 一木造로 가운데 문고리가 위치하며, 측면에는 상하 양단에 고정용 축을 만들었다(趙現鐘 2004: 10). 양장리 출토 문짝은 양끝부분에 돌기부를 두워 다른 건축부재에 끼워 열고 닫게 하였으며, 가운데 빗장걸이 부분은 훼손되었다(李榮文 외, 1997: 253). 갈매리 출토 문짝(도면6-1~6)의 경우 문고리 구멍의 폭이 좁아 빗장을 걸고 사용하기는 어렵다. 일부 끝단

5) 내박자의 경우 토기 생산에 필요한 제작 도구로 판단된다. 다만 본고에서는 목기를 제작할 때 사용되는 도끼, 자귀, 망치 등의 가공도구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토기생산에 관련 있는 방추차의 경우 공구로 분류하지 않고 생활구로 분류하였다.



도면 5. 갈매리 출토 생활구 및 제사구

부에 축이 확인되지 않거나 문고리가 없는 문짝(도면6-3~5)도 확인된다. 끝부분의 축으로 미루어 볼 때, 다른 건축부재와 같이 결합되어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탄화된 문짝(도면6-3)도 출토되었는데 문고리를 만들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작은 창문의 미닫이문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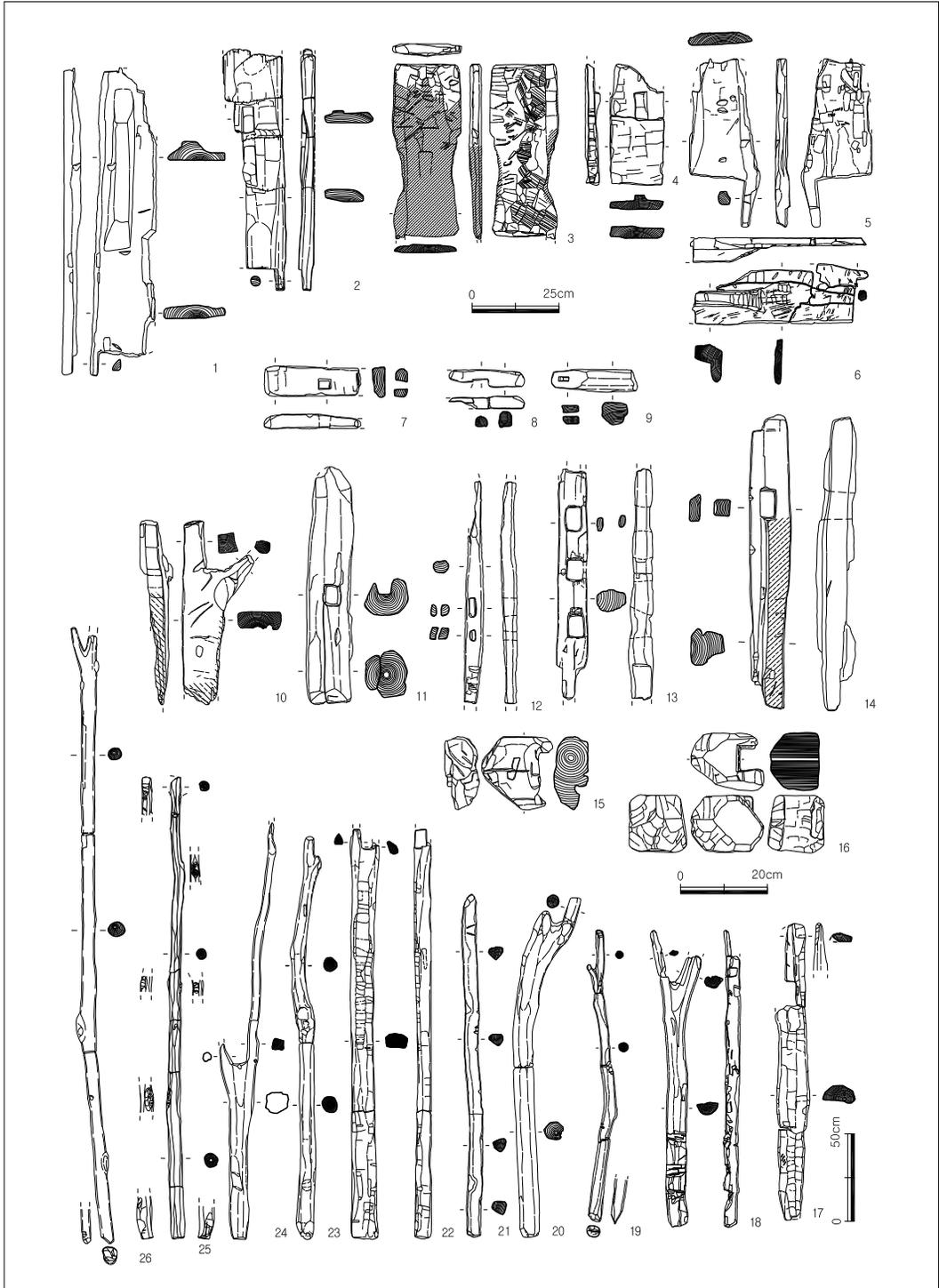
결합부재로 추정되는 목기(도면6-7~16)는 10점이 확인된다. 마름질은 판목, 정목, 환목이며 모두 직사각형의 구멍이 흠으로 파여져 있거나 투공되었다. 결합된 상황을 알 수 있는 상태로 출토되지 않아 용도를 추정하기 어렵지만 다른 부재와 같이 결합 또는 고정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기둥부재로 분류한 ‘Y’자형 목제품(도면6-17~26)은 총 10점이 확인되었다. ‘Y’자형 목기는 양쪽으로 뺏어나가는 가지 사이에 목재를 걸치는 방식으로 주로 기둥을 받칠 때 사용되었다. 바닥과 닿는 부분을 편평하게 가공하거나, 한쪽 면을 날카롭게 가공하여 주혈을 박는 두 가지의 형태로 확인된다(김서정 2010: 61). 크기는 170~350cm로 다양하며 바닥부이나, 목재가 걸처지는 가지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무의 수피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기둥의 두께가 그리 두껍지 않아 일반적인 건축물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천막의 기둥 같은 임시적인 용도로서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했을 것이다. 며 정확한 용도 추정이 어렵다. 다만 전면에 일부 옷칠이 되어 있어 특수한 용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7-3>의 경우 옷칠에 일부 섬유흔이 확인되어 채공작업이 유적 주변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藤根 久/佐佐木由香 2008: 32). <도면7-4~5>는 반원형으로 가공하였으며, 서로 결합된다. 가운데 돌출부가 있어 중심축으로 회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7-6~7>은 두 개의 목기가 서로 결합되지는 않지만, 붙어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의심된다. <도면7-8>은 대형 투공목기이다. 길이는 2m에 달하며, 구멍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13개가 투공되어 있다. 구멍의 크기는 5×cm 정도로 투공된 간격은 10cm 내외다. 씨레와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와 연결된 나무채가 씨레의 운동방향과 평행한 면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갈매리 목기의 경우 수직방향으로만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따라서 씨레와 같은 용도로 쓰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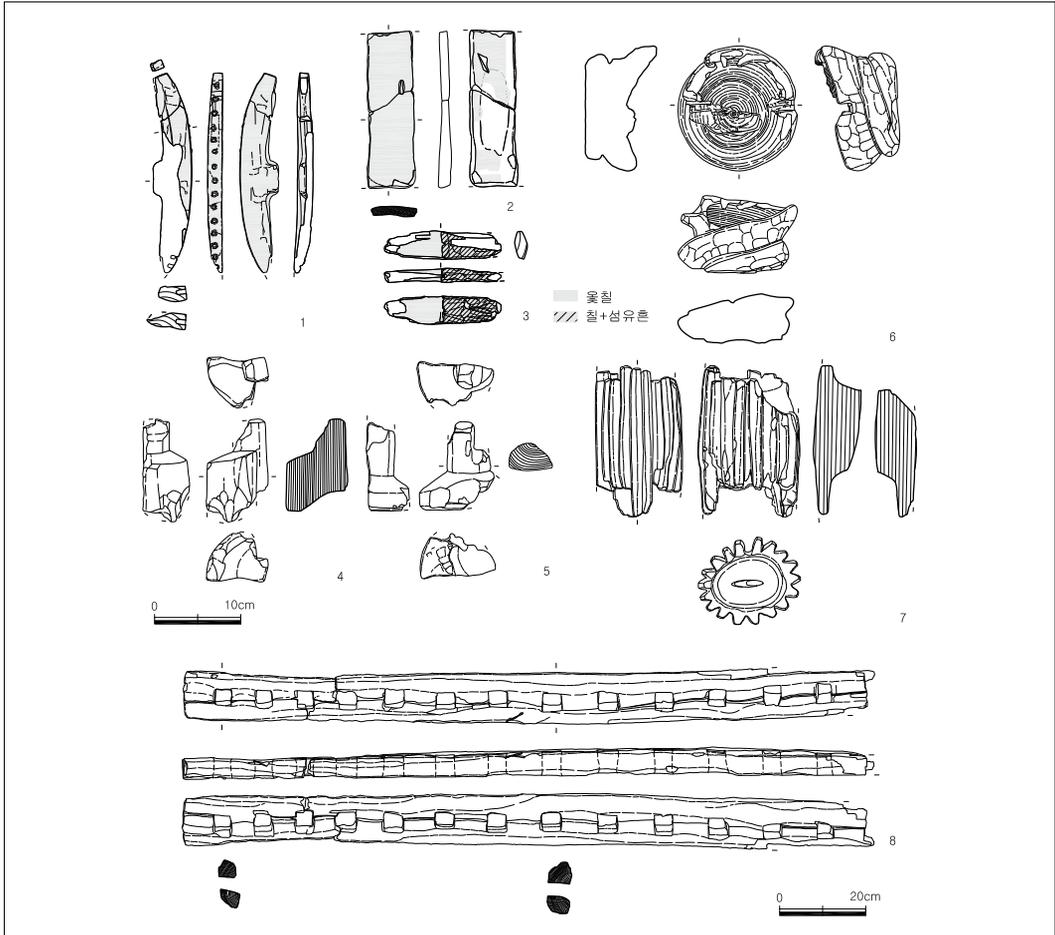
6) 用途不明

용도불명은 어떤 형태를 보이고는 있으나 정확한 용도를 추정하기 어려운 것들로 분류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옷칠이 확인된 3개의 목제 칠기들(도면7-1~3)이다. <도면7-1>은 반원형태의 바깥쪽으로 다수의 구멍이 투공되었다. 구멍의 깊이는 대략 0.5~0.7cm 정도이며, 간격은 1cm 정도로 일정한 편이다. 광주 신창동-창원 다호리에서 출토된 부채류의 투공과 유사하지만, 손잡이가 확인되지 않고 폭도 상대적으로 넓어 부채로 보기에 무리가 있으며 정확한 용도 추정이 어렵다. 다만 전면에 일부 옷칠이 되어 있어 특수한 용도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7-3>의 경우 옷칠에 일부 섬유흔이 확인되어

6) 북한지방에서는 쟁기처럼 생긴 연장의 술바닥 밑에 여러 개의 쇠고챙이로 된 씨렛발을 박은 씨레로 마른 논을 삶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씨레와는 다르지만 ‘씨레’라고 불렀다(박호석 2004, p.90). 씨레의 수직으로만 씨렛발이 박혀있는 점에서 갈매리 목기와 유사한 점이 일부 확인되지만, 다른 건축부재로서의 가능성도 있다.



도면 6. 갈매리 졸토 (건축)부재



도면 7. 갈매리 출토 생활구 및 제사구

채공작업이 유적 주변에서 행하여졌는지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藤根 久·佐佐木由香 2008: 32). <도면7-4~5>는 반원형으로 가공하였으며, 서로 결합된다. 가운데 돌출부가 있어 중심축으로 회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도면7-6~7>은 두 개의 목기가 서로 결합되지는 않지만, 붙어서 출토되었기 때문에 상호 연관성이 의심된다. <도면7-8>은 대형투공목기이다. 길이는 2m에 달하며, 구멍은 정사각형에 가까우며, 13개가 투공되어 있다. 구멍의 크기는 5×5cm 정도로 투공된 간격은 10cm 내외다. 썩레와 형태적으로 가장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소와 연결된 나루채가 썩레의 운동방향과 평행한 면에 박혀 있어야 하는데, 갈매리 목기의 경우 수직방향으로만 구멍이 투공되어 있다. 따라서 썩레와 같은 용도로 쓰였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⁷⁾

7) 북한지방에서는 쟁기처럼 생긴 연장의 술바닥 밑에 여러 개의 쇠고챙이로 된 썩레발을 박은 썩레로 마른 논을 삶았는데, 이는 일반적인 썩레와는 다르지만 '썩레'라고 불렀다(박호석 2004, p.90). 썩레의 수직으로만 썩레발이 박혀있는 점에서 갈매리 목기와 유사한 점이 일부 확인되지만, 다른 건축부재로서의 가능성도 있다.

Ⅲ. 목기의 수종과 선택적 이용

갈매리에서 확인된 목재의 수종은 침엽수 1분류군, 활엽수 22분류군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으로는 졸참나무屬 상수리나무節이 35.1%로 제일 많고, 그다음으로 밤나무가 23.4%, 졸참나무屬 졸참나무節이 11.7%, 소나무屬 複維管束亞屬이 10.3%를 차지한다. 能城修一·佐佐木由香의 연구(2007: 11)에 의하면 위의 4분류군이 전체의 80%이며, 현재 한국의 저지에서 보이는 낙엽활엽수림에 소나무가 혼생하는 삼림을 배경으로 목재가 이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점종 이외로는 벌이 잘 드는 二次林에서 생육하는 굴피나무나 오리나무屬 오리나무節, 시무나무가 많은 편이다. 갈매리 목기의 종류별 수종을 알아본 결과 [표 4]와 같다.

표 4. 갈매리 목기의 수종

種 類	樹 種(수량)		합계
工具	활엽수	상수리나무節(11), 시무나무節(2), 밤나무(1)	14
	침엽수	소나무(1)	1
農器具	활엽수	상수리나무節(4), 오리나무(3), 밤나무(1), 굴피나무(1)	9
	침엽수	소나무(4),	4
生活具	활엽수	오리나무(6), 상수리나무(3), 밤나무(1), 닳나무(1)	11
	침엽수	소나무(2),	2
(建築)部材	활엽수	상수리나무(13), 졸참나무(7), 밤나무(1), 뽕나무(1), 느릅나무(1)	23
	침엽수	소나무(1),	1
用途不明	활엽수	오리나무(3), 밤나무(2), 다래나무(1), 뽕나무(1), 굴피나무(1), 화살나무(1)	9

공구의 경우 상수리나무의 비중이 가장 높다. 상수리나무는 단단하고 강하며 重溝造材 힘을 받는 용도로 많이 이용한다(李弼宇 2004: 79). 목재 쪼기로 추정되는 목기의 경우 모두 상수리나무로 제작되었다. 망치류 또한 일부 상수리나무로 만들어져, 힘의 전달을 요하는 목기의 경우 상수리나무와 같이 재질이 단단한 목재를 선호한 경향이 있다. 망치 중 일부는 시무나무로 제작되었는데, 이 역시 재질이 단단하고 강하다. 특히 침엽수인 소나무를 가공한 것으로 보아 목기가공에 있어서 철기가 흔히 사용된 점이 짐작된다.⁸⁾ 농기구는 오리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리고 소나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상수리나무와 오리나무가 많이 이용된 점은 공구류와 유사하듯이 목재의 단단한 재질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8) 갈매리유적에서 철기는 주거지와 유물포함층에서 총 29점이 보고되었다. 그중 주조팬이가 13점, 단조철부가 7점(추정 1점 포함)이 확인되었다. 그 중 단조철부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벌채도구나 목공도구로의 사용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洪潛植, 2001). 철기가 유구에서 확인되지 않아 동시기를 상정하기는 어렵지만 상호연관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오리나무는 생활구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목재의 재질이 연하여 현재까지도 함지박이나 나막신같은 목기의 재료로 많이 사용되었으며 특히 용기의 소재로 적합하다.

이외에 부재와 용도불명 목기에서도 상수리나무, 졸참나무, 오리나무의 비율이 높다. 문짝의 경우 모두 상수리나무로 제작되었으며, (건축)부재도 역시 참나무류의 비율이 높다. 기둥부재의 경우 졸참나무, 굴피나무, 밤나무가 사용되었는데, 기둥으로 사용하기 용이한 길이의 목재를 선택하여 벌목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의 분류에서는 밤나무의 비율이 높지 않지만, 갈매리유적 전체 목기를 대상으로 한 수종분석을 살펴보면 밤나무의 비율이 23.4%로, 소나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 수종이 많이 이용된 이유로는 지름이 큰 목재를 얻기가 쉽고, 어느 정도 내구성이 있으며, 분할하기도 쉽기 때문에 건축·토목재로서 재질적으로 적당하다. 또한, 당시에 확인되는 도구류로도 벌채하기 쉽다는 점도 고려할 수 있다(이홍중 외 2008).

마지막으로 목기의 생산적인 관점에서 갈매리유적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보자. 갈매리유적은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주거지, 수혈유구, 건물지와 공방지가 확인된 생산유적이다. 목기가 수로(목재밀집지 포함)에서 모두 확인된 점은 보존환경이 뛰어난 이유도 있겠지만, 원목을 임시보관 하였거나 제작 중에 목기를 폐기한 정황으로도 유추해 볼 수 있다.

화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목본화분의 비율이 초본화분보다 현저히 낮아 유적 주변으로 범람한 저지대에서는 산림식생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하였다(이홍중 외 2007). 따라서 목재는 대부분 주변 2次林에서 생육하는 나무들을 선별적으로 채취하여 수로에 임시적으로 보관한 후 실생활에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수로의 폐기양상인지 알 수 없지만 목기 미제품이 다수 출토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목기들은 대부분 가공중인 목재나 원목의 비율이 많고, 완제품은 전체 목기의 수량으로 보았을 때 비교적 낮으며 파손품도 많은 편이다.⁹⁾ 갈매리에서 출토된 359점의 목기 중 위에 분류된 목기는 70여점에 불과하며 비율은 20% 정도다. 가공 중 실패한 목기나 파손품이 수로 내에서 폐기되었을 정황을 고려해도 완제품의 비율이 적은 것은 유적 내에서 굴립주 건물지와 추정 공방지와 같은 생산 관련 유구가 많고, 주거유구의 수가 적은 것과 관련이 있다. 교통에 유리한 곡교천변에 유적이 입지하고 수로와 인접하여 확인되는 굴립주 건물지 및 공방지, 그리고 토기 및 철기와 목기의 생산이 이루어진 점은 갈매리유적을 일반적인 소비취락이 아니라 생산과 교역이 함께 이루어진 특수목적의 유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李弘鍾 2008: 13). 따라서 생산된 목제품의 대부분이 유적 내에서 모두 소비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가공품 또는 완제품의 목기가 어떤 경로로 유통되었는지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¹⁰⁾ 하지만 목재를 가공하여 유통하는 작업이 갈매리유적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9) 조사당시 갈매리유적에서는 많은 목기가 확인되었다. 목기의 상태가 양호하여 기형을 알 수 있거나, 가공흔적이 잘 남아 있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수습하였기 때문에 미제품의 수량은 보고된 목기보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10) 木浦大學校博物館, 1997, 『務安 良將里遺蹟』.

IV. 맺음말

본고에서는 갈매리유적에서 대해서 그동안 연구되었던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목기를 검토 및 분류하였다. 이를 통해서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갈매리 목기의 가공흔을 살펴보면 자귀, 손칼, 톱, 끌, 송곳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 자귀와 도자의 비중이 가장 높다. 목기의 전체 가공단계에서도 자귀가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도자 흔은 주로 완성단계에 확인된다.

두 번째로는 유적에서 원목의 분할 및 가공작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며 목재밀집지뿐만 아니라 수로에서도 저목장의 기능을 담당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세 번째로는 침엽수 및 활엽수를 용도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였다는 점이다. 힘을 전달하는 농공구류의 경우 소나무나, 상수리나무를 선호하였으며, 재질이 연한 오리나무는 주로 용기로 가공하였다. 특히 전체 목기 중 밤나무가 많이 사용되었는데, 건축토목재로서 재질적으로 용이하고 당시 확인되는 도구류로도 쉽게 별채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목제 미제품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유적에서 출토된 목기의 완제품 비율이 낮으며, 분류에서 제외한 일반 부재 및 소재를 포함한 미제품의 비율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 목본화분이 적은 화분분석 결과를 고려하면 二次林에서 목재를 벌목한 후, 생산 및 가공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생산된 목제품이 실제로 사용 또는 유통되었는지 정확한 양상은 파악할 수 없어 향후 검토의 과제로 남긴다.

이상 갈매리유적 목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 유적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각종유구와 출토유물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으며, 논지가 다소 지엽적이었다. 많은 선생님들의 비판과 교시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문헌

- 國立文化財研究所, 2001, 『韓國考古學事典』 .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2008, 『한국의 고대목기』 .
- 2012, 『한국 목기자료집I-농기구 및 공구편』 .
- 國立光州博物館, 2002,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V』 .
- 김권규, 2008, 「한반도 청동기시대의 목기에 대한 고찰」 『한국고고학보』 67.
- 김도현, 2008, 「先史古代 木製農具에 대한 斷想」 『考古廣場』 제4호..
- 2011, 「원시고대의 목제 절굿공이 검토」 『湖南考古學報』 39.
- 김서정, 2010, 「갈매리유적 출토 목제품의 이용 양상」 『韓國上古史學報』 68.
- 신용민·권귀향·이재호·김보숙·노양필, 2009, 『昌原 新方里 低濕地遺蹟』, 東亞細亞文化財研究院.
- 박호석·안승모, 2001, 『한국의 농기구』, 語文閣.
- 李榮文·李正鎬·李映澈, 1997, 『務安 良將里 遺蹟』, 木浦大學校博物館.
- 李彌宇, 1997, 『韓國產 木材의 性質과 用途』, 서울대학교출판부.
- 李弘鍾·朴性姬·李偉珍, 2004, 『麻田里 遺蹟-C地區』,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 이흥중, 2008, 「호서지역의 고고환경」 『湖西地域 邑落社會의 變遷』, 제17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李弘鍾 외, 2007, 『牙山 葛梅里(Ⅲ地域) 遺蹟』, 高麗大學校 考古環境研究所 第26輯.
- 趙現鐘·申相孝·張齊根, 1997,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 國立光州博物館 第33冊.
- 趙現鐘·申相孝·宣在明·申敬淑, 2002, 『光州 新昌洞 低濕地 遺蹟 IV』, 國立光州博物館 第45冊.
- 趙現鐘, 2005, 「低濕地考古學과 木器研究」 『저습지고고학』, 제11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2012, 「신창동유적의 木器와 漆器」 『신창동유적의 木器와 漆器』, 光州 新昌洞遺蹟史蹟指定 20周年 記念 國際學術심포지움.
- 한상효·박원규, 2005, 「百濟 泗泚期 목제유물의 도구흔적 분석」 『韓國考古學報』 55.
- 洪潛植, 2001, 「농기구와 부장유형」 『韓國考古學報』 44.
- 長友朋子, 2008, 「원삼국시대의 생산과 유통-호서지역과 일본근교 지역의 비교연구시론」 『湖西地域 邑落社會의 變遷』, 제17회 호서고고학회 학술대회.
- 山田昌久, 1998, 『木製品の 製作技術-木器-』 .
- 國立奈良文化財研究所, 1993, 『木器集成図録-近畿古代編』 .

A large rectangular frame with a light gra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frame.

MEMO

A large rectangular frame with a light gra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frame.

MEMO

A large rectangular box with a light gray border, containing 25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width of the box, providing a template for a memo or notes.

국제학술심포지엄

한일 고대 목기유물의 연구 성과와 향후 과제

인쇄일 2013. 5. 27

발행일 2013. 5. 29

발 행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용지로 256

TEL 055-211-9000

FAX 055-211-9029

www.gaya.go.kr